이것 THIS TOO, 역시 IS 지도 A MAP

지하 SMB12
UNDERGROUND SMB12

2023. 09. 21 – 11. 19

1 스페이스mm
space mm

2 동수상회 × 월간책방
Dongsu Store × Monthly Bookstore

3 소공 스페이스
Sogong Space

4 해방촌
Haebangchon Village

5 오잇
OEAT

6 서울커뮤니티라디오
Seoul Community

7 콜로라도 프로젝트
Colorado Project

8 SeMA 벙커
SeMA Bunker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안내 책자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A GUIDEBOOK*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안내 책자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A GUIDEBOOK*

2023.09.21. – 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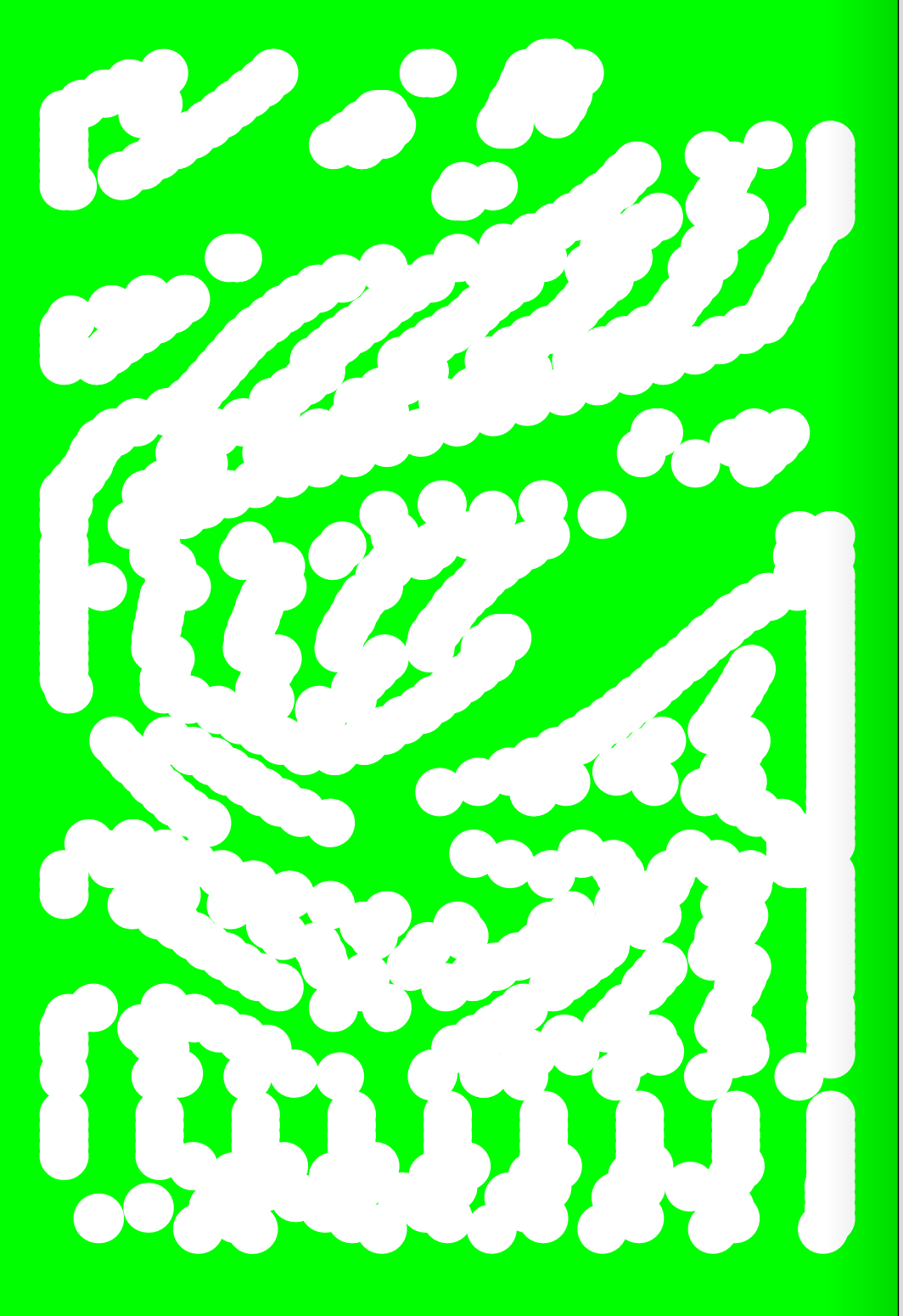
이것 THIS 역시 IS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안내 책자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A GUIDEBOOK*

2023.09.21. – 11.19

TOO, 지도 A MAP



인사말	Foreword	7
SMB12 소개	About SMB12	11
전시	Exhibition	15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16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125
SeMA 벙커	SeMA Bunker	145
스페이스mm	space mm	156
소공 스페이스	Sogong Space	157
서울로미디어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164
협력 공간	Collaborating Spaces	172
행사	Events	189
색인	Index	196

인사말
Foreword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이것 역시 지도》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외에도 서울역사박물관, SeMA 벙커, 스페이스mm, 소공 스페이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여섯 장소에서 전시가 열리고, 열네 곳의 협력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당대의 도시 서울을 '미디어'로 사유하는 비엔날레 본연의 정체성을 되새김합니다. 12회 비엔날레가 제안하는 다양한 '미디어'는 도시에 산재하는 이미지, 텍스트, 사람, 만남, 이야기, 시간으로 둔갑하여 또 다른 '지도'를 그려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납니다.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비엔날레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서울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1996년, 1998년과 1999년 세

I am pleased to welcome everyone to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This year's edition reflects on the inherent identity of the Biennale, which centers around contemplating Seoul at a particular moment in time through "media," as experienced at six different exhibition venues—Seoul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History, SeMA Bunker, space mm, Sogong Space, and Seoullo Media Canvas—and fourteen Collaborating Spaces. The diverse media assembl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SMB12) transforms into images, texts, people, encounters, stories, and time dispersed across the city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kind of "map."

Beginning in 2000 under the title media_city seoul, the Biennale has consistently showcased the contemporary and experimental aspects of art against the backdrop of changes taking place in Seoul and

차례 개최된 '도시와 영상' 전시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도시 서울을 미술의 매체이자 미디어로 주목했던 '도시와 영상' 전시는 전시장을 넘어선 미술의 교류 방식, 도시의 네트워킹, 그리고 상호 교환성을 주목하며 현대미술 전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었다고 자부합니다.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이 개관하면서 미술관 주관의 비엔날레로 이어져 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이후 에디션마다 서울, 미디어, 그리고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으며 고유한 미술 생산의 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2회 비엔날레는 지난 비엔날레를 통해 축적된 여러 관계와 탐구를 기억하고, 여기에 새로운 실험을 추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상을 갱신합니다.

《이것 역시 지도》 전시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오랜 탐구와 사유의 방식을 나누어주신 작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작품 대여를 기꺼이 허락해주신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 쾰른, 고든 로비쇼 뉴욕, 그린 나프탈리 뉴욕, 리손 갤러리 뉴욕, 미사 신 갤러리 도쿄, 멘데스 우드 갤러리 상파울루, EAI 뉴욕, 그리고 개인 소장가 안드레아, 호세 올림피오 페레이라에게 감사드립니다. 비엔날레의 전시와 행사는 여러 후원사와 협력사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개최되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후원해주시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업 후원사 하나금융그룹과 에르메스 코리아,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후원사로 연결된 한화생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협력으로 전시와 사전 행사를 개최하고, 물심양면의 홍보를 도와주신 서울역사박물관, 키아프, 프리즈 서울, 한국관광공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비엔날레의 주인공인 여러 작가분들의 작품 제작과 리서치 여행에 도움을 주신 몬드리안재단,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브라질 외교부 문화원, 주한브라질대사관,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와 영국문화원 그리고 전시와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신 협찬사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과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2회 비엔날레에서 특별히 힘을 쏟은 다양한 출판물과

its media environment during the past two decades. Prior to this, three SEOUL in MEDIA exhibitions held in 1996, 1998, and 1999 were oriented toward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of the Biennale and that of Seoul. I am proud to say that SEOUL in MEDIA, which proposed the rapidly-changing city as an art material and medium unto itself, pioneered a new path in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by fostering artistic exchanges that go beyond galleries, networks in the city, and their exchanges.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has been organized by Seoul Museum of Art since the inauguration of its Seosomun Main Branch in 2002, with each successive edition of the Biennale providing a unique platform for art creation that reflects diverse ideas and activities which resonate with Seoul, media, and time.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looks back on the relationships and explorations that the Biennale has realized thus far and reestablishes a new vision of our time by facilitating further experiment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artists and contributors who have shared their extensive creative inquiries and conceptual processes. Thanks to Galerie Gisela Capitain Köln, Gordon Robichaux New York, Greene Naftali New York, Lisson Gallery New York, Misa Shin Gallery Tokyo, Mendes Wood DM São Paulo, EAI New York, and private collectors Andréa and José Olympio Pereira for loaning artworks to the Biennale. SMB12's exhibitions and events are made possible by our sponsors and partners, and I appreciate the support from our long-time corporate sponsors Hana Financial Group and Hermès Korea, as well as our new patron, Hanwha Life. I am also grateful to the Seoul Museum of History, Kiaf, Frieze Seoul,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 for hosting exhibitions and pre-Biennale events and providing superb support with publicity.

Many of the artworks newly produced in this Biennale wouldn't be possible without support from the British Council, Instituto Guimarães Rosa, and Embassy of Brazil in

행사에 여러가지로 협력해주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주간,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 노르웨이의 콜렉티브 텐트하우스와 한국의 (재)현담문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개월간 '지도 그리기'에 매진해주신 예술감독 레이첼 레이크스와 협력큐레이터 소피아 듀론, 그리고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Seoul. We also owe a gratitude to our sponsors LOTTE DEPARTMENT STORE, Embassy of Italy in Seoul,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and Samsung Electronic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oject. I would also like to acknowledge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Cultural Workers in Solidarity with Ukraine (AWC), the 20th Expe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in Seoul, Hyundammungo Foundation in Seoul, 2023 KOREA ART WEEK, and Norwegian art collective Tenthaus for their cultural collaborations in producing various publications and events to which the Biennale team gave special attention. Lastly, I want to congratulate Artistic Director Rachael Rakes, Associate Curator Sofía Dourron, and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eam who devoted the past twelve months to drawing this map.

Eunju Choi
General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About SMB12 소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는 비영토적 지도 그리기에 관한 생각과 그것의 실행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비엔날레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전지구적으로 진행중인 물리·문화적 변위와 재정착,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와 미디어, 그리고 공존을 위한 협력을 조망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국경, 시스템과 정체성의 문제에 다가갑니다. 이와 같은 작품들과 더불어 이번 비엔날레는 디아스포라와 이주,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영토 밖에서 살아 숨쉬는 사회 생태계를 기반으로 대안적 개념의 매개와 관계맺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제안하는 매개의 방식은 서울 안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국제 관계의 맥락, 그리고 도시와 국가 안팎에서 자의든 타의든 여러 번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는

THIS TOO, IS A MAP,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is organized around ideas and applications of non-territorial mapping. The works on view seek to assemble realistic versions of the borders, systems, and identities guiding life today—from ongoing physical and cultural displacements (and re-placements) taking place worldwide, to seemingly invisible infrastructures and media, to multisituated alliances. SMB12 focuses on alternative concepts of mediating and relating through diaspora and migration, as well as the social ecologies that are situated apart from drawn territories. These practices can be connected to the global relations that are conducted within Seoul and the positions and references of those willingly and unwillingly displaced, often multiple times over, whether inside or outside of the city and state. The Biennale proposes

영토의 경계 밖에 있는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오늘날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국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는 연대, 지하자원의 채굴, 코드화된 방식의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예술적·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등 국경을 넘어 생성되었거나 때로는 강요되기도 하는 여러 시스템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서구의 지도학에 따른 지도가 제시하는 합리주의적 명확성에 반기를 들고, 추상적이고, 감춰졌거나, 모호한 언어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복잡성, 필연적인 불명확성, 다중성과 사변적 경험 안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지도》는 미디어를 소재가 아닌 매개로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하이테크, 로테크, 혹은 노테크의 구분 없이 모든 작품의 형태와 형식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예술 형식의 혼합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기술과 일상의 정량화가 보편화되고 불가피해진 만큼, 오늘날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도 배제하지 않고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수용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구와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발전하므로, '더 단순했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산물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SMB12에서는 40여 명/팀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초청 작가와 함께 수십 여 명의 예술가, 작가, 음악가, 공연가와 학자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각종 대면 및 비대면 행사와 다양한 출판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도》는 네트워크의 형성, 성장과 도전을 장려해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사를 이어가며, 서울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비엔날레 전시는 전시 장소의 지역·공간적 특성에 호응하면서 비엔날레의 주제를 잘 구현한 오브제와 개념을 선별하여, 지난 수십 년간 미술계에 소개된 주요 작품은 물론,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커미션한 여러 신작을 다수 선보입니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형식의

a reconsideration of how today's social and material networks operate amid a dynamic in which so much of what controls daily life takes place outside of territorialization. It looks at systems imposed by or created despite national borders, including transnational solidarities, underground extractions, and coded mappings of data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systems of artistic and political communication. It opposes the sense of rational clarity ostensibly offered by Western cartography and looks to the necessity of abstractions and hidden or obscured language. It sees the current and future world within these complicated, necessarily unclear, multiple, and speculative experiences.

THIS TOO, IS A MAP approaches media as mediation rather than material. Accompanying this proposition is a deliberate display of all artistic forms and formats—be they high tech, lo-tech, or no tech—that speak from many different times and places. An emphasis is also placed on mixing these forms and fostering exchanges among them. In a moment where digital and quantified life has become ubiquitous and unavoidable, it seems especially critical to take up all possible technologies at hand, even those that may seem arcane by today's standards. Tools and technologies develop vis-à-vis all forms of communication and entanglement—while there is no going back to a supposed "simpler time," that which belongs to the past remains in the present.

SMB12's main exhibition presents over 60 works by 40 artists and collectives. Along with these exhibiting artists, dozens of practitioners including artists, writers, scholars, musicians, and performers contribute to live programs that happen in person and online, in addition to multiple publication projects. Expanding on the Seoul Mediacity Biennale's history of creating, nurturing, and challenging networks, *THIS TOO, IS A MAP* takes place across several venues throughout Seoul, each of which presents objects and concepts that respond to the Biennale and react to specific lo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SMB12 includes numerous new commissions and performances alongside key

추상, 추출과 전위,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생태계와 사회적 시스템을 제시하며 비영토적인 지도 그리기를 고찰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요 전시 장소 외에도 여러 협력 공간은 SMB12와 도시 서울을 새롭게 탐색하는 접점을 제공합니다. 이 공간에서 소개되는 콘텐츠들은 전시만큼이나 다양한 생각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서울 곳곳에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 퍼져나가는 비엔날레의 울림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레이첼 레이크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

artworks from the past several decades, which are configured to examine non-territorial mapping through forms of abstraction, extraction, displacement, and networked ecosystems and social systems. The Biennale's venues are joined by an array of collaborating spaces and partners that comprise waypoints for navigating the Biennale and the city. On equal footing with the works on view, these are oriented toward connecting ideas to multiple publics and aimed to reverberate within territorial limits and beyond.

Rachael Rakes
Artistic Director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이것 역시 지도》는 기존의 비엔날레 네트워크를 돌보고, 새롭게 형성하며, 또 다른 방식의 네트워킹에 도전하는 의미로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 있는 전시 장소와 협력 공간에서 소개된다. 비엔날레 전시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층, 근교의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서울로미디어캔버스를 비롯하여, 도시 전반에 펼쳐진 지하 공간을 주목, 여의도의 SeMA 벙커와 미술관 주변 지하상가에 있는 스페이스mm과 소공 스페이스까지 총 여섯 장소를 아우른다. 전시 장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협력 공간에서는 여러 프로그램과 더불어 안내 책자, 소식지, 엽서와 지도를 배포하여 비엔날레와 도시를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Honoring Seoul Mediacity Biennale's tradition of creating new and alternative networks, *THIS TOO, IS A MAP* spreads across multiple venues throughout Seoul. Each distinct location embraces objects and concepts that respond to the Biennale and reflect unique lo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These venues include SeMA Seosomun Main Branch, the neighboring Seoul Museum of History, the outdoor Seoullo Media Canvas, and several underground spaces dispersed around the city such as space mm and Sogong Space—located in an underground shopping center—and SeMA Bunker. Augmenting these venues are a series of collaborating spaces that share programs, postcards, guidebooks, newsletters, and maps to offer additional means of navigating the Biennale and the city.

전시
Exhibition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16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125
SeMA 벙커	SeMA Bunker	145
스페이스mm	space mm	156
소공 스페이스	Sogong Space	157
서울로미디어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164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주중 10AM–8PM
주말·공휴일 10AM–7PM (3월–10월),
10AM–6PM (11월–2월)
월요일 휴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AM–10PM

정동야행 기간
10월 13일(금)-14일(토)
10AM–10PM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버스 서소문, 덕수궁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Weekdays 10AM–8PM
Weekends & Holidays 10AM–7PM (Mar–Oct),
10AM–6PM (Nov–Feb)
Closed on Mondays
Last Wednesday of each month 10AM–10PM

Jeongdong Culture Night
13 (Fri)–14 (Sat) Oct
10AM–10PM

Subway City Hall (Line 1, 2)
Bus Seosomun, Deoksugung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의 주요 전시장이다. 이번 전시는 설치, 시간 기반의 미디어, 회화, 조각, 드로잉, 직물, 벽지,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이주와 변위, '보이지 않는' 구조와 미디어, 공존하는 연대와 같은 글로벌 미학을 탐구한다. 각각의 전시장에서는 대안적 지도 그리기, 추상적인 역사와 정체성, 변위와 이주 경로의 재현,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와 원주민을 통한 소통의 방식 등을 다루는 작품을 소개하며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난 미학의 관점을 제시한다. 미술관의 전시실과 더불어 로비, 마당, 복도, 옥상, 프로젝트 갤러리와 크리스탈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신작과 커미션 작품, 그리고 특별 행사를 소개한다.

The largest manifestation of SMB12's exhibition and programs takes place at SeMA Seosomun Main Branch. Spanning installation, time-based media, painting, sculpture, drawing, textile, wallpaper, and sound, the exhibition explores the global aesthetics of the non-territorial from physical and cultural displacements and replacements, to "unseen" infrastructures and media, to multisituated alliances. Each gallery explores a different approach to non-territorial aesthetics, including artworks that make alternative maps, abstract history and identity, re-present displacement and migration paths, and communicate through cybernetic and indigenous positions. Along with the museum's gallery spaces, its lobby, courtyard, hallways, rooftop, Project Gallery, and Crystal Gallery also present new and commissioned works as well as special events.

1층 First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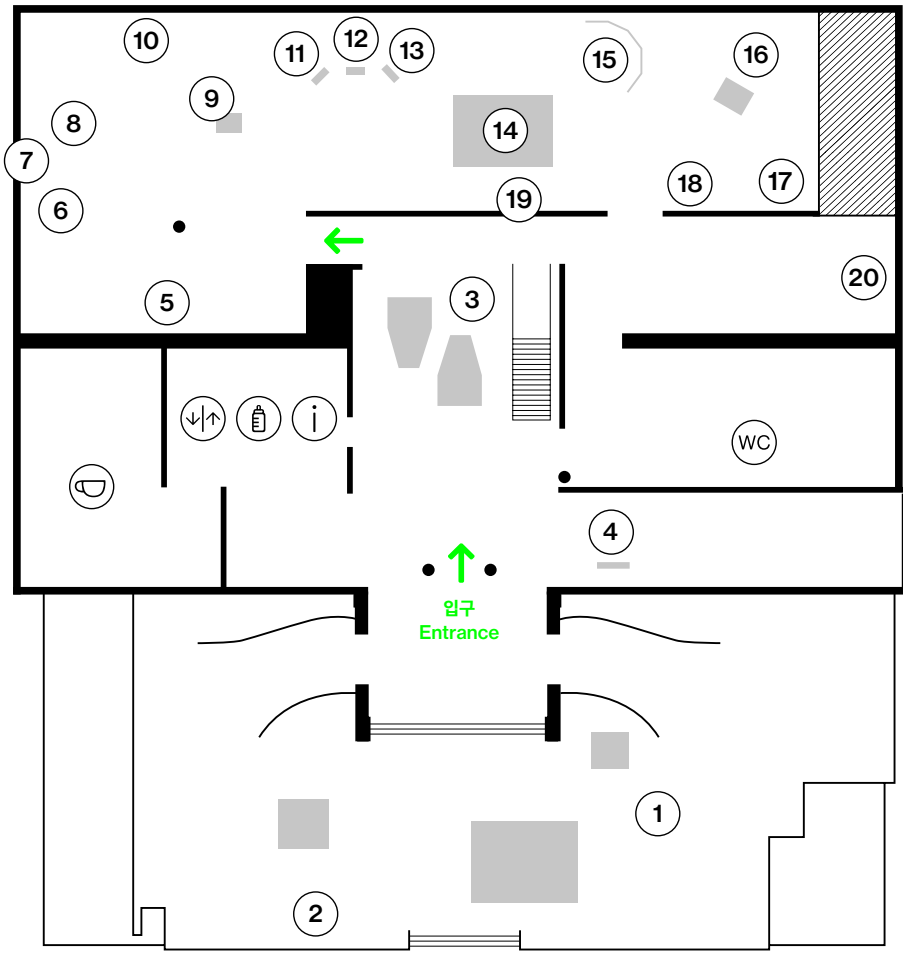
1 20 작품 Artworks

안내데스크 Information

SeMA 카페+ SeMA Cafe+

엘리베이터 Elevator

수유실 Nursing Room



S1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ikkibawiKrrr, *Earth Monument*
2023

S2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Jaye Rhe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S3 토크와세 다이슨,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Torkwase Dyso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S4 권령은,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Kwon Lyoneu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S5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세계 지도〉, 2012
〈신세계 지도〉, 2023
Agustina Woodgate,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2012
The New Times Atlas of the World, 2023

S6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중에서)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7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중에서)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2

S8 구이도 야니토, 〈유찬〉(〈물의 문법〉중에서)
Guido Yannitto, *Yuchán*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9 정소영, 〈섬 그리기〉
Soyoung Chung, *Drawing an Island*
2020

S10 정소영, 〈29.5일〉
Soyoung Chung, *29.5 Days*
2021

S11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1번〉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1*
1976

S12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2번〉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2*
1976

S13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3번〉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3*
1976

S14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아토피아 필드〉
Nolan Oswald Dennis, *Atopia Field*
2021

S15 전현선, 〈이 선을 넘어도 돼〉
Hyunsun Jeon, *Cross My Borderline*
2023

S16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2009-2017

S17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방콕의 기회주의 생태학〉
Animali Domestici, *Bangkok Opportunistic Ecologies*
2019

S18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배수구 아래로: 파충류 이야기〉
Animali Domestici, *Down the Drain: Tales of Reptile Coordination*
2023

S19 토크와세 다이슨,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
Torkwase Dyson, *Kujichagulia (Planning Freedom)*
2023

S20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콘스탄트〉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Constant*
2022

S 1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2023

흙. 가변 크기
'그라운드' 사운드: 최태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작품과 관련한 사운드와 드로잉은 9월 20일부터
3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kkibawiKrrr
Earth Monument, 2023

Soil. Dimensions variable
"Ground" Sound: Taehyun Choi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The audio track "Ground," and drawings made for *Earth Monument* are installed at the 3F Project Gallery.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기록 영상 스틸, 2022. 작가 제공

ikkibawiKrrr, *Earth Monument* documentation still, 2022. Courtesy of the artist

이끼바위쿠르르(고결, 김중원, 조지은)의 시각 연구는 이주의 속성을 파헤쳐온 오랜 경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들의 작품활동은 1990년대 후반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공동체와 협업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점차 그 관심 주제를 개발에 따른 식물의 이동으로 확장하며 식물과 인간의 디아스포라, 산업 문명과 자연 현상 등의 상관관계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룹명 이끼바위쿠르르는 이끼 낀 바위를 뜻하는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가 합쳐진 인공어이다. 이끼는 바위산 비탈처럼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을 법한 곳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한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낯선 땅에 던져져도 쉽게 번식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며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는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땅탑〉은 이끼바위쿠르르가 탐구해온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흙을 빚어 세운 기념비들이 미술관 뜰에 세 개의 군을 이루고 선 모습은 작은 마을이나 신도시를 연상시킨다. 재료로 쓰인 흙은 수도권 위성도시 외곽에서 채집한 먼지와 쓰레기가 섞인 흙이다. 공단이 밀집해 있던 수도권 도시들은 한때 이주 노동자의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 노동자들은 살 곳을 잃었고, 그들의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건설업자들은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거침없이 나무를 뽑거나 베고 있고, 개중에는 수령이 백 년에 달하는 나무도 종종 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이 작품에서 공동체와 나무를 연결해주었던 흙을 도심과 같은 낯선 장소로 옮겨오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개체와 공동체의 이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주의 현실과 삶의 관료주의적 경계에 관한 서사를 드러낸다.

ikkibawiKrrr (Gyeol Ko, Jungwon Kim, and Jieun Cho) develops visual research stemming from their long-term engagement with conditions of migration. The collective's artistic practice began in the late 1990s, focusing on collaborations with migrant workers and communities in South Korea, and has since extended into explorations of the movements of plants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entanglements between plant and human diasporas, industrial civilization, and natural phenomena. In the Korean language, *ikkibawi* means "moss-rock" and *Krrr* is an onomatopoeic expression. Moss is a plant species that adapts to diverse environments, including those that appear otherwise uninhabitable such as rocky ledges on mountainsides. It is exceptionally resilient and able to survive under extreme conditions, since it does not have roots and thus easily reproduces, even when uprooted from its place of origin.

A new iteration of *Earth Monument* commissioned for SMB12 brings together ikkibawiKrrr's past and present investigations. Three groups of soil monoliths stand in the museum's courtyard, evoking a small town or newly developed city, composed of a mixture of soil, debris, and trash collected from the outskirts of Seoul's satellite cities. Formerly home to industrial complexes, these cities were also home to the migrant communities that used to work in the factories, which are now being replaced by apartment blocks. As redevelopment has led to the displacement of migrant workers and dissolution of their communities, large plots of trees—some of which are a hundred years old—have also been uprooted, cut down, or displaced. The transfer of soil that used to connect communities and trees alike to the city center speaks to the movement of human and non-huma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s well as corresponding realities of migration and the bureaucratic boundaries of life.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2, 216

S 2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퍼포먼스 및 음향 설치. 약 10분(퍼포먼스); 8분(음향)
원곡: '아리조나 카우보이'(1955, 전오승 작곡, 김부해 작사). 편곡: 보엠. 퍼포머: 김예원, 닷시냠, 보엠, 스텔라, 아넷, 장웨이, 주영규
퍼포먼스 프로듀서: 신진영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퍼포먼스 일정은 이 책의 행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음향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미술관 마당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Jaye Rhe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Performance and Sound installation.
Approx. 10 min (performance); 8 min (sound)
Original song: "Arizona Cowboy" (1955, composed by Oh-Seung Jeon, lyrics by Bhu-Hae Kim). Arrangement: BOHEME
Performers: BOHEME, Drobotenko Anastasiya, Estela Santana, Idertsog Dashnyam, JOO YOUNGGYU, Ye Won Kim and Zhang Wei
Performance Producer: Jinyoung Shi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The performance schedule may be found in the Events section of this book. The sound recording will play between 11:30-13:00 daily on SeMA's outdoor speakers.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작가 제공

Jaye Rhe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Courtesy of the artist

이재이는 비디오, 사진,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통해 일상의 장소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물리적이고 가상적인 인지 방식을 조작하고, 실재와 일루전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탐구한다. 신체, 공간, 소리, 이미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같은 요소를 결합하여 완성된 작품들은 기억과 환상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언어와 상상, 그리고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세계를 탐색한다.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는 현재 진행 중인 연작의 부분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현재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이 부르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합창 퍼포먼스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발표된 노래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가요로는 처음으로 주류 문화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사례이다. 가사는 '미국식 서부'에 대한 클리셰로 점철된 환상에 기대어 있으며, 이것은 전후 남한에 존재하는 미군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 노래는 돌아갈 수 없는 이상화된 과거와 외부적 요인으로 이주를 경험한 후 '귀향'을 갈망하는 한국인 공통의 갈망에 말을 걸고 있다.

Manipulating physical and virtual perceptions of everyday places, Jaye Rhee's videos, photographs, and performances explore and challenge distinctions between concepts of reality and illusion. Her works combine elements of the body, space, sound, image, and the flow of time to reveal gaps in memory, and fantasy and explore language and imagination, and seeing and knowing.

In her performanc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which corresponds to a larger ongoing work, a choir of foreign singers residing in Korea performs the work's eponymous song. Originally released in Korea in 1955 following the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it became the first Western-influenced Korean pop song to enter the country's cultural mainstream. Its lyrics rely on clichéd fantasies of "the American West,"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he lingering U.S. military presence in postwar South Korea. The song also speaks to the desire of several generations of Koreans to return "home," a sentiment provoked by forced displacement and longing for an impossible return to an idealized past.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3, 216

S 3

토크와세 다이슨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2023

나무합판, 금속, 아크릴. 가변 크기
건축 어시스턴트: 아누셰 이라비
현지 프로덕션: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Torkwase Dyso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Plywood, metal, acrylic. Dimensions variable
Architectural assistant: Anoushae Eirabie.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S 4

권령은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2023

퍼포먼스. 20분
컨셉 및 안무: 권령은. 리서치 및 어시스턴트: 권예진
퍼포머: 송명규, 이재린, 이혜상, 전보람, 정지혜
사운드 디자인: 지미 세르. 사진 및 영상 기록: 글림워커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Kwon Lyoneu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Performance. 20 min
Concept and Choreography: Kwon Lyoneun
Research and Assistant: Kwon Yejin
Performers: Jun Bo Ram, Jung Ji Hye, Lee Hye Sang, Lee Jae Rin, Song Myung Gyu
Sound design: Sert Jimmy. Photograph and video: GLIMWORKER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S 19

토크와세 다이슨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 2023

나무, 종이에 흑연, 플렉시글라스, 종이에 잉크, 아크릴.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Torkwase Dyson
Kujichagulia (Planning Freedom), 2023

Wood, graphite on paper, plexi, ink on paper, acrylic.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토크와세 다이슨 〈생동감(복합 스칼라 운동 #1)〉, 뉴욕 페이스 갤러리 전시 전경, 2022. 사진: 멜리사 굿윈. 작가 및 페이스 갤러리 제공

Torkwase Dyson *Liveness (Multi-Scalar Motion #1)*, 2022. Exhibition view at the Pace Gallery, New York, 2022. Photo: Melissa Goodw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Pace Gallery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7, 209, 222, 225

토크와세 다이슨의 작품은 환경적 착취와 억압의 체계로 인해 얽혀진 폭력성의 반대에서 크고 작은 방식의 자유가 표현되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기 위한 형상적 실천이다.

조각, 드로잉, 건축 설계, 회화, 퍼포먼스, 애니메이션과 글쓰기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작품 세계는 움직임과 규모에 관한 질문을 동반한다. 다이슨의 작가적 실천은 즉흥성 시학과 내재된 저항의 행위로, 공간과 지각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선과 기하학적 형상을 통해 드러난다.

작가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맥락에서 공간적 자유 전략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작품들은 유색 인체의 관점과 경험에서 형태와 공간을 질문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소개되는 신작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은 오랜 시간 지속해온 큰 규모의 건축적 조각의 연장에서 진행된 작가적 연구와 한국의 '후기' 식민주의적이고 다세대적 인프라와 환경적 폭력에 관한 탐구가 중첩된 작품이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공간적 형태에 결합된 인체 크기의 조각은 식민주의의 형태 언어를 추상성으로 전환한다.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권령은과의 협업으로 흑인과 한국의 환경적 삶의 역사를 연결하는 퍼포먼스 신작을 창작하였다.

이번 신작의 작업, 연구와 속성을 상호 보완하는 의미로, 작가는 뉴욕 비콘의 작가 스튜디오와 서울에서 부분 제작된 드로잉, 글, 오브제로 구성된 설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는 작가가 오랜 기간 동안 방대한 범위의 연구와 즉흥적인 인상을 기록한 스케치와 드로잉 행위를 담은 일종의 관념적 지도이다. 작품의 구성은 로비에 설치된 큰 조각의 요소들을 해체하여, 관련한 독서, 관찰, 글쓰기, 실험을 비롯한 작가의 예술 실천 전반에 관한 과정을 담고 있다.

Torkwase Dyson's work is informed by the large and small ways freedom is expressed and new worlds are imagined in opposition to the tangled violences of environmental exploitation and systems of oppression.

Questions of movement and scale are present across her work employing sculpture, drawing, architectural planning, painting, performance, animation, and writing. In Dyson's practice the poetics of improvisation and acts of embodied refusals are expressed through lines and geometries indelibly tied to space and perception.

Dyson focuses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Black spatial liberation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American life. Her seemingly abstract works question form and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periences of black and brown bodies.

In a new installation work, Dyson has conducted a research process that continues her long-running, large-scale formal architectural series.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merges these enquiries with an investigation of Korean "post"-colonial and intergenerational infrastructural and environmental violence. Along with a human-scaled sculpture referencing joined spatial forms of these traumas, turning the shape language of colonization into abstractions to be embodied, Dyson has collaborated with Seoul-based choreographer Kwon Lyoneun to create a new series of performances bridging the histories of Black and Korean environmental life.

Complementing and witnessing the work, research, and formal attributes of the new sculpture, Dyson has assembled an installation consisting of drawing, writing, and objects that have been made in part in the artist's studio in Beacon, New York, and part in-process while in Seoul. *Kujichagulia (Planning Freedom)* comes together as a mental map of a broad range of research, of the act of sketching and drawing from long study and immediate impression. They are deconstructions of the components of Dyson's large sculptural work here, and elaborations of its connected readings, observations, writing, and formal experiments, as well as the process of her practice as a whole.

토크와세 다이슨 〈탄애하는 고요(초형상)〉, 뉴욕 페이스 갤러리 전시 전경, 2022. 사진: 멜리사 굿윈. 작가 및 페이스 갤러리 제공

Torkwase Dyson, *Beloved Stillness (Hypershape)*, 2022. Exhibition view at Pace Gallery, New York, 2022. Photo: Melissa Goodw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Pace Gallery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7, 209, 222, 225

S 5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세계 지도〉, 2012

손으로 샌딩한 550쪽의 지도. 46 × 63 cm
작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제공

〈신세계 지도〉, 2023

주문제작 자동 페이지 플리퍼, 스캐너, 주문제작 생성시스템. 가변 크기
AI 스크립트와 이미지 생성 시스템 개발: 브와제이 코토프스키. 3D 모델링과 로보틱스: 헤르만 페레즈, 이성은. 전기 디자인: 가브리엘라 문기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및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제작 지원
작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제공

Agustina Woodgate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2012

550-page hand sanded Atlas. 46 × 63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ro, Buenos Aires

The New Times Atlas of the World, 2023

Custom automatic page flipper, scanner, custom generative system. Dimensions variable
AI Research and Generative System Development: Błażej Kotowski. 3D Modelling and Robotics: Germán Pérez, Sungeun Lee
Electronic design: Gabriela Munguí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Barro, Buenos Aires, and Adam Mickiewicz Institut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ro, Buenos Aires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신세계 지도〉, 2012. 사진: 마리아노 코스타 페우세르. 작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제공

Agustina Woodgate, *The New Times Atlas of the World*, 2012. Photo: Mariano Costa Peus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ro, Buenos Aires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의 예술적 수행은 조각, 설치, 공적 개입,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의 개발과 가공을 통해 일상의 삶을 구성하는 인프라, 정보 기술, 권력 체계 간의 관계 변화를 드러내고 촉진하는 연구와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세계 지도〉는 작가의 2012년 작 〈세계 지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지도 그리기와 기술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준다. 원작은 지도와 색인 페이지를 사포로 문질러 국가, 국경, 정치적 지표, 주요 랜드마크 등의 지도학적 재현을 지운 550쪽 분량의 지도책이다. 작가는 식민지적 지도의 자의적인 경계를 추상적이고 텅 빈 시각장으로 전환하여, 서구의 지도학으로부터 탈학습을 제안하고, 대안적인 지도그리기의 경험과 탐험을 촉진시킨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롭게 구성된 작품의 설치에는 지도책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계 장치와 책장이 넘겨질 적 마다 책을 스캔하는 자동 스캐너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풍경을 상상하고 확산하는 도구이자 매개가 되는 지도와 동시대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워진 지도의 이미지를 스캔하면, 스크립트가 활성화되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신경망의 숨겨진 층으로 확장된 구조를 해석한다. 광범위한 데이터 셋의 딥 러닝으로 생성된 숨겨진 층은 스크립트에 의해 계속해서 변형되며, 이와 같은 과정은 원작업—사포로 문질러진 물리적 지도에 반향을 부르며 가상의 재현물을 침식하고 재형성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물리적인 지리만이 아니라 공간, 경계와 분리에 관한 인간의 이해까지 반영하고 이루어진다. 2012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작 방식을 역행하여 설계된 이 작품은 더 이상 식민주의 팽창의 대상이 아닌, 볼 수 있는 지리와 추상적 개념의 영역 사이를 오가는 예술적 상상과 신경망 학습의 결합체로서 세계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Through sculpture, installation, public interventions, social interactions, and data development and manipulation, Agustina Woodgate's practice foregrounds research and processes that reveal and seek to chang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rastructur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power systems that configure daily life.

The New Times Atlas of the World takes the artist's 2012 work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as its point of departure to reimagine notions of mapping and technology. The original work comprises a 550-page atlas in which the maps and indexes have been sanded down, thereby erasing their cartographic representations of nation-states and borders, political markers, and landmarks. By reshaping the arbitrary demarcations of colonial mappings into an abstract and muted visual field, Woodgate proposes an unlearning of Western geography that facilitates alternative mapping experiences and explorations.

New additions of a mechanical page flipper and automated scanner continuously scan the book from cover to cover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further highlighting the role of maps as tools and contemporary technologies as agents in the distribution and imagination of the landscape. As an image of an erased map is scanned, a script activates to interpret its structure, extending into a hidden layer of the neural network responsible for image creation. This hidden layer, molded through deep learning on an extensive dataset, is continuously transformed by the script, in a way that echoes the sanding of the physical map, eroding and reshaping the virtual representations. These changes reflect not only physical geography but also human understanding of space, boundaries, and divisions. This system reverse-engineers the operation done by hand in 2012. It renders a new image of the world that is no longer an object of colonial expansion, but a combination of artistic imagination and neural net learning, an interplay between tangible geography and the territory of abstract concepts.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0, 211

S 6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3

양모 직물. 200 × 126 cm
직조: 에두아르도 카시미로(아르헨티나 살타 루라카타오 계곡의 라 살라 커뮤니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heep's wool tapestry. 200 × 126 cm
Weaver: Eduardo Casimiro (Community of La Sala, Luracatao Valley, Salta, Argentin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S 7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2

양모 직물. 255 × 245 cm
직조: 페르난도 루에다(아르헨티나 살타)
작가 제공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2

Sheep's wool tapestry. 255 × 245 cm
Weaver: Fernando Rueda (Salta Capital, Argentina)
Courtesy of the artist

S 8

구이도 야니토
〈유찬〉 (〈물의 문법〉 중에서), 2023

양모 직물. 250 × 202 cm
직조: 페르난도 루에다(아르헨티나 살타)
작가 제공

Guido Yannitto
Yuchán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heep's wool tapestry. 250 × 202 cm
Weaver: Fernando Rueda (Salta Capital, Argentina)
Courtesy of the artist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2. 사진: 세실리아 튜튜얀과 이바나 살피티. 작가 제공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2. Photo: Cecilia Lutufyan and Ivana Salfity.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197, 215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3.
사진: 세실리아 루투판과 이바나 살피티. 작가 제공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Photo: Cecilia Lutufyan and Ivana Salfity.
Courtesy of the artist

구이도 야니토

구이도 야니토는 직물을 하나의 매체이자 기술로서 탐색한다. 그는 직조 장인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직조 공예가 가진 물질적, 개념적, 정서적 잠재성에 주목하면서, 전통과 역사, 계보와 정체성, 문화의 전수와 번역에 관한 생각들을 탐구한다.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의 직조 공예가들과 협업하고, 산업적인 기법들을 접목하여 만든 이 작품에서 '하드 테크놀로지'와 '소프트 테크놀로지'가 얽히며 고대와 현대의 역사와 언어가 교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의 오해와 디지털 기술의 오류는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힌다. 우리 몸에 각인된 기억, 기계에 저장된 정보, 그리고 이들의 부딪힘은 특정 시공간의 맥락과 만나며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물의 문법〉 연작에서 작가는 세 명의 직조 장인과 함께 살타 지방의 수변 경관과 물의 지도를 따라가는 작업을 보여준다. 개인의 상상력, 지도 작법을 모사한 표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왜곡이 어우러진 각각의 직물은 토지와 자원을 향한 투쟁의 역사를 표상하는 추상적 기표가 된다. 작가와 직조 장인들은 협업 과정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는 영토 분쟁에 관한 대화의 주제를 모색하고, 모든 강의 기원이자 물과 물고기의 수호자인 유찬의 신화를 비롯해 지역 대대로 전승된 민속 신화를 작품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야니토의 작품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사는 현대와 고대의 추상적 이미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상상을 이끌어내고, 영토에 관한 정의를 촉구하는 언어를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아르헨티나 북부의 시적 유산을 계승한다.

GUIDO YANNITTO

Guido Yannitto explores tapestry as a medium and a technology. Through collaborative work wi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e considers the material, conceptual, and affective possibilities of weaving as he experiments with notions of tradition and history, genealogy and identity, and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By combining collaborations with weavers from Salta, Argentina and industrial techniques, he works through the entanglements between hard and soft technologies as well as between ancestral and contemporary histories and languages. As a result, collisions between human misunderstandings and digital glitches are central to his pieces, which serve as unique expressions of bodily and machine memories in a particular time and space.

In his *Water Grammar* series, Yannitto traces water landscapes and hydric maps of Salta in collaboration with three local weavers. Between cartographic representations, individual imaginations, and digital distortions, these works become abstract signifiers of historical struggles for land and resources. The artist and the weavers tap into local myths such as that of Yuchán, the origin of all the rivers of the region and keeper of its waters and fishes, while also delving into communal conversations around territorial conflicts. In Yannitto's works, colonial representations of the American territory are re-imagined through a convergence of contemporary and ancestral abstractions, using a language that expresses claims for territorial justice and the poetic inheritance of the Argentine North.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197, 215

S 9

정소영
〈섬 그리기〉, 2020

비디오 설치. 5분 33초(비디오, 반복재생);
50 × 122 × 79 cm(나무 박스)
작가 제공

Soyoung Chung
Drawing an Island, 2020

Single channel video on plinth. 5 min 33 sec (video, loop); 50 × 122 × 79 cm (wooden box)
Courtesy of the artist

정소영
〈섬 그리기〉 스틸, 2020.
작가 제공

Soyoung Chung,
Drawing an Island still, 2020.
Courtesy of the artist

정소영의 작품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마주하며 수집한 사소한 사물이나 버려진 생명체의 잔재, 부스러기, 흔적, 지층, 껍질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는데서 출발한다. 작가는 유기 물질, 지질학, 우주, 지정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공간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 기반의 설치, 조각, 영상 작품을 소개해 왔다. 그의 작품은 생태적이고 시민적인 삶에서 이러한 관념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보며 장소성과 경계의 형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형상화한다.

비디오 설치 작품 〈섬 그리기〉는 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 작품이다. 배는 뒷편으로 밧줄을 늘어뜨린채 시계 방향으로 반복해서 이동하며, 배의 움직임에 따라 그려지는 하얀 거품은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가 이내 소멸한다. 이 작품은 한국의 남해에 있지만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이라고 주장하는 물에 잠긴 바위섬, 이어도의 지정학적이고 신화적인 지위를 호출한다. 이어도라는 공간에 투영된 정치적 복잡성과 유토피아적 신화 사이에서, 작품은 장소를 뒤덮고 있는 실재와 상상의 관념, 그리고 해결 불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긴장감을 탐험한다.

Soyoung Chung's practice carefully studies the minor and discarded remnants of life forms—objects, crumbs, traces, strata, and peelings—that she encounters and collects amid her day-to-day routine. Stemming from her focus on organic materials, geology, the cosmos, and geopolitics, Chung produces research-based installations, sculptures, and videos that observe the forms of these phenomena on spatial and ontological levels. Her works explore formations of placeness and boundaries by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these notions unfold in ecological and civic life, thereby shaping our approach to navigating the world.

The video installation *Drawing an Island* assumes a bird's eye perspective of a ship constantly turning clockwise while dragging a rope behind it, which causes the ocean's white foam to appear and disappear. The video invokes the geopolitical and mythical status of Ieoh Island, a submerged rock located in Korea's Southern Sea that is also claimed by China as a part of i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inking between the political complexity of space and its portrayal as a mythical utopia, the work explores the intrinsic tensions that suffuse real and imagined notions of place, as well as the impossibility of their resolution.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4, 221

S 10

정소영
〈29.5일〉, 2021

유리, 서해안 갯벌에서 가져온 진흙, 에폭시, 알루미늄.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Soyoung Chung
29.5 Days, 2021

Glass, mud from the west coast, epoxy, aluminum.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정소영 〈29.5일〉, 2021. 작가 제공

Soyoung Chung *29.5 Days*, 2021. Courtesy of the artist

〈29.5일〉은 지구와 달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해수면의 높이 - 만조와 간조에 관한 작품이다. 작가는 간조 때 갯벌 흙을 가져와 물의 흔적이 새겨진 갯벌의 음각 형태를 유리로 캐스팅하고 유리형태를 다시 에폭시로 굳힌 갯벌흙으로 캐스팅하여, 땅과 바다 사이의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뒤집어지는 풍경을 선반 또는 좌표같은 알루미늄 판에 가깝고 멀어지는 시간의 시퀀스로 표현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해안 지역과 풍경을 형성하는 지구, 달, 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태, 그리고 시간과 주기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수집하고 기념하는 작가의 예술적 수행을 일종의 '집합체'로서 보여준다.

29.5 Days is a project that thematizes tides—oceanic changes in water level generated by the fluctuating gravitational force between the earth and the moon. Chung collects tidal flat soil with traces of water from which she casts glass shapes that are later cast into a mix of tidal flat soil hardened with epoxy. These objects are displayed on shelves in between aluminum plates at intervals that refer to space-time coordinates, creating a landscape where the boundaries of time between land and sea are blurred and reversed. In Chung's treatment of these objects, they become conglomerates of her practice of collecting and commemorating time and its cycles, as well as the shifting states of the earth, moon, and water that constantly shape coastal territories and landscapes.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4, 221

S11—S13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1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3분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기초 지도 2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4분 16초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기초 지도 3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3분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1,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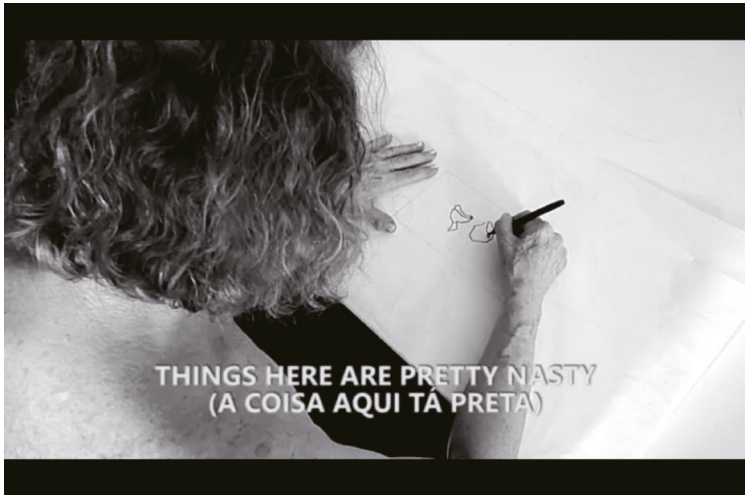
Video (black and white, sound). 3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Mapas elementares no.2, 1976

Video (black and white, sound). 4 min 16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Mapas elementares no.3, 1976

Video (black and white, sound). 3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2번〉 스틸, 1976.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 2* still, 1976.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아나 벨라 가이거는 오늘날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로 남미의 개념 미술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 회화, 프린트, 드로잉, 조각, 사진, 포토 몽타주, 복제 사진, 영상, 교육학적 작업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가로지르는 여러 작품은 언어와 재료를 이용해 특유의 비판적인 논평과 여성주의적 탐색을 구축한다. 1950년대 초 비정형적 추상성에서 출발했던 작품 세계는 신체와 자아의 표현, 브라질 역사,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투쟁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 왔다.

아나 벨라 가이거의 1970년대 이후 작품 세계에서 지도와 지리는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이주민이자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자기 경험을 다루고, 지리와 지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지도의 원기능을 뒤집어 일종의 이념적 선언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에 몰두했다. 〈기초 지도〉 연작에서 상의를 걸치지 않은 작가가 브라질 지도를 그리는 토르소를 볼 수 있으며, 이 작품에서 아나 벨라 가이거의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기하학적 그리드, 왜곡된 평면-구, 남미 대륙의 윤곽이 일그러져 목발이 되고, 부적이 되고, 여인이 되기도 하는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이 비디오 연작은 사회, 정치, 사상, 문화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성찰의 결과물이자, 영토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이전 세대가 물려준 세계 질서를 다시 쓰려는 지난한 도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Anna Bella Geiger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artists working in Brazil today and a pioneer of conceptual and video art in South America. Throughout her career, she has worked in a diverse range of mediums including painting, printmaking, drawing, sculpture, photography, photomontage, photocopies, video, and pedagogic practices. Through multiple languages and materials, she has affirmed her commitment to critical rhetoric and a feminist exploration of the world, beginning with informal abstraction in the early 1950s and evolving to engage with representations of the body and the self, as well as Brazil's history, cultural identity, and political struggles.

Since the 1970s, maps and geographies have occupied Geiger's work. Informed by her experiences as a migrant and a subject to state violence, Geiger developed an interest in subverting the descriptive meanings of maps and transforming them into ideological propositions. In the series *Mapas elementares 1*, *2*, and *3*, the artist's naked torso can be seen as she draws maps of Brazil, appearing alongside other recurring elements such as geometric grids, distorted planispheres, and anamorphic outlines of South America that become a crutch, an amulet, and a woman. These works are a testament to Geiger's critical reflection on social, political, ideological, and cultural realities, sustaining her long-standing quest to rewrite an inherited world order by transforming the meaning of territory itself.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0, 212

S 14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아토피아 필드〉, 2021

바닥 다이어그램. 500 × 750 cm
카페트 제작: 얀카페트, 서울
팔레 드 도쿄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는 아프리카의 탈식민화와 흑인 해방의 물질적, 형이상학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지질학적 조건, 즉 일각에서 '흑인 관점의 공간 인식'이라 일컫는 주제를 탐구한다. 이와 같은 주제는 각종 도식, 드로잉, 모형의 형태로 구체화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 언어는 서구의 특징으로 여겨져 온 지식의 합리성, 그리고 서구의 지식 유통 수단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를 드러내거나 감추는 수단이 된다. 작가가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다이어그램은 새로운 정치·공간적 상상을 촉발하는 의미와 관계를 재구성하고, 종국에는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아토피아 필드〉는 식민지 공간의 지리를 상상하여 펼쳐 보이는 다이어그램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해방과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가상의 영토, 국가와 도시는 일견 해석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다이어그램 안에 가상으로 존재한다. 작가는 작품을 바닥에 놓아 관객이 밟고 지나가거나 그 위에 앉거나 누울 수 있게 하며, 허구의 공간에 물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사회정치적 상상을 새로운 지도의 형식으로 담아내며,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대안적인 영토에 관한 주장이 되기도 한다.

Nolan Oswald Dennis *Atopia Field*, 2021

Floor diagram. 500 × 750 cm
Carpet Production: Yann Carpet, Seoul.
Commissioned by Palais De Tokyo and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Nolan Oswald Dennis explores the material, metaphysical, political, economic, geographic, and geologic conditions of African decolonization and black liberation, or what they call a "black consciousness of space." These ideas materialize in diagrams, drawings, and models that use scientific and technical languages to reveal and obscure the hidden structures behind the alleged rationality of Western knowledge and its means of circulation. Dennis's diagrams negate notions of rationality by reconfiguring meanings and relationships that spark new political and spatial imaginations.

In *Atopia Field*, Dennis uses the diagram as a tool to trace imaginary geographies of colonial space. They map imagined or propositional territories, nations, and cities drawn from the histories of Pan-African liberation and diaspora, which are situated in the format of a legible yet ambiguous diagram. By displaying the work on the floor and allowing people to walk or lay on it, Dennis imbues imaginary space with physicality. In so doing, they aim to create a tool to remap via African socio-political imaginaries and assert other possible territories for collective habitation.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아토피아 필드〉 팔레 드 도쿄 전시 전경, 2021, 사진: 오렐리 앙블, 작가 제공

Nolan Oswald Dennis, *Atopia Field*. Exhibition view at Palais de Tokyo, 2021. Photo: Aurélien Mole.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197, 219

S 15

전현선
〈이 선을 넘어도 돼〉, 2023

캔버스에 수채, 나무 프레임, 알루미늄 스탠드
337 × 728 cm (각 112 × 145.5 cm)
작품 연결장치 제작: WA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Hyunsun Jeon
Cross My Borderline, 2023

Watercolor on canvas, wooden frame, aluminum stands. 337 × 728 cm
(112 × 145.5 cm each)
Stand production: WA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전현선
〈이 선을 넘어도 돼〉, 2023.
사진: BAUfoto. 작가 제공

Hyunsun Jeon
Cross My Borderline, 2023.
Photo: BAUfoto. Courtesy of the artist

전현선의 회화는 지배적인 언어, 정의, 경계가 암시하는 권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거나,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류 방식을 탐험하여,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의 합성을 전달한다. 파노라마로 펼쳐진 캔버스는 대칭적 시점을 따라 여러 형태의 도형이나 일상의 오브제로 이루어진 분절된 풍경으로 채워져 있다.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으로 표현된 시각 요소들은 특정 풍경이나 자연 현상처럼 단일한 해석에 묶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를 구축하며 다양하게 중복되는 여러 레퍼런스를 섬세하게 경유한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분열되고 비선형적인 역사와 삶의 파편에서 기억을 복구하고자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회화 설치 작품 〈이 선을 넘어도 돼〉는 기하학적 녹색과 반복적인 갈색 형상으로 이루어진 여러 캔버스가 모여 하나의 대형 이미지를 구성한다. 각각의 캔버스는 여러 형상을 서로 겹쳐지거나 어긋나게 배치하여 산과 나무 등의 자연물을 상상한다. 이와 같은 전현선의 시각적 구현 방식은 풍경에 관한 오래된 회화와 과학사를 배경에 두고, 그림과 지도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여, 영토를 시공간에 고정된 합리성의 영역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해석한다.

Hyunsun Jeon's paintings convey a synthesis of the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by exploring the ways such categorizations are blurred, and questioning notions of authority implied by a dominant language, definition, or borderline. Populating her panoramic canvases are fragmented scenes that adopt contrasting perspectives and juxtapose various geometric shapes and everyday objects. Although such elements rendered in multiple color spectrums may suggest particular landscapes or natural phenomena, they do so via a language of abstraction that intentionally evades any singular point of reference and instead delicately taps into several overlapping ones. The resulting works attempt to recover memories from fragments that point to the fractured and non-linear nature of history and life itself.

In *Cross My Borderline*, Jeon's new installation at SMB12, recurring motifs of geometric green and brown shapes are scattered across multiple canvases that constitute a single large-scale image, each positioned such that they overlap and divide as a means of invoking natural entities such as mountains and trees. Implicating a long-standing pictorial and scientific history of landscapes as backdrops or static entities, Jeon's paintings embody an outlook that interprets territory as an animate and mutable organism which exceedss rational imperatives, anchoring them in time and space through a combination of painting and mapping.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3, 215

전현선 HYUNSUN JEON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3, 215

S 16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2009-2017

드로잉 10점. 45 × 45 cm; 53 × 61 cm; 각 36 × 51 cm(4점); 34.5 × 50 cm; 116 × 69.5 cm; 30 × 41.5 cm; 45 × 29.5 cm

단채널 비디오와 드로잉 3점. 8분(비디오, 반복재생); 75 × 105 cm; 80 × 120 cm; 56 × 76 cm

올리브 나무 조각 5점. 46 × 30 × 20 cm; 각 16 × 17 × 6 cm(2점); 각 18 × 10 × 6 cm (2점); 24 × 10 × 5 cm; 26 × 16 × 6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2009-2017

10 drawings. 45 × 45 cm; 53 × 61 cm; 36 × 51 cm each (4 pieces); 34.5 × 50 cm; 116 × 69.5 cm; 30 × 41.5 cm; 45 × 29.5 cm

Single channel video and 3 drawings. 8 min (video, loop); 75 × 105 cm; 80 × 120 cm; 56 × 7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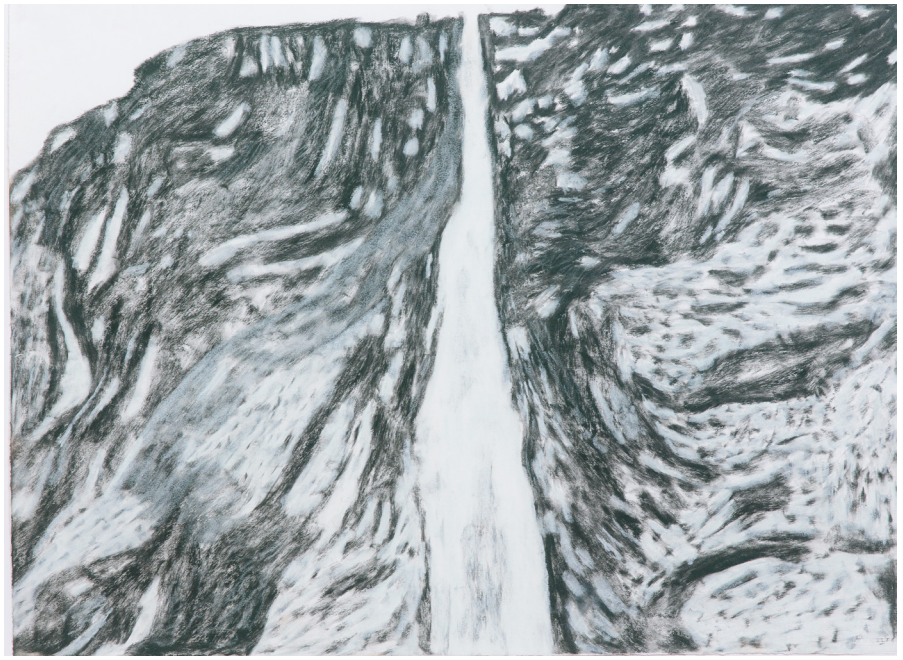
5 olive wood sculptures. 46 × 30 × 20 cm; 16 × 17 × 6 cm each (2 pieces); 18 × 10 × 6 cm each (2 pieces); 24 × 10 × 5 cm; 26 × 16 × 6 cm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 바위〉, 2009-2017. 사진: 이사 프레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 The Rock*, 2009-2017. Photo: Issa Freij.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4, 217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 폭포 II〉, 2009-2017.
사진: 이사 프레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 Waterfall II*, 2009-2017.
Photo: Issa Freij.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주마나 에밀 아부드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깊이 뿌리내린 박탈, 상실, 회복에 관한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살려내는 작품을 창작한다. 작가는 전통적인 유산과 동시대적 접근 방식을 직조하여, 풍경과의 연결과 단절에서 비롯되는 그리움, 소속감, 단절의 감정을 탐구하는 드로잉, 비디오, 퍼포먼스, 오브제와 텍스트를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노스탤지어를 쫓지 않고, 오히려 인간과 비인간 관계의 맥락에서 다시 풍경을 상상하길 제안하며, 이를 통해 땅과 기억 간의 두터운 관계를 조명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제작된 드로잉, 조각, 비디오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이 시기 동안 작가는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한 때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졌지만 세월이 흐르며 소실되고, 잊혀지거나, 지워진 물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함께 기억, 스토리텔링, 상상의 공간을 환기하고, 지도학의 한계를 초월하며, 팔레스타인 땅의 비영토적 지도를 드러낸다.

Jumana Emil Abboud creates works that dwell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narratives of dispossession, loss, and resilience rooted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She weaves together folklore and contemporary accounts to create drawings, videos, performances, objects, and texts exploring sentiments of longing, belonging, and separation that emerge from connections and disconnections to the landscape. Rather than relying on nostalgia to manifest these ideas, she proposes a reimagining of the landscape in the context of human and non-human relations, thereby illuminating the deep connections between land and memory.

The works presented by Abboud at SMB12 include drawings, sculptures, and a video produced between 2009 and 2017. During that period, she worked with communities across Palestine to collect stories linked to sites of sacred waters that have been lost, forgotten, or erased over time. The resulting works collectively unveil a depiction of Palestinian lands that invoke a space of memory, storytelling, and imagination.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4, 217

S 17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방콕의 기회주의 생태학〉, 2019

아크릴 천에 인쇄, 자수. 300 × 300 cm
협업: 듀 티쿰폰 파니차칸, 마테오 마라벨리, 핀 푸나라 프라추아브모
싱가포르 NTU 현대미술센터(CCA) 제작 지원
작가 제공

Animali Domestici *Bangkok Opportunistic Ecologies*, 2019

Print on acrylic fabric with embroideries
300 × 300 cm
Collaborators: Dew Tikumporn Panichakan, Matteo Marabelli, Pinn Phunnara Prachuabmoh
Realized with the support of NTU Centre for Contemporary Art (CCA),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S 18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배수구 아래로: 파충류 이야기〉, 2023

아크릴 천에 인쇄. 125 × 400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Animali Domestici *Down the Drain: Tales of Reptile Coordination*, 2023

Print on acrylic fabric. 125 × 400 c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아니말리 도메스티치(알리시아 라자로니와 안토니오 베르나치)는 실험적이고 사변적인 과정을 통해 자연과 문화에서 나타나는 정상, 비정상과 유사-정상의 구분, 혹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탐구하는 예술과 디자인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이론, 디자인, 인류학과 공예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탐구한다. 이들이 다양한 첨단 기술과 손으로 완성한 작품들은 사용자와 물질의 생태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을 대안적이고 포괄적으로 모아 보여준다.

〈방콕의 기회주의 생태학〉은 인간이 아닌 비단뱀의 관점으로 방콕의 도시성을 재현하는 직물 작품이다. 작품을 이끄는 주요 시각 언어는 태국 전통 벽화의 표현 기법, 주요 색상이나 공간적 구성에 관한 연구를 기반에 두고 있다. 짧게 '비단뱀이 경험하는 방콕 지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연작은 비단뱀 외에도 다양한 생태종을 묘사하는데, 이와 같은 시점의 전환은 인간중심적 사고와 인간 예외주의를 역설한다.

지난 작업의 연결상에서 완성된 〈배수구 아래로: 파충류 이야기〉는 일화적이고 분석적인 지도 그리기의 잠재력과 역할을 반영하며, 현장 답사에서 직접적인 관찰의 방법론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작품이다. 방콕의 도시 비단뱀은 이 작품에서도 실패한 인프라 구조, 이동의 물류, 민첩한 야생 생태계, 얽히고설킨 인간과 비인간의 이야기, 대중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맥락을 분리하고 낯설게 하기를 주도하는 시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지도 그리기는 시각적 기록으로 구성된 공간을 읽기 위한 횡단초점, 다중 시간 인식과 다중 관점의 결합을 촉구한다.

Animali Domestici (Alicia Lazzaroni and Antonio Bernacchi) is an art and design duo whose projects traverse distinctions between the quotidian, and abnormal, and the dichotomies of the human and non-human through an experimental and speculative process. They explore ecology from perspectives of systems theories, design, anthropology, and craft. Their resulting crafted works are often situated in the ecological and relational process of users and materials coming together in alternate and inclusive manners.

Bangkok Opportunistic Ecologies is a textile piece that reproduces Bangkok's urbanity from a python's perspective. The dominant visual language in the work i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painting techniques, major color schemes, or spatial designs in traditional Thai murals. The project also portrays diverse ecospecies other than the python, as well as relations with and around it—the switch of perspective urges against anthropocentric strategies and human exceptionalism.

A continuation of previous work, *Down the Drain: Tales of Reptile Coordination* is a reflection on the role and potential of anecdotal and analytical mapping, focusing on environmental relationships through a methodology of fieldwork based on direct observation. Bangkok urban pythons are again the leading figures to disentangle and defamiliarize a context made of failing infrastructure, logistics of displacement, agile feral ecologies, intertwined human and non-human stories, and popular beliefs. As a consequence, the mapping makes use of transcalar methods, multi-temporal awareness, and plural perspectives to come together in the constructed space of a visual document.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1, 211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방콕의 기회주의 생태학〉, 2019.
작가 제공

Animali Domestici, *Bangkok Opportunistic Ecologies*, 2019.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201, 211

S 20

사샤 리트빈체바 & 베니 바그너 〈콘스탄트〉, 2022

비디오 설치. 40분
제작: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기욤 카이요
설치 협력: 이사벨 오그덴, 마테오 마스트란드레아 (OBSCENE)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미디어보드 및 독일 연방 정부 문화 미디어부 제작 지원. 작가 제공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Constant*, 2022

Video installation. 40 min
Produced by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and Guillaume Cailleau. Installation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Isabel Ogden and Matteo Mastrandrea (OBSCENE)
Supported by Medienboard Berlin Brandenburg and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Courtesy of the artist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콘스탄트〉 스틸, 2022. 작가 제공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Constant* still, 2022. Courtesy of the artist

사샤 리트빈체바와 베니 바그너는 2018년부터 진행된 공동 작업을 통해 몸과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지식의 권력과 구조를 연구하며, 자연계의 조직과 인식 방식을 포착하는 비디오와 설치 작품을 소개해 왔다.

〈콘스탄트〉는 측량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역사를 살펴보는 작품이다. 영화는 측량 표준화의 역사를 살펴보며, 근대 유럽의 토지 사유화를 주도한 토지 측량부터 미터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을 거쳐 동시대의 빅 사이언스가 만든 측량의 개념적 비물질화까지 세 번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변화의 시기마다 측량 표준화가 평등주의, 기관, 정의와 권력의 개념과 맺는 관계를 추적한다.

지도와 매우 유사한 측량 시스템은 세계에 관한 추상적인 모델을 제공하며, 그것의 질적 경험을 양적 데이터로 대체하여, 세상의 지식과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중화하고, 실제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이념적 약속을 강화한다. 영화는 측량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그것의 논리가 흔들리는 순간 터무니없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이며, 코믹한 것으로 변하는 지점을 살펴본다. 360도 카메라 사진 측량법부터 라이브 액션 푸티지와 다이어그램까지 다양한 이미지 메이킹 도구로 편집된 영화는 이미지 자체가 측량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측량 너머 어디에나 존재함을 체험하게 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작가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설치를 통해 영화의 주제들을 탐험한다. 공간에 들어서면 관객은 공간을 나누는 네 개의 LED 조명 기둥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중 가운데 두 개의 조명은 표준 미터를 가리킨다. 조명의 맞은 편에는 1905년 삽화가이자 애니메이터인 윈저 맥코이의 만화 〈작은 새미의 재채기〉를 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닥 전체를 가로지르는 시트지는 거리를 반으로 무한히 나누는 고대 그리스의 사고 실험인 제논의 역설 중 하나를 참고로 구현되었다.

Since 2018, artists Sasha Litvintseva and Beny Wagner have worked collaboratively to produce videos and installations that investigates the body and its surroundings, study knowledge regimes and power, and apprehend modes of organizing and perceiving the natural world.

Constant explores social and political histories of measurement. The film deals with three shifts in the history of measurement standardization, from the land surveying that drove Early Modern European land privatization, to the French Revolution that drove the Metric Revolution, to the conceptual dematerialization of measurement in the contemporary era of Big Science. Each chapter traces the relationship of measurement standardization to ideas of egalitarianism, agency, justice, and power.

Much like maps, measurement systems produce abstract models of the world. By substituting qualitative experience with quantitative data, they propose and reinforce the ideological promise of accurately capturing the real, only by neutralizing other modes of knowing and being in the world. The film engages with measurement systems at their edges, where their logic falters and turns into something at once absurd, violent, tragic, and comic. Using a variety of image making tools, from photogrammetry to 360 degree cameras, live action footage, and diagrams, the film shows that images themselves are measurement systems, while simultaneously revealing the ubiquitous presence of experience beyond measurement.

For the exhibition at SMB12, the artists explore themes from the film in a new multimedia installation composed of three main features. On entering, viewers encounter 4 LED light bars that divide the space, with the two in the middle marking the standard meter. Facing the light beams is a reproduction of a comic *Little Sammy Sneeze* by illustrator and animator Winsor McCay from 1905.
A large vinyl cutout crosses the entire floor, referencing one of Zeno's Paradoxes, an ancient thought experiment on the infinite subdivision of a distance by ha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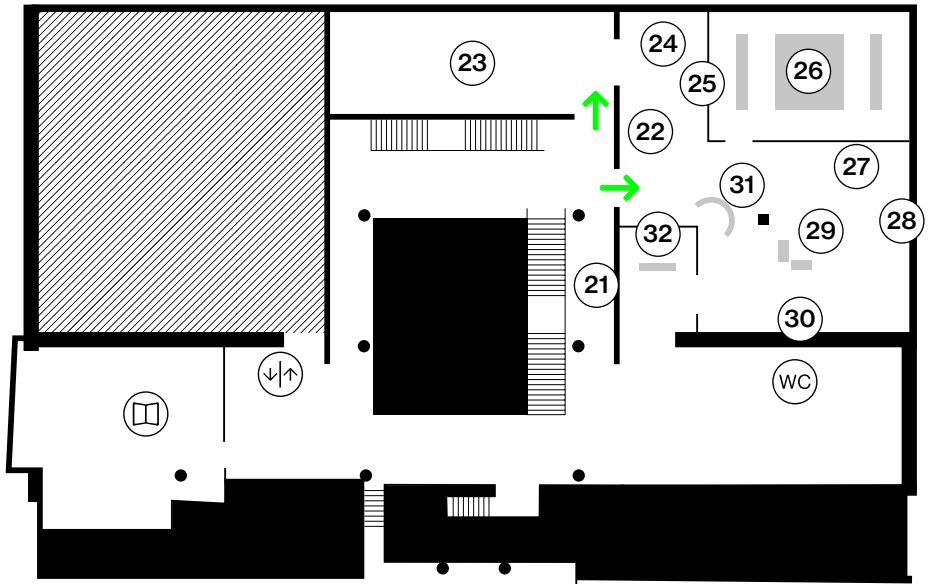
배치도 FLOOR PLAN p.18
색인 INDEX p.199, 220

2층 Second Floor

21 32 작품 Artworks

엘리베이터 Elevator

도서관 Library



S21 사노우 우마르, Sanou Oumar
〈*6/15/20*〉
2021

S22 엘레나 다미아니, 〈달보다 빛나는〉
Elena Damiani, *Brighter than the Moon*
2016

S23 찬나 호르비츠, 〈오렌지 그리드〉
Channa Horwitz, *Orange Grid*
2013-2023

S24 차학경, 〈입에서 입으로〉
Theresa Hak Kyung Cha, *Mouth to Mouth*
1975

S25 스테파니 제미슨, 〈무제(거친 투상)〉
Steffani Jemison, *Untitled (Rough Projection)*
2023

S26 쉔신, 〈ས་གཞི་སྔོན་པོ་འགྱུར། [지구는 푸르네]〉
Shen Xin, ས་གཞི་སྔོན་པོ་འགྱུར། *[The Earth Turned Green]*
2022

S27 엘레나 다미아니, 〈불규칙성 대리석 V〉
Elena Damiani, *The Erratic Marbles V*
2022

S28 사노우 우마르, Sanou Oumar
〈*11/7/21*〉, 〈*11/20/21*〉, 〈*12/3/21*〉, 〈*12/14/21*〉, 〈*12/15/21*〉, 〈*12/21/21*〉, 〈*12/22/21*〉, 〈*12/25/21*〉, 〈*1/3/21*〉, 〈*3/3/22*〉, 〈*5/28/21*〉, 〈*6/30/21*〉, 〈*03/01/2022*〉,
2021-2022

S29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이시비바네〉
Nolan Oswald Dennis, *Isivivane*
2023

S30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출현의 표면(두폭화)〉
Christine Howard Sandoval,
Surface of Emergence (diptych)
2023

S31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Série Indícios [단서 연작]〉
Anna Maria Maiolino, *Série Indícios [Indexes series]*
2000/2003

S32 텐진 푼초그, 〈순수한 땅〉
Tenzin Phuntsog, *Pure Lan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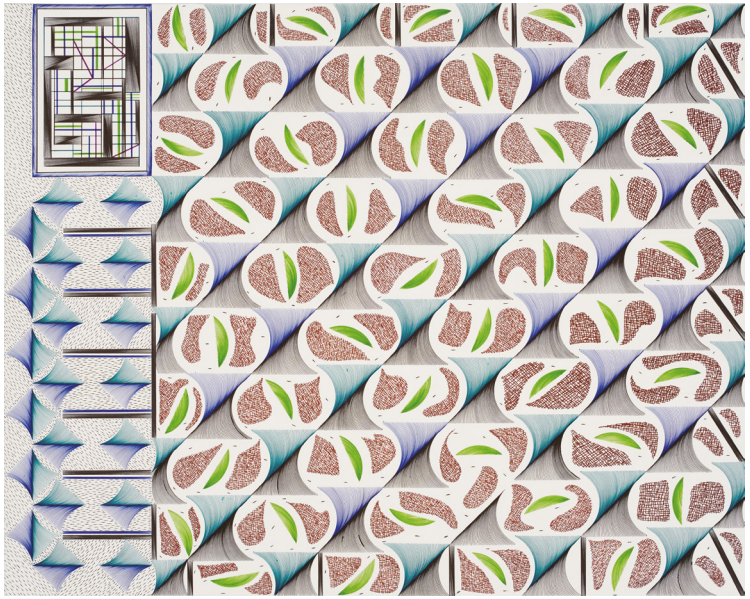
S 21

사노우 우마르
〈6/15/20〉, 2021

벽 설치.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마하람 디지털 프로젝트 제공

Sanou Oumar
6/15/20, 2021

Wall covering.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Maharam Digital Projects



사노우 우마르, 〈03/01/2022〉, 2022. 사전: 라이언 페이지. 작가 및 뉴욕 고든 로비쇼 제공

Sanou Oumar, *03/01/2022*, 2022. Photo: Ryan P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Gordon Robichaux, New York

사노우 우마르는 세상을 맵핑하는 추상과 상상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종이, 펜, 마커, 그리고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을 사용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원형, 반복, 결합, 확장과 같은 시각적 모티브는 한편으로 작가의 기하학, 연속성, 차원성과 같은 개념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천상계와 우주의 삼라만상을 담아내는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벽지 형태로 바뀐 드로잉은 관람객을 작가의 기하학적인 형태, 색, 반복, 원형의 세계로 초대한다. 그의 독특한 시각 언어는 미술관의 벽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작가의 내면이 이해하는 시공간, 나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언어의 탐구가 내재된 패러다임—우리 식민 유산의 경직된 지도학 안에서 움직임의 가능성을 찾아 변위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통합된다.

In his drawing practice, Sanou Oumar uses readily available materials such as paper, pens, and markers as well as the foundational elements of art including point, line, and plane to produce abstract and imaginary mappings of the world. Recurring motifs of circularity, repetition, combination, and expansion reflect his interest in geometry, continuity, and dimension while evoking a Buddhist mandala, which serves as a model of the heavenly world and all creations in the universe.

The transposition of his drawings into wallpaper invites viewers to enter the artist's world of geometric shapes, colors, repetition, and circularity. Expanding to the museum's walls, the artist's inner understanding of space and time as well as the ways in which he inhabits the world coalesce into an embodied paradigm that explores abstract and obscure languages, navigating displacement while locating possibilities of movement within the rigid cartographies of our colonial inheritance.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199, 220

S 22

엘레나 다미아니 〈달보다 빛나는〉,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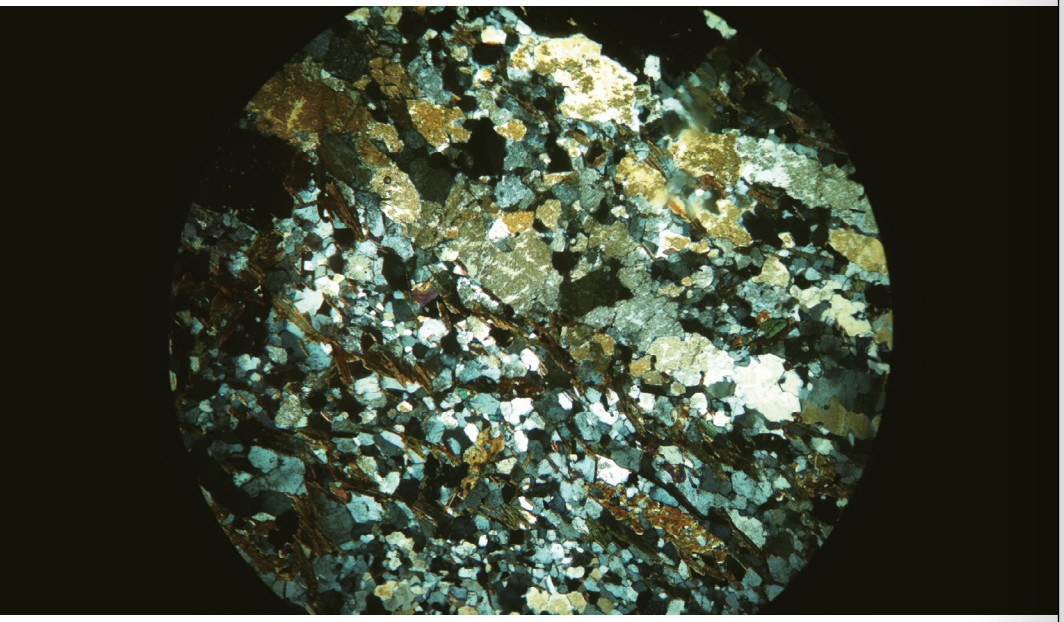
단채널 비디오 프로젝션과 사운드
8분 16초. 작가 제공

Elena Damiani *Brighter than the Moon*, 2016

Single channel video projection with sound
8 min 16 sec. Courtesy of the artist

엘레나 다미아니, 〈달보다 빛나는〉 스틸, 2016. 작가 제공

Elena Damiani, *Brighter than the Moon* still, 2016. Courtesy of the artist



엘레나 다미아니는 지질학, 고고학, 지도작성학 등 각종 학문 분야의 문헌을 비판적으로 탐구하여 사회이자 공간으로서 현재에 도달하는 길을 추적한다. 작가는 책, 사진, 영상, 공공 기록물, 돌멩이와 광물 등 발견한 사물들을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하고, 시간, 공간, 역사, 영토와 지식에 관해 고정된 관념이 되는 정신적인 구축물을 콜라주, 인쇄물, 영상, 설치, 조각 등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지구 역사를 새롭게 기억하는 경로와 그것의 비선형적 서사를 드러낸다.

8분 길이의 비디오 〈달보다 빛나는〉은 유럽우주국(ESA)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지구 근방의 천체 영상을 지구에 떨어진 운석 샘플의 현미경 사진과 교차 편집하여 보여준다. 작품은 소행성, 운석, 혜성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만 드러내고, 우주에서 촬영한 행성의 표면이나 현미경 사진의 세부처럼 스케일이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혼합하여, 정의할 수 없는 광물의 표면처럼 보이는 풍경을 구현한다. 지질학적 규모와 시간의 크기를 탐구하는 작품은 행성의 역학, 표현 양식, 감각에 의한 인식 방식 등에 관한 지배적인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간과 장소의 교차를 통해 여러 평행 현실이 공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lena Damiani's practice traces routes to the social and spatial present by critically engaging with scientific archives related to fields of knowledge such as geology, archaeology, and cartography. Damiani reworks found materials including books, photographs, video footage, and public records, as well as a variety of stones and minerals. These materials are extracted from their original contexts, transformed, and presented in new configurations—collages, prints, videos, installations, and sculptures—that posit fixed notions of time, space, history, territory and knowledge as psychological constructs, unfolding new memory paths and non-linear narratives of planetary history.

The 8-minute video *Brighter than the Moon* is composed of found footage of near-earth objects sourced from ESA and NASA, which are cross-spliced with microphotographs of meteorite samples found on Earth. Images of asteroids, meteorites, and comets are only partially shown in this work, comprising a multi-scalar collage that includes large surfaces as well as microscopic details from outer space, thereby merging both into an undefined mineral landscape. By exploring the magnitude of geological scale and time, *Brighter than the Moon* questions dominant understandings of planetary dynamics, representations, and modes of sensing, and proposes a multiplicity of parallel realities of intersecting times and places.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2, 214

S 23

찬나 호르비츠 〈오렌지 그리드〉,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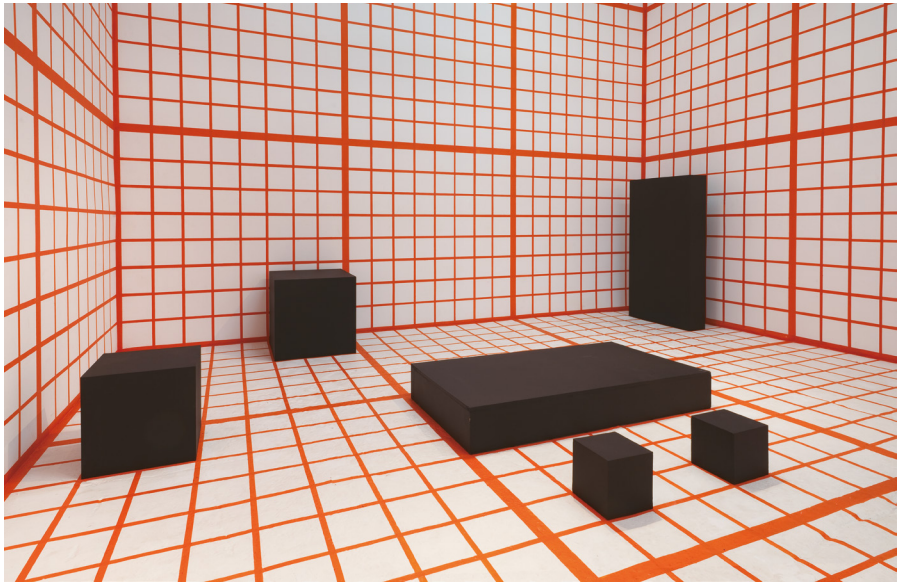
벽과 바닥면 설치, 격자 무늬 벽지와 검은 목재 다각형. 373.3 × 1831 × 549.3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리손 갤러리 런던, 뉴욕, LA, 상하이와 베이징 제공

Channa Horwitz *Orange Grid*, 2013-2023

Wall and floor installation, vinyl and black wooden polygons. 373.3 × 1831 × 549.3 c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Lisson Gallery, London, New York, LA, Shanghai, and Beijing

찬나 호르비츠, 〈오렌지 그리드〉, 2013. 사진: 로버트 베데마이어. 작가 및 개벨리 갤러리 제공

Channa Horwitz, *Orange Grid*, 2013. Photo: Robert Wedemeyer. Courtesy of the artist and Ghebaly Gallery



찬나 호르비츠의 작품에서 특징적인 기호성과 형식성은 그래프 종이에 그린 초기 드로잉에서 비롯되며, 이는 훗날 '소리 sona'와 '움직임 kina'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소나키나토그래피'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한 작가는 표준화된 격자에 기반한 드로잉, 회화, 설치 작품을 제작하고, 지시적인 선, 모양, 색상의 합으로 구성된 어휘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언어는 1부터 8까지 숫자에 기반하는데, 여기에 작가는 각기 다른 색상을 배정하여 시간, 움직임, 소리, 리듬의 주기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작가 스스로 제한한 자원과 선택의 폭은 의미나 공시의 제약 없이 독특한 언어 탐색을 불러일으키고, 우연과 불완전함을 위한 공간을 열어젖힌다.

거대한 설치 작품 〈오렌지 그리드〉는 호르비츠의 '소나키나토그래피' 연작의 규칙을 따르되, 평면의 그래프 종이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한다. 전시 공간의 바닥과 벽을 뒤덮은 격자 무늬 안에는 검은색 정육면체가 여러 개 놓여 있고, 관객은 이것을 직접 움직여서 다각형으로 재구성하며, 작가가 만든 시공간의 조건을 새롭게 형성한다. 언어와 제스처를 최소한의 요소로 압축한 이 설치 작품은 '격자'라는 엄정하게 합리적인 공간과 고정된 조건을 바꾸기 위해 개입하는 인간의 마찰이라는 반대항 간의 개념적 간극을 탐구한다.

The notational and formal tendencies of Channa Horwitz's practice stem from her earliest drawings on graph paper, which she later developed into a system called "Sonakinatography," which derives from the words "sona" (sound) and "kina" (movement). Using this system, Horwitz produced drawings, paintings, and installations based on standardized grids and deployed a vocabulary formulated using a set of prescribed lines, shapes, and colors. This visual language is based on the numbers one through eight, to which she assigned different colors in order to express notations of time, movement, sound, and rhythm. Such self-imposed scarcity of resources and options yielded a distinctive exploration of language without the limitations of meaning and connotation, opening up space for chance and imperfection.

The immense installation *Orange Grid* follows the precepts of Horwitz's Sonakinatography series and extends the planar presence of graph paper into three-dimensional space. The grid subsumes the floors and walls of the exhibition space, with the work's black ink squares becoming portable polygons that viewers are invited to manipulate and thus reshape the space-time conditions created by the artist. By distilling language and gestures into minimal elements, the installation explores the conceptual gap between the rigidly rational space of the grid and its inverse of human friction that intervenes to alter this fixed condition.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5,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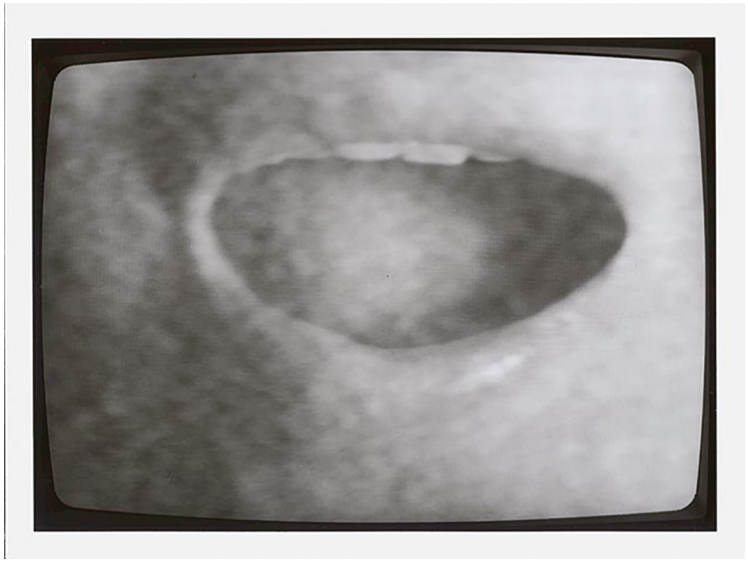
S 24

차학경
〈입에서 입으로〉,
1975

단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8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소장. 테레사 학경 차 기념재단 기증
저작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뉴욕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AI) 제공

Theresa Hak Kyung Cha
Mouth to Mouth,
1975

Single channel video, black and white, sound. 8 mi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Gift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Memorial Foundation. Copyright: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ourtesy of the Electronic Arts Intermix (EAI), New York



차학경, 〈입에서 입으로〉 스틸, 1975. 뉴욕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AI) 제공

Theresa Hak Kyung Cha, *Mouth to Mouth* still, 1975. Courtesy of the Electronic Arts Intermix (EAI), New York

차학경의 작품 세계는 문화적, 지리적, 혹은 사회적인 변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하나로 연결된다. 작가는 퍼포먼스, 아티스트북, 구체시, 영화, 비디오, 조각, 메일 아트, 오디오, 슬라이드 영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적, 종교, 가족과 언어의 고정된 체계에 말을 걸고, 그것을 모호하게 하여, 이주의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사이' 상태,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언어와 시간으로 만들어진 시각적이고 음향적인 움직임과 배치들은 이동되어 불확실한 정체들을 위해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경계의 공간을 호출한다.

〈입에서 입으로〉 비디오는 화면에 '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등장하고, 이어서 한글 모음의 자소가 차례로 따라온 후, 소리 없이 이 모음들을 차례로 읽는 입 모양을 비추며 시작된다. 작품에서 모호하고 둔감하게 처리된 이미지와 소리는 어렵고 불완전한 말하기의 물리적인 행위를 대변하며, 식민주의와 이주의 경험을 반향한다. 여기서 한국어는 오랜 시간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망명으로 인해 침묵해야 했던 고향의 정서적 경험과 민족적 소속감을 연결하는 모국어 역할을 한다.

Theresa Hak Kyung Cha's oeuvre is united by a prevailing focus on displacement, be it cultural, geographical, or social. Throughout her performances, artist books, concrete poetry, film, video, sculpture, mail art, audio, and slide projections, Cha contends with the physical and emotional in-betweenness of migration by addressing and blurring fixed systems of nationality, religion, family, and syntax—and therefore the self. The visual and sonic shifts and juxtapositions in language and time that she creates invoke liminal spaces which redraw maps for the indeterminate identities of the displaced.

In her video *Mouth to Mouth*, the word "mouth" appears on screen in English, followed by a series of Korean vowel graphemes and a mouth that silently forms these vowels. With its images blurred and sound muffled, this work renders the physical act of speaking difficult and incomplete, echoing experiences of colonization and displacement. The Korean language thus serves as a mother tongue that links the affective experience of home and the feeling of national belonging, both of which have long been silenced by imperialism, war, and exile.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5, 222

S 25

스테파니 제미슨
무제(거친 투상), 2023

은도금 유리, 아크릴 페인트, 광택제
각 37.5 × 26.4 × 0.6 cm(5점)
작가 및 뉴욕 그린 나프탈리 제공

Steffani Jemison
Untitled (Rough Projection), 2023

Silvered glass, acrylic paint, lacquer
37.5 × 26.4 × 0.6 cm each (5 piece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reene Naftali, New York

스테파니 제미슨, 무제(거친 투상), 2023. 사진: 제산 아메드. 작가 및 뉴욕 그린 나프탈리 제공

Steffani Jemison, *Untitled (Rough Projection)*, 2023. Photo: Zeshan Ahmed. Courtesy of the artist and Greene Naftali, New York

비디오, 드로잉, 회화, 퍼포먼스, 키네틱 조각, 글쓰기 등 여러 매체를 넘나드는 스테파니 제미슨은 드로잉, 움직임, 토착 역사와 문화의 융합이 낳은 다양한 산물을 사유하며 활동한다. 작가의 여러 작품은 코드화되고 형식화된 재현의 방식을 상상하고, 언어의 한계와 활용을 형상화하며, 즉흥, 반복, 그리고 진보에 관한 관념의 여러 층위와 그 안에 내재된 긴장을 드러낸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소개하는 신작 무제(거친 투상)은 작가가 발견한 유리에 작가가 손으로 은칠을 하고, 부분적으로 긁어 내거나 에칭을 하여 벗겨낸 다음, 손과 붓으로 장식 무늬를 입혀 완성되었다. 작품은 화성암과 상호 작용하여 마치 검은 칠판에 흰 문자를 쓴 것과 같은 문양을 그려내는 광물적 작용으로 생겨난 '돌 위에 쓴 한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 졌다고 한다. '돌 위에 쓴 한자'는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과 중국 후난성 양쯔강 계곡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작가는 거친 석판을 찾아, 이것을 스캔한 다음, 작은 샘플에서 아주 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징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간단한 AI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문자를 분리하였다. 작가는 '돌 위에 쓴 한자'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무늬가 반복되는 문자 형상과 닮아 있다고 보고, 이번 드로잉 신작 다섯 점을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삼게 된다. 작품들은 작가가 돌에서 찾은 자국, 로마 문자의 >, 7, /, L, I, \와 유사한 형상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준다.

무제(거친 투상)은 필사나 지도이기 보다는 일종의 '사이 감각을 공유'하는 다이어그램과 같다. 이 작품들은 추상적인 형태와 풍경에 연루된 언어와 드로잉의 여백을 더듬어, 새로운 소통의 매핑의 형태를 구축한다.

Working across mediums of video, drawing, painting, performance, kinetic sculpture, and writing, Steffani Jemison considers the byproducts that arise from the confluence of drawing, movement, gesture, and vernacular culture. Her works illustrate the limits and applications of language by imagining coded and formal modes of representation, revealing the intrinsic tensions that suffuse layers of improvisation, repetition, and ideas of progression.

Jemison's new *Untitled (Rough Projection)* works are made from found glass that has been hand-silvered in her studio. The silver is then selectively removed through scratching and etching, and embellished with marks made by hand and brush. The works are inspired by a type of basalt colloquially called "Chinese writing stone." It is derived from minerals that interact with igneous rock to form marks that resemble white glyphs on a black chalkboard. Chinese writing stone is found in the Sierra Nevada mountains of California and in the Yangtze River Valley of Hunan Province, China.

Jemison obtained rough stone slabs, scanned them, and isolated individual glyphs using simple AI tools built into imaging software to create very large images using a small sample. In the case of Chinese writing stone, these patterns resemble repeated glyphs, which are a starting point for the drawing compositions in these five works. They emphasize a set of marks Jemison found frequently in the stone, which resemble these roman glyphs: >, 7, /, L, I, \.

Rather than transcribe or map, the *Untitled (Rough Projection)* works share with diagrams a sense of in-between-ness. By tracing the margins of language and drawing as they relate to abstract forms and landscapes, the works forge new forms of communication.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0, 221

S 26

쉔신

〈ས་གཞི་སྔོན་པོ་འགྱུར། [지구는 푸르네]〉, 2022

3채널 비디오, 사운드. 38분 39초
티베트어 번역: སྐྱིད་དར་འཛོམས། [스키 트라좀사]
목소리: སྐྱིད་དར་འཛོམས [스키 트라좀사], 쉔신
극장 조명 기사: 카일 가벨, 색채: 제이슨 R. 모팻
사운드 믹스: 요헨 예즈세크. 한글 번역: 문경원
뉴욕 스위스 인스티튜트, 맥나이트 파운데이션 더 넥스트 스텝 펀드, 미네소타 시스터 데니스 프랜드럽 레지던시 프로그램, 광저우 타임스 미술관 및 상하이 마델린 갤러리 제작 지원. 작가 제공

Shen Xin

ས་གཞི་སྔོན་པོ་འགྱུར། [The Earth Turned Green], 2022

3 channel video, sound. 38 min 39 sec
Tibetan Translator: སྐྱིད་དར་འཛོམས། [Skyi Trazomsa]
Voices: སྐྱིད་དར་འཛོམས། [Skyi Trazomsa], Shen Xin
Theatre Light Technician: Kyle Gavell
Colorist: Jason R. Moffat. Sound Mix: Jochen Jezussek. Korean Translator: Won Moon
Supported by Swiss Institute in New York, the Next Step Fund by the McKnight Foundation, the Sister Dennis Frandrup Artists in Residence Program in Minnesota, Times Museum in Guangdong, and MadeIn Gallery in Shanghai. Courtesy of the artist

쉔신, 〈ས་གཞི་སྔོན་པོ་འགྱུར། [지구는 푸르네]〉, 쿤스트베렌 가르텐하우스 전시 전경, 2023. 사진: kunstdokumentation.com. 작가 및 비엔나 쿤스트베렌 가르텐하우스 제공

Shen Xin, *ས་གཞི་སྔོན་པོ་འགྱུར། [The Earth Turned Green]*. Exhibition view at the KUNSTVEREIN GARTENHAUS, 2023. Photo: kunstdokumentation.c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NSTVEREIN GARTENHAUS, Vie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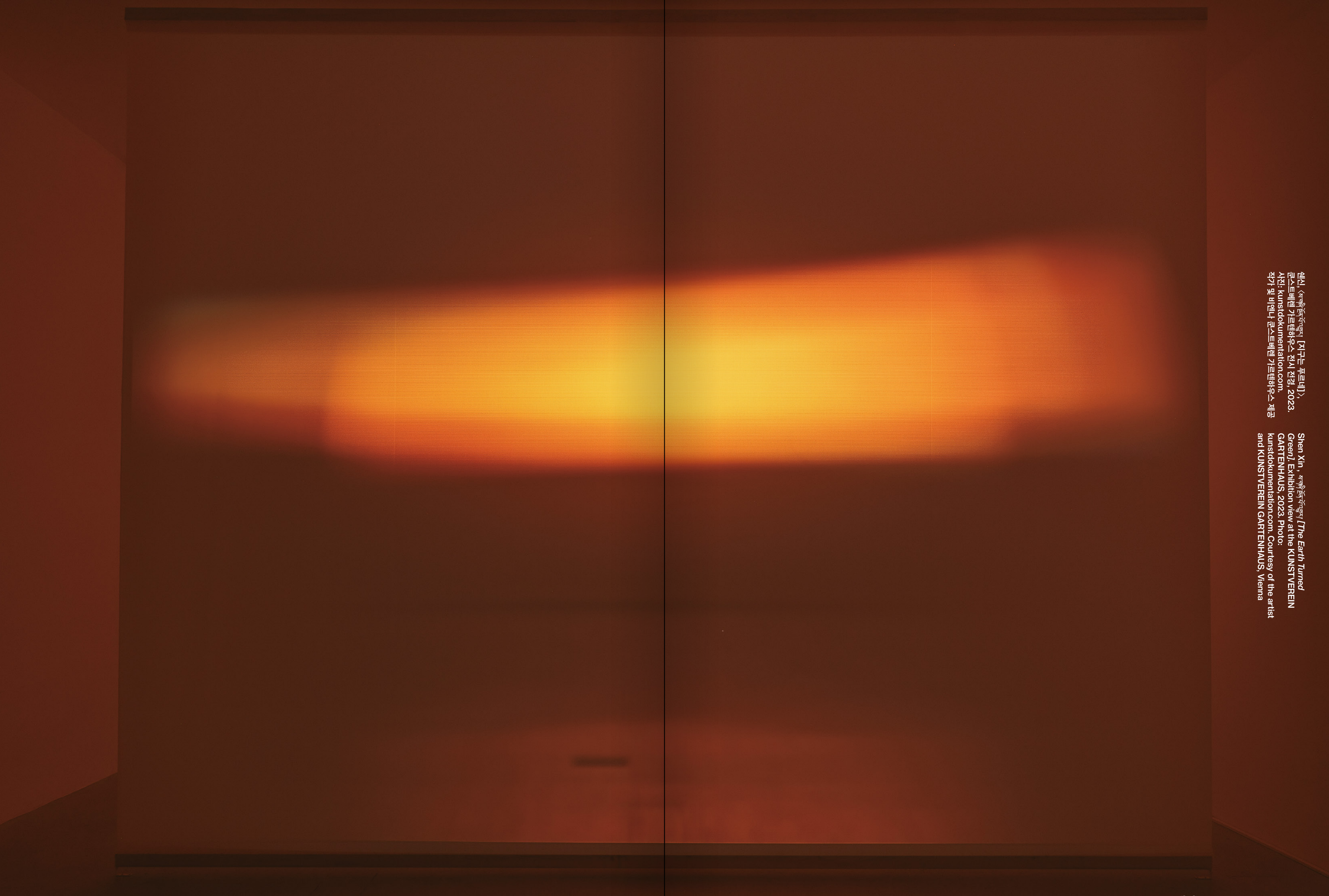
쉔신은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개인이 소속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을 상상하고 창작하는 '귀환의 언어'를 실천하는 작가이다. 〈ས་གཞི་སྔོན་པོ་འགྱུར [지구는 푸르네]〉는 작가와 티베트어 교사 སྐྱིད་དར་འཛོམས།[스키 트라좀사]가 수업 중에 티베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빛과 색의 움직임을 언어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먼저 계절마다의 하루를 재현하는 조명 설치를 위해 빛 기술자 카일 가벨에게 조명 연출의 방향성을 글로 적는다. 그리고 무대에서 재연되는 조명의 기록을 본 것을 만다린어로 옮겨 적고, 스키 트라좀사가 이것을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한 다음, 만다린어와 티베트어로 나누는 대화에서 교재로 사용한다.

작가는 자신의 가족사, 특히 중국 수묵화로 티베트와 인도의 인물화를 그렸던 아버지 쉔다홍에 관한 역사를 발견하면서 티베트어를 배우게 되었다. 아버지의 티베트와 인도 전통을 알게 된 작가는 아버지와의 잠재적 친밀감을 투영하며 티베트어의 생태적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잊혀진 것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길로 이어지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Shen Xin practices languages of returning, where one imagines, articulates, and creates unhurt spaces of belonging through songs and stories. *ས་གཞི་སྔོན་པོ་འགྱུར། [The Earth Turned Green]* presents conversations between the artist and their Tibetan language teacher སྐྱིད་དར་འཛོམས། [Skyi Trazomsa] from their classes in which they verbalize the movement of light and color of the four seasons i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Tibetan. Shen wrote directions for lighting technician Kyle Gavell to develop a performance for stage lights that would represent a day within each of the four seasons. Shen then transcribed in Mandarin what they saw in the recording of the lights on the stage, which was translated into Tibetan by Skyi Trazomsa, and served as the materials and learning tools for their conversations in Mandarin and Tibetan.

Shen began learning the Tibetan language after discovering their family history, particularly of their father Shen Daohong, who practiced Chinese ink paintings and portrayed Tibetan and Indian figures. Having learnt of the father's Tibetan and Indian heritage, Shen reflected on the potential of kinship for Shen Daohong, and further journeyed to study and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culture of Tibetan language, led by the path of retaining the sustainable in what has been forgotten.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199, 220



쉔신, 〈ས་གཞི་ལྗང་ཁོར་འགྱུར། [지구는 푸르네]〉,
쿤스트베렌 가르텐하우스 전시 전경, 2023.
사진: kunstdokumentation.com.
작가 및 비엔나 쿤스트베렌 가르텐하우스 제공

Shen Xin, ས་གཞི་ལྗང་ཁོར་འགྱུར། *[The Earth Turned Green]*. Exhibition view at the KUNSTVEREIN GARTENHAUS, 2023. Photo: kunstdokumentation.c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NSTVEREIN GARTENHAUS, Vienna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199, 220

S 27

엘레나 다미아니 〈불규칙성 대리석 V〉,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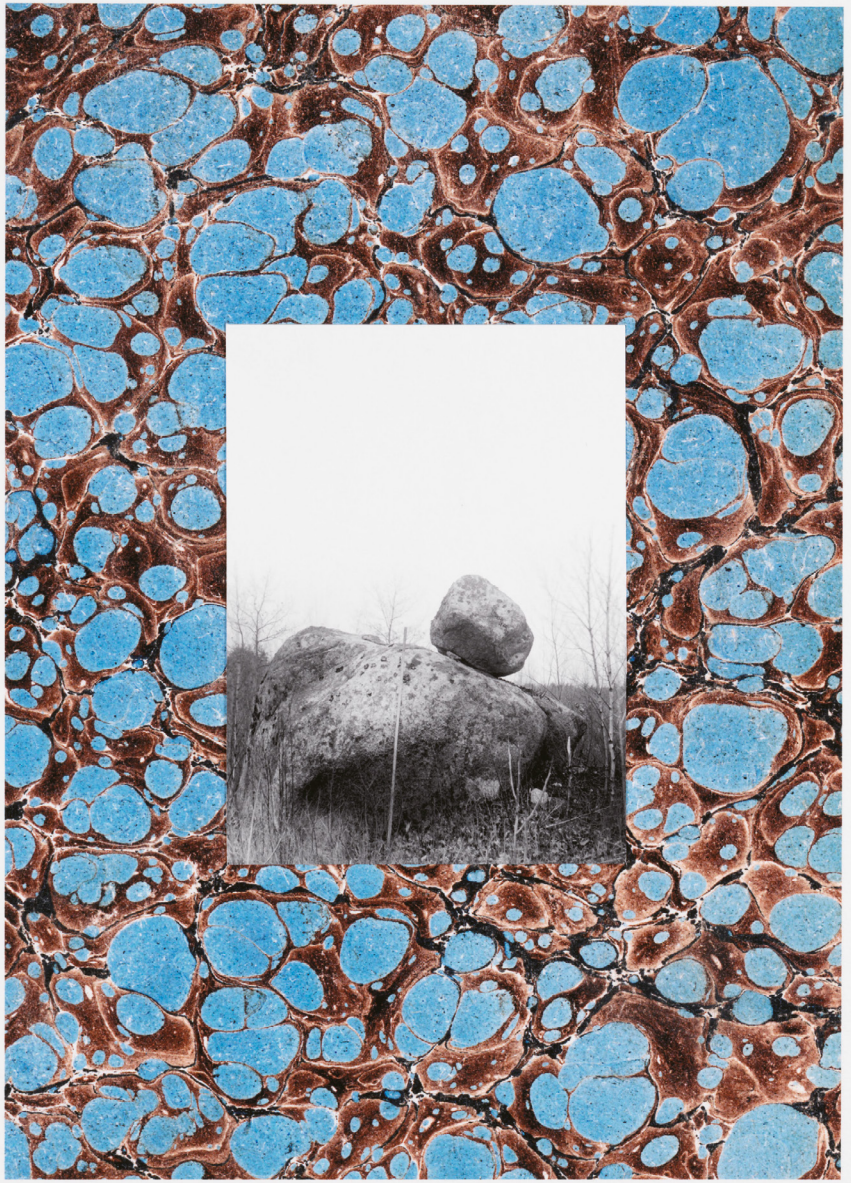
코튼 페이퍼와 알파 셀룰로오스 페이퍼에 잉크젯 프린트. 각 44.2 × 35.2 × 3.5 cm(18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불규칙성 대리석 V〉은 열 여덟 개의 콜라주 이미지로 구성된 연작이다. 각 콜라주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여행기, 지도, 여러 책자와 지질학 이미지 뱅크에서 찾은 표석漂石 사진들을 병치한 것이다. 표석은 주변 환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빙하 작용으로 인해 먼 거리를 떠내려왔다고 추정되는 바위를 의미한다. 기존의 지질학적 자료와 표석의 이미지를 병치한 이 작품은 자연, 영토, 지형을 고정불변의 관념으로 상정하는 우리의 인식을 드러내고, 지도를 그리는 행위로 인해 가려지는 인간 외 존재들의 이동 그리고 그것을 촉발하는 자연의 힘을 부각한다.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떠도는 신체들의 불규칙한 패턴을 보여주며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나 지리학 방법론으로 추적할 수 없는 부분을 시사하며, 우리가 아는 지도가 불완전하고 분절된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다. 과거에 있었던 지질학적 사건으로 이동된 표석의 수수께끼에 지구의 미래가 내포되어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Elena Damiani *The Erratic Marbles V*, 2022

Inkjet print on cotton paper and alpha-cellulose paper. 44.2 × 35.2 × 3.5 cm each (18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The Erratic Marbles V, part of an ongoing series, comprises eighteen collages featuring colorful marbled endpapers sourced from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century travelogues, atlases, and other manuscripts, in combination with photographs of erratic boulders from assorted geological image banks. Erratic boulders appear unrelated to their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are believed to originate from vast distances away, having been transported by glacial action. Damiani's juxtaposition of these images sheds light on arbitrary perceptions of nature, territory, and landscape as fixed concepts, as well as non-human forces at play in movements that become obscured by the act of mapping. This work suggests that the irregular patterns of wandering bodies, both human and non-human, cannot be traced by cartographic and geographic techniques alone. *The Erratic Marbles V* foregrounds the ways in which mapping inherently leaves behind an incomplete and fragmented history, arguing that such enigmatic topographic displacements belonging to a geological past must also contain the future of the planet.



엘레나 다미아니,
〈불규칙성 대리석 V〉, 2022.
작가 제공

Elena Damiani,
The Erratic Marbles V, 2022.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2, 214

S 28

사노우 우마르

〈11 / 7 / 21〉, 〈11/20/21〉, 〈12/3/21〉, 〈12/14/21〉, 〈12/15/21〉, 〈12/21/21〉, 〈12/22/21〉, 〈12/25/21〉, 〈1/3/22〉, 〈3/3/22〉, 〈5/28/21〉, 〈6/30/21〉, 〈03/01/2022〉, 2021-2022

종이와 보드에 펜과 마커.
각 60.96 × 48.26 cm(10점);
각 101.60 × 81.28 cm(2점);
81.28 × 101.60 cm(1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뉴욕 고든 로비쇼 및 런던 헤럴드
스트리트 제공

사노우 우마르의 추상적인 형과 색은 기억, 트라우마와 문화를 시각적으로 직조한 일종의 심상 지도로 작동된다.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 부르키나파소에서 자라난 작가의 유년시절에 관한 기억, 미국으로 망명하며 겪었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변위의 경험, 아프리카 직물 블리스코와 이슬람식 타일에서 사용하는 강렬한 색상과 문양 등 작가 개인의 자전적인 일들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억과 문화의 소환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레코드판, 아이팟 케이스 등 선을 긋기 위해 대고 그린 작가의 일상 소품들과 결합된다. 각각의 드로잉은 하루에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창작하는 예술적 수행을 바탕으로 제작되며, 여기에는 작가의 현재적 감정과 과거에 대한 애착이 담겨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무한한 시공간을 그리는 일종의 '정신적 지도'로서 찰나의 순간을 펼쳐보인다.

Sanou Ou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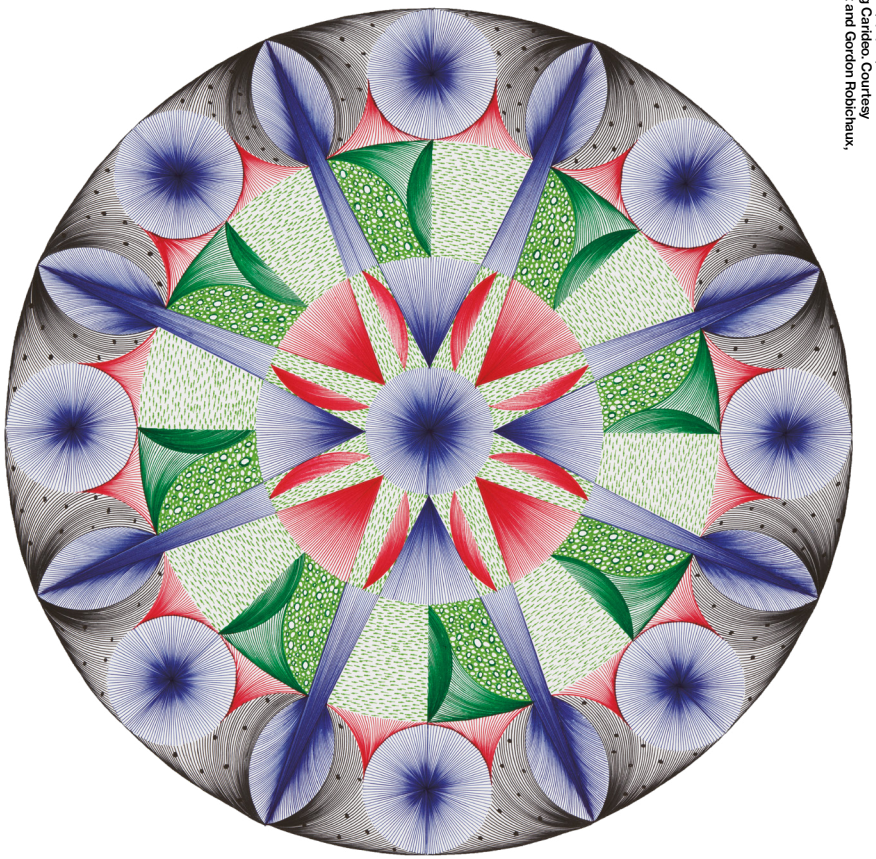
11/7/21, *11/20/21*, *12/3/21*, *12/14/21*, *12/15/21*, *12/21/21*, *12/22/21*, *12/25/21*, *1/3/22*, *3/3/22*, *5/28/21*, *6/30/21*, *03/01/2022*, 2021-2022

Pen and marker on paper and paper board.
60.96 × 48.26 cm each (10 pieces);
101.60 × 81.28 cm each (2 pieces);
81.28 × 101.60 cm (1 piec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Gordon Robichaux, New York and Herald St, London

Oumar's abstract shapes and colors operate as personal cartograms and visually woven renderings of memory, trauma, and culture. Some drawings reflect his own biography—memories of growing up in Burkina Faso, the physical and emotional displacement of his exil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nse colors and patterns derived from Vlisco (a characteristic African fabric) and Islamic tilework. Meanwhile, afterimages of such recollections and traditions become integrated with the artist's daily objects, such as a vinyl record or an iPod case, which he uses to draw lines. Each drawing is undertaken as a part of his focused practice of producing one drawing per day, each containing his feelings in the present and attachments to the past, and giving rise to a momentary mental cartography of time and space.

사노우 우마르, 〈1/3/22〉, 2022. 사진: 그렉 카리에오. 뉴욕 고든 로비쇼 제공

Sanou Oumar, *1/3/22*, 2022. Photo: Greg Carideo. Courtesy of the artist and Gordon Robichaux, New York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199, 220

S 29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이시비바네〉, 2023

3D 프린터, 남아프리카의 여러 지질학 박물관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돌.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INSITE 및 프리토리아 대학교 자벳 아트센터 제작 지원
작가 제공

Nolan Oswald Dennis *Isivivane*, 2023

3D printers, 3D printed rocks (from geology museums in South Africa).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INSITE, and Javett Art Centre-UP
Courtesy of the artist

〈이시비바네〉는 남아공 지질학 기관과 전문가와의 오랜 협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일종의 암석 아카이브 작품이다. 이와 같은 협업은 박물관이 소장한 암석 컬렉션을 복제해서 지질학 박물관과 아카이브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고,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로운 형태로 구성되어 관객을 만난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오브제가 쌓여 있는 형상은 돌무덤을 재현하지만, 동시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오브제는 그 자체로 진짜 암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Isivivane draws on Dennis's long-term collaboration with South African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geology. The artist and institutions have collaboratively undertaken a process of scanning and reproducing rock collections in order to make them available to those without access to geologic archives and museums. In this new and durational manifestation of the work, the rock archive is reconstituted live in the gallery, with 3D printed objects piled into cairns that signal through plastic the absence of the actual stones.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누중/이시비바네 (리서치 스테이션)〉, 2022.
사진: 안시아 포크로이. 작가 및 프리토리아 대학교 자벳 아트센터 제공

Nolan Oswald Dennis, *Superspositions/ isivivane (research station)*, 2022.
Photo: Anthea Pokroy. Courtesy of the artist and Javett Art Centre-UP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197, 219

S 30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출현의 표면(두폭화)〉, 2023

종이에 어도비 진흙과 흑연
152.4 × 487.68 cm(각 152.4 × 243.84 cm)
현지 제작 어시스턴트: 김규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Christine Howard Sandoval *Surface of Emergence (diptych)*, 2023

Adobe mud and graphite on paper
152.4 × 487.68 cm (152.4 × 243.84 cm each)
On-site Assistant: Gyuri Ki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은 재현, 접근, 거주에 관한 거주지의 제약에 저항하는 비디오, 오브제, 설치와 대형 드로잉 작품을 소개해 온 작가이다. 작가의 작품 세계는 자신의 문화와 전통 유산, 무질서한 풍경에 관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의 물리적인 현존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지도 그리기의 행위를 변형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되는 신작은 스페인 미션건축을 주제로 한 작가의 촉각 드로잉 연작으로, 선교를 살아있는 아카이브이자 원주민 미래주의의 현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품의 주 재료인 어도비 점토는 주로 사막 환경에서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점토로, 흙과 모래로 만들어진 삶의 재료로 알려져 있다. 산도발의 작품에서 어도비 점토는 땅과 거주의 형태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주 등장한다. 다루기 쉽지 않은 물성을 가진 어도비 점토는 작가의 고향 알타 캘리포니아의 식민주의 서사에 도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작을 구성하며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근처에서 채취한 흙 샘플을 활용한 작가는 한국의 토양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한국 도예의 생동하는 미시 생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내 도자기 활동에 존중을 표한다. 작가는 건축에서 아케이드 형태, 미션의 상징, 20세기 근대 건축 등 다양한 양식에 바탕을 둔 구성을 통해 공공 공간의 장소에 세워진 식민지 기념비의 잔류를 회수하여 18세기 중반의 미국, 19세기 중반의 프랑스, 그리고 오늘날까지를 잇는 경로를 보여준다.

Christine Howard Sandoval creates videos, objects, installations, and large-scale drawings that resist the constraints of representation, access, and habitation. Her works draw from her own culture and heritage, as well as her experiences of entropic landscapes and their transformations through the act of mapping, invoking what is physically present and the memory of what is no longer there.

The new works created for SMB12 are the latest in Howard Sandoval's series of tactile drawings that thematize the typology of Spanish mission architecture and propose the mission itself as a living archive and a site of Indigenous futurism. To this end, she frequently employs adobe (a live material made from clay, sand, and soil traditionally used to build structures in desert environments) as a medium linking land and forms of inhabitation, with its brittle materiality challenging the colonial narratives of her ancestral homeland in Alta California. After collecting soil samples in SeMA Nanji Art Residency in Seoul, she incorporated them into her drawings, amplifying their unique formal properties and acknowledging Korea's vibrant micro-ecologies of clay and related ceramic practices. Touching on various employments of the arcade form, iconic to the mission and also 20th Century Modern architectures, the artist links this passageway through multiple moments in time, the mid-eighteenth century in the Americas, the mid-nineteenth century in France, and today with the unmooring of colonial monuments from their place in public spaces.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흙더미-통합 각도〉, 2020. 사진: 레이첼 토팜. 작가 제공

Christine Howard Sandoval, *Mound- Angle of Integration*, 2020. Photo: Rachel Topham.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6, 213

S 31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Série Indícios [단서 연작]〉, 2000/2003

드로잉(플렉시글라스에 끼운 종이에 검정 실)
각 34 × 24 cm(11점)
안드레아와 호세 올림피오 페레이라 소장 및 제공

Anna Maria Maiolino *Série Indícios [Indexes series]*, 2000/2003

Drawing (Black thread sewn to paper between plexiglass). 34 × 24 cm each (11 pieces)
Collection and courtesy of Andréa and José Olympio Pereira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의 작품은 정체성, 언어, 신체를 주제로 위치의 정치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브라질로 이주한 작가는 이후 20여년 간 이어진 군부독재 정치의 폭력적인 분위기와 검열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주체에 관한 반응을 주목하고, 관련한 작가적 실천을 이어왔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완성된 〈단서〉 연작은 종이에 실로 수놓아 그린 드로잉 작품으로, 각각의 자수 드로잉 양면을 투명 유리판으로 덮은 설치 방식은 작품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실이 그리는 선의 움직임, 궤적 혹은 흔적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실의 굴곡은 작가의 다른 작품처럼,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언덕과 계곡 능선 지도를 연상시키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상이 수술 흉터나 털의 엉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작품의 표상은 다중의 의미를 지닌 채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기호로 작동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은 지도 만들기 과정을 통해, 항해술의 친밀함과 낯섦, 내부와 외부, 존재와 부재, 표면과 깊이처럼 상반된 공간 개념을 지속적으로 넘나들며, '주변부'에 존재하는 임시적 정체들을 드러내고, 기존의 경계나 가치관을 흔드는 정치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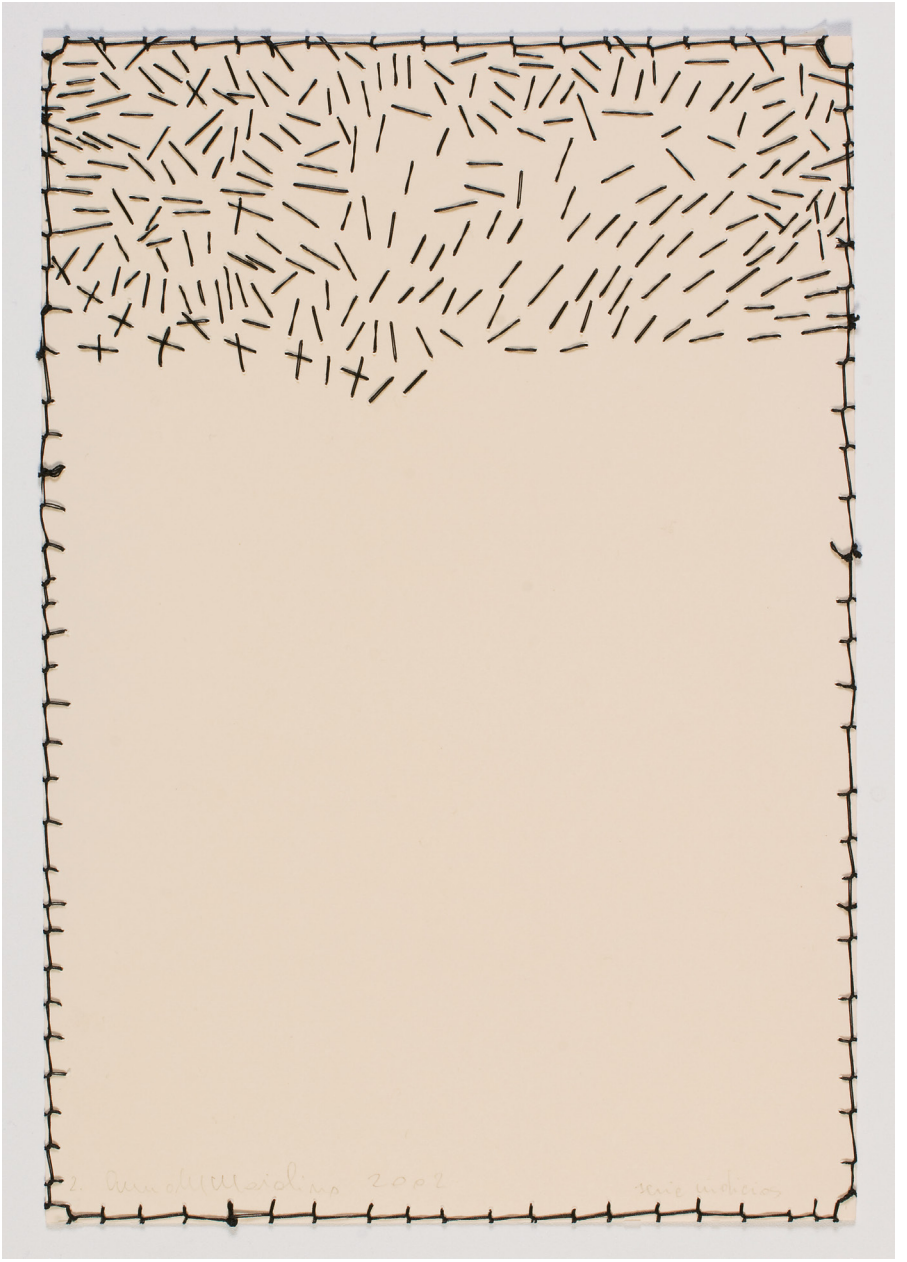
Anna Maria Maiolino's work investigates the politics of location through identity, language, and the body. Maiolino immigrated from Italy to Brazil in the early 1960s, where she developed her practice in response to constantly-changing social subjects amid the violence and censorship of Brazil's twenty-year-long military dictatorship.

Indícios, a series of works that Maiolino produced between 2000 and 2003, are embroideries on paper that are sandwiched between plexiglass panels to allow for double-sided viewing, which adds complexity to the movements, paths, and trails that the threads create. As in many of her works, the curves of these threads resemble a map filled with ridges of hills and valleys that can be seen from an aerial perspective. They may also be interpreted as surgical scars or tangled hairs, activating their agency as fluid and transmutable symbols with multilayered meanings.

Through such mapping processes, Maiolino's series frequently traverses conflicting notions of space such as navigational familiarity and unfamiliarity, interior and exterior, presence and absence, and surface and depth. Her work thus becomes politically charged by revealing temporary identities that persist on the "peripheries" as well as destabilizing existing boundaries and values.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Séries Indícios* [단서 연작]〉, 2000/2003.
안드레아와 호세 올림피오 페레이라 제공

Anna Maria Maiolino, *Séries Indícios [Indexes series]*, 2000/2003.
Courtesy of Andréa and José Olympio Pereira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1, 212

S 32

텐진 푼초그
〈순수한 땅〉, 2022

35mm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한 단채널 4K 비디오, 사운드. 15분 17초
작가 및 뉴욕 마이크로스코프 갤러리 제공

Tenzin Phuntsog
Pure Land, 2022

Single channel 4K video (35mm film transfer to digital), sound. 15 min 17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croscope Gallery, New York

텐진 푼초그는 영화, 설치, 퍼포먼스의 형식을 통해 티베트인의 이산, 망명, 이주, 그리고 땅과 언어 사이의 연결성과 같은 문제들을 고찰한다. 푼초그의 작품은 티베트를 방문하려는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는 티베트계 미국인으로서 자전적 경험, 가족이 느끼는 그리움, 그들이 간직하는 기억의 형태, 그리고 신체에 내재하는 고향의 불가능성과 화해하는 수단으로 상실감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서 출발한다.

〈순수한 땅〉에서 작가는 디아스포라 경험에서 풍경이 갖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화는 모친의 고향을 재구성하는 경관을 찾기 위해 미국의 외딴 풍경들을 포착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를 드러내며, 국경이나 영토의 구분 너머로 언어와 풍경을 구성하는 기억과 상상력에 관한 개념을 탐구한다. 현재 몬태나주에 속한 블랙피트 부족 선조들의 땅에서 촬영된 이 작품은 수 세기에 걸친 원주민 살생과 저항의 역사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In his films,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Tenzin Phuntsog considers issues related to the Tibetan diaspora, exile and displacement, as well as the entanglements between land and language. He draws from his own biography as a Tibetan-American whose attempts to visit Tibet have been forestalled and captures the longings of his family, the forms of their memories, and the strategies they adopt to deal with absence as a means of reconciling the impossibility of Tibetan bodies inhabiting their own homeland.

In *Pure Land*, Phuntsog focuses on the affective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landscape in diasporic experience. The film depicts a son's efforts to capture remote landscapes in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a displaced recreation of the scenery of his mother's Tibetan homeland. In revealing the exchanges between these figures, Phuntsog explores notions of memory and imagination in the construction of languages and landscapes beyond distinctions of borders or territories. This work was filmed on ancestral lands of the Blackfeet Tribe in Montana, implicitly acknowledging hundreds of years of Native genocide and resistance.

텐진 푼초그, 〈순수한 땅〉 스틸, 2022. 작가 및 뉴욕 마이크로스코프 갤러리 제공

Tenzin Phuntsog, *Pure Land* still,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croscope Gallery,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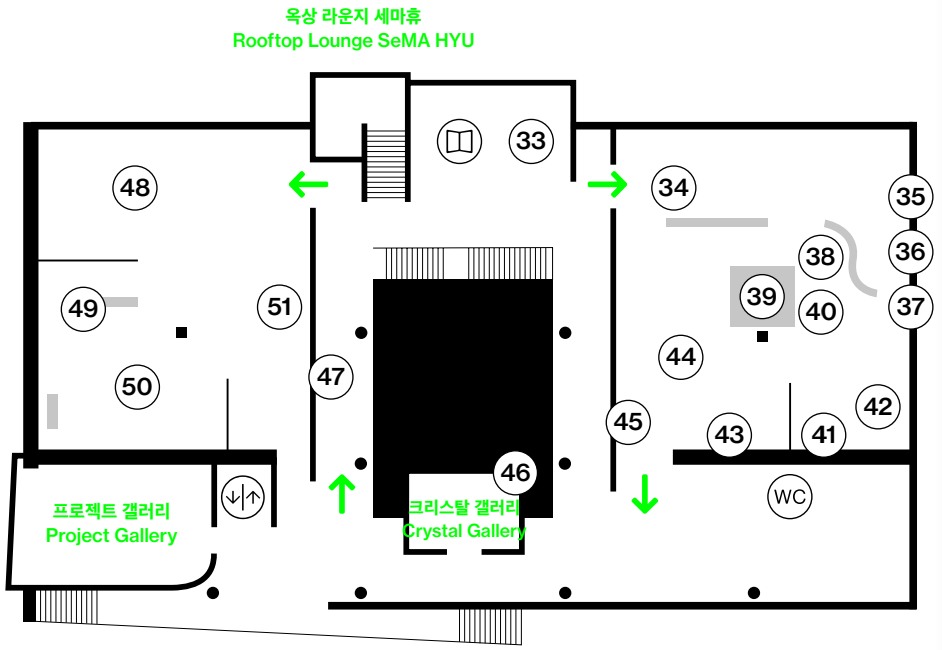
배치도 FLOOR PLAN p.56
색인 INDEX p.207, 222

3층 Third Floor

33 51 작품 Artworks

엘리베이터 Elevator

더레퍼런스 Seoul The Reference Seoul



S 33 왕보, 〈인테리어 분수〉
Bo Wang, *Fountain of Interiors*
2022-2023

S 34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S 35 이케조에 아키라, 〈사진 찍어요〉
Akira Ikezoe, *Let's Take a Picture*
2010

S 36 이케조에 아키라, 〈끝나지 않는 파티〉
Akira Ikezoe, *The Never Ending Party*
2010

S 37 이케조에 아키라, 무제
Akira Ikezoe, Untitled
2010

S 38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중위-수녀가 지나가네: 카탈리나, 안토니오, 알론소 외 여러 명의 자서전〉
Mercedes Azpilicueta, *The Lieutenant-Nun Is Passing: An Autobiography of Katalina, Antonio, Alonso and More*
2021

S 39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Ⅰ〉,〈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Ⅱ〉,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Ⅲ〉,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Ⅳ〉,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Ⅴ〉
Mercedes Azpilicueta, *Five Spells & A Song I, Five Spells & A Song II, Five Spells & A Song III, Five Spells & A Song IV, Five Spells & A Song V*
2023

S 40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Una canción coreana [한국 노래]〉
Mercedes Azpilicueta, *Una canción coreana [A Korean Song]*
2023

S 41 최윤, 〈마음이 가는 길_시 모음〉, 〈마음이 가는 길_밤 산책〉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Poetry Collection*, *Where the Heart Goes_Night Walk*
2022-2023

S 42 최윤, 〈파티션(굽이와 비탈)〉, 〈파티션(얼룩)〉, 〈파티션(별천지)〉,〈파티션(도깨비 도로)〉, 〈파티션(지도가 아닌 지도)〉
Yun Choi, *Glass Partition (Bends and Slopes)*, *Glass Partition (a Stain)*, *Glass Partition (a Map That is Not a Map)*, *Glass Partition (Dokkaebi Road)*, *Glass Partition (Starry Worlds)*
2023

S 43 최윤, 〈게시판(벼와 웅달샘)〉
Yun Choi, *Bulletin Board* (*Rice and Pond*)
2018-2020

S 44 미코 레베레자, 〈주름〉
Miko Revereza, *FOLDS*
2023

S 45 미코 레베레자, 〈붕괴 93-96〉
Miko Revereza, *Disintegration* 93-96
2017

S 46 켄트 찬, 〈온난 전선〉
Kent Chan, *Warm Fronts*
2021

S 47 최태윤, 〈반송〉
Taeyoon Choi, *Return to Sender*
2023

S 48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Francois Knoetze, *Core Dump*
2018-2019

S 49 히메나 가리도 레카, 〈프로토몰피즘(최초의 형태): AGC 로프 드라이버 모듈〉
Ximena Garrido-Lecca, *Protomorphisms: AGC Rope Driver Module*
2022

S 50 최찬숙, Chan Sook Choi
〈*THE TUMBLE*〉
2023

S 51 파이어룰 달마, Fyerool Darma
〈*I♥ndsc_P€$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2023

S 33

왕보
〈인테리어 분수〉, 2022-2023

철근, LED등, 인테리어용 조화, 거울,
벽지, 사운드. 400 × 450 cm
현지 재제작: 디자인 본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Bo Wang
Fountain of Interiors, 2022-2023

Rebars, LED lights, plastic plants, mirror, wall paper, sound. 400 × 450 cm
On-site Reproduction: Design Born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왕보의 작품은 동아시아의 무역, 정체성, 노동과 물질 역사를 주목해서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의 팽창으로 야기된 동시대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비디오와 설치를 직조하는 작품들은 근대성의 물리적 공간과 그것으로 규정된 문화 정체성을 다시 상상한다.

2022년 싱가포르미술관의 커미션으로 처음 제작되었던 〈인테리어 분수〉는 싱가포르의 열대 자연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인간이 만든 기후 규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머무는 기숙사의 형광등을 엮어 만든 가상의 폭포이다. 근대화의 빛과 어둠, 특히 아시아의 맥락에서 그것의 양극단은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전개되어 왔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새롭게 구성한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조명과 실내장식 서사를 반추하며, 인공적이고 산업화된 풍경 속에 감춰진 현대와 도시 삶의 아이러니를 풍자하고 묘사하는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간다. 작품에서 분수가 되는 인테리어용 플라스틱 조화와 형광등은 서울의 남대문 상가와 을지로 조명 거리에서 구입한 재료들이다.

Bo Wang's work critically examines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s derived from capitalist expansion and globalisms, often with a focus on trade, ideology, labor, and material histories in East Asia. Weaving between video and installation, his artworks reimagine physical spaces of modernity and their appointed cultural identities.

Initially commissioned by the Singapore Art Museum in 2022, *Fountain of Interiors* visualizes an imaginary waterfall that interweaves Singapore's tropical nature, its ubiquitous man-made system of climate control, and the fluorescent lights of its immigrant workers' dormitories. The lightness and darknes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in its Asian context, have always gone closely hand-in-hand. This new iteration of the work retells the stories of lighting and interior decoration industries, both of which were leading forces in Korea's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1970s, satirizing and portraying the ironies of modern and urban life under the guise of industrial landscapes and artificial forms of life. The plastic flowers and fluorescent lights that constitute Wang's fountain were purchased at Seoul's Namdaemun Market and Euljiro lighting street.

왕보, 〈인테리어 분수〉,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전시 전경, 2022. 작가 및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제공

Bo Wang, *Fountain of Interiors*. Exhibition view at the Singapore Art Museum,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Singapore Art Museum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2, 213

S 34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네팔산 종이와 코끼리 똥 섬유 종이에 석판과 목판 인쇄. 35 × 627 cm; 목판 인쇄에 채색. 각 76 × 104 cm(14점); 목판 인쇄. 각 30 x 30cm(19점); 단채널 비디오. 10분(반복재생)
목판 가공: 딘반두 아다크, 시타람 아다크, 아시트 차크라보티. 목판 채색: 타라크 다스
카니시카 콜카타 워크숍에서 제작;
영상 편집: 아비어 굽타 & 아르차나 한데
사운드 디자인: 바비 존. 애니메이터: 사라트 나야크
영상 편집 장비: 뭄바이 마즐리스
작가 및 인도 콜카타 엑스페리멘터, 셰무드 프레스코트 로드 제공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Lithograph and block print on Nepali paper & elephant dung fiber paper. 35 × 627 cm; Painted block prints. 76 × 104 cm each (14 pieces); Block prints. 30 × 30 cm each (19 pieces); Single channel video. 10 min (loop)
Block Cutters: Deenbandhu Adak, Sitaram Adak, Asit Chakraborty. Block Printer: Tarak Das. Produced at Kanishka's Kolkata Workshop; Film Editor: Abeer Gupta & Archana Hande. Sound Design: Boby John
Animator: Sarat Nayak. Video editing facilities: Majlis, Bombay
Courtesy of the artist, Experimenter, Kolkata, and Chemould Prescott Road, India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작가 제공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Courtesy of the artist

아르차나 한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과 가족 전통이 세계화와 공존하는 인도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한다. 드로잉, 이야기, 책, 비디오가 결합된 이 작품은 하나의 프레임 속에 구전 설화와 현실 세계의 서사가 함께 등장한다.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에서 전통 목판 인쇄는 미래의 글로벌 메가폴리스를 꿈꾸는 뭄바이의 정치, 미학, 지형을 반영하는 등장인물과 풍경의 스토리보드로 구성된다. 작품의 서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다라비를 배경으로 전개되며, 성장하는 도시의 거리를 매운 밀도와 뿌리깊은 인종과 계급의 분열 및 다른 사회적 위계 간의 대비를 드러낸다. 작가는 또 다른 인쇄 묶음과 아코디언형 책자에서 이와 같은 풍자적 서사를 식민지 과거와 갈등속에서 있는 현대 도시의 결함으로 확장해서 다루며, 세계화의 맥락에서 권력과 문화·경제적 불평등의 뿌리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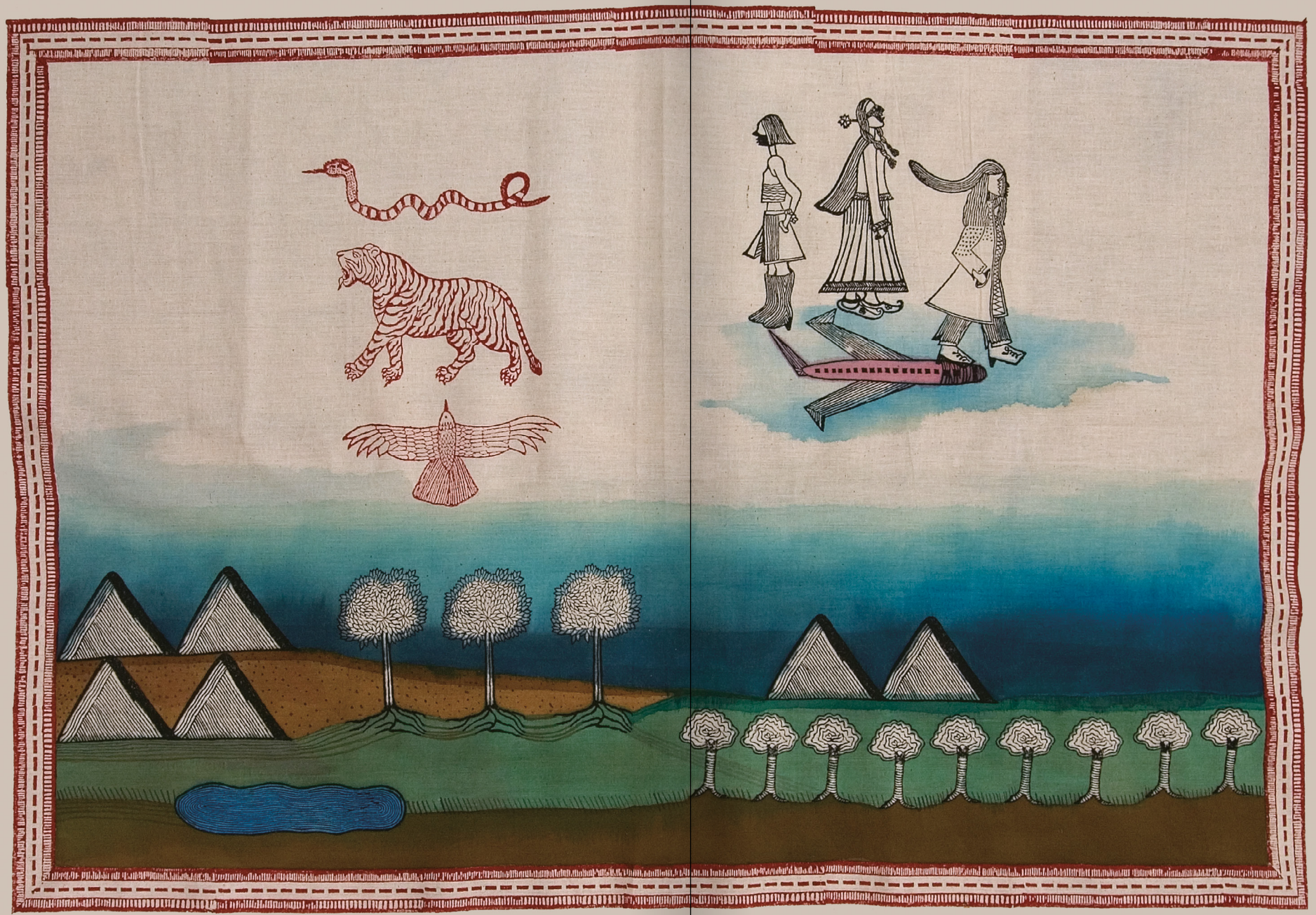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은 목판 인쇄를 애니메이션화한 스톱 모션 영화에서 윤택한 피부와 관련된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관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뭄바이의 상류층 여성 세 명은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던 어느날 다라비에 관해 알게되고,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매직 화이트'라는 단백질 캡슐 개발을 결정하게 된다. 이 약품은 사회 계급과 연관된 인종 문제를 단순히 밝은 피부 중심적 사고방식에 편입하고 여성성을 강화하여 해결하려는 그들의 얄팍한 의도를 반영한다. 이 작품은 인도 문화에 공존하는 복수의 사회적 경계, 그리고 내적 식민화라는 모순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Archana Hande's multimedia practice explores aspects of Indian society in which local and familial traditions overlap with the milieu of globalism. Her works bring together practices of drawing, storytelling, book making, and video to align oral tales and the narratives of global realities within the same frame.

In *All is Fair in Magic White*, traditional woodblock prints comprise a storyboard for characters and landscapes to reflect the politics, aesthetics, and topography of Mumbai as it aspires to become a global megalopolis of the future. The work's narrative unfolds in Dharavi, one of the world's largest slums, revealing contrasts between the growing city's densely populated streets and its history of deeply-rooted race and class divisions and hierarchies. She expands this satirical narration contending with modernity's shortcomings in a city struggling with its colonial past in a second series of prints and a scroll, raising questions about power and the roots of cultural and economic inequality in a globalized context.

Hande continues to explore these ideas in a stop-motion film that animates her prints and delves into notions of femininity and beauty associated with fair skin. In the film, three upper-class Indian women enjoy extravagant lives in Mumbai until they learn about Dharavi, whereupon they decide to initiate a project to support the region—a protein capsule called "Magic White." This medication reflects their aspirations of resolving racial issues linked to class by embodying light-skinned-centric thinking and strengthening their femininity. In turn, the video encapsulates contradictions in Indian culture wherein multiple social boundaries and internal colonization continue to coex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1, 212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용납된다〉, 2008-2009. 작가 제공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1, 212

S 35

이케조에 아키라
〈사진 찍어요〉,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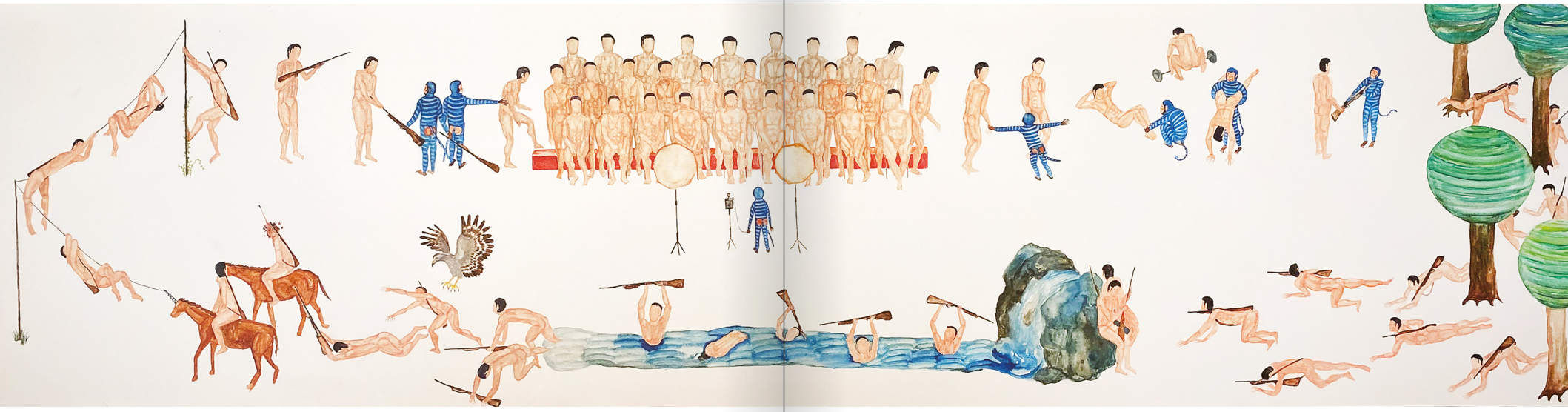
패널에 부착된 종이에 수채. 46 × 182.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Let's Take a Picture, 2010

Watercolor on paper mounted on panel
46 × 182.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이케조에 아키라, 〈사진 찍어요〉, 2010.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Let's Take a Picture*, 2010.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3, 211

S 36

이케조에 아키라
〈끝나지 않는 파티〉, 2010

패널에 부착된 종이에 수채. 46 × 182.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The Never Ending Party, 2010

Watercolor on paper mounted on panel
46 × 182.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이케조에 아키라, 〈끝나지 않는 파티〉, 2010.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The Never Ending Party*, 2010.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3, 211

S 37

이케조에 아키라
무제, 2010

캔버스에 유화. 50 × 63.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Untitle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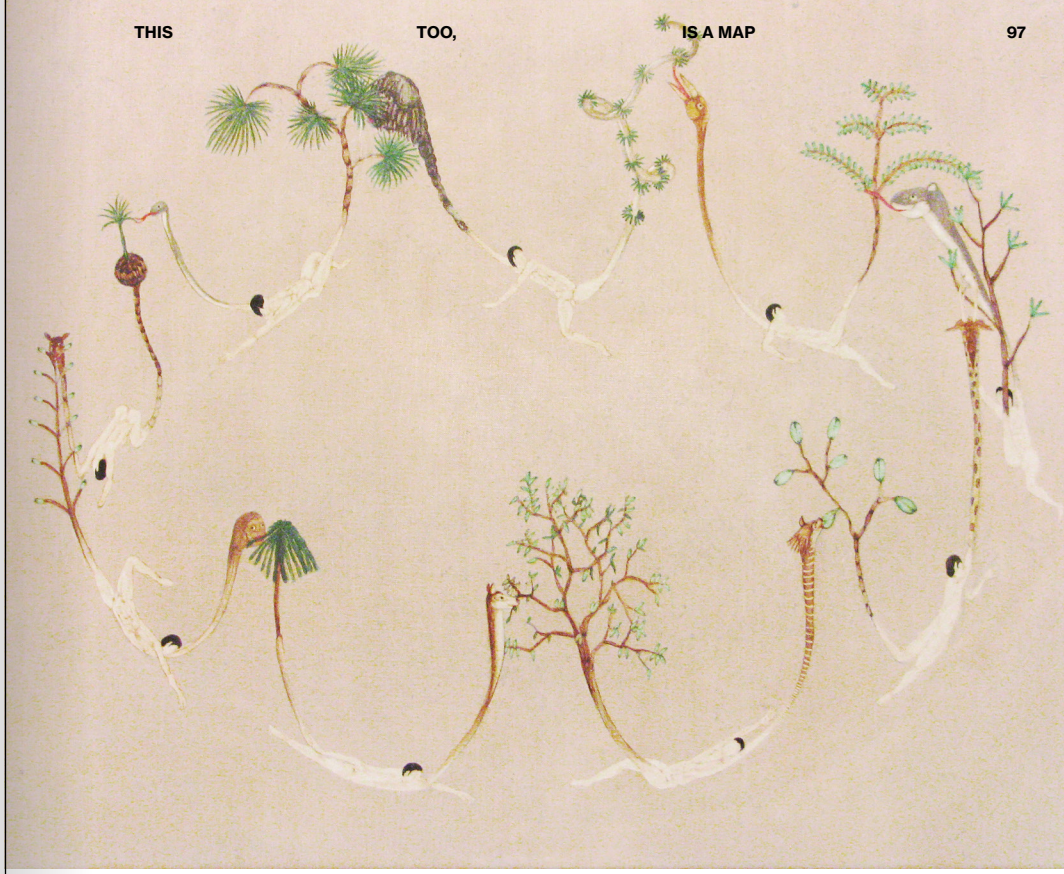
Oil on canvas. 50 × 63.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작가 이케조에 아키라는 드로잉과 회화 작품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형이상학적 환경을 묘사하고, 초현실적인 풍경과 인물을 그려낸다. 작가는 선조들로부터 이어져온 지식과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환기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기에 위태로운 균형을 드러낸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되는 작품 세 점은 작가가 뉴욕으로 이주한 2010년에 완성한 것으로, 이주를 통해 느꼈던 실향의 감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감각은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은유적 장소로서 몸에 관한 작가의 사유와 그것이 안과 밖을 분리하는 (물질적이고 그 외 여러가지의) 경계에 관한 몸, 집, 국가의 관념에 반응하며 작동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는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며, 서구 문화가 세계를 인지하는 이분법과 분류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작품은 내부와 외부, 서로 다른 개인의 몸, 그리고 자연 간의 상호 연결성을 나타내고, 동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상상하자고 주장한다.

The drawings and paintings by New York-based Japanese artist Akira Ikezoe depict metaphysical environments that blur distinctions between the human and the non-human, giving rise to surreal landscapes and figures. He produces images that invoke sources of ancestral knowledge as well as futuristic technologies of Japan, while revealing the precarious balance in which ecosystems and humans coexist.

The three paintings he presents at SMB12 were produced in 2010, the same year that Ikezoe emigrated to New York, and are marked by a sense of national displacement. They operate in response to his understanding of the body as a metaphorical site of encounter between nature and culture, as well as notions regarding borders (material and otherwise) that separate inside and outside—the body, the house, the nation. In his paintings, delineations of human and non-human grow hazy, thereby destabilizing the binaries and categories through which Western culture perceives the world. Ikezoe's works thus manifest the interconnectedness of interior and exterior, of individual bodies to one another, and of nature, reimagining the ways in which contemporary people experience and visualize the world.



이케조에 아키라, 무제, 2010.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Akira Ikezoe, Untitled, 2010.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3, 211

S 38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중위-수녀가 지나가네: 카탈리나, 안토니오, 알론소 외 여러 명의 자서전〉, 2021

자카드 태피스트리(메리노 울, 면, 루렉스)
160 × 400 cm
태피스트리 제작: 틸뷔르흐 텍스티엘랩. 나무 좌대 제작: 염철호, 조재홍, 정진욱
런던 가스웍스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Mercedes Azpilicueta *The Lieutenant-Nun Is Passing: An Autobiography of Katalina, Antonio, Alonso and More*, 2021

Jacquard Tapestry (merino wool, cotton, lurex). 160 × 400 cm
Tapestry Production: Textiel Lab, Tilburg. Wooden Plinth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Commissioned by Gasworks, Lond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중위-수녀가 지나가네: 카탈리나, 안토니오, 알론소 외 여러 명의 자서전〉, 2021. 작가 제공

Mercedes Azpilicueta, *The Lieutenant-Nun Is Passing: An Autobiography of Katalina, Antonio, Alonso and More*, 2021. Courtesy of the artist.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혀진 인물의 이야기를 조사하여 고착된 역사적 서사와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작가이다. 작가는 사변적인 연상과 허구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역사 서술에 도전하는 일종의 반박 서사를 구축하여, 반체제적인 목소리, 언어, 실천들이 역사에 반영되는 것에 신경쓴다. 부드러운 조각, 직물, 설치나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작품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고, 수공예와 산업적 제작 기법을 혼용하며, 느슨하게 뒤엉키는 감성을 통해 확장 가능하고 다원적인 서사를 수용한다.

〈중위-수녀가 지나가네: 카탈리나, 안토니오, 알론소 외 여러 명의 자서전〉은 '중위 수녀'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카탈리나 데 에우라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카탈리나 데 에우라소는 1600년대 초 바스크 지방의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중, 그곳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 여러 신원의 남자 행세를 하며 살던 그녀는 종국에 스페인 제국에 충성하는 잔혹한 정복자로 명성을 얻게 된다. 이후 여성인 성정체성을 밝혔지만, 교황으로부터 남성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 받게 된다. 4미터 길이의 자카드 원단 직물로 이루어진 작품은 데 에우라소의 성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초현실적인 긴장과 모순을 식민지 정복사의 사색적이고 지리적인 맥락과 함께 엮어 보여준다.

Mercedes Azpilicueta researches characters and stories that have been obscured or forgotten in order to address fixed historical narratives and collective memories. Through speculative association and fiction, she builds counter-narratives that challenge patriarchal and colonial accounts of history to include dissident voices, languages, and practices. Her soft sculptures, textiles,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combine multiple fields of knowledge and mix craft and industrial production techniques, creating loose and affective entanglements that allow for expansive, pluralistic narratives to coexist.

The *Lieutenant-Nun Is Passing: An Autobiography of Katalina, Antonio, Alonso and More* recounts the story of Catalina de Euraso, also known as the Lieutenant Nun, who fled to the Americas from the Basque Country in the early 1600s to escape the patriarchal hold of convent life in Europe. In embarking upon this physical journey and exploring new territories, de Euraso assumed multiple male identities and ultimately became a ruthless conquistador in the service of the Spanish Empire, even obtaining the Pope's blessing to pursue life as a man. Azpilicueta's four meter-long jacquard tapestry maps a speculative geography of colonial histories in the context of the surreal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de Euraso's gender and identity.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198, 218

S 39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Ⅰ〉,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Ⅱ〉,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Ⅲ〉,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Ⅳ〉,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Ⅴ〉, 2023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온 아르헨티나산 의복, 암스테르담에서 온 업사이클링 의류, 작가의 작업실에서 모은 면, 벨벳, 루렉스 등 직물 조각, 100% 대나무 섬유 이불솜 한 겹과 면을 재활용한 특별 재료로 만든 퀼트와 패치워크
350 × 240 cm; 340 × 220 cm; 350 × 210 cm; 330 × 210 cm; 340 × 210 cm
제작 협력: 미카 펄무터, 신유 황, 다샤 골로바
리서치 및 보조: 안토니아 프라티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Mercedes Azpilicueta *Five Spells & A Song I*, *Five Spells & A Song II*, *Five Spells & A Song III*, *Five Spells & A Song IV*, *Five Spells & A Song V*, 2023

Quilt & Patchwork made from recycled and special materials: Argentinean produced apparel from the Korean community in Buenos Aires, upcycled garments from the artist and from Amsterdam, scraps of fabrics from the artist's studio (cotton, velvet, lurex a.o.), layer of batting (100% bamboo) and cotton
350 × 240 cm; 340 × 220 cm; 350 × 210 cm; 330 × 210 cm; 340 × 210 cm
Made in collaboration with Mika Perlmutter, Hsin-Yu Huang, and Darsha Golova. Research and Assistance: Antonia Fratini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S 40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Una canción coreana [한국 노래]〉, 2023

사운드스케이프. 약 7분
사운드스케이프 협력: 토니 브렐
리서치 및 보조: 안토니아 프라티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Mercedes Azpilicueta *Una canción coreana [A Korean Song]*, 2023

Soundscape. Approx. 7 min
Soundscape in collaboration with Toni Brell
Research and Assistance: Antonia Fratini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이번 비엔날레가 커미션한 신작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에서 작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 커뮤니티의 이주와 형성,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브라질 섬유산업 성장 과정에서 이들이 했던 역할을 조명한다. 이와 같은 이주와 공동체 구축의 역사, 그리고 실향민의 정체성은 부드러운 조각의 면면에서 드러난다. 이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에 밀집한 가족기업이 생산한 의류로 만들어 졌으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제작된 사운드스케이프 〈Una canción coreana [한국 노래]〉가 소개된다. 여러 의류가 가진 다양한 질감과 색은 서로 다른 영토, 언어와 개인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주고,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는 경계와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처럼 보였던 국적과 국토에 대한 통념을 뒤엎는다.

Azpilicueta's newly commissioned work *Five Spells & A Song* looks at migratory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mmunities in Buenos Aires, focusing on their significant role in the emergence of the local textile industry beginning in the late 1960s. Such histories of mi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communities and displaced identities manifest in a series of soft sculptures, composed of garments produced by Korean family businesses in Buenos Aires' Koreatown, Koreatown, and in the newly commissioned sound piece *Una canción coreana [A Korean Song]*. Amid this dreamlike atmosphere, textures and colors unite territories, languages, and personal narratives that speak to the fluidity of boundaries and identities in opposition to fixed notions of nationality and territory.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Ⅳ〉, 2023. 작가 제공
Mercedes Azpilicueta, Detail of *Five Spells & A Song IV*, 2023.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198, 218

S 41

최윤
〈마음이 가는 길_시 모음〉, 2022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7분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두산아트센터
제작 지원. 작가 제공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 Poetry Collection, 2022

Single channel video, sound. 17 min
Commissioned by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Doosan Art Center. Courtesy of the artist

최윤, 〈마음이 가는 길_시 모음〉 스틸, 2022. 작가 제공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 Poetry Collection* still, 2022. Courtesy of the artist

최윤
〈마음이 가는 길_밤 산책〉, 2023

단채널 비디오. 5분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두산아트센터 제작 지원
작가 제공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 Night Walk, 2023

Single channel video. 5 min
Commissioned by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Doosan Art Center.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5, 223

S 42

최윤
〈파티션(굽이와 비탈)〉, 〈파티션(얼룩)〉, 〈파티션(별천지)〉, 〈파티션(도깨비 도로)〉, 〈파티션(지도가 아닌 지도)〉, 2023

유리에 유화, 알루미늄. 각 180 × 100 cm(5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Yun Choi
Glass Partition (Bends and Slopes), *Glass Partition (a Stain)*, *Glass Partition (a Map That is Not a Map)*, *Glass Partition (Dokkaebi Road)*, *Glass Partition (Starry Worlds)*, 2023

Oil paint on glass, aluminum. 180 × 100 cm each (5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S 43

최윤
〈게시판(벼와 옹달샘)〉, 2018-2020

융 천, 알루미늄 게시판, 아크릴 표지판, 벼, 침핀, 트레이싱지, 에폭시, 열쇠, 열쇠고리, 노끈, 모형 쥐, 유토. 150 × 90 cm; 120 × 80 cm;
각 100 × 100 cm(2점)
작가 제공

Yun Choi
Bulletin Board (Rice and Pond), 2018-2020

Cotton flannel, aluminum-framed bulletin board, acrylic sign, rice plant, pin, tracing paper, epoxy, key, key chain, twine, artificial rat, clay mixed with oil. 150 × 90 cm; 120 × 80 cm; 100 × 100 cm each (2 pieces)
Courtesy of the artist

최윤이 수행하는 예술 세계의 핵심에는 일상적 이미지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오브제처럼 도시 풍경 속 반복과 획일성 안에 스며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있다. 작품에는 편의점이나 지하철 통로, 거리의 식당이나 노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푸른 하늘의 이미지, 일반적인 사무실의 회색 칸막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체리목 무늬 몰딩, 형광등, 꽃무늬 담요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이 구축하는 초현실주의적이면서 때로는 악몽과도 같은 분위기는 작가 고유의 설치와 영상 스타일을 구축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재구성한 〈마음이 가는 길〉은 미로와 같은 형태의 설치 사이에 비디오가 함께 보여지는 작품이다. 작가는 팬데믹 경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한 이미지와 서사, 그리고 팬데믹 이후 각종 '게시글'에서 엿볼 수 있었던 미래에 관한 암울한 전망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은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사무실의 미궁에 갇힌 평범한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인류 공동의 미래와 개인적인 욕망의 대상에 관하여 시적인 언어를 통해 의문을 제기한다.

At the core of Yun Choi's artistic practice lies an array of everyday images and mass-produced objects from Korean popular culture that coalesce into an urban landscape of repetition and uniformity. In her works, the blue-sky images that appear in Korean convenience stores, subway passages, lunch restaurants, and on street carts, gray office partitions, domestic cherry moldings, fluorescent lights, and flower-patterned blankets become the characters of surreal—and sometimes nightmarish—installations and films.

This new iteration of *Where the Heart Goes*, a two-channel maze-like video installation, is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of the pandemic and her encounters with online and offline images and narratives—posts—in Korea and their ominous speculations about the future. Choi explor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film's characters and banal objects trapped in the office maze, posing poetic questions about collective futures and the objects of our desires.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5, 223

〈게시판(벼와 옹달샘)〉은 2020년 처음 소개되었던 설치작 〈마음이 가는 길〉의 부분을 재구성한 것으로, 벼농사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한 게시글과, 이 단순한 질문으로 인해 야기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토론에 관하여 일종의 응답처럼 발전시킨 작품이다. 온라인 토론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일련의 콜라주와 벽면 설치를 통해 벼에 관한 단상을 담아내며, 벼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와 이주의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수행해온 방식을 탐구한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벼는 시공을 초월하며 뿌리 깊은 사회정치적 현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디지털 가상 세계로 전이되는 문화 전통의 공간적 유동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A re-imagined fragment of Choi's original 2020 installation *Where the Heart Goes*, *Bulletin Board (Rice and Pond)* developed in reaction to a random online post soliciting advice for cultivating rice and the multiple interpretations that this simple question prompted by other forum users. The collages and wall installation triggered by this online discussion take shape in a series of reflections about rice and its role in performing Korean identity both online and offline, as well as in multiple forms of diaspora and migration. In Choi's speculative universe, rice is capable of traversing time and space, becoming a symbol of rooted sociopolitical phenomena and the spatial fluidity of cultural traditions as they transition to a digitized and virtual realm.

최윤, 〈게시판(벼와 옹달샘)〉, 2018-202. 작가 제공
Yun Choi, *Bulletin Board (Rice and Pond)*, 2018-2020.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5, 223

S 44

미코 레베레자
〈주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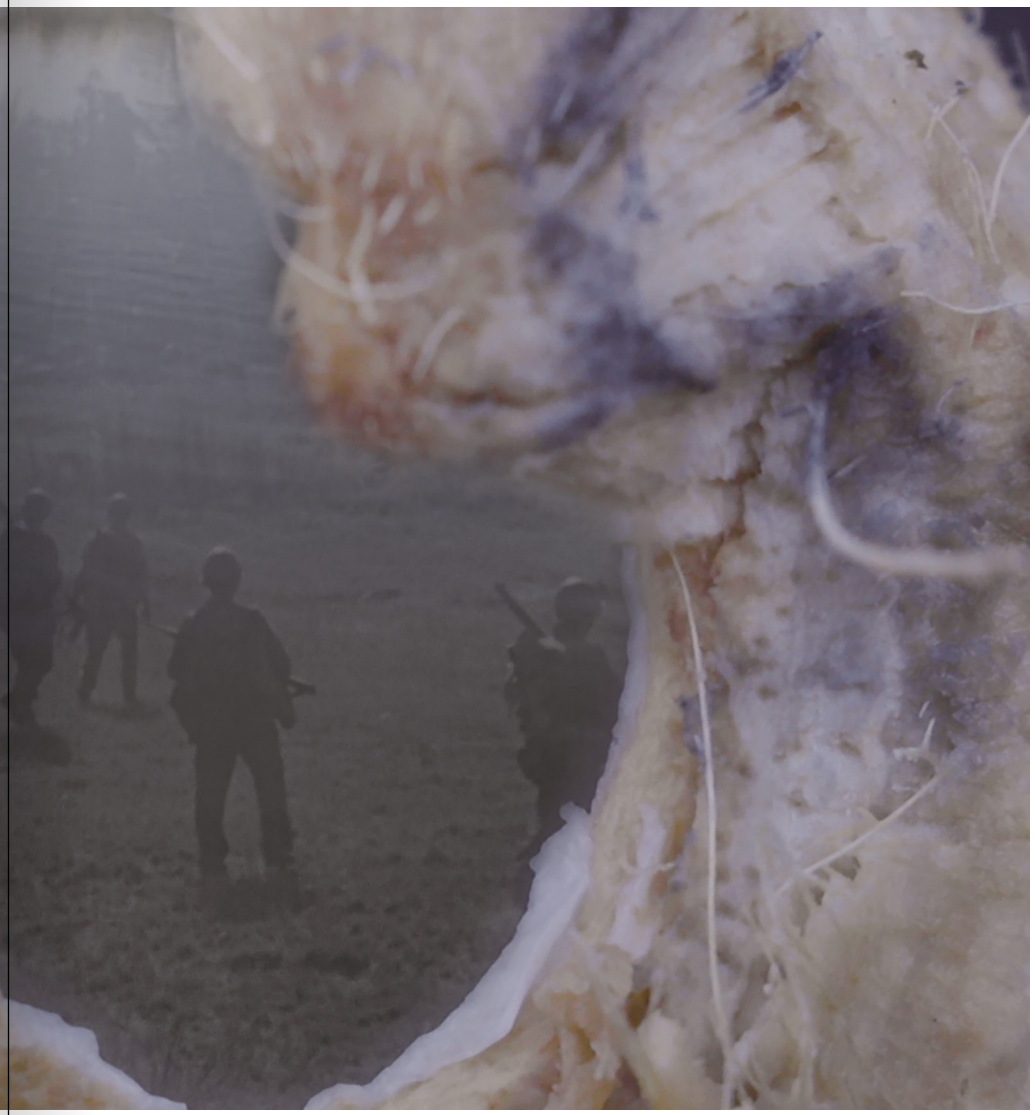
단채널 비디오, HD. 26분
작가 제공

Miko Revereza
FOLDS, 2023

Single channel video, HD. 26 min
Courtesy of the artist

미코 레베레자, 〈주름〉 스틸, 2023.
작가 제공.

Miko Revereza, *FOLDS* stil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198, 219

S 45

미코 레베레자
〈붕괴 93-96〉, 2017

단채널 비디오, HD. 5분 25초
작가 제공

Miko Revereza
Disintegration 93-96, 2017

Single channel video, HD. 5 min 25 sec
Courtesy of the artist

미코 레베레자, 〈붕괴 93-96〉 스틸, 2017. 작가 제공

Miko Revereza, *Disintegration 93-96* still, 2017. Courtesy of the artist

미술가이자 영화감독인 미코 레베레자는 무국적자의 시각으로 디아스포라, 식민주의, 서구 헤게모니의 주제를 다룬다. 미국에서 미등록 이민자 신분으로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냈던 경험은 작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실험 영화는 제도적인 배제와 차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외국인 이민자를 배척하는 이민 정책이나 세관의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영화 〈붕괴 93-96〉은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에 집중한다. 작가는 오래된 가족 홈 비디오의 형식을 빌려 다양한 풍경 속 자신을 향해 카메라를 돌린다. 내밀한 1인칭 나레이션은 이주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대하는 작가의 자기성찰적 접근을 보여주며, 아메리칸 드림과 이주를 규정하는 공식 서사에 관한 담론을 보다 복잡하고 상충적으로 탐색하게 만든다.

〈주름〉 역시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간의 소통을 기록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여행, 건축, 시각적 추상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푸티지가 중첩되는 편집은 '원거리의 지점들이 접힌 지도의 모서리에서 맞닿는 것과 같은' 시도이고, '망명지에 살면서 주름처럼 접는 행위를 통해 국경 너머로 닿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무성 영화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미등록 이민자 가정이 생존을 위한 연대의 끈을 지키고자 절실하고 끊임없이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월경을 감행하며 직면하는 어려움을 그리고 있다.

Artist and filmmaker Miko Revereza creates works that contend with themes of diaspora, colonialism, and Western hegemon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eless. Strongly influenced by his experience of living as an undocumented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his childhood and adolescence, he visually renders the conditions of institution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For Revereza, experimental film operates as a means of defiance against the restrictions imposed upon migrants by the bureaucratic red tape of immigration policy and customs enforcement.

In the film *Disintegration 93–96*, Revereza focuses on his childhood memories as an undocumented immigrant. He turns the camera toward himself in footage that places him in different landscapes, echoing the format of old family homevideos. An intimate first-person narration reveals his inward-looking approach to the everyday struggles of migration and posits a more complex and conflicting exploration of discourses related to the American dream and official narratives of migration.

Revereza also focuses on personal experiences in *FOLDS*, which documents everyday long-distance exchanges with family members. A superimposition of different types of footage encompassing travel, architecture, and visual abstraction allows for "distances to be folded to touch the other side like a folded map," he says. "In making these folds, reaching across borders from which I am living in exile." This silent film reifies the challenges faced by undocumented families with conciliating identities who must traverse physical and affective borders to keep their vital ties and solidarities afloa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198, 219

S 46

켄트 찬
〈온난 전선〉, 2021

4채널 비디오, 거울 플렉시글라스에 실크스크린 4점, 거울 플렉시글라스 4점. 61분 14초(비디오); 각 59.4 × 84.1 cm(플렉시글라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제작 지원
작가 제공

Kent Chan
Warm Fronts, 2021

4 channel video, 4 mirrored plexiglass with silkscreen print, 4 mirrored plexiglass. 61 min 14 sec (video); 59.4 × 84.1 cm each (plexiglas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켄트 찬, 〈온난 전선〉, 2021. 사진: 프란츠 뮬러 슈미트. 작가 제공

Kent Chan, *Warm Fronts*, 2021. Image by Franz Mueller Schmidt. Courtesy of the artist

켄트 찬의 작품은 (식민주의)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열대적 상상력과 이미지를 다룬다. 싱가포르 출신인 작가는 그동안 서구 시각 문화에서 나타난 열대성의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미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기후와 지리를 넘어 미래의 열대현실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탐구해 왔다. 각종 시청각 자료를 리믹스한 비디오, 사운드, 설치 작품에서 열대지방은 상상가능한 미래 지도로 탈바꿈된다.

4채널 비디오 설치 〈온난 전선〉은 각기 다른 열대 지역 출신인 DJ 4명이 만든 음악적 세팅을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허구의 열대 이야기로 구성된 비디오와 플렉시글라스 포스터는 전자 음악에 연루된 미래주의자의 선언을 암시하며 태양열과 연결된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소개되는 〈온난 전선〉은 서소문본관 3층 크리스탈 갤러리의 독특한 수직 공간을 듣고, 춤추고, 급진적인 열대 미래를 상상하며, 기후의 경계를 연결하는 열동맹 장소로 변화시킨다.

Kent Chan's work engages tropical representations and imaginaries dating from the (colonial) past. Originally from Singapore, Chan investigates how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esthetics of tropicality can be activated to render future tropical realities, beyond our current climates and geographies. Audiovisual materials are remixed in his videos, sonic works, and installations wherein the tropics become possible cartographies of the future.

The four-channel video installation *Warm Fronts* presents musical sets by four DJs each from a different region of the tropics. Chan's videos and plexiglass posters propose a fictional global tropics in which past and present overlap, evoking images of solar connections while tapping into electronic music's associations as forms of futurist statements. At SMB12, *Warm Fronts* turns the unique vertical space of SeMA's Crystal Gallery into a territory for listening, dancing, imagining radical tropical futures, and connecting to an alliance of heat that bridges climate borders.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6, 218

S 47

최태윤
〈반송〉, 2023

벽에 아크릴 물감. 가변 크기
현장 어시스턴트: 이채은, 전혜수
작가 제공

Taeyoon Choi
Return to Sender, 2023

Acrylic on wall. Dimensions variable
On-site assistants: Lee Cheaun, Jeon Hyesoo
Courtesy of the artist

최태윤, 〈반송〉, 2023. 작가 제공

Taeyoon Choi, *Return to Sender*, 2023. Courtesy of the artist

최태윤의 활동은 귀여움이라는 성질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을 이끄는 드로잉, 설치, 협업적 방법론, 프로그래밍, 코딩, 회화, 글쓰기, 참여형 워크숍 등을 아우르는,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중첩적인 작업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술 세계의 다양성과 접근성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져 온 작가는 기술, 사회, 인간관계, 환경의 융합을 탐구하며 이러한 상호 작용 안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소개해 왔다.

〈반송〉은 신기술의 환경적 함의에 주목하는 최신작의 부분으로, 작가는 산업 및 친환경 기술에 수반되는 자본주의적 신채굴주의 관행으로 초래되는 사회적이고, 영토적이고, 환경적인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이 벽화 작품은 남반구에서 채굴되어 전자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희토류의 식민주의적 이동 경로의 '지도 그리기'이다. 전자제품이 주로 북반구 선진국 시장을 위해 생산되지만, 반면 전자 폐기물은 대개의 경우 남반구로 반송되어 폐기된다.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토지와 신체의 착취는 다양한 생태와 생명을 위협하며, 변함없이 작동되는 현대 세계의 질서와 식민주의 구조의 잔해를 드러낸다.

Taeyoon Choi's practice is grounded in multiple formats, which include drawings that appeal to the compelling nature of cuteness to address issues of social injustice, as well as installations, collective methodologies, programming and coding, painting, writing, and participatory workshops. In keeping with his long standing concerns surrounding diversity and accessibility in the technological world, his works explore convergences of technology, society,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nvironment, underscoring the possibilities of solidarity within such interactions.

Return to Sender is part of a new series of works in which Choi turns his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which he interrogates through research on the social, territorial, and environmental injustices produced by capitalist neo-extractivist practices that accompany industrial and eco-friendly technology. The wall painting maps the colonial roads of rare earth minerals that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Global South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electronics. Although such products are predominantly produced for markets in the Global North, the discarded e-waste is often sent back to the Global South for disposal. The resulting exploitation of land and bodies threatens multiple ecologies and the reproduction of life, revealing the remnants of colonial structures that continue to inform the contemporary world order.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6, 221

S 48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2018-2019

4채널 비디오와 전자 폐기물 설치. 46분(비디오, 반복 재생); 가변 크기(설치)
카메라: 안톤 숄츠, 클레오피 모세스
출연: 밤바 디아뉴, 달리 음부디, 첸치헝, 아미타 예 펑. 사운드 디자인: 케이던 반 에크
디지털 어스 펠로우십, 네덜란드 비영리기구 히보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영국문화원, 독일연방문화재단 TURN기금 비디오 제작 지원 및 후원. 다카르 케르 티오사네, 요하네스버그 비츠 미술관, 카를스루에 미디어 아트 센터 ZKM 비디오 제작 협력.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 제작 지원. 작가 제공

Francois Knoetze
Core Dump, 2018-2019

4 channel video and e-waste installation. 46 min (video, loop);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amera: Anton Scholtz, Cléophée Moses. Featuring: Bamba Diagne, Darly Mbudi, Chen Qiheng, and Amita Ye Feng. Sound Design: Caydon van Eck
A video series supported by the Digital Earth Fellowship, Hivos, SIDA, The British Council, and the TURN fund of 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Produced in cooperation with Kër Thiossane (Dakar); Wits Art Museum (Johannesburg); and ZKM
Installati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킨샤사〉 스틸, 2018. 사진: 장 밥티스트 주아르. 작가 제공

Francois Knoetze, *Core Dump – Kinshasa* still, 2018. Production still: Jean-Baptiste Joire. Courtesy of the artist

프랑소와 노체는 폐기된 사물의 생애 주기, 그리고 물질과 사회의 역사적 교차점을 탐구하며, 이것을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형태로 소개한다. '폐품 수집가'를 자칭하는 작가는 전자 폐기물을 수집하고 재조립하여, 사회, 기술, 추출과 폐기물의 공간을 모호하게 하는 오염되고 은폐된 주제를 시각화한다.

〈코어 덤프〉는 광섬유 케이블, 철새의 이동, 상충되는 역사, 하천 시스템과 무역로의 복잡한 망으로 얽혀 있는 네 개의 도시 킨샤사, 선전, 뉴욕 그리고 다카르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연작과 전자 폐기물로 만든 조각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대륙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이 작품은 재료의 원산지, 생산, 소비, 유통, 그리고 폐기 처리까지 범지구적 정보기술 생태계를 탐구하며, 자본주의의 디지털 가상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예술적 탐험은 가상의 지정학적 지도 형태를 경유하여 추출로 이루어진 식민 문화의 전복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비디오 네 편은 불확실성과 지속불가능성이 충돌하여 붕괴가 임박한 디지털 신경계를 묘사하는 파운드 푸티지, 퍼포먼스 기록, 인터뷰 녹취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시공간을 뚜렷하게 구분하며 구축된 영상과 음향은 사람 사이의 연결성과 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디지털 기술, 인공두뇌학, 식민주의, 비동맹운동에 관한 사유를 바탕에 두고 있다.

Working in sculpture, video, and performance, Francois Knoetze explores the life cycles of discarded objects and the historical intersections between materials and societies. Referring to himself as a "scavenger," Knoetze collects and reassembles e-waste to make contaminated and concealed subjects that blur social, technological, extractive, and waste spaces.

Core Dump is a series of videos set in Kinshasa, Shenzhen, New York, and Dakar—four cities intertwined in a complex web of fiber-optic cables, migratory patterns, conflicting histories, river systems, and trade routes. Originating from a project that traverses continents, the work explores the ecology o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places of material orig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as well as disposal treatment, aiming to reveal the digital virtuality of capitalism. This journey surveys the possibilities of inverting the colonial culture of extraction by documenting it in the form of a fictional geopolitical map. Knoetze's four videos incorporate a mixture of found footage, performance documentation, and interview transcripts that collectively portrays a digital nervous system on the brink of collapse amid a collision of uncertainty and unsustainability. In this work, video and audio forge a distinct sense of time and space while foregrounding notions of digital technology, cybernetics, colonialism, and the Non-Aligned Movement, thereby underlining human conn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narrative.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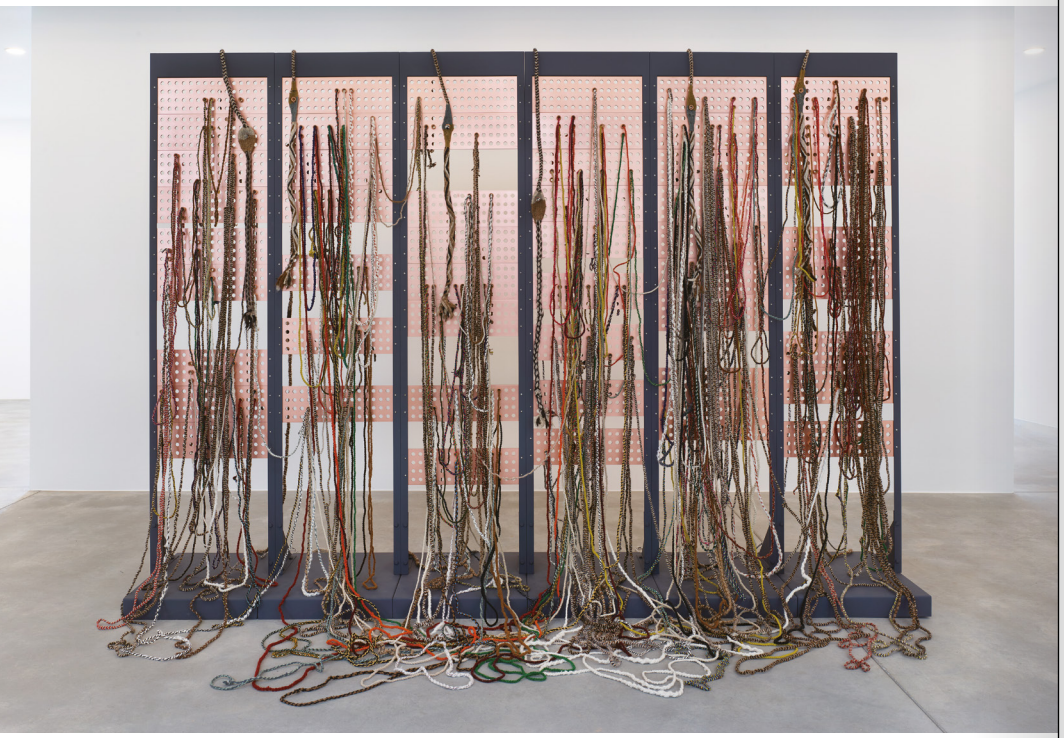
S 49

히메나 가리도-레카 〈프로토몰피즘(최초의 형태): AGC 로프 드라이버 모듈〉, 2022

철물 구조, 동판, 철판, 테라코타, 고무, 알파카 울, 양모, 솜. 223 × 310 × 60 cm
작가 및 퀼른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 제공

Ximena Garrido-Lecca *Protomorphisms: AGC Rope Driver Module*, 2022

Steel structure, copper plates, steel plates, terracotta, rubber, alpaca wool, sheep wool, cotton. 223 × 310 × 6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Gisela Capitain, Cologne



히메나 가리도-레카, 〈프로토몰피즘(최초의 형태): AGC 로프 드라이버 모듈〉, 2022. 작가 및 퀼른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 제공

Ximena Garrido-Lecca, *Protomorphisms: AGC Rope Driver Module*,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Gisela Capitain, Cologne

히메나 가리도-레카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지리적 경계로 나뉜 인간 집단이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생겨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그 영향에 관해 탐구한다. 〈프로토몰피즘(최초의 형태): AGC 로프 드라이버 모듈〉은 데이터 저장 기기의 원형과 컴퓨터 산업이 인간의 오랜 수공 기술인 직조에 기초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작품명의 AGC는 1969년 유인 달 탐사를 가능케 했던 초기 컴퓨터 모델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를 가리킨다. 작품의 구조는 아폴로에서 사용한 기존의 회로 테스트 보드를 기초로 만들어 졌다.

전자 엔지니어와 협업을 통해 작가는 기존의 컴퓨터에서 글쓰기를 생산하던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의 설계도를 활용하고, 컴퓨터의 구리선을 알파카 울, 솜, 양모 등으로 대체하였다.

초창기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을 위한 '로프 메모리'는 마치 베를 짜듯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도선을 엮어 만들어졌다. 여성은 이러한 로프 메모리 직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들은 로프 어머니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작가는 로프 메모리 여성 노동자들을 잉카 문명의 마마 킬라, 아즈텍 문화의 코욜사우키, 마야 문명에서 달과 직물의 여신 익스첼 등 스페인 정복 이전 문화의 여성 수호자들과 중첩해서 사유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서구와 남성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만들어진 동시대의 기술 문화와 범지구적인 보편성을 여성 노동자의 손 기술이나 인류 문명의 수호자와 같은 오래된 지식 체계와 연결 지으며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촉구한다. 나아가, 작품은 직조와 같은 원초적인 인간의 기술이 과학과 서구 문명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Ximena Garrido-Lecca analyzes the unequal power systems created by different human groups, divided by social, cultural, and geographical borders, who exploit and rule over natural resources and how they shape the world. *Protomorphisms: AGC Rope Driver Module* is based on the history that data storage devices and computer industries originated in weaving practices, a long-time craft technique. AGC in the title refers to the Apollo Guidance Computer, the early computer system that made possible the 1969 crewed expedition to the moon. The structure is based on a circuit testing board originally used for the Apollo. Garrido-Lecca collaborated with an electronic engineer, utilizing the Apollo Guidance Computer's blueprints to reproduce writing that was originally used in the computer. She uses natural fibers such as alpaca fleece, cotton, and wool to substitute for computers' copper wires.

The "rope memory," referring to a data storage device in early computers, was hand-woven wire ropes. The women who played pivotal roles in the weaving process were called rope mothers. The artist sees overlaps between the rope mothers and female guardians of pre-Hispanic cultures, such as Mama Killa of the Inca civilization, Coyolxauhqui of the Aztecs, and Ixchel the goddess of moon and textiles of the Mayan civilization.

The artist connects the contemporary culture of technology and global universality, constructed through western and patriarchal industrialization, with old knowledge systems, including women's manual labor and protectors of human civilization, encouraging a new way of thinking. The piece also underlines that weavings, primitive human technologies, were a cornerstone of science and the development of western civilization.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8, 223

S 50

최찬숙
〈THE TUMBLE〉, 2023

2채널 비디오 설치(4K, 컬러, 사운드), 단채널 비디오 설치(Full HD, 컬러, 사운드), 아카이브 자료
12분(2채널 비디오, 반복 재생); 9분(단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아카이브)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제작 지원. 작가 제공

Chan Sook Choi
THE TUMBLE, 2023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4K, color, sound),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ull HD, color, sound), Archives. 12 min (2 channel video, loop); 9 min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pre-production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Courtesy of the artist

최찬숙은 이동, 이주, 공동체의 매개체들을 통해 땅과 몸의 다층적인 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은 퍼포먼스, 설치, 영상과 사진을 결합하여 시적이면서 때로는 추상적인 공간성을 표현하고, 정동과 환경이 뒤얽히며 장소에 대한 감각을 환기한다. 작가는 정서적, 인식론적, 지리적 지형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소외된 이들과 그러한 상황을 구축한 시스템, 공동체, 그리고 땅에서 쫓겨났거나 '방출된' 이들의 몸을 상기하고, 그들이 남긴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흔적을 되새긴다.

이번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된 〈THE TUMBLE〉은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사회와 자연 생태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만든 신작이다. 커미션 작품 제작을 위해 아리조나를 방문한 작가는 바람에 몸을 날려 씨를 뿌리는 회전초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냈지만, 회전하는 회전초는 찾지 못했다. 대신 작가는 회전초가 나타나는 지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정보를 모으고,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라난 곳에서 멀어지며 바람을 따라 형성된 종의 생물학적 특이점을 배우게 된다. 작품은 다른 종의 몸을 통해 변형된 몸의 제스처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를 탐구한다.

Chan Sook Choi's artistic practice investigates the multipl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land and body through vectors of movement, migration, and community. Her works combine performance, installation, video, and photography in poetic and often abstract evocations of spatiality that yield a sense of place in which affect and environment are intertwined. Through the images and sounds of these affective, epistemological, and geographical topographies, Choi recalls the bodies of those who ar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marginalized, and those pushed or "leaked out" from systems, communities, and territories alike, as well as the material and immaterial traces they leave behind.

Choi's new work *THE TUMBLE*, commissioned by SMB12, is an outgrowth of her recent interest in deserts and the social and natural ecologies that they breed. The artist visited Arizona for the production of the commissioned work. After a long time trying to capture the lively figures of tumbleweed–scattering seeds by riding on the wind, she could not find the tumbling tumbleweed. She instead collected a database and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ea where the tumbleweed appears. Based on her research, the artist conducted interviews with scientists in various fields, and learned about the biological singularity of a species that is formed by the wind, and travels away from where it grew up. Through the bodies of other species, she explores the gestures of the deformed body and the layers that constitute it.

최찬숙, 〈THE TUMBLE〉 스틸, 2023. 작가 제공

Chan Sook Choi, *THE TUMBLE* stil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6, 213

S 51

파이어룰 달마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2023

합성 폴리머 페인트(골든) 위에 폴리메타크릴산 메틸(플렉시글라스 타이거), 에폭시 레진(사무라이 2K), 양극산화 알루미늄 합금 위에 카멜레온 탄소 섬유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아크릴산 접착제(Vvivid XPO), 벌집무늬 역반사테이프(그립온), 폴리메타크릴산 메틸과 나무 위에 폴리염화비닐과 비금속 반사테이프(스티브 앤 리프), 폴리에스터 실로 직조한 다양한 재활용 직물, 폴리염화비닐 위에 자일렌
413 × 1730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및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제작 지원. 작가 제공

Fyerool Darma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2023

Polymethyl metacrylate (Plexiglas Tiger), epoxy resin (Samurai 2K) on synthetic polymer paint (Golden), chameleon carbon fiber polyvinyl chloride and polyacrylate adhesive (Vvivid XPO) on anodized aluminum alloy, honeycomb retroreflective tape (GripOn), non metalized reflective tape (Steve & Leif) on polyvinyl chloride on wood on polymethl metacrylate, varied textiles salvaged and woven with polyester thread, xylene on polyvinyl chloride. 413 × 1730 cm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파이어룰 달마, 〈I♥ndsc_₱€$s〉, 런던 타뷸라 라사 갤러리 전시 전경, 2022. 작가 제공

Fyerool Darma, *I♥ndsc_₱€$s*, Exhibition view at the Tabula Rasa Gallery, London, 2022. Courtesy of the artist

회화를 전공한 파이어룰 달마는 최근 동남아시아의 문화, 역사, 미학, 정치와 함께 모더니즘 미학과 이념을 다루는 사운드, 비디오, 뉴미디어, 조각, 공예를 결합한 설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달마는 점진적으로 유무형의 말레이 문화유산, 인터넷, 문학, 대중문화, 그리고 공예, 시각 예술, 제조, 수작업 노동 역사의 자료에서 자신만의 복합적인 시각 언어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다른 작가나 제작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직물, 전자 폐기물, 파운드 이미지, 회화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의 작품에 다시 활용하여, 작품의 저자를 가르는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번 비엔날레가 커미션한 신작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는 모더니즘 양식과 동남아시아 어휘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연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벽에 설치되는 작품은 온라인 아카이브, 스톡 이미지, 폴리머 회화, 드로잉,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캠페인에서 사용후 업사이클링된 현수막 등에서 채집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 모두는 총체적으로 열대지역의 후기 묵시록과 인터넷 풍경 사이에 스며있는 전후 테크노-군사-산업화, 그리고 동시대의 기후위기 등 식민주의의 복잡한 역사성을 환기시킨다.

A painter by training, artist Fyerool Darma integrates sound, video, new media, sculpture, and craft practices into his recent installation works, which juxtapose the aesthetics and ideology of modernism alongside Southeast Asian cultures, histories, aesthetics, and politics. He has gradually developed a complex visual vocabulary that draws from sources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Malay heritage, the Internet, literature, popular culture, the history of craft, visual arts, manufacturing, and manual labor. He also repurposes salvaged textiles, e-waste, found images, paintings, and other materials as part of a collaborative process with other artists and producers that blurs the boundaries of authorship in his works.

Darma's ongoing research into modernist forms and Southeast Asian vocabularies is encapsulated in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a new commission by SMB12. This wall installation features patterns from online accessible archives, stock images, as well as polymeric paintings, drawings, and upcycled banners of Singapore's national campaigns to collectively evoke the complex history of colonialism, postwar techno-military-industrialization, and contemporary climate crisis, all of which are situated amid a tropical post-apocalyptic and post-Internet landscape.

배치도 FLOOR PLAN p.84
색인 INDEX p.207, 215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B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주중 · 주말 9AM–6PM
월요일 휴관

지하철 광화문역 (5호선)
버스 서울역사박물관

55, Saemunan-ro, Jongno-gu,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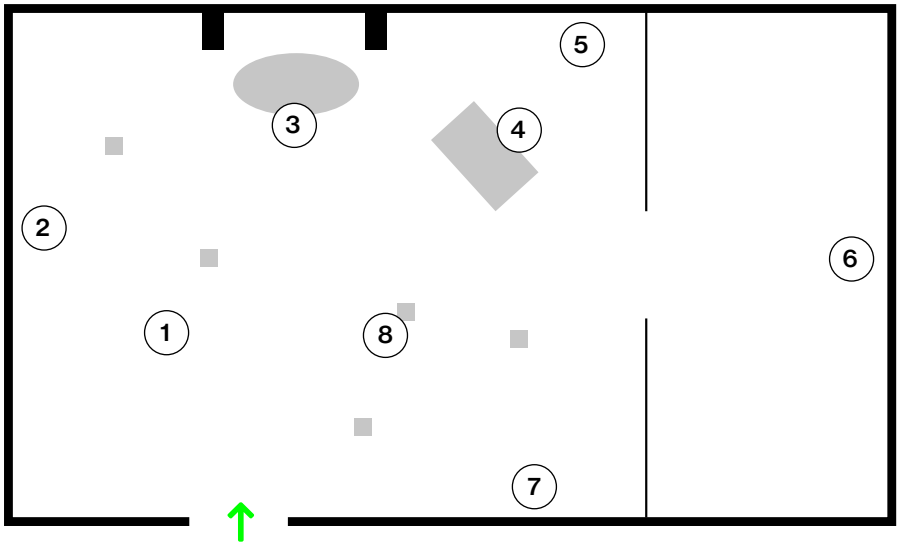
Weekdays & Weekends 9AM–6PM
Closed on Mondays

Subway Gwanghwamun (Line 5)
Bus Seoul Museum of History

〈시, language for new moons〉는 제시 천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이다. 제시 천은 무빙 이미지, 드로잉, 설치와 조각을 통해 언어와 권력에 관해 미묘한 질문을 던지는 몰입형 시학을 만들어 왔다.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 이후 홍콩, 캐나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토착어와 신조어 등 비영어권 언어, 특히 비서구권 서사와 역사가 소외되고 변화하는 데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작가의 가족사, 한국 민속 문학, 그리고 출생지 한국과 관련한 작품에서 작가는 언어의 '이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우주론을 기반으로 한 지도 그리기를 시도한다. 언어를 음소, 문자, 이미지, 별자리 단위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사회와 기호학 구조에 균열을 가하는 언어의 추상화를 그려낸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할머니의 승무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새로운 존재 되기의 행위까지, 작가의 새로운 언어, 문화, 시간과 의미에 관한 복합적 기억, 시작이 반복되는 삶과 같은 독창적인 시선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제시 천의 작품은 서울 곳곳에서 보존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헌신하고, 새로운 창작을 낳는 역사와 시학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시, language for new moons is a survey exhibition of Jesse Chun, whose immersive poetics in moving image, drawing, installation, and sculpture invoke delicate questions about language and power. Chun was born in Korea and subsequently lived in Korea, Hong Kong,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here she observed the marginalization of non-English languages, particularly non-Western narratives and histories. Drawing from sustained connections to her own matrilineal history, Korean folk literature, and the country of her birth, Chun uncovers the "other side" of language, mapping its various cosmologies. By deconstructing languages into fragments of phonemes, characters, images, and constellations, Chun embraces linguistic abstractions that fracture its social and semiotic structures. In presenting these works at Seoul Museum of History, she extends to visitors an inimitable opportunity to summon new languages, hybrid memories of culture, time, meaning, and the experience of beginning anew—from her grandmother's shamanic dance to the act of translating cross-territorial becomings.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Chun's works unfold new ways of seeing the histories and poetics that percolate through Seoul, arising from preservation, complexity, devotion, and reinvention.

1 8 작품 Artworks



H1 제시 천, Jesse Chun
〈*시: sea*〉
2022

H2 제시 천, Jesse Chun
〈*시: concrete poem*〉
2023

H3 제시 천, 〈오 더스트〉
Jesse Chun, *O dust*
2023

H4 제시 천, Jesse Chun
〈*And verse(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2023

H5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그리고 우주)〉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천지문 and cosmos)*
2023

H6 제시 천, Jesse Chun
〈*솔래 SULLAE*〉
2020

H7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2021-2023

H8 제시 천, 〈새로운 달들에 대한 노트들(a reader); 새로운 달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할머니 이옥선, 법명 정각행의 노트들; 역사에 대한 다른 노트들; 나의 답장들 - 같이 말하기에 대해서 -〉
Jesse Chun, *notes on new moons/oak/sun (new moons are often invisible to the naked eye; notes by my grandmother Lee Oak Sun–buddhist name Jeong Gak Haeng; other notes on history; my offerings–on speaking together)*
2023

H 1

제시 천
〈시: sea〉, 2022

흰색 MDF 구조물에 단채널 비디오,
2개의 거울, 돌. 2분 10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시: sea, 2022

Single channel projection on a free standing white painted MDF structure, 2 mirrors, rocks
2 min 10 sec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시: sea〉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작동시키는 거울, 바위, 오역에 대한 연구 노트와 여러 텍스트 기반의 시각물 등의 오브제를 차용하여, 언어의 '이면'에 관한 작품 세계의 전반을 소개하는 무빙이미지-시이다. 작품은 파편으로 조직되는 삶에 있어서 언어 권력이 어떻게 가독성과 추상성의 헤게모니적 관념을 통해 흐르는지 드러낸다.

시: sea is a moving image poem that employs many of Chun's operating objects, including mirrors, rocks, research notes on mistranslation and other textual ephemera, in a brief introduction to the artists overall work on language's "other sides." These dwell on how language powers flow through hegemonic ideas of legibility and abstraction, while experienced life is conducted in fragments.

제시 천, 〈시: sea〉, 2022
작가 및 마이에미 메인 예술 및 디자인 대학교 현대미술관 제공

Jesse Chun, *시: sea*,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ICA at MECA, ME, US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204, 216

H 2

제시 천
〈시: concrete poe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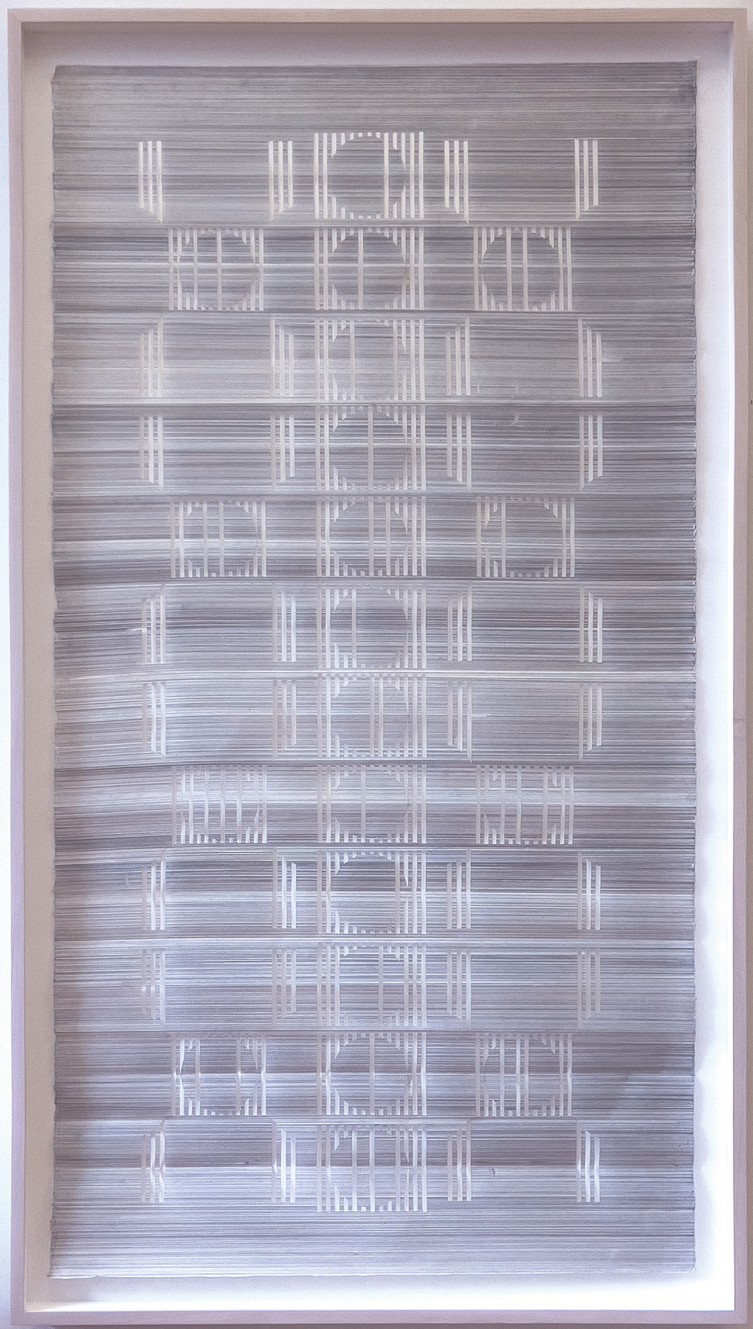
흑연, 손으로 자른 한지, 나무 프레임
158.75 × 91.44 × 6.35 cm(3점)
도움주신 분: 이창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시: concrete poem, 2023

Graphite, hand cut Hanji (Korean mulberry paper), wood frame
158.75 × 91.44 × 6.35 cm each (3 pieces)
Special thanks: Lee Chang 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제시 천의 한지 작품 〈시: concrete poem〉은 틈, 구멍, 의미와 시간을 거쳐 전달되고 발화하는 말하기와 선언의 의미를 통해 언어와 물질성에 관한 명상으로 우리를 이끈다. 작가는 한지에 흑연으로 선을 그린 후, 특정 의미가 없는 '아세믹' 텍스트를 칼로 도려내는 노동집약적이고 신중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품에서 시각화된 추상적 형태는 O, ㅇ, I, L, ㅣ, ㅓ, ㅏ [오, 이응, 아이, 엘, 이, 어, 아]와 같은 한글과 영어의 문자소와 그들 사이에 위치한, 번역될 수 없는 여백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기법은 한국에서 벽사, 의식, 축원을 위한 부적을 만들거나 시공을 초월한 소통에서 사용하기 위해 칼로 한지를 도려내는 무속인의 기법으로, 작가는 이것을 배우고, 재해석하여, 고유의 암호화된 언어를 가진 작품으로 창작하였다.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 사이에 위치한 제시 천의 콘크리트 시는 언어의 디아스포라적, 실존적, 우주적 조건을 투영하는 작품이다.

Chun's large-format hand cut paper works propose meditations on language and materiality, inquiring into what it means to speak and enunciate through gaps, holes, and time. In a laborious and deliberate process, Chun draws graphite lines on *Hanji* (Korean mulberry paper), then hand cuts her own asemic writing with a scalpel blade into the paper. Chun's language features abstracted shapes that are derived from Korean and English graphemes (such as O, ㅇ, I, L, ㅣ, ㅓ, ㅏ), and the untranslatable spaces in between. This paper cutting technique was taught to Chun by a local Korean shaman, who uses it to make traditional talismans for protection, ceremony, and blessing as well as to communicate across time and place. Chun reinterprets this technique to create her own cryptography. Situated somewhere between the legible and illegible, Chun's concrete poems reflect on diasporic, existential, and cosmic conditions of language.



제시 천, 〈시: concrete poem〉, 2023. 작가 제공
Jesse Chun, *시: concrete poem*, 2023.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204, 216

H 3

제시 천
〈오 더스트〉, 2023

3채널 비디오 설치, 3개의 거울
7분 6초(비디오), 사운드; 가변 크기(설치)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O dust, 2023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3 mirrors
7 min 6 sec (video), with sound;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제시 천, 〈오 더스트〉 스틸, 2023. 작가 제공
Jesse Chun, *O dust* stil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오 더스트〉는 문화 유산에 관한 유럽 중심적 번역과 역사성을 주변화하며, 언어, 유산, 무형문화를 가깝게 비추며 드러내는 작품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사에서 촬영한 작품은 통역부스, 통역기, 마이크, 텅 빈 회의실,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 등 제도화된 말하기 장치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본다. 비선형적 구도를 가진 작품은 무빙이미지-시, 여러 언어를 중첩한 상상의 전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무용수였지만 역사화되지 못하고 승려로 삶을 마감한 작가의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사이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 UN의 프랑스어 통역사와 작가의 음성으로 구술되는 〈오 더스트〉는 청각적이고, 언어적이며, 시각적인 파열음을 만들며 관료적인 서사를 벗어나 발화된다. 작가는 세 개의 다른 문자를 직조, 조율, 중첩하여 읽기 어렵게 만들며, 독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이나 허밍을 더하여 유럽 중심적인 언어의 위계와 문화 패권에 도전한다. 작품은 전승된 가사가 소멸된 이후의 시공간과 입, 장소와 시간을 거슬러 계속해서 전승되는 것을 서로 매개하고 있다.

O dust uncovers intimate reflections on language, heritage, and the intangible, while decentering the Eurocentric translation and historiography of cultural inheritance. Filmed at the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FR), *O dust* looks through the institutional apparatus of speech, such as the interpreter's booths, machines, microphones, empty conference rooms,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The non-linear film oscillates from moving image poetry, an imaginary multilingual folklore, to an abstract letter to Chun's late grandmother, who was an un-historicized Korean folk dancer, and later a Buddhist monk. Aurally narrated by a French translator from the UN and the artist herself, it speaks through layers of sonic, linguistic, and visual ruptures that evade the bureaucratic narrative. Chun manipulates texts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turning and overlapping them, so that they become difficult to read, and inserting indecipherable murmurs and hums to fracture the presumption of Eurocentric linguistic hierarchies and cultural hegemony, and insist on an imperative of the untranslatable. *O dust* meditates on the afterlife of inherited lyrics; and what continues to get carried across tongues, place, and time.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 204, 216

H 4

제시 천 〈And verse(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2022

단채널 비디오 설치, 4개의 UV 프린트 아크릴 패널, 돌, 침묵. 1분 59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And verse (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는 돌, 인덱스 페이지의 파편, 투명한 아크릴 판 위의 텍스트를 바닥에 영사하는 비선형적 무빙이미지-시이다. 영사되는 무빙 이미지는 언어와 번역의 자율성과 불일치성,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천체의 주기를 투영하는 연못, 악보, 암호화된 문서를 보여준다. 구름, 연기, 각주와 깨어진 문자들은 어휘와 문법을 구축하며 새롭게 굴절된 시적 세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작가의 예술적 수행은 개인의 번역되지 않는 내면, 그리고 번역과 이주에 관한 침묵의 소리를 드러내며, 언어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담아내고 초월한다.

Jesse Chun *And verse (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2022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4 UV printed acrylic panels, rocks, silence. 1 min 59 sec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And verse (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is a non-linear moving image poem that pairs a floor projection with rocks, fragments of index pages, and texts on transparent acrylic panels. The projected moving images feature a pond, a score, and a cryptic set of documents that reflect the autonomy and inconsistency of languages and translations, as well as the circumnavigations of celestial bodies that repeatedly rise and fall. Clouds, smoke, annotations, and broken letters compose a vocabulary and grammar that collectively builds a new fractured poetics. Chun's practice thus inhabits and transcends the sociopolitical contexts of language to reveal the untranslatable inner self and the audible silences of translation and migration.

제시 천 〈And verse(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2022. 작가 제공
Jesse Chun, *And verse(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2022.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204, 216

H 5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그리고 우주)〉, 2023

흑연, 안료, 벨륨지, 핀, 로마자 알파벳, 지우개,
2개의 아티스트 프레임. 각 38.1 × 27.94 cm(2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천지문 and cosmos), 2023

Graphite, pigment, vellum paper, pins,
roman alphabets, eraser, 2 artist frames.
38.1 × 27.94 cm each (2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H 7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 2021-2023

흑연, 안료, 벨륨지, 핀, 로마자 알파벳, 지우개.
각 33.02 × 26.67 cm(8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캐나다
토론토 현대 미술관 제작 지원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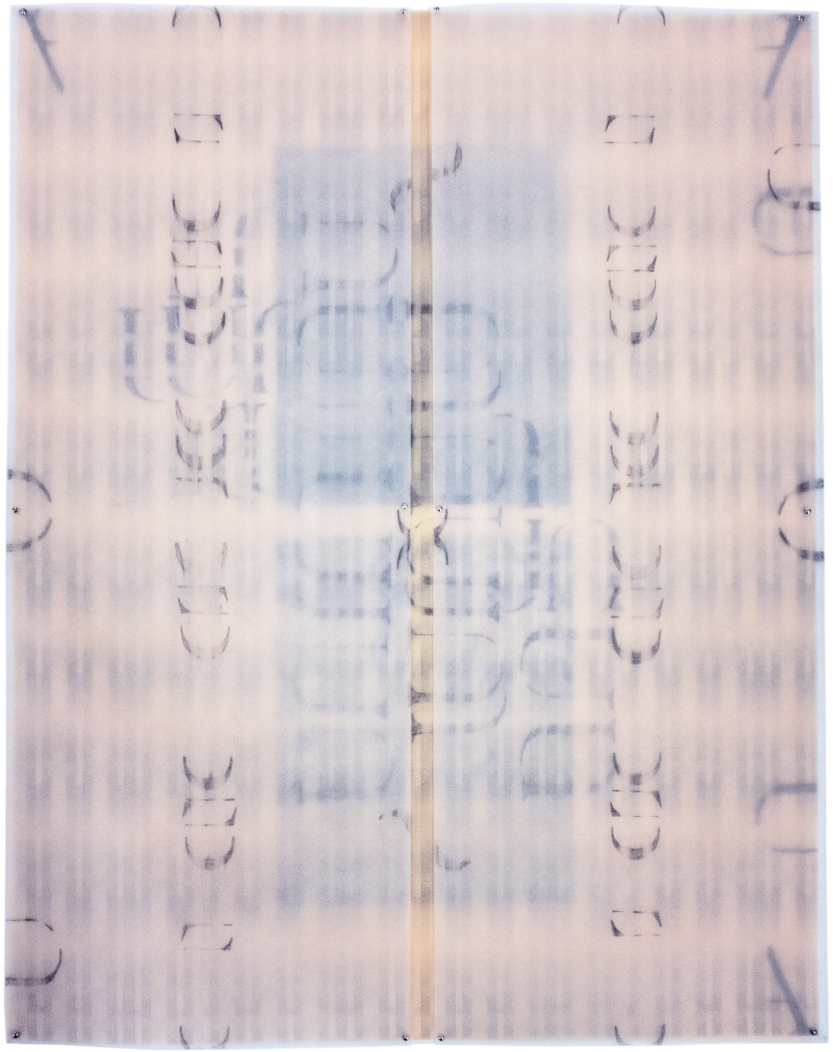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2021-2023

Graphite, pigment, vellum paper, pins,
roman alphabets, eraser.
33.02 × 26.67 cm each (8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ronto, Canada. Courtesy of the artist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그리고 우주)〉, 2023. 작가 및 백사노 볼룸 마파 제공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천지문 and cosmos)*, 2023.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llroom Marfa, TX, US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 204, 216



제시천, 〈탈언어화의 악보〉, 2021. 작가 제공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2021. Courtesy of the artist

제시 천

JESSE CHUN

〈탈언어화의 악보〉는 반은 읽을 수 있고 반은 추상적인 촉각 드로잉 연작이다. 이 작품은 로마 알파벳에서 추출하여 분리된 기호를 주요 편집점으로 잡고, 민감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워터마크가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고, 부분적으로 감춰지면서 구성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알파벳 스텐실을 사용하여 새로운 텍스트적 궤적과 우주관을 상상하며 기호학적 형상과 의미를 추상화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종이의 패턴은 작가가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다양한 워터마크를 비선형적 구도로 배치하여 자신만의 '악보'로 주문 제작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품은 언어, 의미, 가독성의 미묘하고 순환적인 뉘앙스로 가득 채워진다. 작가가 말하는 '탈언어화'의 과정은 작가 개인의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아시아의 구전 전통 철학으로 나아가며 더욱 구체화된다. 한국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소리는 마치 말하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호흡을 만드는 생명의 리듬에 기반을 둔다. 작가는 다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악보를 그들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번역'하며, 작품은 이와 같은 퍼포먼스와 협업을 통해 활성화된다.

Score for unlanguaging is Chun's ongoing series of tactile drawings that are semi-"readable" and semi-abstract, taking shape amid disjointed symbols from the Roman alphabet that are subject to redactions—markings used to conceal sensitive information—which are then repeated, layered, and partially erased. Using an alphabet stencil, Chun abstracts semiotic shapes and meanings in order to consider new textual trajectories and cosmologies. The score's patterned paper is custom-made by Chun, who incorporates various bureaucratic watermarks into her own "score" of non-linear composition lines. In so doing, she imbues the score with nuanced and circular passages of language, meaning, and legibility. The process of "unlanguaging" that Chun proposes becomes more concrete as the project progresses further into the artist's diasporic experience and the philosophy of oral traditions in Asia. From a Korean perspective, traditional sounds are based on the rhythms of life that produce breaths such as speaking, singing, and telling stories. The scores are also activated through performance and collaborations with other artists, who are invited by Chun to "translate" them in their own interpretations.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 204, 216

H 6

제시 천
〈술래 SULLAE〉, 2020

단채널 비디오. 6분 25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술래 SULLA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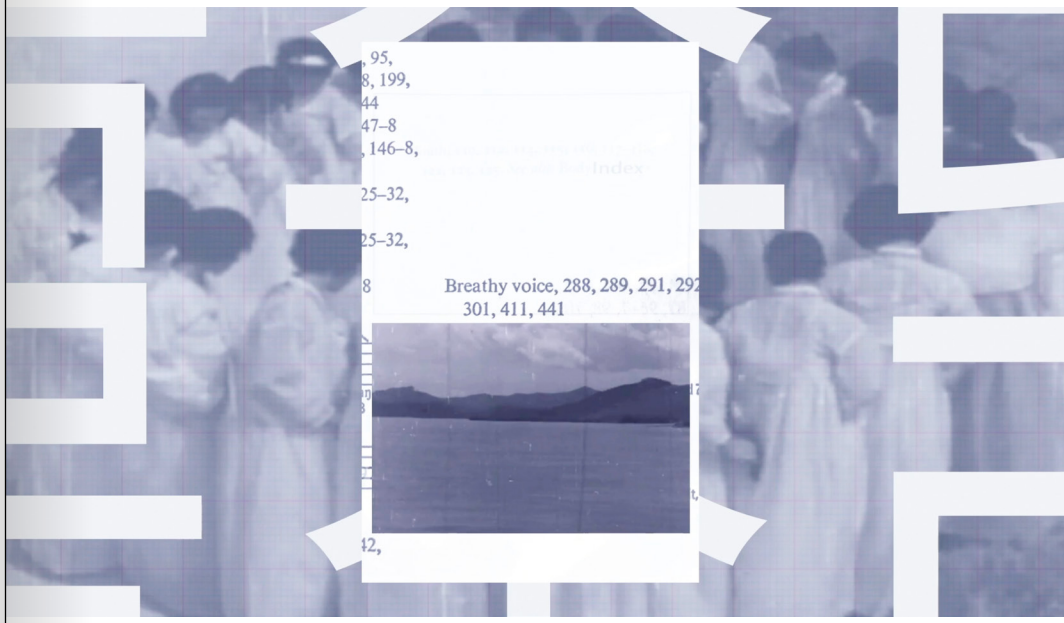
Single channel video. 6 min 25 sec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2020년 작가가 살고 있던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인종혐오적인 범죄가 급증했고, 특히 아시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과 무기화된 언어와 폭력이 지속되면서 미합중국 우주군은 화성과 달과 같은 천체를 식민화하는 계획을 세우게된다. 작가는 달을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시학을 찾기 위한 작품의 개념적인 장소로 보았다.

〈술래 SULLAE〉에서 제시 천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강강술래를 소환하여, 한국 여인들의 달춤을 탈식민지적 은유와 위안으로 활용한다. 작가는 강강술래가 역사에서 여성들이 집단적 침묵의 분노를 터뜨리는 수단이었다고 간주한다. 노래하고,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며, 달 아래에서 원을 그리는 강강술래는 위안을 주었다. 작품에서 영어는 음소, 그리고 무성과 유성의 자음으로 파편화되었다. 작품은 여러 다른 청각적, 시각적, 기호학적 순간을 포착하며, 작가가 말하는 '탈언어화', 즉 추상과 오역의 과정을 통해 영어에 내재된 폭력과 지배를 무력화한다. 작가는 작품에서 언어는 물론 언어가 공동체적 몸과 개인의 내면에 끼치는 영향을 투영하고 있다.

In 2020 there was an extreme rise of racist rhetoric and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USA, where Chun was living, particularly wielded against Asian women. Alongside the rise of the global pandemic and consequent weaponized language and violence, the US space force furthered their plan to colonize celestial bodies such as Mars and the Moon. Chun looked to the Moon as a conceptual site for this film, as a site for new poetics during a difficult time.

In *술래 SULLAE*, Chun draws from her childhood cultural memory of *ganggangsullae*, using the Korean women's moon dance as a decolonial metaphor and solace. Chun also considers the way in which this dance was historically used as a means for women to collectively unleash silenced anger. It provided relief through song, bellowing, yelling, and circling under the Moon. In this video, the English language is fragmented into phonemes and voiceless and voiced consonants. The work focuses in different moments on the sonic, visual, and semiotic; undoing the English language, its embodied violence and dominance through abstraction and mistranslation—a process the artist describes as unlanguaging. Through it, Chun reflects on language, its effect on the collective body as well as on one's interiority.



제시 천, 〈술래 SULLAE〉 스틸, 2020. 작가 제공
Jesse Chun, *술래 SULLAE* still, 2020.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204, 216

H 8

제시 천
〈새로운 달들에 대한 노트들 (a reader); 새로운 달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할머니 이옥선, 법명 정각행의 노트들; 역사에 대한 다른 노트들; 나의 답장들 – 같이 말하기에 대해서 –〉, 2023

5개의 보면대 위에 손으로 쓴 일기, 여러 장의 편지, 사진, 아크릴 패널, 클립, 돌 등.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Jesse Chun
notes on new moons/ oak/sun (new moons are often invisible to the naked eye; notes by my grandmother Lee Oak Sun–buddhist name Jeong Gak Haeng; other notes on history; my offerings–on speaking together), 2023

Handwritten diary, letter pages, photographs, acrylic panels, clips, rocks, and other materials. Dimensions variable
On-site production: 5 music stands, handwritten diary, letter pages, photographs, acrylic panels, clips, rocks, and other materials on 5 music stands.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전시 공간 곳곳에 서 있는 보면대에는 작가의 할머니 이옥선 여사의 손 글씨가 적힌 종이, 사진의 뒷면과 더불어 작가가 여기에 회답으로 남긴 것들이 함께 놓여 있다. 한국의 민속무용가였다가 훗날 비구니로 삶을 마감했던 故 이옥선 여사에 관한 기록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와 후기 식민시대까지 격동기를 거치며 가문의 문서는 물론 한국 민속예술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여사는 역사학과 그것의 공백에 관해 사유하는 작가적 실천에 정신적인 영향을 끼쳤게 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할머니가 남긴 글에 대한 답장이자 헌정의 의미를 담은 꽃, 돌 등으로 장식한 악보대를 선보인다. 시공을 거슬러 함께 이야기하는 이 조각들은 전해지는 가사, 잊혀진 것, 무상함과 내세를 강조하며 제도화되고 역사적인 서사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한다.

Several musical stands punctuate the exhibition space, each containing handwritten pages and the backs of photographs from Chun's late grandmother, Lee Oak Sun. As a Korean folk dancer who later became a Buddhist nun, Lee was left out of her own family records as well as those of Korean folk art history due to the tumult of the Japanes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s. As such, she serves as a spiritual influence in Chun's approach to thinking about historiography and its gaps. The vintage music stands create assemblages of various book pages, Korean silk, images of clouds and smoke on mirror, dried lavender, and other offerings that Chun places in response to Lee's writings. Speaking together across space and time, these sculptures question the structures of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narratives, highlighting inherited lyrics, the forgotten, and the impermanent, as well as their afterlives.

배치도 FLOOR PLAN p.127
색인 INDEX p. 204, 216

SeMA 벙커 Bunke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주중 · 주말 11AM–7PM
월요일 휴관

지하철 여의도역 (5, 9호선)
버스 여의도 환승센터

B 76, Yeoui-daero, Yeongdeungpo-gu, Seoul

Weekdays & Weekends 11AM–7PM
Closed on Mondays

Subway Yeouido (Line 5, 9)
Bus Yeouido Transit Center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SeMA 벙커는 1970년대 군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비밀지하벙커로 2017년부터 미술관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역사적이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추출과 변위의 구조를 주목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SeMA 벙커에서 인간, 기술과 광물의 이동과 관계에 관하여 탐구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 지하 전시장은 자원 채굴, 환경 오염과 천연 자원 등을 둘러싼 물리적 지하 생태계의 매핑을 시도한다.

Prior to opening to the public in 2017 as a satellite branch of SeMA, the underground gallery of SeMA Bunker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as a secret shelter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 the 1970s. Just as *THIS TOO, IS A MAP* engages with underground,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s of extraction and displacement, the works on view at SeMA Bunker investigate the links between human, technological, and mineral displacement.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e mapping of physical underground ecologies through histories of extraction, pollution, and natural resources.

1 4 작품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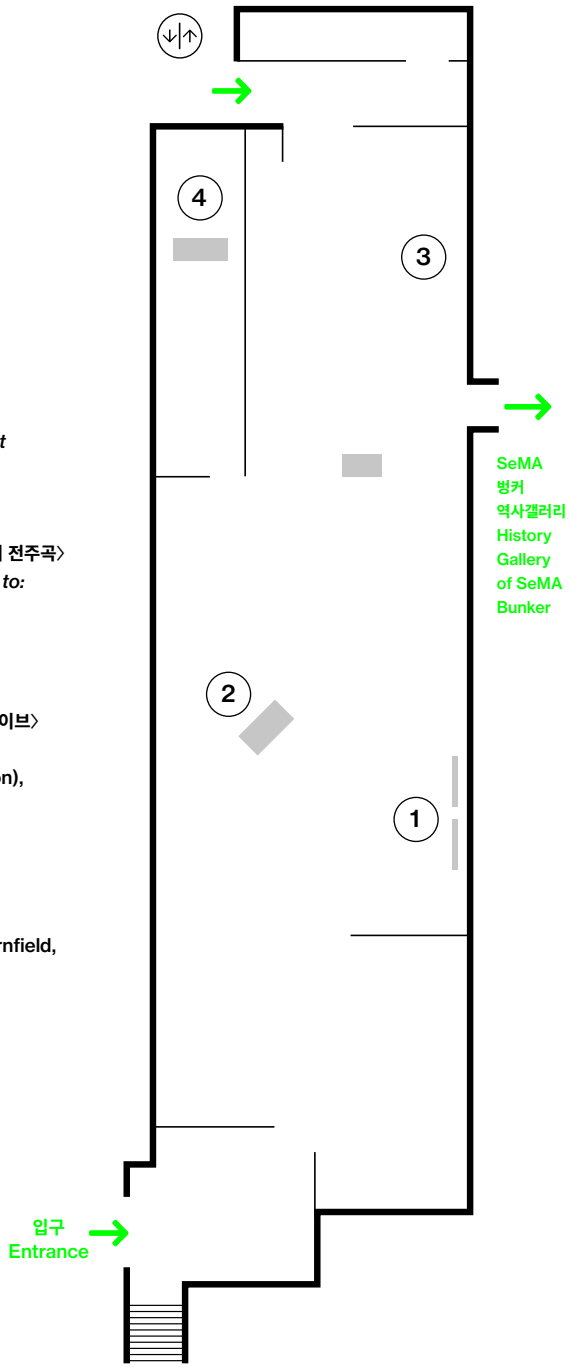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Elevator

B1 펨커 헤러흐라번,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Femke Herregraven, *I See What You Don't See*
2019

B2 펨커 헤러흐라번, 〈먼지가 부유할 때의 전주곡〉
Femke Herregraven, *A Prelude to: When The Dust Unsettles*
2022-2023

B3 로-데프 필름팩토리(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지하 흔적 아카이브〉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Subterranean Imprint Archive*
2021-2023

B4 사샤 리트빈체바&그레임 안필드, 〈아스베스토스(석면)〉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Asbestos*
2016



B 1

펨커 헤러흐라번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2019

단채널 비디오, 2개의 인쇄 패널
49분 16초(비디오);
각 118 × 162 cm(패널)
작가 제공

Femke Herregraven *I See What You Don't See*, 2019

Single channel video, 2 panels with prints
49 min 16 sec (video);
118 × 162 cm each (panels)
Courtesy of the artist

펨커 헤라흐라번,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스틸, 2019. 작가 제공

Femke Herregraven, *I See What You Don't See* still, 2019. Courtesy of the artist

펨커 헤러흐라번은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 생태계, 자기 조직 시스템, 그리고 지질학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을 만들어 왔다. 작가는 오늘날 세상을 경험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하는 금융 기술과 인프라의 영향에 주목하고, 지리학, 지정학,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사를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작품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관계들은 점차 채굴되고 자본화되는 우리 삶의 영향을 드러낸다. 작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추상적인 정보를 시각화하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오브제, 조각, 음향 및 비디오 설치와 같은 형태의 작품을 통해 입증한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물리적으로 땅을 헤치지 않고 지구 표면에서 지하 자원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 시장이 사용하는 기술을 살펴보는 작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기구를 타고 촬영한 영상은 원거리에서 지형 풍경을 보여주며, 인간의 눈이 포착할 수 있는 시야와 규모, 그리고 천연자원 지도와 색인 제작에 활용하고, 결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토지 착취를 촉진시키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지구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인 이미지들은 광물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것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는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희석하고 분리시키는 목소리의 느린 리듬에 맞춰 편집되어 있다.

Femke Herregraven's research-driven practice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value, ecosystems, self-organization systems, and geological instability. Drawing on the impact of financial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s that shape the ways in which we currently experience and relate to the world, Herregraven orients her artistic inquiry toward histories of geography, geo-politics,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complex relations that she formulates also reveal the effects of an extractive and finan-cialized conception of life, which she substantiates in the form of objects, sculp-tures, sound, and video installations created through intensive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analysis, as well as develop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visualizing abstract information.

I See What You Don't See explores technologies used by financial markets to extract value from the earth's surface without physically breaking ground. Shot in South Africa from a hot-air balloon, the film scans the topography of the landscape as a means of conveying the scale of human vision that contrasts with telescopic images of Earth captured by satellites that are used to produce maps and indexes of materials, which then precipitate profit-driven exploitation of the land. The film's poetic images are set to the slow rhythm of a human voice that lists materials, both obscuring and disassociating them from the financial systems they typically serve.

배치도 FLOOR PLAN p.147
색인 INDEX p.207, 214

B 2

펨커 헤러흐라번 〈먼지가 부유할 때의 전주곡〉, 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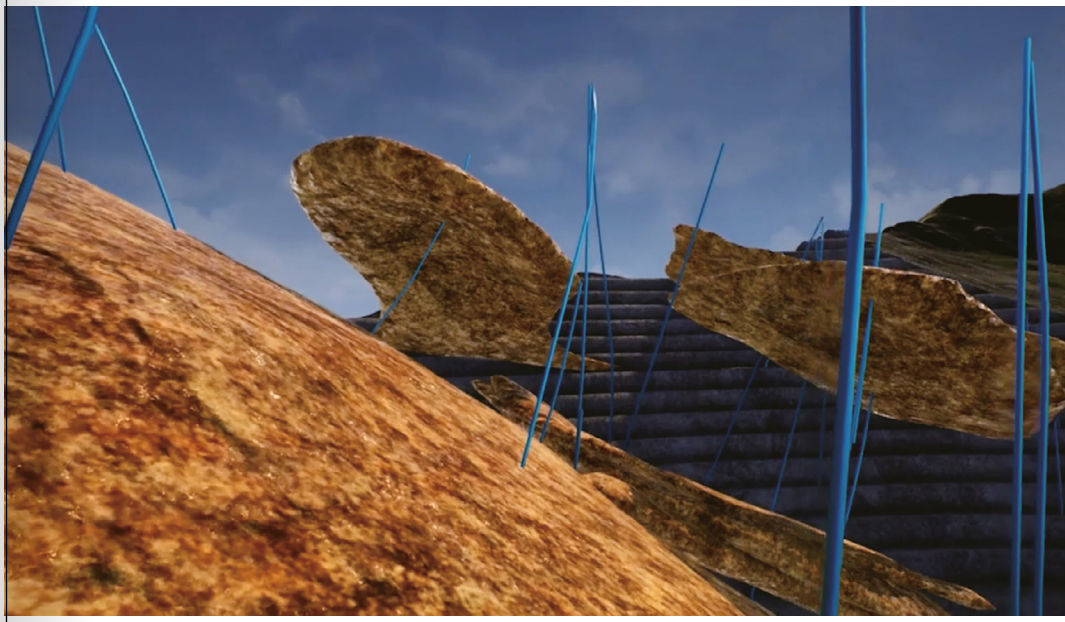
단채널 비디오 설치. 15분 15초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Femke Herregraven *A Prelude to: When The Dust Unsettles*, 2022-2023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15 min 15 sec
On-site Production: Jo Jea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작가가 '광학적 채굴'이라는 명명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먼지가 부유할 때의 전주곡〉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확장된 작품이다. 채굴주의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디지털 트윈'은 금융 지원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이윤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채굴 인프라를 시뮬레이션하고 물리적 세계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매핑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시뮬레이션의 초-정밀한 렌더링 기술로 구현된 가상 마을과 실제 공간의 물리적 감각을 나란히 배치한 이 비디오 설치 작품은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이 한창인 콩고민주공화국 마노노 마을의 '디지털 트윈'이다. 만들어진 마노노 마을의 풍경은 노동과 토지 착취를 당하는 지역민과 자연환경에 끔찍한 영향을 끼친, 글로벌 경제가 구사하는 추상적 언어에 감춰진 광산업의 현실과 정면 충돌한다.

In a continuation of Herregraven's research into "optical mining," *Prelude to: When the Dust Unsettles* expands upon the concept of the "digital twin." In the language of extractivism, the latter term denotes a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 physical world that simulates mining infrastructure prior to actually working on-site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optimize efficiency and profits. In short, it is a method of mapping what cannot be seen. This video installation depicts the digital twin of Manono, a tow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where international companies are developing lithium mega-mines, juxtaposing the virtual hyper-clean renderings of digital simulations and the physicality of the actual spaces they represent. The built landscape of Manono thus clashes with the reality of the mining industry's toxic impact on the local popul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vis-à-vis the exploitation of workers and land, which are unabashedly concealed by the abstract language of the global economy.



펨커 헤러흐라번 〈먼지가 부유할 때의 전주곡〉 스틸, 2022-2023. 작가 제공

Femke Herregraven, *A Prelude to: When The Dust Unsettles* still, 2022-2023. Courtesy of the artist

배치도 FLOOR PLAN p.147
색인 INDEX p.207, 214

B 3

로-데프 필름 팩토리 (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지하 흔적 아카이브〉, 2021-2023

VR 비디오 설치, 벽화. 15분(VR 비디오); 가변 크기(벽화)
벽화 협력: 조-이브 살란캉 사-뇰, 카엘로 몰레페
르 리외 유니크를 위한 울리마타 게예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The Subterranean Imprint Archive*, 2021-2023

VR Video Installation, wall painting.
15 min (VR video); Dimensions variable (wall painting)
Wall painting collaboration: Joe-Yves Salankang Sa-Ngol, Kaelo Molefe
Commissioned by Oulimata Gueye for Le Lieu Uniqu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로-데프 필름 팩토리 (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지하 흔적 아카이브〉 VR 스틸, 2020-2023. 작가 제공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Subterranean Imprint Archive* VR still, 2020-2023. Courtesy of the artist

로-데프 필름팩토리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프랑소와 노체와 에이미 루이스 윌슨이 창립한 예술-제작 공동체 이니셔티브이다. 이들은 주로 지역 서사를 탐구하는 저예산 프로덕션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높은 생산 가치보다 비디오, 콜라주, 조각 설치, 가상현실 등의 매체에 접목되는 아카이브 연구, 드라마투르기, 시각표현의 전략 등의 방법론을 활용한 생각과 경험의 전파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연구자, 예술가, 사상가 간 협업으로 탄생한 VR 작품 〈지하 흔적 아카이브〉는 중-남부 아프리카의 기술정치 유산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반아카이브를 지향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반이 진보 중심 세계관을 수용하며 치뤄야 했던 부분을 조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한 우라늄이 채굴됐던 콩고민주공화국의 싱콜로웨 광산에서 출발하는 작품의 서사는 19세기 자원 채굴을 위해 진행된 지도 제작의 역사,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준비를 위해 감행된 아프리카 대륙 착취,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영토,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끼친 감춰진 진실을 직조한다.

Lo-Def Film Factory is an art-making community initiative founded in 2019 b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in South Africa. Their projects explore local narratives through low-budget productions that place an emphasis on the transmission of ideas and experience rather than high production value, deploying methodologies such as archival research, dramaturgy, and visual strategies that are associated with mediums of video, collage, sculptural installation, and virtual reality.

Representing a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artists, and thinkers from various African countries, the VR work *The Subterranean Imprint Archive* proposes a counter-archive that traces the legacy of technopolitics in Central and Southern Africa and thematizes the toll of a progress-driven world-system across the continent. Beginning in the Shinkolobwe min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where uranium was extracted for use in the Manhattan Project during World War II, the work engages with the history of mapping for the purpose of resource extraction dating back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exploitation of the African continent to facilitate the nuclear bombing of Hiroshima in 1945, and the largely hidden consequences of such enterprises on African territories, ecosystems, and populations.

배치도 FLOOR PLAN p.147
색인 INDEX p.198, 218

B 4

사샤 리트빈체바 & 그레임 안필드 〈아스베스토스(석면)〉, 2016

단채널 비디오 설치. 20분(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작가 제공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Asbestos*, 2016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 min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ourtesy of the artist

사샤 리트빈체바 & 그레임 안필드 〈아스베스토스(석면)〉, 2016. 작가 제공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Asbestos* still, 2016. Courtesy of the artist

사샤 리트빈체바 & 그레임 안필드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사샤 리트빈체바와 그레임 안필드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 〈아스베스토스(석면)〉은 자원 채굴에 얽힌 독성 가득한 유산을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석면은 전 세계의 대규모 산업과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무분별하게 채굴되고 가공되었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발명과 같은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이 물질의 독성을 밝혀냈고, 그 결과 석면의 명성은 방화가 되는 마법같은 광물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재앙으로 돌변하였다. 공기 중에 떠도는 석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2012년 캐나다 퀘벡의 아스베스토스 마을에 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석면광이 폐광한 이후, 우리 주변의 흙과 벽면에서 석면이 제거되고, 석면 산업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 집에서 이 위험한 물질을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하거나, 그것의 잔재 위에 무언가를 짓거나. 석면 제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잠재적인 확산을 저해하는 플라스틱 방수포로 감싼 재료와 같은 저감 산업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아스베스토스(석면)〉에서 카메라는 석면 제거 작업자들이 내부의 독성을 수색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파운드 푸티지와 아스베스토스 마을을 정적으로 촬영한 이미지(2020년 발데스 촬영본), 그리고 폐광된 석면광을 교차로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의 서사는 석면이라는 물질과 인간의 상호적 존재, 인체의 취약성, 산업 광산의 레거시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이 되묻는다.

Asbestos, a collaboration between Sasha Litvintseva and Graeme Arnfield, traces the toxic legacies of material extraction. Historically, asbestos was mined and processed for installation in massive industrial construction projects and homes around the world. However, modern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creation of the electron microscope have revealed the substance's toxicity, resulting in the revision of its reputation from the fireproof magic mineral to a catastrophe in waiting. Airborne and invisible to human eyes, asbestos enters human bodies through the respiratory system and its effects can be lethal. While the world's largest asbestos mine in Asbestos, Quebec, Canada closed in 2012, the asbestos industry has far from left us with extraction from the soil transforming to extraction from our walls. We are now faced with two options: to remove this hazardous material from our homes and start anew, or to build upon its residue. Often costly to remove, new industries of abatement have emerged, where the material is covered in plastic tarping to limit its potential spread.

In *Asbestos*, the camera cuts between embodied first-person found footage of asbestos abatement workers navigating toxic interiors and static locational images of the town of Asbestos (as of 2020 Valdes Sources) and its decommissioned asbestos mine. Such stories inevitably lead to questions about the reciprocal existence of asbestos and human beings,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the legacy of industrial min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배치도 FLOOR PLAN p.147
색인 INDEX p.199, 220

스페이스mm
space m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 시티스타몰 새특4-1호

주중 · 주말 12PM–6PM
월요일 휴관

지하철 시청역 (1호선, 2호선)
버스 서울광장

Sae-teuk 4-1ho, Citistar Mall, 12,
Eulji-ro, Jung-gu, Seoul

Weekdays & Weekends 12PM–6PM
Closed on Mondays

Subway City Hall (Line 1, 2)
Bus Seoul Square

소공 스페이스
Sogong Space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2 소공지하상가 6-1

주중 · 주말 12PM–6PM
월요일 휴관

지하철 시청역 (1호선, 2호선)
버스 서소문, 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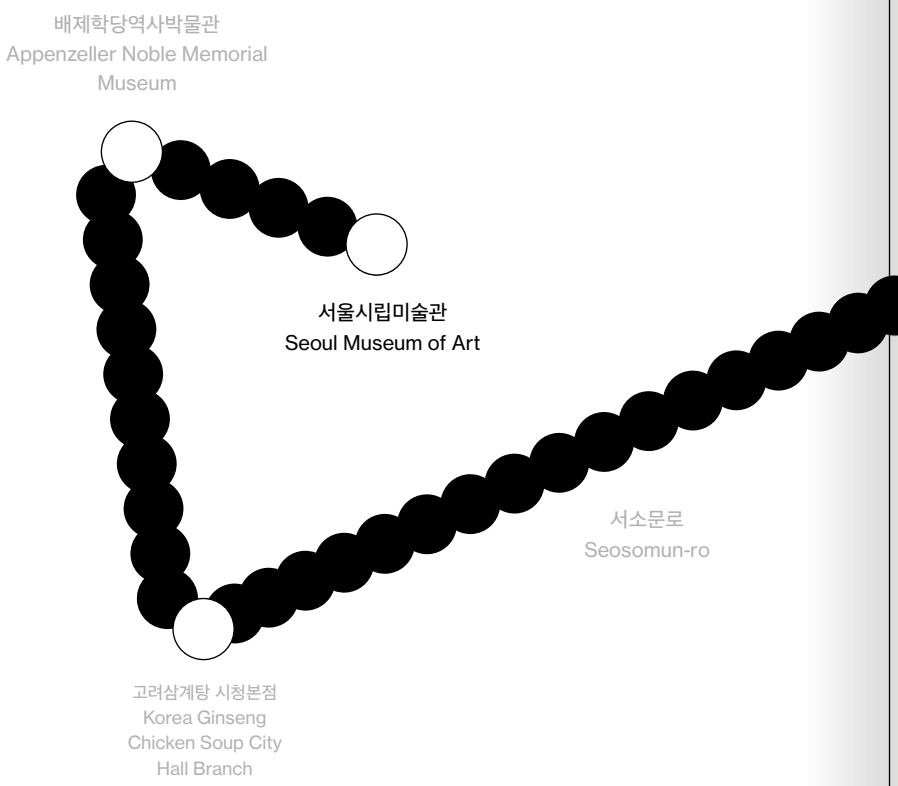
B 6-1, Sogo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102, Sogong-ro, Jung-gu, Seoul

Weekdays & Weekends 12PM–6PM
Closed on Mon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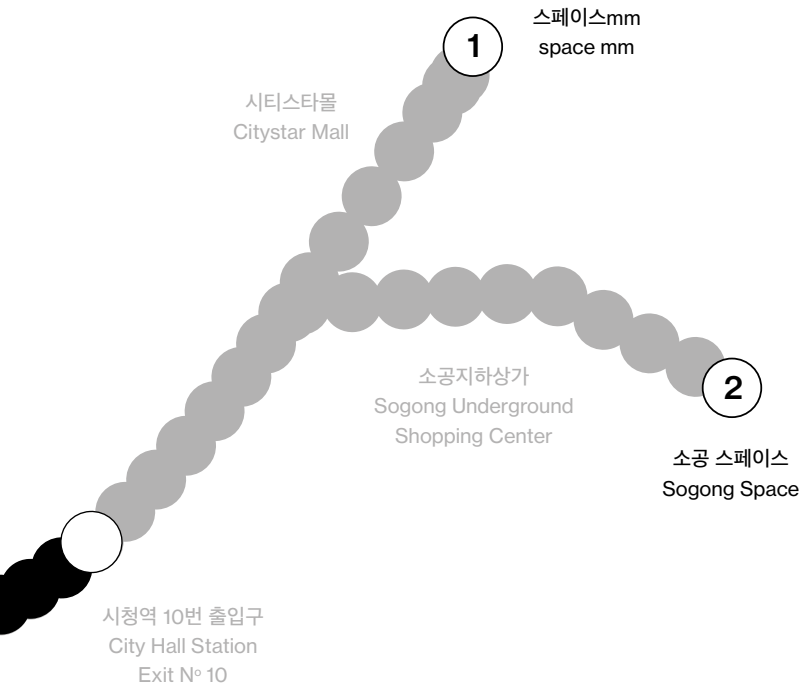
Subway City Hall (Line 1, 2)
Bus Seosomun, Deoksugung

서울 지하철의 시청역과 을지로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플라자 호텔과 소공지하상가로 연결된다. 이 지하 공간에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길거리 음식, 의류나 케이팝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상점이 있고, 그 사이에 미술 공간 스페이스mm과 소공 스페이스가 있다. 비엔날레는 이곳에서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 일상 속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야기되는 정치성과 긴장에 관한 전현선과 왕보의 작품을 소개한다.

The underground passageways connecting the City Hall and Euljiro sta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located between the Plaza Hotel and the Myeongdo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are home to a sea of commercial spaces that sell souvenirs, street food, clothes, and K-pop merchandise. Among these vendors are space mm and Sogong Space, where SMB12 presents artworks by Hyunsun Jeon and Bo Wang, artists who engage with the politics and tensions that emerge from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between the virtual and real territories of everyday life.



스페이스mm & 소공 스페이스 길찾기
Way to space mm & Sogong Space



지하로
Underground Path

지상로
Ground Path

U1 전현선, 〈이름 없는 산속으로〉
Hyunsun Jeon, *Into the Unnamed Mountain*
2023

U2 왕보, 〈혁명은 냉방될 수 없다〉
Bo Wang, *The Revolution Will Not Be Air-conditioned*
2022

U 1

전현선
〈이름 없는 산속으로〉, 2023

벽화. 267 × 1130 cm(내벽);
267 × 670 cm(유리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Hyunsun Jeon
Into the Unnamed Mountain, 2023

Mural. 267 × 1130 cm (wall);
267 × 670 cm (glass wall)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이름 없는 산속으로〉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벽화 설치는, 지하상가의 한 길목을 자연과 문화가 붕괴하는 하나로 뭉개진 상상의 현장으로 탈바꿈한다. 작가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유동이 빈번한 전시장의 창문과 바닥, 벽을 포함한 모든 면에 작가 특유의 풍경-추상화를 선보인다. 전시장 내외부를 경유하며 광활하게 펼쳐지는 설치 장면은 유사-동시대의 관광과 하이킹을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몰입형 전시로 보여진다. 추상과 자연의 언어를 결합한 전현선의 작품은 일상으로부터의 괴리를 드러낸다.

Into the Unnamed Mountain is a mural and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SMB12 that transforms one corner of an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into an imaginary site where nature and culture collapse into a unified field. Along a pedestrian route mainly traveled by office workers, Jeon presents her distinctive mode of landscape-abstraction painting on the walls as well as the windows and floor. This expansive scene projects itself onto the outside and inside of the storefront exhibition space, incorporating both zones into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precipitates a modified experience of contemporary sightseeing and hiking. Combining languages of abstraction and nature, Jeon's work posits a divergence from everyday life.

전현선 〈바스 드해진 돌들〉, 2021. 사진: 김상태. 작가 제공

Hyunsun Jeon, *Stanted Stones*, 2021. Photo: Sangtae Kim. Courtesy of the artist

색인 INDEX p.203, 215

U 2

왕보
〈혁명은 냉방될 수 없다〉, 2022

2채널 비디오. 27분
주니 첸, 《플라스틱처럼 빛나는》, 뉴욕 바드 대학 헤셀미술관 커미션. 작가 제공

Bo Wang
The Revolution Will Not Be Air-conditioned, 2022

2 channel video. 27 min
Commissioned by Junni Chen for *Lustrous Like Plastic*, Hessel Museum of Art, CCS Bard College, New York
Courtesy of the artist

왕보, 〈혁명은 냉방될 수 없다〉 스틸, 2022. 작가 제공

Bo Wang, *The Revolution Will Not Be Air-conditioned* still, 2022. Courtesy of the artist

본 작품은 홍콩의 사회적 상황을 주목하고, 아카이브, 대중 문화, 뉴스,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저항과 감금의 공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다루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하나의 영상으로 직조한다. 2채널 비디오로 구성된 작품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19세기 대영제국에서 아시아의 이국적인 동식물을 수출입하기 위해 고안된 테라리움, 20세기 국제기업의 노동 인력 교육용 비디오, 익명의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홍콩의 시위 현장 이미지, 실제와 유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1인칭 슈팅 게임 장면 등을 교차로 보여준다.

작품의 제목 〈혁명은 냉방될 수 없다〉는 흑인 인권운동가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인 질 스콧 헤론의 곡 〈혁명은 TV로 방영되지 않을 것이다〉(1971)를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방영'이라는 단어가 '냉방'으로 치환되며, 결국 혁명은 '쇼핑몰'과 같은 공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거리가 포위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 수 있다는 자조적이지만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정서를 내보인다. 영상은 마지막에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과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쇼핑몰에 불을 지르고, 공공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은 어쩌면 잠깐은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작품은 알려진 혁명의 역사에 균열을 남긴다.

The Revolution Will Not Be Air-conditioned integrates images and sounds taken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historical archives, popular culture, news reports, and social media in an examination of spaces of resistance and confinement,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Hong Kong. This two-channel video juxtaposes images of London's Great Exhibition of 1851, nineteenth-century terrariums designed for importing and exporting exotic animals and plants from Asia to Britain, training videos for employees in twentieth-century global enterprises, anonymous smartphone footage documenting a protest in Hong Kong, and a first-person shooter game that unfolds within a realistic three-dimensional space.

The work's title is partly borrowed from the song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1971) by Black American activist and singer-songwriter Gil Scott-Heron. Here, the word "televised" is replaced by "air-conditioned," reflecting a self-deprecating yet cautiously hopeful sentiment—even if there is no room for protest in the private-public space of a shopping mall, it may be one of the only places left for insurrection when the streets are under siege. The last segment of the video invokes Hong Kong's 2014 Umbrella Movement and 2019 extradition bill protests. Although the efforts of those who occupied, and set ablaze retail and public spaces may have failed in the short-term, this work initiates a rupture in familiar revolutionary histories.

색인 INDEX p. 202, 213

서울로미디어 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서울로 (관람지점)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주중 · 주말 6PM–11PM
3월–9월 7PM-11PM

지하철 서울역 (1, 4호선)
버스 서울역 환승센터

426 Cheongpa-ro, Jung-gu, Seoul (Viewpoint)
215, Mallijae-ro, Jung-gu, Seoul

Weekdays & Weekends 6PM–11PM
Mar–Sep 7PM-11PM

Subway Seoul (Line 1, 4)
Bus Seoul Station Transit Center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서울의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 7017과 만리동 광장에서 조망이 가능한 가로 29, 세로 7.7미터의 대형 스크린으로, 다양한 도시 주민을 도심으로 이끄는 관광 명소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미래에 관한 작품을 통해 주목받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상영된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같은 시간 비엔날레의 주제에 관한 작품을 송출할 예정이다.

상영시간
2023.9.20–12.19, 18:00–23:00
시간별 정시부터 20분간

Seoullo Media Canvas is a giant 29 by 7.7 meter media screen that is visible from Seoul's elevated pedestrian walkway Seoullo 7017 and Malli-dong Square, destinations that attract individuals from surrounding residential communities into the city center. This venue frequently screens works by young and emerging artists on topics relevant to the future of the city. Every evening, SMB12 presents a brief hourly program of new and recent works by celebrated artists that connect with the themes of the Biennale.

Screening Time
2023.9.20–12.19, 18:00–23:00
Starting on time at every hour for 20 min

M ①

유어 컴파니 네임 (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가제 제목 여기〉,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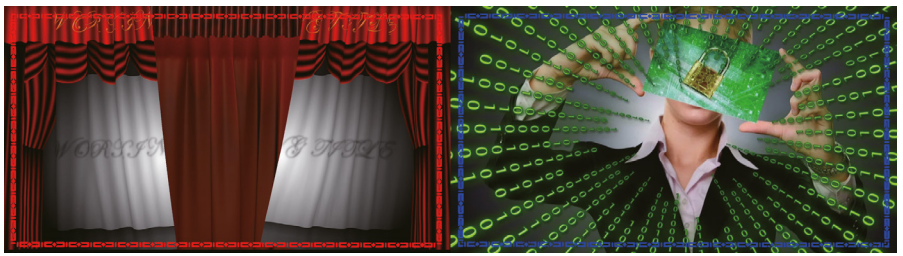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4분 35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Cengiz Mengüç) *WORKING Title Title HERE*, 2023

Single channel video, sound. 4 min 35 sec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유어 컴파니 네임(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가제 제목 여기〉 스틸, 2023. 작가 제공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and Cengiz Mengüç), *WORKING Title Title HERE* stil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유어 컴파니 네임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문화 활동가인 클라라 발라구에르와 센지즈 멘규치의 간헐적 협업을 위한 팀명이다. 두 작가는 가벼운 현장 답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긴 산책중에 스마트폰으로 기록 하거나, 왓츠앱 이미지 덤프, 이더패드에서 오고간 즉석 대화 등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여 이것을 비디오, 그래픽,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형태의 작품으로 창작한다. 이 콜렉티브는 일반적인 접근을 위한 도구와 예시를 활용하여, 로테르담 거리와 건축물의 시각 디자인에서 표현되는 주변적 디자인,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적 지향점은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비용의 도구 사용을 거부하고, 비판적 실험과 문화 생산의 탈식민주의를 위한 공간을 창출한다.

짧은 길이의 영상 〈가제 제목 여기〉는 북유럽의 주변 환경이 낯선 외지인의 시선을 차용하여 다문화 상점, 홍보 전단지, 기타 일상적인 소통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시각 언어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작품이다. 그것이 진부할지라도,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미학적 구성으로 완성된 작품은 로테르담의 도시 풍경과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 안에서 다른 공동체들이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YOUR COMPANY NAME is an intermittent collaboration between graphic designers and cultural practitioners Clara Balaguer and Cengiz Mengüç. As a duo, they make use of casual fieldwork methodologies to amass qualitative data in the forms of long walks documented by smartphone, WhatsApp image dumps, and takeaway-fueled conversations logged on Etherpad to create videos, graphics, and PowerPoint-style presentations. Their ongoing research into vernacular design and diasporic languages and identities, as constructed and manifested in the visual culture of Rotterdam's streets and architecture, engages with tools and templates of popular access. This refusal of high-cost exclusionary tools creates a space for both critical experimentation and the decolon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The short video *WORKING Title Title HERE* explores expressive visual languages found in multicultural storefronts, promotional leaflets, and other forms of everyday communication, adopting the perspective of outsiders unfamiliar with Northern European environs. Aesthetically built on the idea of recovering what is already at hand, even to the point of being banal, the work explores Rotterdam's urban landscape and the ways in which different communities claim their own spaces amid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bric of the city.

M2

나타샤 톤테이 〈2번 돌의 아이들〉, 2023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4분
지원팀: DDDBandidos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영상 편집: 아리프 부디만. 음악 감독: WAHONO/Divisi 62. 사운드 마스터링: 스튜디오 Oposisi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트란스메디알레 및 아더 퓨처스 제작 지원. 작가 제공

Natasha Tontey *Children of the Stones Number Two*, 2023

Single channel video, sound. 4 min
Supporting team: DDDBandidos Animation Studio. Editor: Arief Budiman. Music Director: WAHONO/Divisi 62. Sound Mastering: Studio Oposisi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ransmediale, and Other Futures. Courtesy of the artist

나타샤 톤테이는 선조들이 남긴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서사, 토착 신화와 전통, 현대의 공포 문화를 탐구하는 사변소설 형식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설치 작품을 소개해 왔다. 작품들은 추방된 개체와 존재의 투쟁보다는, 식민주의적 세계 질서의 예정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관점을 우선으로 제시하여, 근대와 인류세 정치의 퀴어적 대안이 되는 애니미즘 우주론을 다시 상상한다.

〈2번 돌의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 지방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관습에 관한 작가의 구작들을 모아 재구성한 단편 비디오로, 땅의 정령이 깃든 돌과의 관계와 소통으로 정의되는 미나하사 부족의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맥시멀한 디지털 시각 요소들로 구성된 작품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통합하는 상호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사회를 상상하는 미나하사 문화의 잠재성을 탐색한다.

Drawing inspiration from her own ancestral culture, Natasha Tontey creates digital animations,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s that rely upon speculative fiction to explore Indonesia's historical narratives, local myths and traditions, and contemporary cultures of fear. Her works reimagine animistic cosmologies as queer alternatives to modern and anthropocentric politics by positing divergent future perspectives that evade the predetermined outcomes of a colonial world order, instead prioritizing the struggles of outcast entities and beings.

Children of the Stones Number Two combines Tontey's previous works into a short video that foregrounds the religious and spiritual practices of Indonesia's North Sulawesi province and focuses on the distinctive worldview of the Minahasa tribe, which is defined by its relation to and communication with the geo entity stone. Adopting the format of maximalist digital visual elements, the work speculates on the potential of Minahasan culture to imagine an alternative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unites animate and inanimate realms.

나타샤 톤테이, 〈2번 돌의 아이들〉, 2023. 작가 제공

Natasha Tontey, *Children of the Stones Number Two* stil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M 3

라야 마틴
〈아르스 콜로니아〉, 2011

단채널 비디오(아날로그 영상과 손으로 채색한 35mm 필름). 1분 12초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허버트 발스 펀드 커미션
작가 제공

Raya Martin
Ars Colonia, 2011

Single channel video (Analog video & hand-painted 35mm). 1 min 12 sec
Commissioned by the Hubert Bals Fund of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Courtesy of the artist

라야 마틴, 〈아르스 콜로니아〉 스틸, 2011. 작가 제공

Raya Martin, *Ars Colonia* still, 2011. Courtesy of the artist

라야 마틴의 실험적인 초기 독립 영화는 후기식민주의 정체성 문제와 그보다 방대하게 영향을 끼친 필리핀 식민사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1890년대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맞서 전개되었던 필리핀 혁명과 20세기 초 미국 점령기의 장면들을 새롭게 상상하기 위해, 초기 영화 편집 기법과 손으로 칠해 색을 입힌 배경을 사용하여 당대 영화 제작에서 지배적이었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커미션한 1분 길이의 단편 영화 〈아르스 콜로니아〉에서 작가는 정복자가 침략하려는 섬을 응시하는 찰나를 초기 무성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손으로 색을 칠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재현한다. 핸드헬드 카메라의 시점은 16세기의 폭력적인 정복자가 자신만의 유럽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침략하려는 땅을 처음 마주할 때 기록용으로 썼던 카메라 기술로, 작품에 초현실성을 더한다.

Raya Martin's early experimental independent films pose questions about postcolonial identity as well as the broader ramifications of Filipino colonial history. He often reimagines scenes from the Philippine Revolution, which was fought against Spanish colonial rule in the 1890s, as well as the country's American occupation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y using early cinema editing techniques and hand-painted backdrops to evoke the prevailing modes of filmmaking contemporaneous with those eras.

In *Ars Colonia*, a one-minute short commissioned by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Martin replicates the hand-colored style of early silent films to restage the transient moment of a conquistador fixing his gaze upon an island that he is about to invade. The work's handheld camera perspective proposes a surreal scenario in which sixteenth-century conquistadors had actually used camera technology in order to document their initial encounters with the lands which they would violently reshape into their own European image.

협력 공간
Collaborating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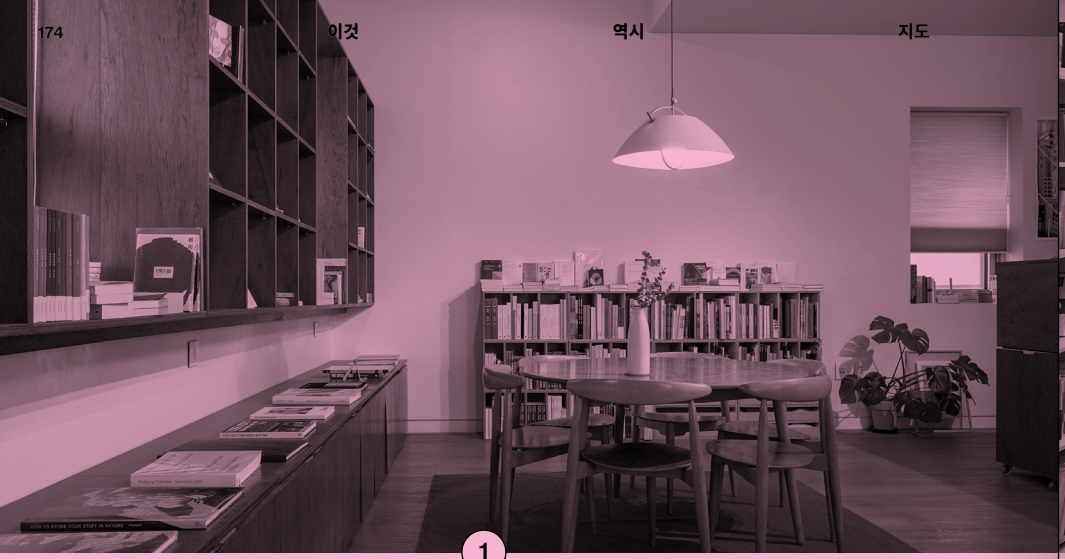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협력 공간은 비엔날레의 오랜 협력자와 더불어 새롭게 맺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문화 공간, 서점, 카페, 공공 공간 등을 아우르는 비엔날레 협력 공간은 비엔날레의 생각, 출판물과 굿즈를 전파하는 네트워크이다. 총 열네 곳의 협력 공간에서는 작가, 필자, 참여자, 비엔날레 팀과 미술관 관계자가 엽서 생산자로 참여한 '엽서'를 비롯하여 안내 책자, 소식지 그리고 지도를 배포한다. 이와 같은 비엔날레의 인쇄물은 모두 비영토적 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집하는 12회 비엔날레의 개념적이며 물질적인 지도로 작동한다. 나아가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커뮤니티라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국경과 정치적 영토의 경계 너머로 전파되는 소리와 음악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전역에 펼쳐진 협력 공간은 도시에 잠재한 다양한 공간과 일상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공동의 지도를 그릴 것이다.

Comprising long-standing friends of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as well as newly added-members of its expanded community, Collaborating Spaces include cultural spaces, book stores, cafes, and public spaces that disseminate ideas and ephemera related to SMB12. Each space distributes selections of postcards, which showcase original contributions from participating artists, writers, Biennale team members, and SeMA staff, as well as guidebooks, newsletters, and maps. As a set, these printed materials express various interpretations of non-territorial aesthetics and collectively operate as a conceptual and material map of the Biennale. In collaboration with Seoul Community Radio, SMB12 also activates the air waves, exploring the potential of sound and music to move beyond borders and transcend the politics of territorialization. As such, Collaborating Spaces compose a fragmented collective mapping of the city and manifest the different forms of spatial social life that arise therein.

1	더레퍼런스 Seoul	The Reference Seoul
2	더북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3	동수상회 × 월간책방	Dongsu Store × Monthly Bookstore
4	라운드앤드	Roundnd
5	로티바	Raw Tea Bar
6	루이스의 사물들	Louis Collections
7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8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SeMA Art Archive
9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Buk-Seoul Museum of Art
10	서울커뮤니티라디오	Seoul Community Radio (SCR)
11	오브젝트 서교점	object Seokyo
12	오잇	OEAT
13	콜로라도 프로젝트	Colorado Project
14	SeMA 카페+	SeMA Cafe+

※ 협력 공간의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opening hours of collaborating spaces are subject to change.



1

더레퍼런스 Seoul
The Reference Seoul

주소 **Address**	더레퍼런스 SeMA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The Reference SeMA 3F,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더레퍼런스 Seoul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44	The Reference Seoul 44 Jahamun-ro 24-gil, Jongno-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1AM–7PM 월요일 휴무	Weekdays & Weekends 11AM–7PM Closed on Mondays
연락처 **Contact**	@the_reference_seoul The-ref.kr	

2018년 문을 연 더레퍼런스 Seoul은 '예술과 전시가 있는 서점'을 모토로 현재 효자동 서촌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술에 관한 모든 것을 참조한다'는 뜻을 가진 더레퍼런스는 예술과 작가의 책을 기획하는 대안공간이자, 동시대 예술가들을 비롯해 디자이너, 편집자, 연구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The Reference Seoul, started in 2018 as a bookstore embracing art and exhibition, is currently running a multi-cultural space in Seochon, Seoul as well as at the Seoul Museum of Art (SeMA). The Reference–whose name stands for a space where one can "refer to everything about art"–functions as an alternative space curating art books and artist books as well as an art related community space where art professionals–such as artists, designers, editors, and researchers–can come together.

2

더북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주소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25, 지하 1층	B1, 25, Jahamun-ro 19-gil, Jongno-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PM–7PM 월요일 휴무	Weekdays & Weekends 1PM–7PM Closed on Mondays
연락처 **Contact**	@tbs_book_society thebooksociety.org	

더북소사이어티는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기반의 컬렉티브다. 2010년부터 미디어버스라는 이름으로 출판과 편집을 전개했고,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다. 더북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의 서점 겸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현대 미술과 디자인 관련 도서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유통한다.

The Book Society is a Seoul based collective working in publishing since 2010. They have published and edited books under the name mediabus, and have curated various exhibitions and projects. Through their bookshop and project space, The Book Society sells and distributes books related to contemporary art and design.

3

동수상회 × 월간책방
Dongsu Store × Monthly Bookstore

주소 **Address**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 시청지하상가, 시티스타몰 새특4-2호	Citystar Mall Sae-teuk 4-2ho, B 12 Eulji-ro, Jung-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1PM–7PM 주말 · 공휴일 휴무	Weekdays 1PM–7PM Closed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연락처 **Contact**	@dongsustore	

동수상회×월간책방은 두달마다 출판사 한 곳을 초대하여, 그 출판사의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서점이다.

Dongsu Store × Monthly Bookstore selects and presents a publisher bimonthly to display and sell its books.

4

라운드앤드
Roundnd

주소 **Address**	서울시 중구 정동길 35	35, Jeongdong-gil, Jung-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8AM-10PM	Weekdays & Weekends 8AM-10PM
연락처 **Contact**	@roundnd.jeongdong	

라운드앤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 정동극장 인근에 위치한 카페이자 베이커리이다. 정동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구운 빵과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Roundnd is a cafe and bakery in Jeongdong-gil near the Seoul Museum of Art and the Jeongdong National Theater. It serves roasted coffee, baked goods, and desserts.

5

로티바
Raw Tea Bar

주소 **Address**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5길 8 1층	Ground floor, 8, Yeoksam-ro 5-gil, Gangnam-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10.30AM-12AM 주말 3PM-12AM 일요일 휴무	Weekdays 10.30AM-12AM Weekends 3PM-12AM Closed on Sundays
연락처 **Contact**	@raw_tea_bar	

강남역 뒷편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로티바는 프로젝션 설비가 준비된 미디어 친화적 공간이다. 산업 시대의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은 평소에 카페와 바로 운영되지만, 미디어 아트 전시, 영상 시사회, 소규모 강연, 각종 모임 등 문화적 활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블랜딩한 커피와 차, 칵테일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Located in a quiet alley behind the Gangnam Station, Raw Tea Bar, a media-friendly space, furnished with original vintage furniture from the Industrial Age, not only operates as a cafe but also opens its doors for media art exhibitions, screening events, small group lectures, and gatherings. Raw Tea Bar presents a variety of drinks, such as self-blended coffee, tea, and cocktails with different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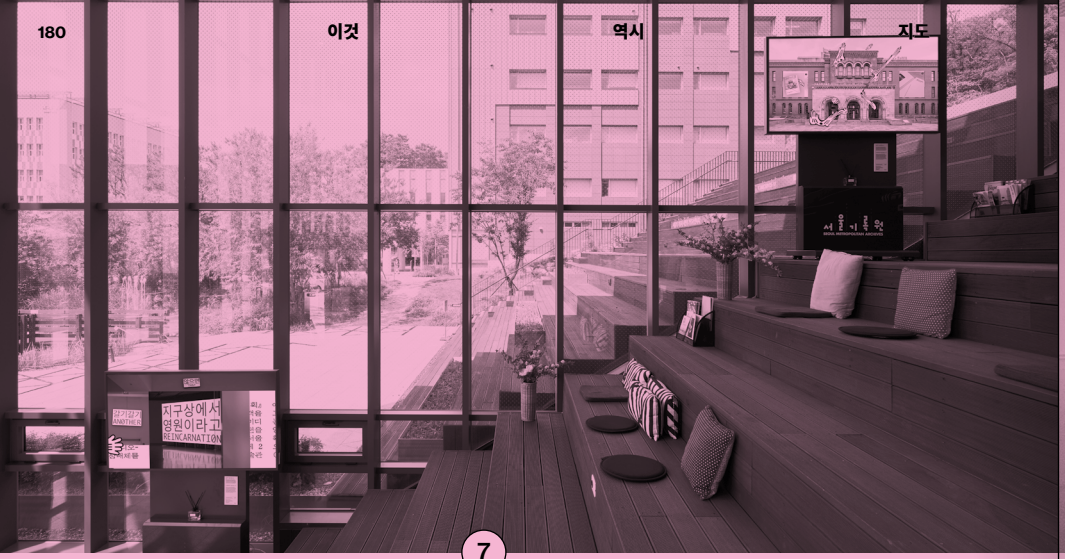
6

루이스의 사물들
Louis Collections

주소 **Address**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72-1 3층	3F, 172-1,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2PM-8PM 월요일 휴무	Weekdays & Weekends 12PM-8PM Closed on Mondays
연락처 **Contact**	@louis_collections	

루이스의 사물들은 을지로에 위치한 카페이자, 소품샵, 전시공간으로, 공간명은 공간 디렉터인 루이스 박이 런던에서 머물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사물들로 채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방문객들은 비치된 잔과 접시를 골라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하고, 직접 고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Louis Collections is a cafe, shop, and exhibition space in Euljiro. This space is occupied with objects collected by its director, Louis Park, during his stay abroad. Visitors can choose what glasses and plates to use in th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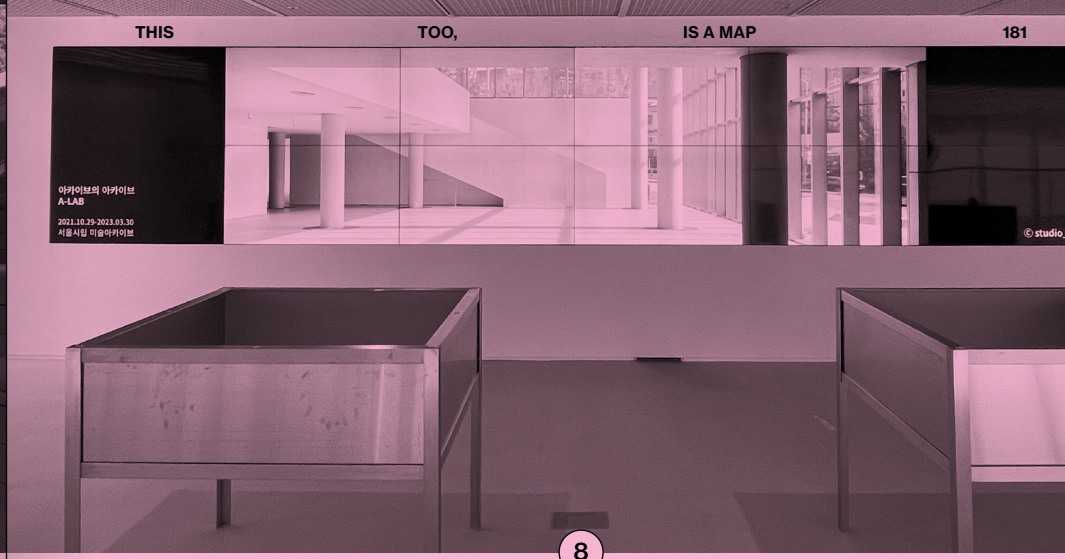
7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주소 **Address**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7, Tongil-ro 62-gil, Eunpyeong-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0AM–5PM 월요일 · 추석 당일 휴관	Weekdays & Weekends 10AM–5PM Closed on Mondays & Chuseok
연락처 **Contact**	archives.seoul.go.kr	

서울기록원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지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2019년 개관 이래로 서울특별시 시정기록과 서울시민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대시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공공아카이브는 주제에 맞게 구성된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hich opened in 2019 as the first institution for local permanent records in Korea, is a public archive that collects and manag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unicipal records and memories of Seoul citizens. As a cultural institution, the archive operates various public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8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SeMA Art Archive

주소 **Address**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101, Pyeongchangmunhwa-ro, Jongno-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10AM–8PM 주말 · 공휴일 10AM–7PM 월요일 휴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AM–10PM	Weekdays 10AM–8PM Weekends & Holidays 10AM–7PM Closed on Mondays Last Wednesday of each month 10AM–10PM
연락처 **Contact**	semaaa.seoul.go.kr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이다. 미술아카이브는 여러 개인과 단체가 남긴 한국 현대미술의 발자취를 좇아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선별해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한다. 또한 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예술의 틀을 마련한다.

The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is where art records and artworks coexist. The Art Archives selects, collects, preserves, and studies numerous records and materials from contemporary Korean art. The Art Archives aims to create relationships with diverse groups of users through a wide range of programs utilizing the archives as a resource as well as to develop new cultural frameworks.

9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Buk-Seoul Museum of Art

주소 **Address**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238, Dongil-ro, Nowon-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10AM–8PM 주말 · 공휴일 3월–10월 10AM–7PM 11월–2월 10AM–6PM 월요일 휴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AM–10PM	Weekdays 10AM–8PM Weekends & Holidays Mar–Oct 10AM–7PM Nov–Feb 10AM–6PM Closed on Mondays Last Wednesday of each month 10AM–10PM
연락처 **Contact**	sema.seoul.go.kr/kr/visit/bukseoul	

북서울미술관은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미술관이다. 갈대 언덕에서 비롯한 지명을 살린 노원구에 위치한 북서울미술관은 공원 산책로와 미술관 출입구를 연결한 개방형 건물이다. 야외 조각 전시를 비롯해 미로형으로 설계된 전시실, 아트라이브러리, 카페, 다목적 홀에서 이곳을 주로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The Buk-Seoul Museum of Art coexists with its local community. Located in Nowon-gu—an area whose name is derived from the nearby “Reed Hill”—the museum is an open structure with its entrance connected to a park. In addition to outdoor sculpture exhibitions, it offers maze-like galleries, an art library, a cafe, and a multipurpose hall. These spaces host a variety of programs for families, which make up the majority of visitors to this museum.

10

서울커뮤니티라디오
Seoul Community Radio (SCR)

주소 **Address**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22 1층	1F, 22, Noksapyeong-daero 40na-gil, Yongsan-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목요일–일요일 5PM–2AM 월요일-수요일 휴무	Thursday–Sunday 5PM–2AM Closed on Monday–Wednesday
연락처 **Contact**	@scr_radio	

2016년에 설립된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SCR)는 아시아의 전자 음악 커뮤니티의 역동적인 교차점이 되는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이다. SCR은 국내외의 새롭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DJ,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라디오 방송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한다. 최근 라디오와 바를 컨셉으로 한 공간 Studio Two를 이태원에 열고, 이 곳에서 행사,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며, 라이브 쇼, 팝업 이벤트, 워크샵 등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음악 커뮤니티의 문화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stablished in 2016, Seoul Community Radio (SCR) is an online music broadcasting platform and a dynamic node of Asia’s electronic music community. The station aims to nurture new DJ and artistic talent from home and abroad. It also incubates a network of like-minded radio stations. SCR recently opened Studio Two, a radio and bar concept space in Itaewon. Studio Two holds events, live broadcasts, and serves as a culture center for Seoul’s diverse music communities, hosting live shows, pop up events, workshops, and more.

11

오브젝트 서교점
object seokyo

주소 **Address**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13	13, Wausan-ro 35-gil, Mapo-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2PM–9PM	Weekdays & Weekends 12PM–9PM
연락처 **Contact**	@insideobject insideobject.com	

오브젝트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재해석해 소비자들의 행동에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250여 개의 국내 디자인 브랜드가 제작한 의류, 생활용품, 문구류, 서적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 매장에서 1년간 평균 80회의 전시도 열고 있다. 오브젝트 서교점은 경의선 책거리에 위치한 오브젝트의 본점으로, 지하1층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에 자리잡고 있다.

object is a distribution platform that reinterprets everyday use objects with the purpose of effecting change in people's lives. It holds clothing, household goods, stationery, and books, produced by 250 domestic design brands. About 80 exhibitions per year take place at each branch nationwide. object Seogyo located in a four storey building on the Gyeongui Line Book Street is the headquarter.

12

오잇
OEAT

주소 **Address**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95	95, Sinheung-ro, Yongsan-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2PM-10PM	Weekdays & Weekends 12PM-10PM
연락처 **Contact**	@oeat.seoul	

오잇은 해방촌에 위치한 카페로 루프탑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의 데스크에서는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 층마다 다른 감각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인다. 루프탑에서 방문객들은 남산타워를 비롯한 해방촌 일대를 바라보며 시간을 즐길 수 있다.

OEAT is a four storey cafe located in Haebangchon, including a rooftop space. The desk on the first floor serves drinks, desserts, and wine, and each floor presents a different interior design. On the rooftop, visitors can enjoy the view of the Namsan Tower and other areas of Haebangchon.

13

콜로라도 프로젝트
Colorado Project

주소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0안길 20 1층	Ground floor, 20, Daeheung-ro 20an-gil, Mapo-gu, Seoul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11AM-7PM 주말 12PM-7PM 월요일 휴무	Weekdays 11AM-7PM Weekends 12PM-7PM Closed on Mondays
연락처 **Contact**	@colorado_project coloradoproject.kr	

콜로라도 프로젝트는 특정 캐릭터를 구축하며 기획된 카페이자 아트숍이다. 공간명은 '컬러'라는 단어가 포함된 지명을 차용하여, 미서부 자연의 거칠고 자유로우며 예술 친화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내포한다. 사진, 도예,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주얼리디자인 등 각 분야의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실험적이고 재미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작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다.

The Colorado Project is a characterized cafe and art shop. The name implies a direction toward a rough, independent, and art-friendly experience in Western America. Through collaboration with artists in various fields, such as photography, ceramics, design, fashion, and jewelry, this space is operated to produce experimental and interesting results and to support artists in their continuous creative activities.

14

SeMA 카페+
SeMA Cafe+

주소 **Address**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Ground floor,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운영시간 **Opening Hours**	주중 · 주말 11.30AM-6PM 월요일 휴무	Weekdays & Weekends 11.30AM-6PM Closed on Mondays

SeMA 카페+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에 입점해 있는 카페이다. SeMA 카페+ 에서는 카페의 벽면 또는 빈 공간을 활용한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카페를 찾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SeMA Cafe+ is located in different branches of th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Buk-Seoul Museum of Art, and Art Archives. SeMA Cafe+ also introduces artists' projects installed on the walls and vacant places of the cafe space so the visitors can enjoy the exhibition while visiting the cafe.

행사
Events

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동시통역
Simultaneous Interpretation

09.21

13:00-14:50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SeMA Rooftop
한 EN

토크
Talk

〈라운드 테이블: 다른 곳이 되는 이곳들〉
Round table: Heres as Elsewheres

작가 구이도 야니토,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왕보, 이재이, 이끼바위쿠르르, 제시 천, 전현선, 정소영, 켄트 찬
진행자 레이첼 레이크스
Artists Bo Wang, Guido Yannitto, Hyunsun Jeon, ikkibawiKrrr, Jaye Rhee, Jesse Chun, Kent Chun, Mercedes Azpilicueta, Soyoung Chung
Moderator Rachael Rakes

15:00-16:40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SeMA Rooftop
한 EN

토크
Talk

〈라운드 테이블: 과거의 퓨처리즘〉
Round table: Past Futurisms

작가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최윤, 최찬숙, 파이어룰 달마, 프랑소와 노체, 히메나 가리도-레카
진행자 소피아 듀론
Artists Agustina Woodgate, Chansook Choi, Francois Knoetze, Fyerool Darma, Nolan Osward Dennis, Ximena Garrido-Lecca, Yun Choi
Moderator Sofía Dourron

09.21

17:00-17:05
서울시립미술관 3층 전시장
SeMA 3F

퍼포먼스
Performance

〈아리조나 카우보이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작가 이재이
퍼포머 김예원, 닷시냠, 보엠, 스텔라, 아넷, 장웨이, 주영규
Artist Jaye Rhee
Performers BOHEME, Drobotenko Anastasiya, Estela Santana, Idertsog Dashnyam, JOO YOUNGGYU, Ye Won Kim, and Zhang Wei

---

17:30-19:30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SeMA Rooftop

한 EN

라이브 행사
Live Event

〈열대 주파수 라디오〉
Frequency Tropics (FT) Radio

작가 켄트 찬, 서울커뮤니티라디오 협업, DJ Karlll, Ejo, NET CALA, Yuzo, 국제커뮤니티라디오 협력자 마닐라커뮤니티라디오, 오로코라디오
Artist Kent Chan in collaboration with Seoul Community Radio, DJs Karlll, Ejo, Net Gala, Yuzo, Radio Partners Manila Community Radio, and Oroko Radio

---

09.22

16:00-18: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학습실
Seoul Museum of History
1F Learning Room

한 EN

토크
Talk

〈*시, language for new moons*〉

작가 제시 천
진행자 레이첼 레이크스
Artist Jesse Chun
Moderator Rachael Rakes

09.23

15: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전시장
SeMA 3F

퍼포먼스
Performance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Five Spells & A Song

작가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이승희 협업
Artist Mercedes Azpilicueta in collaboration with Lee Seung-hee

09.23

16:00-17:30
서울시립미술관 3F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EN

라이브 행사 스크리닝, 대화
Live Event Screening & Conversation

〈비무장 여신〉
Demilitarized Goddesses

작가 및 참여자 옹조린, 조영주, 서양숙, 전선자
진행자 옹조린
Artists and speakers Youngjoo Cho, Yang Suk Seo, and Seonja Jeon
Moderator Ong Jo-Lene

09.24

14:00-15:3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라이브 행사 스크리닝, 대화
Live Event Screening & Conversation

〈가내 저항: 라사 & 아사〉
Domestic Resistance: Rasa & Asa

작가 및 참여자 오쿠이 라라, 나스리카,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회(PERTIMIG)
진행자 옹조린
Artists and speakers Okui Lala, Nasrikah, and PERTIMIG
Moderator Ong Jo-Lene

16:00-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EN

라이브 행사 스크리닝, 대화
Live Event Screening & Conversation

〈가내 저항: Nohdong/노동 Nongkrong〉
Domestic Resistance: Nohdong/노동 Nongkrong

작가 및 참여자 오쿠이 라라, 나스리카, 신현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진행자 옹조린
Artists and speakers Okui Lala, Nasrikah, Aletheia Shin,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and National House Managers Cooperative South Korea
Moderator Ong Jo-Lene

09.26 **17:00**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SeMA Lobby

퍼포먼스
Performance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작가 권령은
퍼포머 송명규, 이재린, 이혜상, 전보람, 정지혜
Artist Kwon Lyoneun
Performers Jun Bo Ram, Jung Ji Hye, Lee Hye Sang, Lee Jae Rin, Song Myung Gyu

---

10.07 **16:00-18: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EN →→

작가와의 대화
Artist talk

〈은유로서의 토종: 생물지리학과 소속감〉
Native is a Metaphor: Biogeography and Belonging

작가 최찬숙
대담자 매튜 츄
진행자 소피아 듀론
Artist Chan Sook Choi
Speaker Matthew Chew
Moderator Sofia Dourron

10.08 **14:00-16: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 및 오픈 리서치
Workshop Introduction and open research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Geologic Techno: Dance with the Earth Beat

작가 안데스, 스트릿댄서 고주혜, 지질학자 박성준
Artists Andeath, Street dancer Juhye Ko, and Geologist Seongjun Park

---

10.14 **15:00**
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전시장
SeMA 3F

퍼포먼스
Performance

〈아리조나 카우보이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작가 이재이
Artist Jaye Rhee

10.14 **16:00-18: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Workshop

〈땅탑 워크숍〉
Earth Monument Workshop

작가 이끼바위쿠르르
Artist ikkibawiKrrr

Oct–Nov 온라인
Online

EN

온라인 행사 팟캐스트
Online Event Podcast

작가 켄트 찬, 서울커뮤니티라디오 협업
Artist Kent Chan in collaboration with Seoul Community Radio

10.15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움직임/댄스 워크숍
Workshop Movement/dance workshop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Geologic Techno: Dance with the Earth Beat

작가 안데스, 스트릿댄서 고주혜
Artist Andeath, Street dancer Juhye Ko

10.21 **16:00-18: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Workshop

〈땅탑 워크숍〉
Earth Monument Workshop

작가 이끼바위쿠르르
Artist ikkibawiKrrr

	18:00 온라인 Online 한 EN	**온라인 행사** 온라인 라이브 **Online Event** Online Live 〈이야기 역시 지도: 함께 해야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A map is a story too; a story we can only tell, if we tell it together* **작가** 무니 페리, 비아트리스 글로우, 아니다 여 알리, 영선 굴락,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최영숙 **작가** 애니 자엘 콴 **Artist** Anida Yoeu Ali,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Yong Sun Gullach, Beatrice Glow, Mooni Perry, and Youngsook Choi **Moderator** Annie Jael Kwon
10.22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움직임/댄스 워크숍 **Workshop** Movement/dance workshop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Geologic Techno: Dance with the Earth Beat* **작가** 안데스, 스트릿댄서 고주혜 **Artist** Andeath, Street dancer Juhye Ko
10.27	**19:00-21:00** 줌 라이브 미팅 live meeting on Zoom 한	**워크숍** **Workshop** 〈스마트폰과 이별하기〉 *Breaking up with a Smartphone* **작가** 최태윤, 김민아 **Artists** Taeyoon Choi, Mina Kim
10.28	**13:00-16: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Workshop** 〈스마트폰과 이별하기〉 *Breaking up with a Smartphone* **작가** 최태윤, 김민아 **Artists** Mina Kim

10.29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움직임/댄스 워크숍 **Workshop** Movement/dance workshop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Geologic Techno: Dance with the Earth Beat* **작가** 안데스, 스트릿댄서 고주혜 **Artist** Andeath, Street dancer Juhye Ko
11.05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SeMA 3F Project Gallery 한	**워크숍** **Live Event**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Geologic Techno: Dance with the Earth Beat* **작가** 안데스, 스트릿댄서 고주혜, DJs Xanexx, ZEEMEN **Artist** Andeath, Street dancer Juhye Ko, DJs Xanexx and ZEEMEN

색인
Index

가나다순 197-209
Alphabetical Order 211-225

전시 참여 작가

구이도 야니토 | 1981년생

구이도 야니토는 2020년부터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활동 하는 작가로, 그의 주요 관심사는 대중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작가는 태피스트리와 다른 기술을 접목한 작품을 통해 평면 작업의 조각적인 측면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러한 재현 체계가 만드는 주요한 의사소통과 번역의 측면에 관심을 두고, 정체성, 구두 전송, 번역, 계보학, 주체성, 그리고 공동작업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직물 제작자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왔다. 작가겸 큐레이터인 안드레이 페르난데즈, 콜렉티브 Thañí/Viene del monte와 협업을 통한 작품 소개 외에도, 아르헨티나 북부의 살타에 거주하는 토착민 '위치' 여성 수공예 작업자들과 함께 여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는 2016년 한 해 동안 콜롬비아 보고타시에 위치한 예술공간 플로라아트앤네이처에서 에스쿨라플로라 레지던시에 참여하였으며, 이어서 2017년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위치한 사유를 위한 멀티폼 인스티튜트인 반 에이크의 장학 기금을 수여받았다. 그는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등에서 다수의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그의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Banco ITAÚ, 산타페 카스타니노+마르크로 미술관, 코르도바 에밀리오 카라파 미술관, 살타 현대미술관 등의 아르헨티나의 주요 기관 및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학교에 소장되었다.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3
양모 직물. 200 × 126 cm
직조: 에두아르도 카시미로(아르헨티나 살타 루라카타오 계곡의 라 살라 커뮤니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및 에리카 로버츠 후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6
→ p.30

구이도 야니토, 무제
(〈물의 문법〉 중에서), 2022
양모 직물. 255 × 245 cm
직조: 페르난도 루에다 (아르헨티나 살타)
에리카 로버츠 후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7
→ p.30

구이도 야니토, 〈유찬〉
(〈물의 문법〉 중에서), 2023
양모 직물. 250 × 202 cm
직조: 페르난도 루에다(아르헨티나 살타)
에리카 로버츠 후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8
→ p.30

나타샤 톤테이 | 1989년생

나타샤 톤테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욕야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이다.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작가는 일종의 '가공된 공포심'이 깃든 허구적 역사나 신화를 탐구한다. 작가적 탐구는 거대 조직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관심망 밖에서 미약하게 존재하는 개인이나 개체의 투쟁에 눈을 돌리고, 그로부터 찾아지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관찰하는데서 출발한다. 나타샤 톤테이는 영국 런던 오토이탈리아에서 열린 개인전 《Garden Amidst the Flame》(2022)을 비롯해 싱가포르비엔날레 (2022), 네덜란드 스트룸 덴 헤이그 (2022), 태국 방콕 《Ghost:2565》(2022), 스위스 취리히 제8회 프로토존 《QUEER TRUST》 (2022), 서울 아르코미술관 (2022), 서울 리움미술관 (2022), 독일 베를린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2021), 독일 베를린 트랜스미디알레 (2021), 호주 시드니 퍼포먼스스페이스 (202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더퓨쳐스 (2021), 싱가포르국제영화제(2021), 일본 교토국제공연예술제(2021), 싱가포르 아시아영화기록보관소 (2021) 등에서 소개되었다. 2020년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와 슈투트가르트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로부터 해시상을, 2021년 베를린예술대학교의 융에아카데미로부터 휴먼머신 펠로우십을 받은 바 있다.

나타샤 톤테이, 〈2번 돌의 아이들〉, 2023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4분
지원팀: DDDBandidos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영상 편집: 아리프 부디만. 음악 감독: WAHONO/Divisi 62. 사운드 마스터링: 스튜디오 Oposisi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트란스메디알레 및 아더 퓨처스 제작 지원.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M2
→ p.168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 1988년생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는 전통적인 학제 간 담론을 넘어 보다 다양한 학문의 지식과 시각의 통합을 시도하는 현대미술가이다. 작가의 작업 전반에 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흑인 의식'이라는 관념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형이상학적 특성에 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이때 '공간'은 장소적 개입이 아닌 제도에 대한 개입을 통해 탐구되며,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 관한 질문으로 발전된다.

작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굿맨 갤러리(2021, 2019 외), 프랑스 파리 팔레 드 도쿄(2021), 스페인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2018), 영국 리버풀비엔날레(2023), 스위스 뉴사텔 칸아트센터(2022),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영콩고비엔날레(2019), 미국 클리블랜드 FRONT트리엔날레(2022) 등에서 열린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예술가 그룹 NTU 및 Index Literacy Program(ILP)의 창립 멤버이며, 현재 요하네스버그대학교의 VIAD연구센터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아토피아 필드〉, 2021. 바닥 다이어그램.
500 × 700 cm. 카페트 제작: 얀카페트, 서울. 팔레 드 도쿄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4
→ p.40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이시비바네〉, 2023
3D 프린터, 남아프리카의 여러 지질학 박물관에서 3D 프린터로 출력된 돌.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INSITE 및 프리토리아 대학교 자벳 아트센터 제작 지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9
→ p.76

라야 마틴 | 1984년생

라야 마틴은 다수의 장편 및 단편 영화, 픽션, 다큐멘터리, 설치, 퍼포먼스 등을 연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연출한 장편 영화 〈Independencia〉(2009)는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세계영화기금(WCF) 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그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공동 연출을 맡았던 누아르 영화 〈Manila〉가 비경쟁부문에서 소개되었다. 최신작으로는 필리핀 작가 F.H. 바타칸의 베스트셀러 범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범죄 드라마 〈Smaller and Smaller Circles〉가 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2017), 카셀 도큐멘타(2012), 파리 퐁피두 센터(2009), 뉴욕 영상박물관(2012), 한국영상자료원(2012), 싱가포르 아시아 영화기록보관소 등에서 소개되었다. 그는 칸 영화제의 시네파운데이션 레지던시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레지던시에 참여하였고, 필리핀의 권위있는 Thirteen Artists Awards을 수상하였다.

라야 마틴, 〈아르스 콜로니아〉, 2011.
단채널 비디오(아날로그 영상과 손으로 채색한 35mm 필름). 1분 12초.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허버트 발스 펀드 커미션.
작가 제공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M3
→ p.170

로-데프 필름팩토리 (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 2019년부터 활동

로-데프 필름팩토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프랑소와 노체와 에이미 루이스 윌슨으로 구성된 참여형 예술-제작 공동체 이니셔티브이다. 이들은 비오아트, 콜라주, 조각 설치, 가상현실 기술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며, 이를 위한 아카이브 조사, 드라마투르기와 시각표현의 전략 연구를 진행한다. 공동 창작과 실수를 통한 실험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니셔티브는 높은 생산 가치 보다는 생각과 경험이 환기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디오와 뉴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텔링 공간 구현을 목표로 한다.

로-데프 필름팩토리(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지하 흔적 아카이브〉, 2021-2023. VR 비디오 설치, 벽화.
15분(VR 비디오); 가변 크기(벽화)
벽화 협력: 조-이브 살란캉 사-뇰, 카엘로 몰레페. 르 리외 유니크를 위한 울리마타 게예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SeMA 벙커 B3
→ p.152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 1981년생

1981년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립예술대학교와 토르콰토디텔라 대학교에서 수학한 작가는 이후 네덜란드로 옮겨 아른험에 위치한 아르테즈예술대학교와 암스테르담 라익스아카데미를 거쳐, 2021년부터 암스테르담 헤릿리트벨트 아카데미의 텍스타일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작가는 독일 뒤셀도르프 필라라컬렉션 (2022), 리히텐슈타인 파두츠의 리히텐슈타인현대미술관(2022),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21), 프랑스 브레티니쉬르오르주 CAC브레티니 (2021), 영국 런던 가스웍스(2021), 이탈리아 볼차노현대미술관(2020),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반아베미술관(2019), 스페인 마드리드 센트로센트로(201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 (2018)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수상 경력으로는 프리 드 롬(Prix de Rome) (2021)과 프리즈아티스트어워드(2018) 후보에 올랐었고, 제8회 마르타 가르시아-파하르도미술상(2021)과 ARCO젊은 예술가상(2019)을 수상했다.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2023
퍼포먼스. 30분
퍼포먼스 협력: 이승희.
리서치 및 보조: 안토니아 프라티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중위-수녀가 지나가네: 카탈리나, 안토니오, 알론소 외 여러 명의 자서전〉, 2021
자카드 태피스트리(메리노 울, 면, 루렉스).
160 × 400 cm
태피스트리 제작: 틸뷔르흐 텍스티엘랩.
나무 좌대 제작: 염철호, 조재홍, 정진욱
런던 가스웍스 커미션 및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8
→ p.98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Ⅰ〉,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Ⅱ〉,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Ⅲ〉,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Ⅳ〉,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Ⅴ〉, 2023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온 아르헨티나산 의복, 암스테르담에서 온 업사이클링 의류, 작가의 작업실에서 모은 면, 벨벳, 루렉스 등 직물 조각, 100% 대나무 섬유 이불솜 한 겹과 면을 재활용한 특별 재료로 만든 퀼트와 패치워크.
350 × 240 cm; 340 × 220 cm;
350 × 210 cm; 330 × 210 cm;
340 × 210 cm
제작 협력: 미카 펄무터, 신유 황, 다샤 골로바.
리서치 및 보조: 안토니아 프라티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9
→ p.100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Una canción coreana [한국 노래]〉, 2023
사운드스케이프. 약 7분
사운드스케이프 협력: 토니 브렐.
리서치 및 보조: 안토니아 프라티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0
→ p.100

미코 레베레자 | 1988년생

미코 레베레자는 현재 멕시코 오악사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작가이다. 유년기에 경험한 미등록 이민자로서의 삶과 미국으로부터 추방 당한 현재의 신분이 영상 매체를 구성하는 관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DROGA!〉(2014), 〈붕괴 93-96〉(2017), 〈No Data Plan〉(2018), 〈Distancing〉 (2019), 〈El Lado Quieto〉(2021), 〈Nowhere Near〉(2021) 등이 있으며, 2018년 발행된 『필름메이커 매거진』에서 신예 독립영화인 25인 중 한 명으로, 2019년에는 로버트 플라허티 필름세미나에서 소개되었다. 또한 그는 2021년 빌첵 재단의 빌첵상 필름메이킹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미코 레베레자, 〈주름〉, 2023
단채널 비디오, HD. 26분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4
→ p.108

미코 레베레자, 〈붕괴 93-96〉, 2017
단채널 비디오, HD. 5분 25초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5
→ p.110

사노우 우마르 | 1986년생

아프리카의 내륙국 부르키나파소 출신 사노우 우마르는 현재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에 거주하며 맨해튼 할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작가는 2007년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위를 받은 뒤 2015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의 작품은 미국 더스튜디오뮤지엄,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 미술관, 미네아폴리스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사노우 우마르, 〈6/15/20〉, 2021
벽 설치.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마하람 디지털 프로젝트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1
→ p.58

사노우 우마르, 〈11/7/21〉, 〈11/20/21〉, 〈12/3/21〉, 〈12/14/21〉, 〈12/15/21〉, 〈12/21/21〉, 〈12/22/21〉, 〈12/25/21〉, 〈1/3/22〉, 〈3/3/22〉, 〈5/28/21〉, 〈6/30/21〉, 〈03/01/2022〉, 2021-2022
종이와 보드에 펜과 마커.
각 60.96 × 48.26 cm(10점);
각 101.60 × 81.28 cm(2점);
81.28 × 101.60 cm(1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뉴욕 고든 로비쇼 및 런던 헤럴드 스트리트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8
→ p.74

사샤 리트빈체바&그레임 안필드 | 1989년, 1991년생

사샤 리트빈체바는 인식-언어, 유기체-환경, (지식 생성과 활용에 대한) 체제-권력 간의 관계와 그들이 분간되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주목한다.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문필가로도 알려져 있는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매체, 생태학, 과학사를 아우르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2020, 2017),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2022, 2017),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CPH:DOX, 2022), 벨기에 겐트 코르티잔영화제(2022, 2017 외), 프랑스 파리 시네마뒤레앨(2018, 2016), 스페인 팜플로나 푼토데비스타국제타큐멘터리영화제 (2021), 리투아니아 빌뉴스 발틱트리엔날레 (2021),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국제건축전 (2020), 미국 뉴욕 영상박물관(2020), 영국 ICA런던(2018), 미국 로스앤젤레스필름포럼 (2021), 독일 베를린 주립미술관(2018), 미국 시카고현대미술관(2019), 독일 베를린 트랜스미디알레(2022), 상파울루 비데오브라질(2017), 독일 베를린아토날 (2019, 2018), 크라이테리온 채널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소개되었으며, 2022년 포르투갈 인디리스보아영화제에서 우수한 단편영화에 수여하는 실베스트레상, 2022년 멕시코 과나후아토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의 체셔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레임 안필드는 현재 런던을 거점으로 미술, 영화,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 발전, 생태학, 그리고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작가는 '에세이영화'라는 장르의 형태와 인터넷 등에서 구한 이미지들을 작업 소재로 채택하여 사유의 과정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디지털 세계의 정치학 그리고 토탄, 석면 같은 자연 원료의 유통과정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온 그는, 더 나아가 특정 역사가 전 사회에 순환되는 흐름에 주목한다. 그의 작업은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2020),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2017), 벨기에 겐트 코르티잔영화제(2021, 2020 외), 영국 런던 오픈시티 다큐멘터리영화제 (2021)와 버릭 필름&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3, 201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닉액츠페스티벌(2017), 독일 오스나브뤼크 유러피언 미디어아트페스티벌(2020, 2019 외), 독일 베를린 트랜스미디알레(2023, 2019),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임펙트페스티벌 (2018), 독일 카셀러독페스트(2021, 2018 외), 아일랜드 더블린 플라스틱 페스티벌 (2017), 스위스 빈터투어 국제단편영화제 (2016), 영국 런던 LUX(2018)와 ICA(2017, 2016 외), 독일 베를린주립미술관(2018), 영국 런던 시그널 갤러리(2016), 화이트채플 갤러리(2018), 그리고 이플럭스(2020), 브이드롬(2015) 등에서 보여졌으며, 그의 작품은 LUX, 아르스날, 스퀘어아이즈를 통해 유통·배급되고 있다.

사샤 리트빈체바 & 그레임 안필드, 〈아스베스토스(석면)〉, 2016
단채널 비디오 설치. 20분(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작가 제공
→ SeMA 벙커 B4
→ p.154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 1989년, 1985년생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문필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샤 리트빈체바와 베니 바그너는 2018년부터 다수의 영상, 설치, 텍스트 작업 및 교육 활동을 함께 해왔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일깨우는 도구로서 '무빙이미지', 즉 일반적으로는 영상이라 불리는 표현 방식에 접근한다. 그들의 작업은 신체 대 환경, 지식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체제 대 권력,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 대 분별이라는 서로 맞닿은 개별 개념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주목한다. 그들의 공동작업은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벨기에 겐트 코르티잔 영화제, 리투아니아 CAC빌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필름포럼, 뉴욕 영상박물관, 독일 베를린 트랜스미디알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닉액츠페스티벌, 독일 베를린아토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임펙트페스티벌, 폴란드 브로츠와프 미디어아트비엔날레, 리투아니아 빌뉴스 발틱트리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 행사에서 소개되었다.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콘스탄트〉, 2022
비디오 설치. 40분
제작: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기욤 카이요. 설치 협력: 이사벨 오그덴, 마테오 마스트란드레아(OBSCENE)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미디어보드 및 독일 연방 정부 문화 미디어부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20
→ p.54

센신 | 1990년생

센신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서사와 다르게 전개시킨 '대체역사'를 조명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의 관점에서 본 '문화'란 땅을 위시한 '장소'가 갖는 의의에 대해 깨닫고, 설파하며, 그것과 공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의식은 그가 고찰한 문화 이해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복수의 세계관이 상호 작용하는 다성적 이야기 및 그러한 정체성을 포용하는 공간을 상상하고, 이를 영상, 뉴미디어, 공공예술, 공동작업 등으로 가시화시킨다. 《ས་གཞི་སྲོན་པོ་འགྲུལ། (지구는 푸르네)》(뉴욕 스위스인스티튜토, 2022), 《Brine Lake (A New Body)》 (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 2021), 《Double Feature》 (프랑크푸르트 쉬른쿤스트할레, 2019), 《Synthetic Types》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2019), 《To Satiate》 (상하이 메이드인 갤러리, 2019), 《Warm Spell》(ICA런던, 2018), 《Sliced Units》 (맨체스터 esea컨템포러리, 2018), 《half-sung, half-spoken》(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2017), 《At Home》(우한 서플러스스페이스, 2016) 등에서 개인전과 퍼포먼스가 소개되었다.

쉔신, 〈ས་གཞི་སྲོན་པོ་འགྲུལ། [지구는 푸르네]〉, 2022
3채널 비디오, 사운드. 38분 39초
티베트어 번역: སྒྱིད་དར་འཛོམས། [스키 트라좀사]. 목소리: སྒྱིད་དར་འཛོམས། [스키 트라좀사], 쉔신.
극장 조명 기사: 카일 가벨.
색채: 제이슨 R. 모팻. 사운드 믹스: 요헨 예즈세크. 한글 번역: 문경원
뉴욕 스위스 인스티튜트, 맥나이트 파운데이션 더 넥스트 스텝 펀드, 미네소타 시스터 데니스 프랜드럽 레지던시 프로그램, 광저우 타임스 미술관 및 상하이 마델린 갤러리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6
→ p.68

스테파니 제미슨 | 1981년생

스테파니 제미슨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뉴욕 그린 나프탈리(2024, 2021), 로스앤젤레스 JOAN(2022), 암스테르담 아넷 겔링크 갤러리(2021), 리스본 마드라고아 갤러리(2021), 신시내티 현대미술센터(2021), 뉴욕 카이 마츠미야(2019),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19), 뉴욕 링컨센터(2018), 파리 주드폼 미술관(2017), 보르도 현대미술관(CAPC, 2017), 매사추세츠 노스애덤스 현대미술관(2017), 노팅엄 컨템포러리 갤러리(2017),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스쿨 오브 디자인(2015), 뉴욕 현대미술관(2015) 등에서 개인전, 스크리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카운터퍼블릭트리엔날레(2023)를 비롯해, 미시시피 미술관과 볼티모어미술관이 공동 주관한 순회전시 《A Movement In Every Direction: Legacies of the Great Migration》(2022-2024), 뉴욕 현대미술관 PS1의 《Greater New York》(2021), 할렘스튜디오미술관과 미국미술연맹이 주관한 《Black Refractions: Highlights from The Studio Museum in Harlem》(2019-21), 뉴욕 휘트니비엔날레(2019)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재 뉴저지주에 위치한 럿거스대학교에서 미술 및 디자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2년 그의 첫번째 소설 『A Rock, A River, A Street』이 프라이머리 인포메이션에서 출간되었다.

그의 작품은 시카고 미술관, 볼티모어미술관,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 뉴욕 버팔로 AKG 미술관, 워싱턴 D.C. 허쉬혼미술관 및 조각정원,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뉴욕 할렘스튜디오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스테파니 제미슨, 무제(거친 투상), 2023
은도금 유리, 아크릴 페인트, 광택제.
각 37.5 × 26.4 × 0.6 cm(5점)
작가 및 뉴욕 그린 나프탈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5
→ p.66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 1981년생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는 사회를 구축하는 각종 기반시설 및 경관의 정치적 요소를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탐구한다. 연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작가의 작업은 '변위' 현상을 고찰하고, 땅, 시간, 자원 등 인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담론과 관련한 재료를 창작 도구로 사용한다. 이론과 실천이 공존하는 그의 작업은 장소와 맥락에 반응하며 사회 질서, 자원 관리, 정보 배포의 수준, 명료성, 접근성에 대해 비평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BIENALSUR(2021), 뉴욕 휘트니비엔날레(2019), 베를린비엔날레(2016), 이스탄불디자인비엔날레(2018), 베이 에어리아 뉴터레인스, 덴버 아메리카스 비엔날레(2015), 크라쿠프 플레이퍼블릭(2014), 세일럼 피바디에섹스박물관(2018), 워싱턴 예술과인문학커미션(2014), 마이애미 바스미술관(2013), 마이애미 아트인퍼블릭플레이시스, 베를린 현대미술관(2012)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소개되었다.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세계 지도〉, 2012
손으로 샌딩한 550쪽의 지도, 46 × 63 cm
작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5
→ p.28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신세계 지도〉, 2023
주문제작 자동 페이지 플리퍼, 스캐너, 주문제작 생성시스템. 가변 크기
AI 스크립트와 이미지 생성 시스템 개발: 브와제이 코토프스키. 3D 모델링과 로보틱스: 헤르만 페레즈, 이성은. 전기 디자인: 가브리엘라 문기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및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제작 지원. 작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5
→ p.28

아나 벨라 가이거 | 1933년생

아나 벨라 가이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브라질 현대미술가들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브라질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그는 초창기 라틴아메리카 개념미술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작가는 1950년대에 파이가 오스트로워의 스튜디오(1920-2001)에서 공부하며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1953년부터 55년까지 뉴욕에 머무르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나 레비의 미술사 수업을 들었고, 뉴스쿨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듬해에 브라질로 돌아왔다. 작품은 새로운 재료와 지원 방식의 탐구를 통해 다양한 시적 언어를 구사한다. 작가는 1970년대에 사진 인쇄, 제록스, 슈퍼-8, 비디오 작품을 실험했고, 이후 회화로 돌아왔다.

여러 전시중에서 최근에는 《Native Brazil/Alien Brazil》(네덜란드 하를렘 프란스 할스 미술관, 2022), 《Native Brazil/Alien Brazil》(벨기에 겐트 시립현대미술관, 2021), 《Brasil nativo/Brasil alienígena》(브라질 상파울루미술관, 2019), 《Maps under the sky of Rio de Janeiro》(폴란드 바르샤바 자헨타 국립미술관, 2018), 《Anna Bella Geiger: Here is The Center》(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왈라흐 아트갤러리, 2018), 《Geografía Física y Humana》(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민박물관, 2018), 《Physical and Human Geography》(스페인 마드리드 카사 엔센디다, 2017) 등의 개인전이 있었으며, 《Radical Women: Latin American Art, 1960–1985》(미국 브루클린박물관, 2018), 《América Latina 1960-2013》(프랑스 파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2013), 《Vidéo Vintage》(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2012), 《Modern Women: Single Channel 5 Artists》(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PS1, 2011) 등의 단체전에 초대되었다.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1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3분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1
→ p.38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2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4분 16초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2
→ p.38

아나 벨라 가이거, 〈기초 지도 3번〉, 1976
비디오(흑백, 사운드). 3분
작가 및 상파울루 멘데스 우드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3
→ p.38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 2017년 결성

아니말리 도메스티치는 덴마크 오르후스를 기반으로 디자인 실천을 만드는 콜렉티브로, 2017년 방콕에서 알리시아 라자로니와 안토니오 베르나치가 결성하였다. 이 콜렉티브는 생태계와 경제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사색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상품, 과정의 개발을 주목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생태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더불어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 너머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며, 행위자와 물질의 대안적이고 포괄적인 조합을 연구한다.

알리시아와 안토니오는 현재 덴마크의 오르후스 건축 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거 싱가포르에서 몇년 간 활동한 적이 있는 그들은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방콕의 기회주의 생태학〉, 2019
아크릴 천에 인쇄, 자수. 300 × 300 cm
협업: 듀 티쿰폰 파니차칸, 마테오 마라벨리, 핀 푸나라 프라추아브모
싱가포르 NTU 현대미술센터(CCA)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7
→ p.50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배수구 아래로: 파충류 이야기〉, 2023
아크릴 천에 인쇄. 125 × 400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8
→ p.50

아르차나 한데 | 1970년생

아르차나 한데는 인도의 식민주의 그늘과 산업화를 통한 권력의 재생산에서 성장한 배경을 투영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 《I am a Landscape Painter》(2015),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2009, 2010), 《www.arrangeurownmarriage.com》(2008-2012), 《Relics of Grey》(2007) 등이 있으며, 최근 제15회 샤르자 비엔날레(2023), 코치-무지리스 비엔날레(2022-23)에 참여하였다. 또한 《Project Cinama City》(2012) 공동 기획 및 제4회 코치학생비엔날레 《States of Disarray: Practice as Restitution》(2020-22)의 기획을 맡은 바 있다.

수혜 및 수상 경력으로는 찰스 윌리스 인디아 트러스트 예술상에 대한 포상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예술학교 레지던시(2000-2001)에 참여했으며, 스위스예술원회 프로헬베티아의 연구형 레지던시(2010), 그리고 호주 퍼스에 위치한 국제예술공간과 멜버른대학교 내 설립된 아시아링크가 함께한 문화예술 교류 레지던시 《Spaced 2: future recall》(2013-14)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서호주박물관(2015)에서 전시했다.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네팔산 종이와 코끼리 똥 섬유 종이에 석판과 목판 인쇄. 35 × 627 cm
목판 가공: 딘반두 아다크, 시타람 아다크, 아시트 차크라보티. 목판 채색: 타라크 다스. 카니시카 콜카타 워크숍에서 제작
작가 및 인도 콜카타 엑스페리멘터, 셰무드 프레스코트 로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4-1
→ p.88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목판 인쇄에 채색. 각 76 × 104 cm(14점)
목판 가공: 딘반두 아다크, 시타람 아다크, 아시트 차크라보티. 목판 채색: 타라크 다스. 카니시카 콜카타 워크숍에서 제작
작가 및 인도 콜카타 엑스페리멘터, 셰무드 프레스코트 로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4-2
→ p.88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단채널 비디오. 10분(반복재생)
영상 편집: 아비어 굽타 & 아르차나 한데. 사운드 디자인: 바비 존. 애니메이터: 사라트 나야크. 영상 편집 장비: 뭄바이 마즐리스
작가 및 인도 콜카타 엑스페리멘터, 셰무드 프레스코트 로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4-3
→ p.88

아르차나 한데, 매직 화이트 앞에서는 모두가 윤택하다〉, 2008-2009
목판 인쇄. 각 30 × 30 cm(19점)
목판 가공: 딘반두 아다크, 시타람 아다크, 아시트 차크라보티. 목판 채색: 타라크 다스. 카니시카 콜카타 워크숍에서 제작
작가 및 인도 콜카타 엑스페리멘터, 셰무드 프레스코트 로드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4-4
→ p.88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 1942년생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는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가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4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작가는 창의적이면서 파괴적인 과정을 통해 표현해왔다. 드로잉, 판화, 시, 영화, 퍼포먼스, 설치 및 조각 등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주로 주체성과 자아성찰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2005년 브라질에서의 첫 회고전이 상파울루 피나코테카미술관에서 개최된 이래, 상파울루 인스티튜토토미오타케(2002),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미술관 (2002), 미국 사바나예술대학교 미술관 (2020), 영국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 (2019) 등에서 주요한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2022년 영국 런던예술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피나코테카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 전 세계 유수 기관 및 여러 개인 컬렉터에게 소장되어 있다.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Série Indícios (단서 연작)〉, 2000/2003
드로잉(플렉시글라스에 끼운 종이에 검정 실). 각 34 × 24 cm(11점)
안드레아와 호세 올림피오 페레이라 소장 및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31
→ p.80

엘레나 다미아니 | 1979년생

페루 리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엘레나 다미아니는 기록물이 갖는 개념적 의의, 그리고 망각의 두려움이 내려앉은 사회에서 나타난 기억의 지속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은 다시 작가의 연구와 작업 양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상에서 찾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그의 콜라주, 조각, 영상, 설치 작품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엘레나 다미아니는 에콰도르 쿠엥카비엔날레 (2018, 2016), 광주비엔날레(2016),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2015), 오스트리아 비엔나비엔날레(2015),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폴리/그래픽트리엔날레 (20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미지와 움직임 비엔날레 (Bienal de la Imagen y Movimiento, 2014), 브라질 메르코수르비엔날레(2013)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페루 리마 현대미술관(2022), 미국 노퍽 크라이슬러미술관(2017), 멕시코 푸에블라 암파로박물관(2016), 멕시코 시티 국립멕시코대학교 현대미술관(MUAC, 201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수혜 경력으로는CIFO예술재단의 커미션 기금 (2016)과 뉴욕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의 데이비드 록펠러 아트리움 커미션 작가 선정(2014) 등이 있다.

엘레나 다미아니, 〈불규칙성 대리석 V〉, 2022. 코튼 페이퍼와 알파 셀룰로오스 페이퍼에 잉크젯 프린트.
각 44.2 × 35.2 × 3.5 cm(18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7
→ p.72

엘레나 다미아니, 〈달보다 빛나는〉, 2016
단채널 비디오 프로젝션과 사운드.
8분 16초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2
→ p.60

왕보 | 1982년생

왕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연구가이다. 그의 작업은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2017), MoMA(2013), 러시아 모스크바 가라지현대미술관(2017),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2020), 일본 도쿄 이미지포럼페스티벌(2018, 2022), 덴마크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CPH:DOX, 2013, 2023), 중국 광저우 타임스미술관(2010, 2019), 홍콩 파라사이트(2020)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선보여졌다. 수혜 및 수상 경력으로는 로버트 플라허티 필름세미나 펠로우십(20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2017-8),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현대미술센터(NTU CCA, 2016) 레지던시 등이 있으며, 그의 영화 〈An Asian Ghost Story〉(2023)는 올해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뉴:비전상을 수상했다.

왕보, 〈혁명은 냉방될 수 없다〉, 2022
2채널 비디오. 27분
주니 첸, 《플라스틱처럼 빛나는》, 뉴욕 바드 대학 헤셀미술관 커미션. 작가 제공
→ 소공 스페이스 U2
→ p.162

왕보, 〈인테리어 분수〉, 2022-2023
철근, LED등, 인테리어용 조화, 거울, 벽지, 사운드. 400 × 450 cm
현지 재제작: 디자인 본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3
→ p.86

유어 컴파니 네임 (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 2021년 결성

클라라 발라구에르는 특히 동시대언어의 렌즈를 통해 문화생산의 탈식민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다. 그녀는 2010년에 문화 디자인 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필리핀의 연구, 거주지 및 사회적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작가는 2013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출판사 Hardworking Goodlooking의 가내수공업 방식의 은밀한 출판물 제작을 통해 협업의 저작권 문제를 연구했으며, 워커아트센터, 하버드 GSD, MIT, 모스크바 스트렐카, 뉴욕 현대미술관 PS1, 트리플 캐노피, 서울 한양대학교, 필리핀대학교에서 강의했다.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싱가포르 미술관, 아트 두바이, 바르셀로나 앙가르 및 라카펠라에서 전시되고 공연되었다.

센지즈 멘규치는 로테르담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시각예술가이다. 그의 현재 작업은 지인들과 함께하는 작업, 부업, 스스로 시작한 프로젝트, 디자인 작업, 커미션 작업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센지즈는 (비)전문적인 연구 방식을 디자인, 프로그램 제작, 체계화, 1인 출판에 접목한다. 작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는 일상 생활이 스며든 디자인과 문화 생산에 대한 다양한 작업 방법과 접근법을 탐구한다. 아버지의 회전케밥가게에서 일하고 브랜드화를 돕는 동안 시작된 터키-네덜란드 공동체 내에서의 그의 디자인과 광고 작업은 로테르담과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이주 디자인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발전했다.

유어 컴파니 네임(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가제 제목 여기〉, 2023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4분 35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M1
→ p.166

이끼바위쿠르르 | 2021년 결성

이끼바위쿠르르는 시각 연구 밴드이다. 현재 고결, 김정원, 조지은으로 구성된 이끼바위쿠르르는 식물, 자연현상, 인류, 생태학과의 연계를 탐구한다. 작품명은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의 조합어이다. 이끼는 대기와 흙의 경계층에서 작은 몸으로 적응하며, 주변환경에 따라 그 세계를 확장시킨다. 이들은 이끼가 살아가는 방식을 프로젝트와 태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열대와 해초를 연구하며 또 한켠에서는 농부들과 활동하고 있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이 움직임의 일부가 되어 그 경계층을 넓힌다는 의미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2023), 〈Documenta 15 Lumbung〉 (오토네움, 카셀), 《Michikusa: Walks with the Unknown》(미토시 아트타워미토 현대미술갤러리), 올해의 작가상 201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Cosmopolis-Collective Intelligence》 (파리 퐁피두센터) 샤르자비엔날레 12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 (아랍에미리트), 《nnncl & mixrice》 (아뜰리에에르메스, 서울, 2013), 제7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에날레(Gomma 현대미술관, 브리즈번, 2012) 등이 있다.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2023
흙. 가변 크기
'그라운드' 사운드: 최태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앞마당 S1
→ p.20

이재이 | 1973년생

이재이의 작업은 역설을 드러냄와 동시에 내적 울림을 일으키는 공간을 생성하며, 이러한 공간은 영상, 사진, 퍼포먼스 등의 표현 기법이 결합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작가의 작업은 미국 애틀랜타 하이미술관(2018),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의 노턴미술관 (2021), 콜로라도의 MCA덴버 현대미술관 (2023), 뉴욕 버팔로의 AKG미술관(2011), 퀸즈미술관(2009), 브롱크스미술관(2005),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2012), 고베비엔날레 (2007), 리움미술관 상설전, 서울시립미술관 (2019, 2018 외), 포르투갈 기미랑이스 CAAA(2014), 이탈리아 밀라노 트레엔날레 (2016) 등 유수의 미술기관에서 전시되었다. 작가의 작품은 미국 LA카운티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동양미술관, 애틀란타 하이미술관, 웨스트팜비치 노턴미술관, 버팔로 AKG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양평 구하우스미술관, 송은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등의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퍼포먼스 및 음향 설치.
약 10분(퍼포먼스); 8분(음향)
원곡: 아리조나 카우보이(1955), 전오승 작곡, 김부해 작사. 편곡: 보엠. 퍼포머: 김예원, 닷시냠, 보엠, 스텔라, 아넷, 장웨이, 주영규.
퍼포먼스 프로듀서: 신진영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앞마당 S2
→ p.22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퍼포먼스. 약 10분
퍼포머: 김예원, 닷시냠, 보엠, 스텔라, 아넷, 장웨이, 주영규. 퍼포먼스 프로듀서: 신진영.
편곡: 보엠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이케조에 아키라 | 1979년생

일본 고치현 출신 이케조에 아키라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외부 혹은 인간 이전으로 생각하는 지점과 인간을 '문명화' 한다는 개념 사이의 균형과 관계된 드로잉, 회화,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소개해왔다.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형상은 반복되는 어리석은 행동의 사슬로 재현되고, 이것은 형이상적이며 영성적인 맥락을 만들며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을 그려낸다.

주요 전시로 《Sometimes You Must Go Down to Go Up》 프로젝트스 울트라비올레타, 과테말라(2019); 《Coconut Heads》, 브레넌&그리핀 갤러리, 뉴욕(2018); 《If 6 was 9》 프로젝트스 울트라비올레타, 뉴욕 NADA, 뉴욕(2016); 《El fin del Este Coincide con el Fin del Sur》, 프로젝트스 울트라비올레타, 과테말라(2015); 《Drawing》, ISE 문화재단, 뉴욕(2010); 《Repeater》, 사나기 파일 아츠, 도쿄(2009); 《Ephemeral Garden》, ESSO 갤러리, 뉴욕(2008) 등이 있다. 2016년 작가는 폴록-크래스너 기금을 수상했고 엘리자베스 예술재단에서 개방형 스튜디오를 지원받았다.

이케조에 아키라, 〈사진 찍어요〉, 2010
패널에 부착된 종이에 수채. 46 × 182.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5
→ p.92

이케조에 아키라, 〈끝나지 않는 파티〉, 2010
패널에 부착된 종이에 수채. 46 × 182.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6
→ p.94

이케조에 아키라, 무제, 2010
캔버스에 유화. 50 × 63.5 cm
작가 및 도쿄 미사 신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37
→ p.96

전현선 | 1989년생

전현선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지배적인 관점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아, 하나의 집합체로서 구성하는 총체적 관점을 주목하고, 각 상황마다 존재하는 예외적인 요소들을 탐구한다. 《Meet Me in the Middle》, 갤러리2, 서울(2022); 《열매와 모서리》, 갤러리2, 서울(2020); 《붉은 모서리》, P21, 서울(2019); 《나란히 걷는 낮과 밤》, 대안공간 루프, 서울(2018) 등이 있다. 또한 《외연과 심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3); 《아트 스펙트럼2022》, 리움 미술관, 서울(2022); 《Another Asian Artist》, 더샵하우스, 홍콩(2022);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2019) 등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하였다.

전현선, 〈이 선을 넘어도 돼〉, 2023
캔버스에 수채, 나무 프레임, 알루미늄 스탠드. 337 × 728 cm(각 112 × 145.5 cm)
작품 연결장치 제작: WA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5
→ p.42

전현선, 〈이름 없는 산속으로〉, 2023
벽화. 267 × 1130 cm(내벽);
267 × 670 cm(유리벽)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작가 제공
→ 스페이스mm U1
→ p.160

정소영 | 1979년생

정소영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설치, 조각, 비디오, 공공적 개입 등의 활동을 통해서 조각 매체의 범주를 확장하고 실험해왔다. 지질학을 기반으로 장소에 담긴 시간성의 층위를 드러내며 지정학적 경계에 놓인 역사의 장소 안에서 물질의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역사와 시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다층적 관계와 경계를 사회의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원앤제이 갤러리(2021), 아트선재센터(2016),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스페이스(20130, OCI 미술관(2011)를 비롯하여 다수의 갤러리와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왕립예술원, 런던(2020); 노팅험 New Art Exchange, 노팅험(2017);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2016);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서울(2016); 서울시립미술관(2015); 일민미술관, 서울(2012) 등 국내외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2021), 델피나 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2017), 베를린 ZK/U(2017),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2012)을 포함한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하였다.

정소영, 〈섬 그리기〉, 2020
비디오 설치. 5분 33초(비디오, 반복재생);
50 × 122 × 79 cm(나무 박스)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9
→ p.34

정소영, 〈29.5일〉, 2021
유리, 서해안 갯벌에서 가져온 진흙, 에폭시, 알루미늄.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0
→ p.36

제시 천 | 1984년생

비디오-시를 비롯한 단편 영화, 드로잉, 조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제시 천의 작품은 토론토 현대미술관(2020, 2021), 용인 백남준아트센터(2020), 뉴욕의 조각센터(2020), 퀸즈미술관(2018), 더드로잉센터(2019), 브루클린음악아카데미(BAM, 2018), 더뉴스쿨 산하 베라리스트 예술 및 정치센터(Vera List Center for Art and Politics, 2020), 런던의 화이트채플 갤러리 (2023)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기관에서 소개되었다. 미국의 조안 미첼 재단으로부터 화가와 조각가에게 수여하는 기금, 프랑스 파리 아트바이트랜스레이션 프로그램, 뉴욕 ISCP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EA) 펠로십 등의 수혜 경력이 있으며,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도서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서관, 카디스트 예술재단(프랑스, 미국) 등 주요 기관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제시 천, 〈시: sea〉, 2022
흰색 MDF 구조물에 단채널 비디오, 2개의 거울, 돌. 2분 10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1
→ p.128

제시 천, 〈시: concrete poem〉, 2023
흑연, 손으로 자른 한지, 나무 프레임.
각 158.75 × 91.44 × 6.35 cm(3점)
도움주신 분: 이창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2
→ p.130

제시 천, 〈오 더스트〉, 2022
3채널 비디오 설치, 3개의 거울.
7분 6초(비디오), 사운드; 가변 크기(설치)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3
→ p.132

제시 천, 〈And verse(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2023
단채널 비디오 설치, 4개의 UV 프린트 아크릴 패널, 돌, 침목. 1분 59초(비디오); 가변 크기 (설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4
→ p.134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천지문 그리고 우주)〉, 2023
흑연, 안료, 벨륨지, 핀, 로마자 알파벳, 지우개, 2개의 아티스트 프레임.
각 38.1 x 27.94 cm(2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5
→ p.136

제시 천, 〈솔래 SULLAE〉, 2020
단채널 비디오. 6분 25초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6
→ p.140

제시 천, 〈탈언어화의 악보〉, 2021-2023
흑연, 안료, 양피지, 핀, 로마자 알파벳, 지우개.
각 33.02 x 26.67 cm(8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캐나다 토론토 현대 미술관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7
→ p.136

제시 천, 〈새로운 달들에 대한 노트들(a reader); 새로운 달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나의 할머니 이옥선, 법명 정각행의 노트들; 역사에 대한 다른 노트들; 나의 답장들 – 같이 말하기에 대해서 –〉, 2023
5개의 보면대 위에 손으로 쓴 일기, 여러 장의 편지, 사진, 아크릴 패널, 클립, 돌 등.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H8
→ p.142

주마나 에밀 아부드 | 1971년생

주마나 에밀 아부드는 예루살렘과 런던을 오가며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현대미술가로, 현재 영국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의 슬레이드 예술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마나 에밀 아부드의 작업은 기억, 민간설화, 위기에 처한 유산, 토지 및 수자원 약탈에 대해 탐구하며, 탐구의 과정은 드로잉,

퍼포먼스, 작문 워크숍 등의 형태로 발전된다. 작가는 여러 관점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이야기 별자리'를 창출하는 협동 과정을 통해 민속문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원(水源)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는 서울시립미술관(2019),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카스코 아트센터(2020), 독일 쾰른 템포러리 갤러리(2020), 영국 테이트 모던의 《BMW테이트 라이브》(2018)에서 선보인 전시 외에도 프랑스 리옹(2007), 아랍에미리트 샤르자(2017 외 다수), 이탈리아 베니스(2015), 튀르키예 이스탄불(2009), 호주 시드니(2022)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비엔날레에 다수 참여하였다.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센터(2016), 스웨덴 우메오의 빌트뮤제(Bildmuseet, 2017), 팔레스타인 라말라의 카릴사카키니문화센터(2016), 요르단 암만의 다랏알푸눈(2021, 2017), 그리스 로쿠스아테네의 전시공간 TAVROS에서 개인전(2022)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독일 카셀도큐멘타15(2022)와 두바이 자밀아트센터(2022)에서 작품이 소개되었다.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2009-2017
드로잉 10점. 45 × 45 cm; 53 × 61 cm; 각 36 × 51 cm(4점); 34.5 × 50 cm; 116 × 69.5 cm; 30 × 41.5 cm; 45 × 29.5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및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6-1
→ p.46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2009-2017
단채널 비디오와 드로잉 3점. 8분(비디오, 반복재생); 75 × 105 cm; 80 × 120 cm; 56 × 76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6-2
→ p.46

주마나 에밀 아부드, 〈이야기와 조각들〉, 2009-2017
올리브 나무 조각 5점.
46 × 30 × 20 cm;
각 16 × 17 × 6 cm(2점);
각 18 × 10 × 6 cm(2점);
24 × 10 × 5 cm; 26 × 16 × 6 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가 및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6-3
→ p.46

차학경 | 1951-1982

한국에서 태어난 재미 개념미술가 차학경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2년 31세로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산과 상실을 주제로 한 작품 세계를 일궈나가며, 아티스트북, 메일아트, 퍼포먼스, 음향, 영상, 영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작품을 남겼다. 작품 세계의 기저에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적 사고에 입각한 영화이론이 깔려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샤머니즘, 유교사상, 가톨릭주의 등의 여러 종교적 관점이 깃든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이 작품의 주요 모티프였다.

작가의 작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미술관과 뉴욕의 아티스트스페이스, 휘트니미술관, 브롱크스미술관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2001년 작가의 주요 회고전 《The Dream of the Audience: Theresa Hak Kyung Cha (1951-1982)》가 UC버클리의 버클리미술관 및 태평양 영상자료원에서 개최된 후 서울을 포함한 세계 다섯 개 도시에서 순회된 바 있다.

차학경, 〈입에서 입으로〉, 1975
단채널 비디오, 흑백, 사운드. 8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미술관 및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 소장. 테레사 학경 차 기념재단 기증. 저작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뉴욕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AI)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4
→ p.64

찬나 호르비츠 | 1932-2013

찬나 호르비츠는 50여 년간의 미술 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복잡하면서 체계적인 작품의 창작을 구성하는 논리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리옹 현대미술관(2019)과 밴쿠버 현대미술갤러리(2018)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Thinking Machines: Art and Design in the Computer Age, 1959-1989》(2018)을 포함한 여러 단체전에서 소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Inbox》 시리즈로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런던 레이븐 로(2016), 베를린 KW현대미술관(2015),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의 BKV 미술관(2009) 등에서 열린 개인전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소개된 바 있다.

찬나 호르비츠, 〈오렌지 그리드〉, 2013-2023
벽과 바닥면 설치, 격자 무늬 벽지와 검은 목재 다각형. 373.3 × 1831 × 549.3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리손 갤러리 런던, 뉴욕, LA, 상하이와 베이징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23
→ p.62

최윤 | 1989년생

최윤은 첨단과 통속을 오가는 시차와 다중의 시간이 만나 조성하는 부조리한 사회적 풍토를 포착하고 엮어서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보여준다. 특히 동시대 한국 사회의 일상적이면서 기이한 잔류의 이미지, 구절, 행동 양식, 그리고 이들이 내포하는 집단의 신념과 감정에 집중해 왔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서사에 비약을 감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술적이고 직감적인 목소리와 움직임, 끊임없이 변신하는 변종적인 미디어와 오브제를 사용한다.

LUX 런던(2022), 두산갤러리 서울과 두산갤러리 뉴욕(2020),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2017)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분데스쿤스트할레 본(2022), 국립현대미술관(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0),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19), 아트선재센터(2019), 아르코 미술관(2019), 부산비엔날레(2018),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2018), 북서울미술관(2017), 국제갤러리(2017), 서울시립미술관(2016), 하이트컬렉션(2014)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윤, 〈마음이 가는 길_시모음〉, 2022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7분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두산아트센터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1
→ p.102

최윤, 〈마음이 가는 길_밤 산책〉, 2023
단채널 비디오. 5분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두산아트센터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1
→ p.102

최윤, 〈파티션(굽이와 비탈)〉, 〈파티션(얼룩)〉,
〈파티션(별천지)〉, 〈파티션(도깨비 도로)〉,
〈파티션(지도가 아닌 지도)〉, 2023
유리에 유화, 알루미늄.
각 180 × 100 cm(5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2
→ p.104

최윤, 〈게시판(벼와 옹달샘)〉, 2018-2020
용 천, 알루미늄 게시판, 아크릴 표지판,
벼, 침핀, 트레이싱지, 에폭시, 열쇠, 열쇠고리,
노끈, 모형 쥐, 유토. 150 × 90 cm;
120 × 80 cm; 각 100 × 100 cm(2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3
→ p.104

최찬숙 | 1977년생

최찬숙이 시도하는 물리적 이동과 정신적 이주에 관한 서사학적 실험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전시, 렉쳐, 공연 및 출판 등의 형식으로 재현된다. 특히 이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파편들을 직접 마주하고 수집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인 지형과 새로운 지역성을 만들어 간다. 작가는 아트선재센터(2017), 타이페이 디지털 아트센터(201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서울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을 포함하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프로그램(2017)에 이어 독일 연방정부재단 시각예술지원작가(2021)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최찬숙, 〈THE TUMBLE〉, 2023
2채널 비디오 설치(4K, 컬러, 사운드), 단채널
비디오 설치(Full HD, 컬러, 사운드), 아카이브
자료. 12분(2채널 비디오, 반복 재생);
9분(단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아카이브)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50
→ p.120

최태윤 | 1982년생

최태윤은 시, 기술, 사회, 그리고 인간 관계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작가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환경에 민감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체계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분산된 돌봄의 웹 기획자이다. 최태윤은 현재 자원 추출, 폐기물 관리 및 탈식민주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식민주의와 기후 변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뉴욕에서 코딩과 예술의 융합을 연구하는 학교, 레지던시이자 연구 단체인 시적연산학교를 공동설립했으며, 현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휘트니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스미스소니언 아시아 태평양 미국센터, 상하이 비엔날레와 같은 기관과 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최태윤, 〈반송〉, 2023
벽에 아크릴 물감. 가변 크기
현장 어시스턴트: 이채은, 전혜수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7
→ p.114

켄트 찬 | 1984년생

켄트 찬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큐레이터, 영화감독이다. 그의 작업은 형식과 내용, 맥락에서 다공질적인 예술 실천의 삼두마차인 시각예술과 픽션, 영화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열대지방의 상상력, 더위와 미술 간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성, 그리고 탁월한 인식론으로서 근대성의 유산에 관한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름, 텍스트, 대화와 전시 등 다른 이들의 작품과 활동은 종종 그의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한다.

켄트 찬은 런던의 가스워크레지던시(2022), 얀반에이크아카데미(2019/20), 싱가포르 NTU 현대미술센터(2017/19)와 루퍼트레지던시 프로그램(2015)에 참여한 바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쿤스트인스티튜트멜리, 보나판텐미술관, 싱가포르 NUS 대학미술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드아펠, 그리고 슬로베니아 현대미술센터에서 개인전과 2인전을 개최하였다. 그의 작품은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중국 타임즈미술관, 아이필름미술관, 암스테르담 스테틀릭뮤지엄, 아르헨티나 BIENALSUR, 독일 세계문화의 집, 그리고 부산비엔날레에서 소개된 바 있다. 켄트 찬은 2021년 파운드워크 작가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 라익스콜렉티브와 보나판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켄트 찬, 〈온난 전선〉, 2021
4채널 비디오, 거울 플렉시글라스에
실크스크린 4점, 거울 플렉시글라스 4점.
61분 14초(비디오); 각 59.4 × 84.1 cm
(플렉시글라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및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제작 지원.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6
→ p.112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 1975년생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은 캐나다 원주민 스콰미시, 슬레일-와우투스, 머스퀴엄의 터전이었던 '양도되지 않은 영토'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위치한 에밀리카예술대학교 예술학부에서 학제 간 활동을 담당하는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를 주 거점으로 한 찰론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산도발의 작품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현대미술관(2022), 캐나다 밴쿠버 현대미술갤러리(2021), 미국 포틀랜드 오리건컨템포러리(2021), 미국 오클랜드 캐피탈리즘박물관(2017), 독일 베를린예술대학교의 디자인트랜스퍼 갤러리(2013), 미국 뉴욕 바리오미술관(2013), 퀸즈 소크라테스조각공원(2010)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ICA 샌디에고에서 열린 《Coming Home》(2021)과 콜로라도컬리지에서 멜론재단 레지던시 작가로 있을 당시 동 대학의 콜로라도스프링스 파인아트센터에서 개최한 《Channel》(2019)이 있다.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과 샌디에고 현대미술관(MCASD)에서 소장하고 있다.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출현의 표면 (두폭화)〉, 2023
종이에 어도비 진흙과 흑연.
152.4 × 487.68 cm
(각 152.4 × 243.84 cm)
현지 제작 어시스턴트: 김규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30
→ p.78

텐진 푼초그 | 1982년생

텐진 푼초그는 티베트계 미국인 작가로, 영화, 설치, 혼합매체, 사진 및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 그의 작품은 뉴욕 루빈미술관, 맨하튼 엔솔로지필름아카이브, 암스테르담 아이필름박물관, 상파울루 베르멜류 갤러리, 상파울루 비데오브라질 등에서 전시 및 상영되었다. 미국 버몬트주 도싯에서 이뤄지는 마블하우스레지던시(2022), 뉴욕 NARS재단 레지던시(2021) 및 플라허티 펠로우십(2019) 등 다수의 수상 및 레지던시 경력이 있다.

텐진 푼초그, 〈순수한 땅〉, 2022
35mm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한 단채널 4K
비디오, 사운드. 15분 17초
작가 및 뉴욕 마이크로스코프 갤러리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F S32
→ p.82

토크와세 다이슨 | 1973년생

토크와세 다이슨은 자신을 화가라고 정의하며, 생태, 인프라, 건축에 걸친 연속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다이슨의 추상적인 작품들은 긴장, 움직임, 규모, 실재와 무한한 공간이 뒤섞여 구축하는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시스템이다. 흑인과 유색인종이 '공간'을 형상화된 정보로 인식하고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며, 인류의 존립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 맥락에서의 해방 전략에 대해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더욱 생생한 지리를 위한 잠재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찾는다.

작가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 아프리카 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아프리칸아메리칸박물관에서의 단체전과 워터빌 콜비대학교 미술관, 시카고 그래엄 순수미술 재단, 필라델피아 스쿨길 환경교육 센터, 버밍험대학교 수잔 렘버그 어스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토크와세 다이슨,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 2023
나무합판, 금속, 아크릴. 가변 크기
건축 어시스턴트: 아누셰 이라비. 현지
프로덕션: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3
→ p.24

권령은,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
(힘의 곱셈)〉, 2023
퍼포먼스. 20분
컨셉 및 안무: 권령은. 리서치 및 어시스턴트:
권예진. 퍼포머: 송명규, 이재린, 이혜상,
전보람, 정지혜. 사운드 디자인: 지미 세르.
사진 및 영상 기록: 글림워커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4
→ p.24

토크와세 다이슨,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 2023
나무, 종이에 흑연, 플렉시글라스, 종이에
잉크, 아크릴. 가변 크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F S19
→ p.24

파이어룰 달마 | 1987년생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파이어룰 달마는 대중문화, 기록물, 문학, 인터넷부터 본인의 실제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각적 어휘를 채집한다. 작가는 소재와 재료에 대한 실험에 정진하며 그 과정을 토대로 텍스타일, 사진, 조각, 디지털 요소 등을 접목시킨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그는 작년 개최된 제1회 프리즈 서울을 무대로 싱가포르 여위크숍 갤러리와 함께 〈L4ND$C4P€$ 4R3 L4NDF33LZ & 4N ♥C34N FVLL ♥F D4+4 WASTESS$ZZ〉(2022)를 선보였으며, 최근 참여한 단체전으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박물관 상설전 《Radio Malaya: Abridged Conversations About Art》(2023), 싱가포르국립미술관의 《Living Pictures: Photography in Southeast Asia》(2022-23)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전시기획·제작 과정을 관객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박물관 프랩-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fter Ballads》(2017-2018)를 선보였으며,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참여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현대미술센터(NTU CCA) 레지던시를 통해 《Vivarium (wii fl∞w w/ l4if but t4k£ ø forms, ♥)》를 선보였다.

파이어룰 달마,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2023
합성 폴리머 페인트(골든) 위에
폴리메타크릴산 메틸(플렉시글라스 타이거),
에폭시 레진(사무라이 2K), 양극산화
알루미늄 합금 위에 카멜레온 탄소 섬유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아크릴산 접착제(Vvivid
XPO), 벌집무늬 역반사테이프
(그립온), 폴리메타크릴산 메틸과 나무 위에
폴리염화비닐과 비금속 반사테이프 (스티브
앤 리프), 폴리에스터 실로 직조한 다양한
재활용 직물, 폴리염화비닐 위에 자일렌.
413 × 1730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및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51
→ p.122

펨커 헤러흐라번 | 1982년생

펨커 헤러흐라번은 금융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파생된 원재료, 지형 및 가치 체계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그는 추상적인 가치 체계가 역사의 기록과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새로운 인물, 이야기, 사물, 조각, 소리, 혼합매체 및 설치 등은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 작가는 현재 '재앙'으로서 금융화된 미래를 주목하며, 언어, 목소리, 호흡기 체계를 활용해 우리의 사회적, 생물학적, 기술적 생태계에 닥칠 수익 창출된 재앙에 대해 질문한다.

암스테르담 라익스아카데미(2017-2018) 출신인 작가는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라는 이름으로 파나마 로펌이 보관 중이던 조세회피처를 폭로한 보도를 위해 네덜란드의 탐사보도언론인들과 협력하였고, 2019년에는 영예로운 로마 대상의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다국적 예술가들이 모여 리튬 신에너지에 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 On-Trade-Off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암스테르담 헤릿릿펠트아카데미의 샌드버그예술대학원 박사 과정(2020-2024)에 재학 중이다.

교토 KCUA(2023)과 베를린 퓨처갤러리(2019)에서 《Corrupted Air》, 뮌스터 베스트팔리셔 예술협회(2018)에서 《A reversal is what is expected》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제7회 룸붐바시비엔날레(2022), 제14회 하바나비엔날레(2022),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 제12회 타이베이비엔날레(2020), 제6회 광저우트리엔날레(2018) 등의 비엔날레에 초대된 바 있다.

펨커 헤러흐라번,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2019
단채널 비디오, 2개의 인쇄 패널. 49분 16초 (비디오); 각 118 × 162 cm(패널)
작가 제공
→ SeMA 벙커 B1
→ p.148

펨커 헤러흐라번, 〈먼지가 부유할 때의 전주곡〉, 2022-2023
단채널 비디오 설치. 15분 15초
현지 제작: 조재홍, 염철호, 정진욱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SeMA 벙커 B2
→ p.150

프랑소와 노체 | 1989년생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현대미술가 프랑소와 노체는 폐기물, 소비, 물질문화라는 중심 주제를 두고 학제 간 연구를 통한 확장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즈대학교에서 미술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케이프타운대학교의 미클리스 순수미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세네갈 다카르비엔날레 (2018),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헷 뉴어 인스티튜트(2022),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2019), 독일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 (ZKM, 2018-9), 콩고민주공화국의 루붐바시비엔날레(2019)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선보여졌으며, 수상 및 수혜 경력으로는 디지털 어스 펠로우십, 모질라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상 외 다수가 있다.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2018-2019
4채널 비디오와 전자 폐기물 설치. 46분 (비디오, 반복 재생); 가변크기(설치)
카메라: 안톤 숄츠, 클레오피 모세스. 출연: 밤바 디아뉴, 달리 음부디, 첸치헝, 아미타 예 펑. 사운드 디자인: 케이던 반 에크
디지털 어스 펠로우십, 네덜란드 비영리기구 히보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영국문화원, 독일연방문화재단 TURN기금 비디오 제작 지원 및 후원. 다카르 케르 티오사네, 요하네스버그 비츠 미술관, 카를스루에 미디어 아트 센터 ZKM 비디오 제작 협력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치 제작 지원. 작가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8
→ p.116

히메나 가리도-레카 | 1980년생

히메나 가리도-레카는 페루가 겪은 격동의 역사를 탐구하며, 특히 세계화를 통해 전파된 신식민지주의적 기준들을 주목한다. 작가는 도시와 농촌, 풍토적인 건축을 조사하며 특수함과 보편성 사이에서 매개적인 물질이 시각화된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동시에 작가는 장인 공예에 대한 기억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실된 촌락 등을 주요하게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풍토적 문화유산의 계승과 산업화의 요구 사이에서 대립된 상태가 야기한 긴장감을 시사하며, 나아가 환경, 주권 다른 커뮤니티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존중과 충돌하는 가속화된 초국가적 경제모델에 내제된 폭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2023년 뉴샤텔의 아트센터 CAN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작가는 2022년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제5회 코치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나폴리 마드레 박물관, 멕시코시티 무세오후멕스, 스투트가르트 스타츠미술관, 제34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소개했다. 그 외 본 시립미술관(2020), 리마 프로젝토 아밀 (2019), 리마 현대미술관(2019), 산타 아나 오렌지카운티미술관(2019), 멕시코시티 시케로스미술관(2017),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미술관 (2017),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2015)에서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히메나 가리도-레카, 〈프로토몰피즘(최초의 형태): AGC 로프 드라이버 모듈〉, 2022
철물 구조, 동판, 철판, 테라코타, 고무, 알파카 울, 양모, 솜. 223 × 310 × 60 cm
작가 및 퀼른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 제공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F S49
→ p.118

참여자 소개

권령은

안무가 권령은은 사회적 현상과 제도 속에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주체적인 몸과 움직임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2015 국립현대무용단의 안무LAB 프로그램에서 '한국현대무용의 역사를 통해 바라본 몸에 대한 관점'을 주제로 리서치한 〈몸멈몸맘〉을 발표했다. 이후 이 작품은 한국의 콩쿠르를 통한 군 면제 제도 안에서 '몸'을 다루는 방식을 추적한 〈Glory〉로 발전되어 2016 프랑스 당스엘라지 및 2017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공연되었다. 2019년에는 아르코 파트너 무용 부문에 선정되어 〈당신은 어디를 가도 멋있어〉를 발표했다. 2020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퍼포먼스 '하나의 사건'에 참여하여 〈DDR(Dance Demands Rhythm)〉을 발표하였다.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 DDR(Dance Dance Revolution)의 화살표 기호체계를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스코어 이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지 그러한 실천 속에서 퍼포머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작업이었다.

권령은은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현대무용과 창작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을 기점으로 안무가, 무용수, 퍼포머로 활동 중이다.

서울커뮤니티라디오 | 2016년 설립

서울커뮤니티라디오(SCR) 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일렉트로닉 뮤직계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이다. 런칭 이후, SCR은 새로운 DJ들과 국내외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재능을 고무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선한 사운드와 새로운 인재들을 발견하려는 SCR의 목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라디오 스테이션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음악, 패션, 기술에 걸쳐 가장 진보적인 브랜드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거의 4년 만에, SCR은 최근 Radio+Bar 컨셉의 'Studio Two'를 이태원에 오픈하였다. SCR Studio Two는 대중들에게 특정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서울의 다양한 뮤직 커뮤니티, 라이브쇼, 팝업 이벤트, 워크샵 및 기타 예술적 시도를 위한 문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데스 | 1979년생

안데스는 일상의 환경, 놀이, 오브제, 사운드와 같은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사용하는 작업을 만들어 왔다. 쌈지 아트디렉터(2006-2009), 동요트리뷰트밴드 부추라마(2006-2012)로 활동했으며, 매일 입었던 복장을 기록하는 〈데일리 코디〉(2006~2013)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최근에는 산의 형성과정을 제빵으로 추적하는 〈지질학적 베이커리〉(2019–2021)와 서울의 산을 탐험하고 주변환경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찾아내는 워크숍〈빵산별원정대〉(2020-2021)를 진행한바 있다.

애니 자엘 콴

애니 자엘 콴은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겸 연구가이다. 동시대미술과 문화적이고 교육학적인 활동주의의 교차점에서 아카이브, 페미니즘, 퀴어와 대안 지식, 집단적 관계성, 연대와 정신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녀는 2017년 유럽에서 가장 큰 동남아시아 퍼포먼스 컬렉션을 라이브 아트 발전 에이전시에서 런칭한 큐레토리얼 콜렉티브 썸띵 휴먼의 디렉터이며, 영국에서 '아시아', '예술', '활동주의'에 관한 탐구를 위해 모인 예술가, 큐레이터, 학자로 구성된 다세대 네트워크 아시아-아트-액티비즘(AAA)을 이끌고 있다. 또한, 바드리 재단과 공동 주최로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개막에서 소개되고, 2024년 베니스에서 한번 더 열릴 글로벌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위한 아시아 포럼의 창립 위원이다. 애니 자엘 콴은 아웃셋 현대미술기금과 프리즈 런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즈 런던 2023에서 18인의 수상자를 소개하는 아웃셋 스튜디오메이커스 코리도어 커미션의 《Channelling》 기획자로 초대되었다. 2025년 노스 런던에서 열릴 브렌트비엔날레 큐레이터이며, 같은 해 웨스트민스터대학의 예술과 미디어 리서치 및 교육 센터(CREAM)에서 대학원 연구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옹조린 | 1981년생

현재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 옹조린은 말레이시아의 화교인 호키엔족의 후손으로, 반 식민주의적 감각, 기억, 조직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며, 지워진 역사와 지식체계의 복원 및 선조와 그들의 지식과의 재연결을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프로그램 자문으로 초청된 옹조린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릿릿펠트아카데미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한 전환을 도모하는 그룹 어젠트이콜로지스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옹조린은 이물적 신체에게 느끼는 공포심을 탐구하며,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식민주의적 전술과 비인간 착취를 용인하는 자본주의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서술법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영국 델피나재단 레지던시(2023)와 암스테르담 프레이머 프레임드에서 개최된 《Elsewheres Within Here exhibition》(2019) 기획을 위한 리서치에서 발전된 것이다.

Exhibition Contributors

Agustina Woodgate | b. 1981

Agustina Woodgate's practice focuses on the politics of landscapes and infrastructure as a conceptual and public geography. Her work comes about through a logical process of discovery, utilizing displacement as a strategy, and the objects that structure our access to land, time, and resources as raw materials. Woodgates's approach is speculative, practical, and site and context-responsive, presenting critical possibilities to concepts on social orders, resourc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bringing clarity, scale, and accessibility. Her work has been included in BIENALSUR, Buenos Aires (2021); Whitney Biennial,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2019); IX Berlin Biennale, Berlin (2016); IV Istanbul Design Biennial, Istanbul (2018); Bienal de las Américas, Denver (2015); PlayPublik, Krakow (2014); Peabody Essex Museum, Salem (2018); DC Commiss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Washington D.C. (2014); The Bass Museum of Art, Miami (2013); Art in Public Places, Miami; and KW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Berlin (2012); among others.

Agustina Woodgate, *The Times Atlas of the World*, 2012,
550-page hand sanded Atlas.
46 × 63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ro, Buenos Aires
→ Seoul Museum of Art 1F S5
→ p.28

Agustina Woodgate, *The New Times Atlas of the World*, 2023
Custom automatic page flipper, scanner, custom generative system.
Dimensions variable
AI Script and Generative System Development: Błażej Kotowski.
3D Modelling and Robotics: Germán Pérez and Sungeun Lee.
Electronic design: Gabriela Munguí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Barro, Buenos Aires, and Adam Mickiewicz Institute. Courtesy of the artist and Barro, Buenos Aires
→ Seoul Museum of Art 1F S5
→ p.28

Akira Ikezoe | b. 1979

Akira Ikezoe is a New York-based artist born in Kochi, Japan. Ikezoe creates works in diverse disciplines, including drawing, painting, video, and performance, in relation to the balance between the forces we think of as outside or before ourselves, and the "civilizing" of ourselves. In Ikezoe's works, the human figures are often presented in a chain of absurd actions that keep looping and woven into a metaphysical and mythological context that depicts a timeless melting point between human and natural boundaries.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Sometimes You Must Go Down to Go Up*, Proyectos Ultravioleta, Guatemala (2019); *Coconut Heads*, Brennan & Griffin, New York (2018); *If 6 was 9* by Proyectos Ultravioleta at NADA NY, New York (2016); *El fin del este coincide con el fin del sur*, Proyectos Ultravioleta, Guatemala (2015); *Drawing*, Ise Cultural Foundation, New York (2010); *Repeater*, SANAGI FINE ARTS, Tokyo (2009); and *Ephemeral Garden*, ESSO Gallery, New York (2008). In 2016 he received the Pollock-Krasner grant and an open-ended studio grant from the Elizabeth Foundation for the Arts.

Akira Ikezoe, *Let's Take a Picture*, 2010
Watercolor on paper mounted on panel. 46 × 182.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 Seoul Museum of Art 3F S35
→ p.92

Akira Ikezoe, *The Never Ending Party*, 2010
Watercolor on paper mounted on panel. 46 × 182.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 Seoul Museum of Art 3F S36
→ p.94

Akira Ikezoe, Untitled, 2010
Oil on canvas. 50 × 63.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sa Shin Gallery, Tokyo
→ Seoul Museum of Art 3F S37
→ p.96

Animali Domestici | f. 2017

Animali Domestici is a design practice based in Aarhus, Denmark, founded in Bangkok in 2017 by Alicia Lazzaroni and Antonio Bernacchi. Animali Domestici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peculative design projects, products, and processes at the intersection between ecological and economic systems. With an active interest in ecology in its wider sense, it has been investigating alternative inclusive assemblages of actors and materialities, proposing more-than-human explorations with an empirical and hands-on approach.

Alicia and Antonio are Assistant Professors at Aarhus Architecture School in Denmark. After practicing for several years in Singapore, they worked as adjunct professors and co-coordinators of INDA (International Program in Design and Architectur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in Bangkok, Thailand.

Animali Domestici, *Bangkok Opportunistic Ecologies*, 2019
Print on acrylic fabric with embroideries. 300 × 300 cm
Collaborators: Dew Tikumporn Panichakan, Matteo Marabelli, Pinn Phunnara Prachuabmoh. Realized with the support of NTU Centre for Contemporary Art (CCA),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7
→ p.50

Animali Domestici, *Down the Drain: Tales of Reptile Coordination*, 2023
Print on acrylic fabric. 125 × 400 c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8
→ p.50

Anna Bella Geiger | b. 1933

Anna Bella Geiger is widely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tists working in Brazil today. A pioneer of video art in the country, she was also one the great exponents of first generation Latin-American conceptual artists. She began her artistic studies in the 1950s at the studio of Fayga Ostrower (1920-2001). Between 1953 and 1955, she lived in New York, where she attended art history classes with Hanna Levy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studied at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She returned to Brazil the following year. Her work is marked by a diverse poetic where she uses the exploration of new materials and supports. In the 1970s, she began to use photogravure, xerox, Super-8, video, and returned to painting.

Her most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Native Brazil/Alien Brazil*, Frans Hals Museum, Haarlem (2022) and S.M.A.K, Ghent (2021); *Brasil nativo/Brasil alienígena*, MASP, São Paulo (2019); *Maps under the sky of Rio de Janeiro*, Zachęta National Gallery of Art, Warsaw (2018); *Anna Bella Geiger: Here is the Center*, Wallach Art Galler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018); and *Geografía Física y Humana*, MUNTREF, Buenos Aires (2018) and La Casa Encendida, Madrid (2017). Additionally, her work has been included in institutional group exhibitions such as *Radical Women, Latin American Art*, The Brooklyn Museum, New York (2018); *América Latina 1960-2013*,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Paris (2013); *Vidéo Vintage*, Centre Pompidou, Paris (2012); *Modern Women Single Channel 5 Artists*, MoMA PS1, New York (2011); among others. She considers experimentation as the only way for the artist to act.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 1*, 1976
Video (black and white, sound).
3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 Seoul Museum of Art 1F S11
→ p.38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 2*, 1976
Video (black and white, sound).
4 min 16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 Seoul Museum of Art 1F S12
→ p.38

Anna Bella Geiger, *Mapas elementares no. 3*, 1976
Video (black and white, sound). 3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Mendes Wood DM, São Paulo
→ Seoul Museum of Art 1F S13
→ p.38

Anna Maria Maiolino | b. 1942

Anna Maria Maiolino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tists working in Brazil today. Born in 1942 in Italy, Maiolino's practice expresses a concern with creative and destructive processes. Working acros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and mediums—spanning drawing, printmaking, poetry, film,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sculpture—Maiolino relentlessly explores notions of subjectivity and self. In 2005, the Pinacoteca do Estado de São Paulo held the artist's first retrospective exhibition in Brazil, and in recent years she has had several major retrospectives, including at Instituto Tomie Ohtake, São Paulo (2022); MALBA, Buenos Aires (2022); SCAD Museum of Art, Savannah (2020); and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19). In 2022, the artist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by the University of London. Maiolino's work integrates several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Rome; Pinacoteca do Estado de São Paulo;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Madrid; and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nna Maria Maiolino, *Série Indícios [Indexes series]*, 2000/2003
Drawing (Black thread sewn to paper between plexiglass). 34 × 24 cm each (11 pieces)
Collection and courtesy of Andréa and José Olympio Pereira
→ Seoul Museum of Art 2F S31
→ p.80

Archana Hande | b. 1970

Archana Hande reflects on the nuances of growing up in the shadow of colonialism in India and the reproduction of power through industrialisation. Her solo shows include *I am a Landscape Painter* (2015);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9, 2010); www.arrangeurownmarriage.com (2008-2012); and *Relics of Grey* (2007), among others. She recently participated in Sharjah Biennial 15 (2023) and Kochi-Muziris Biennale (2022-23). She co-curated *Project Cinema City* (2012) and curated the Students Biennale (2020-2021). She has been awarded the Charles Wallace India Trust Arts Awards and participated in the Glasgow School of Arts Residency (2000-2001); Research Residency, Pro Helvetia, Switzerland (2010); reciprocal exchange program *Spaced 2: future recall with Spaced* in IAS, Perth, and Asialink, Melbourne (2013-2014),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project she held an exhibition at the Western Australian Museum (2015).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Lithograph and block print on Nepali paper and elephant dung fiber paper.
35 × 627 cm
Block Cutters: Deenbandhu Adak, Sitaram Adak, Asit Chakraborty.
Block Printer: Tarak Das. Produced at Kanishka's Kolkata Workshop
Courtesy of the artist, Experimenter, Kolkata, and Chemould Prescott Road, India
→ Seoul Museum of Art 3F S34-1
→ p.88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Painted block prints. 76 × 104 cm each (14 pieces)
Block Cutters: Deenbandhu Adak, Sitaram Adak, Asit Chakraborty.
Block Printer: Tarak Das. Produced at Kanishka's Kolkata Workshop
Courtesy of the artist, Experimenter, Kolkata, and Chemould Prescott Road, India
→ Seoul Museum of Art 3F S34-2
→ p.88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Single channel video. 10 min (loop)
Film Editor: Abeer Gupta & Archana Hande. Sound Design: Boby John. Animator: Sarat Nayak. Video editing facilities: Majlis, Bombay
Courtesy of the artist, Experimenter, Kolkata, and Chemould Prescott Road, India
→ Seoul Museum of Art 3F S34-3
→ p.88

Archana Hande, *All is Fair in Magic White*, 2008-2009
Block prints. 30 × 30 cm each (19 pieces)
Block Cutters: Deenbandhu Adak, Sitaram Adak, Asit Chakraborty.
Block Printer: Tarak Das. Produced at Kanishka's Kolkata Workshop
Courtesy of the artist, Experimenter, Kolkata, and Chemould Prescott Road, India
→ Seoul Museum of Art 3F S34-4
→ p.88

Bo Wang | b. 1982

Bo Wang is an artist, filmmaker, and researcher based in Amsterdam.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ternationally, including venues like Guggenheim Museum and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17); Garage Museum, Moscow (2017);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20); Image Forum Festival, Tokyo (2018, 2022); CPH:DOX, Copenhagen (2013, 2023); Times Museum, Guangzhou (2010, 2019); and Para Site, Hong Kong (2020); among others. He received a fellowship from the Robert Flaherty Film Seminar in 2013, and was an artist-in-residency at ACC-Rijksakademie from 2017 to 2018 as well as at NTU CCA in 2016. His film *An Asian Ghost Story* (2023) won the New:Vision award at CPH:DOX 2023.

Bo Wang, *The Revolution Will Not Be Air-conditioned*, 2022
2 channel video. 27 min
Commissioned by Junni Chen for Lustrous Like Plastic, Hessel Museum of Art, CCS Bard College, New York.
Courtesy of the artist
→ Sogong Space U2
→ p.162

Bo Wang, *Fountain of Interiors*, 2022-2023
Rebars, LED lights, plastic plants, mirror, wall paper, sound.
400 × 450 cm
On-site Reproduction: Design Born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33
→ p.86

Channa Horwitz | 1932-2013

Over her five-decade career, Channa Horwitz was recognized for the logically derived compositions created in visually complex, systematic works.

Most recently Horwitz was exhibited in solo exhibitions at the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Castilla y León, León (2019), and the Contemporary Art Gallery, Vancouver (2018). Her work was included in *Thinking Machines: Art and Design in the Computer Age, 1959-1989*, at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18), and in 2016,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organized a solo presentation of acquired works, as part of the museum's ongoing series titled "Inbox". Prior to this, Horwitz's work was the subject of solo exhibitions at Raven Row, London, UK (2016); Kunst-Werke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Berlin, Germany (2015); Brandenburgischer Kunstverein, Potsdam, Germany (2009); among others. Her work has been included in group exhibitions at major institutions.

Channa Horwitz, *Orange Grid*, 2013-2023
Wall and floor installation, vinyl and black wooden polygons.
373.3 × 1831 × 549.3 c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llection and Courtesy of Lisson Gallery, London, New York, LA, Shanghai, and Beijing
→ Seoul Museum of Art 2F S23
→ p.62

Chan Sook Choi | b. 1977

In the work of Chan Sook Choi, experiments with narratology that relate to physical and spiritual migration are represented in multidisciplinary forms including exhibitions, lectures, performances, and publications. Choi confronts and assembles the different fragments that arise through migration, creating new locality and fluid topographies rather than fixed realities.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t Sonje Center, Seoul (2017); and the Taipei Digital Art Center (2010). Her work has been presented at events including a National Theater of Korea national brand performance in Seoul and the festival Ars Electronica, and in settings such as the Kunstmuseum Wolfsburg. She has also earned selection to the Seoul Museum of Art's emerging artist support program (2017), and a visual art support prize from Germany's Stiftung Kunstfond (2021). In 2021, she received the Korea Artist Prize, awarded by the MMCA and the SBS Culture Foundation.

Chan Sook Choi, *THE TUMBLE*, 2023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4K, color, sound),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ull HD, color, sound), Archives. 12 min (2 channel video, loop); 9 min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pre-production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50
→ p.120

Christine Howard Sandoval | b. 1975

Christine Howard Sandoval was born in the unceded territories of the Squamish, Tsleil-Waututh, and Musqueam First Nations and is an enrolled member of the Chalon Nation in Bakersfield, CA. She is Assistant Professor of Interdisciplinary Praxis in

the Audain Faculty of Art at Emily Carr University, Vancouver, BC. Howard Sandoval's work has been exhibit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at Museu de Arte Contemporânea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2022); Contemporary Art Gallery, Vancouver (2021); Oregon Contemporary, Portland (2021); Museum of Capitalism, Oakland (2017); and El Museo del Barrio, New York (2013); among others. Howard Sandoval's work has been the subject of solo museum exhibitions at the ICA San Diego entitled *Coming Home* (2021) and *Channel* at the Colorado Springs Fine Arts Center at Colorado College (2019), during which time she was the Mellon Artist in Residence at Colorado College. Howard Sandoval's work is part of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Hammer Museum, Los Angeles and MCASD, San Diego.

Christine Howard Sandoval, *Surface of Emergence (diptych)*, 2023
Adobe mud and graphite on paper.
152.4 × 487.68 cm
(152.4 × 243.84 cm each)
On-site Assistant: Gyuri Ki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2F S30
→ p.78

Elena Damiani | b. 1979

Born 1979. Elena Damiani lives and works in Lima, Perú. Her work considers the conceptual significance of archives and the persistence of memory in a society fearful of forgetting. This has influenced her practice and research where she transforms found material into collages, sculptures, video, and installations. Damiani has participated in multiple international biennals, including the Bienal de Cuenca (2018, 2016); Gwangju Biennale (2016); Venice Biennale, Vienna Biennale and IV Poly/Graphic Triennial (2015); Bienal de la Imagen y Movimiento, Buenos Aires (2014); Bienal do Mercosul (2013). Solo exhibitions include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Lima (2022); Chrysler Museum of Art, Norfolk, VA (2017); Museo Amparo, Puebla (2016); MUAC Museo Universitario Arte Contemporáneo, Mexico City (2015). She was awarded the Grants & Commissions Program, CIFO Art Foundation (2016) and the commission for the David Rockefeller Atrium, Americas Society, New York (2014).

Elena Damiani, *The Erratic Marbles V*, 2022
Inkjet print on cotton paper and alpha-cellulose paper.
44.2 × 35.2 × 3.5 cm each (18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2F S27
→ p.72

Elena Damiani, *Brighter than the Moon*, 2016
Single channel video projection with sound. 8 min 16 sec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2F S22
→ p.60

Femke Herregraven | b. 1982

Femke Herregraven investigates which material base, geographies, and value systems are carved out by financial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s. Her work focuses on the effects of abstract value systems on historiography and individual lives. This research is the basis for the conception of new characters, stories, objects, sculptures, sound, and mixed-media installations. Her current work focuses on the financialization of the future as a "catastrophe" and uses language, the voice, and the respiratory system to examine these monetized speculative catastrophes within our social, biological, and technological ecosystems.

She is an alumnus of the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in Amsterdam (2017–2018). In 2016, she collaborated with Dutch investigative journalists on the Panama Papers. In 2019, she was nominated for the Prix de Rome. She is part of On-Trade-Off: a transnational artist-led project on the new energy mythology around lithium. She is a Creator Doctus (practice-based PhD) candidate at Sandberg Instituut (2020–2024).

Selected solo exhibitions include: *Corrupted Air*, KCUA, Kyoto (2023) and Future Gallery, Berlin (2019); and *A Reversal is What is Expected*, Westfälischer Kunstverein, Münster (2018). Group exhibitions include 7th Lubumbashi Biennale (2022), 14 Bienal de La Habana (2022), 13th Gwangju Biennale (2021), 12th Taipei Biennale (2020), and 6th Guangzhou Triennial (2018).

Femke Herregraven, *I See What You Don't See*, 2019
Single channel video, 2 panels with prints. 49 min 16 sec (video);
118 × 162 cm each (panels)
Courtesy of the artist
→ SeMA Bunker B1
→ p.148

Femke Herregraven, *A Prelude to: When The Dust Unsettles*, 2022-2023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15 min 15 sec
On-site Production: Jo Jea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Courtesy of the artist
→ SeMA Bunker B2
→ p.150

Francois Knoetze | b. 1989

Francois Knoetze is a South African interdisciplinary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mes of waste, consumption, and material culture. Knoetze received his Bachelor of Fine Arts degree from Rhodes University in 2012 and his master of Fine Arts degree from Michaelis School of Fine Art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in 2015. Knoetze's work has been exhibited in numerous exhibitions and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Dakar Biennale, Het Nieuwe Instituut (Rotterdam), Centre Pompidou Paris;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and the Lubumbashi Biennale. He has also been the recipient of several awards and residencies, including the Digital Earth Fellowship and the Mozilla Creative Media Award.

Francois Knoetze, *Core Dump*, 2018-2019
4 channel video and e-waste installation. 46 min (video, loop);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amera: Anton Scholtz, Cléophée Moses. Featuring: Bamba Diagne, Darly Mbudi, Chen Qiheng, and Amita Ye Feng. Sound Design: Caydon van Eck
A video series supported by the Digital Earth Fellowship, Hivos, SIDA, The British Council, and the TURN fund of 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Produced in cooperation with Kër Thiossane (Dakar); Wits Art Museum (Johannesburg); and ZKM
Installati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8
→ p.116

Fyerool Darma | b. 1987

Fyerool Darma lives and works in Singapore. He draws on an extensive visual vocabulary from popular culture, archival material, literary references, the Internet, and the artist's lived experiences. Engaging actively with object and material experimentations, Fyerool often incorporates elements of textile, photography, sculpture, and digital media in his installations. Recent solo presentations include *L4ND$C4P€$ 4R3 L4NDF33LZ & 4N ♥C34N FVLL ♥F D4+4 WASTESS$ZZ*, at the inaugural Frieze Seoul, presented with Yeo Workshop (2022). Recent group presentations include the permanent exhibition *Radio Malaya: Abridged Conversations About A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Museum (2023) and *Living Pictures: Photography in Southeast Asia*, National Gallery Singapore (2022-23). He conducted *After Ballads* between 2017-2018 as part of the NUS Museum's *prep-room* project and later between October 2019 to April 2020 was an Artist-in-Residence at NTU - Centre of Contemporary Art Singapore where he presented *Vivarium (wii fl∞w w/ l4if but t4k£ ø forms, ♥* at the Centre's Vitrine.

Fyerool Darma, *〈I♥ndsc_₱€$s (poienxcinoti) featuring rawanx-berdenyut, Aleezon, Lee Khee San, Lé Luhur from NUS Museum's South and Southeast Asia Collection and Autaspace, CC1, Dahlia, Alawiyah and 风)*, 2023
Polymethyl metacrylate (Plexiglas Tiger), epoxy resin (Samurai 2K) on synthetic polymer paint (Golden), chameleon carbon fibre polyvinyl chloride and polyacrylate adhesive (Vvivid XPO) on anodized aluminum alloy, honeycomb retroreflective tape (GripOn), non metalized reflective tape (Steve & Leif) on polyvinyl chloride on wood on polymethl metacrylate, varied textiles salvaged and woven with polyester thread, xylene on polyvinyl chloride,
413 × 1730 cm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51
→ p.122

Guido Yannitto | b. 1981

Guido Yannitto lives and works in Salta, Argentina. His major interest is exploring popular cultures. He works with tapestries and other techniques, exploring what they have to offer, and thinking about the sculptural aspects of this planimetric technique. He is also interested in what he sees as major characteristics within this representational system, aspects of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Ideas of identity, oral transmission, translation, genealogy, subjectivity, and collective work are conceptual axes for his exchanges with weavers. Together with curator Andrei Fernández, he collaborates with the collective Thañí/Viene del monte, accompanying the process of a group of wichí weavers, indigenous women from Salta, in the north of Argentina.

In 2016 he completed the Escuela Flora program at Flora Arts and Nature, a twelve months residency program in the city of Bogota, Colombia, and in 2017 he was selected for the Jan Van Eyck Academie residency and scholarship in Maastricht, The Netherlands.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residencies in Mexico, Brazil, and Italy. His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 of University of Maastricht; Banco Itau, Buenos Aires; Museo Castagnino+Macro, Rosario; Museo Caraffa, Córdoba; and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Salta, Argentina.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heep's wool tapestry. 200 × 126 cm
Weaver: Eduardo Casimiro (Community of La Sala, Luracatao Valley, Salta, Argentin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6
→ p.30

Guido Yannitto, Untitled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2
Sheep's wool tapestry. 255 × 245 cm
Weaver: Fernando Rueda (Salta Capital, Argentina)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7
→ p.30

Guido Yannitto, Yuchán (from the series *Water Grammar*), 2023
Sheep's wool tapestry. 250 × 180 cm
Weaver: Fernando Rueda (Salta Capital, Argentina)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8
→ p.30

Hyunsun Jeon | b. 1989

Hyunsun Jeon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he approaches her practice as an exploration of the exceptional elements present in each situation, gathering the small and tangible details, envisioning the holistic perspective they collectively compose, rather than prioritizing a solely overarching view. Her recent solo shows include *Meet Me in the Middle*, Gallery2, Seoul (2022); *From Fig to Cone*, Gallery2, Seoul (2020); *Red Green Corners*, P21, Seoul (2019); and *Parallel Paths*,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2018).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shows

such as *Denotation and Profundit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3); *ARTSPECTRUM2022*, Leeum Museum of Art, Seoul (2022); *Another Asian Artist*, The Shophouse, Hong Kong (2022); and *The Adventures of Korean Painting: I Will Go Away All by Myself*, MMCA Cheongju (2019). In 2020 she received the SongEun Art Award Excellence Prize.

Hyunsun Jeon, *Cross My Borderline*, 2023
Watercolor on canvas, wooden frame, aluminum stands. 337 × 728 cm (112 × 145.5 cm each)
Stand production: WAM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5
→ p.42

Hyunsun Jeon, *Into the Unnamed Mountain*, 2023
Mural. 267 × 1130 cm (wall); 267 × 670 cm (glass wall)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pace mm U1
→ p.160

ikkibawiKrrr | f. 2021

ikkibawikrrr is a visual research band composed of Ko Gyeol, Kim Jungwon, and Cho Jieun. The band's primary focus lies in exploring the connections between plants, natural phenomena, humanity, and ecology. They conduct research in tropical regions and delve into the study of seaweeds, while actively engaging in collaborative activities with farmers. For the band, the concept of movement, which extends the boundaries one occupies and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very essence of their survival, holds profound significance. ikkibawiKrrr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14th Gwangju Biennale, Gwangju (2023); documenta 15 *Lumbung*, Kassel (2022); *Michikusa: Walks with the Unknown*, Contemporary Art Gallery, Art Tower Mito, Mito City (2020); *Korea Artist Prize* exhibition, MMCA, Seoul (2016); *Cosmopolis #1: Collective Intelligence*, Centre Pompidou, Paris (2017); Sharjah Biennale 12: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 Sharjah (2015); *nnncl&mix-rice*, Atelier Hermès, Seoul (2013); 7th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Gallery of Modern Art, South Brisbane (2012), among others.

ikkibawiKrrr, *Earth Monument*, 2023
Soil. Dimensions variable
"Ground" Sound: Taehyun Choi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Courtyard S1
→ p.20

Jaye Rhee | b. 1973

Jaye Rhee revels in the space between the ironic and the poignant with work that simultaneously incorporates video, photography, and performance. Rhee's work has been exhibited at venues, including High Museum of Art, Atlanta (2018); Norton Museum of Art, Florida (2021); MCA Denver, Colorado (2023); Buffalo AKG Art Museum, New York (2011); Queens Museum, New York (2009); Bronx Museum of the Arts, New York (2005); Mori Art Museum, Tokyo (2012); Kobe Biennale (2007); Leeum Museum of Art, Seoul; Seoul Museum of Art (2019, 2018); Center for Art & Architecture Affairs, Guimarães (2014); and La Triennale di Milano (2016). Her works are included in the public collections of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High Museum of Art, Norton Museum of Art, Buffalo AKG Art Museum, Seoul Museum of Art, Gyeonggi Museum of Art, Koo House Museum of Art & Design,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Leeum Museum of Art.

Jaye Rhe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Sound installation. 8 min
Original song: Arizona Cowboy in 1955 composed by Oh-Seung Jeon, lyrics by Bhu-Hae Kim.
Arranged by BOHEME.
Performers: BOHEME, Drobotenko Anastasiya, Estela Santana, Idertsog Dashnyam, JOO YOUNGGYU, Ye Won Kim, and Zhang Wei. Performance Producer: Jinyoung Shi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Courtyard S2
→ p.22

Jaye Rhee
Arizona Cowboy (as part of *Far West, So Close*), 2023
Performance. Approx. 8 min
Performers: BOHEME, Idertsog Dashnyam, Drobotenko Anastasiya, Estela Santana, Idertsog Dashnyam, JOO YOUNG GYU, Ye Won Kim and Zhang Wei. Performance Producer: Jinyoung Shin. Arranger: BOHEM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Jesse Chun | b. 1984

Jesse Chun's video poems, short films, drawings,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have been exhibited internationally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ronto (2020, 2021);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2020); Sculpture Center, New York (2020); Queens Museum, New York (2018); The Drawing Center, New York (2019); Brooklyn Academy of Music, New York (2018); the Vera List Center for Art and Politics, New York (2020); and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23); among others. Selected awards include the Joan Mitchell Foundation Painters & Sculptors Grant, US; Art by Translation, Paris; and the NEA fellowship at ISCP, New York. Selected public collections include the Museum of Modern Art Library, New York; the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Library, New York; and KADIST, France/US.

Jesse Chun, *사: sea*, 2022
Single channel projection on a free standing white painted MDF structure, 2 mirrors, rocks. 2 min 10 sec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1
→ p.128

Jesse Chun, *시: concrete poem*, 2023
Graphite, hand cut Hanji (Korean mulberry paper), wood frame. 158.75 × 91.44 × 6.35 cm each (3 pieces)
Special thanks: Lee Chang 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2
→ p.130

Jesse Chun, *O dust*, 2022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3 mirrors. 7 min 6 sec (video), with sound;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3
→ p.132

Jesse Chun, *And verse (혼잣말의 언어 그리고 cosmos) II*, 2022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4 UV printed acrylic panels, rocks, silence. 1 min 59 sec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4
→ p.134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천지문 and cosmos)*, 2023
Graphite, pigment, vellum paper, pins, roman alphabets, eraser, 2 artist frames. 38.1 x 27.94 cm each (2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ronto, Canada.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5
→ p.136

Jesse Chun, *솔래 SULLAE*, 2020
Single channel video. 6 min 25 sec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6
→ p.140

Jesse Chun, *Score for unlanguaging*, 2021-2023
Graphite, pigment, vellum paper, pins, roman alphabets, eraser.
33.02 × 26.67 cm each (8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7
→ p.136

Jesse Chun, *notes on new moons / oak / sun (new moons are often invisible to the naked eye; notes by my grandmother Lee Oak Sun—buddhist name Jeong Gak Haeng; other notes on history; my offerings—on speaking together)*, 2023
Handwritten diary, letter pages, photographs, acrylic panels, clips, rocks, and other materials on 5 music stands.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History Exhibition Hall B H8
→ p.142

Jumana Emil Abboud | b. 1971

Jumana Emil Abboud is a Palestinian artist based between Jerusalem and London and is currently pursuing a practice-led PhD at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Over the last two decades, she has presented her work at Seoul Museum of Art,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Temporary Gallery Cologne, BMW Tate Live, and at biennials in Lyon, Sharjah, Venice, Istanbul, and Sydney; with solo exhibitions at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Bildmuseum Umea, Khalil Sakakini Cultural Centre, Ramallah, Darat al Funun, Amman, and Locus Athens. More recently, she exhibited at Documenta 15, Kassel, and Jameel Arts Centre, Dubai. Her art practice is guided by memory, folk tale, endangered heritage, and land-water dispossessions. Abboud works in drawing, performance, and story-making workshops and collaborations, embracing folklore and re-spiriting sites of water through collective processes and story constellations.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2009-2017
10 drawings. 45 × 45 cm; 53 × 61cm; 36 × 51 cm each (4 pieces); 34.5 × 50 cm; 116 × 69.5 cm; 30 × 41.5 cm; 45 × 29.5 cm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 Seoul Museum of Art 1F S16-1
→ p.46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2009-2017
Single channel video and 3 drawings. 8 min (video, loop); 75 × 105 cm; 80 × 120 cm; 56 × 76 cm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 Seoul Museum of Art 1F S16-2
→ p.46

Jumana Emil Abboud, *Tales and their Fragments*, 2009-2017
5 olive wood sculptures. 46 × 30 × 20 cm; 16 × 17 × 6 cm each (2 pieces); 18 × 10 × 6 cm each (2 pieces); 24 × 10 × 5 cm; 26 × 16 × 6 cm
Collection of Seoul Museum of Art. Courtesy of the artist and SeMA
→ Seoul Museum of Art 1F S16-3
→ p.46

Kent Chan | b. 1984

Kent Chan is an artist, curator, and filmmaker based in the Netherlands and Singapore. His practice revolves around our encounters with art, fiction, and cinema that form a triumvirate of practices porous in form, content, and context. He holds particular interest in the tropical imaginary, the past and future relationships between heat and art, and contestations to the legacies of modernity as the epistemology par excellence. The works and practices of others often form the locus of his works, which have taken the form of film, text, conversations, and exhibitions.

He was a resident at Medialab Matadero and a former resident at Gasworks (2022); Jan van Eyck Academie (2019-2020); NTU Centre for Contemporary Art Singapore (2017-2018); and Rupert's Residency Program (2015). He has held solo and two-person presentations at Kunstinstituut Melly, Rotterdam; Bonnefanten Museum, Rotterdam; National University Singapore Museum; de Appel, Amsterdam; and SCCA-Ljubljana, Centre for Contemporary Arts, Slovenia. His works and films have been exhibited in venues and festivals includ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Times Museum, Guangzhou; EYE Film Museum, Amsterdam; Stedelijk Museum Bureau Amsterdam; Onassis Stegi, Athens; BIENALSUR, Buenos Aires;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Busan Biennale; and Drodesera Festival of Performing Arts. He is the 2021 winner of the Foundwork Artist Prize and his works are collected by the Kadist Foundation, France/US; the Rijkscollectie, Netherlands; and Bonnefanten Museum, Netherlands.

Kent Chan, *Warm Fronts*, 2021
4 channel video, 4 mirrored plexiglass with silkscreen print, 4 mirrored plexiglass. 61 min 14 sec (video); 59.4 × 84.1 cm each (plexiglas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6
→ p.112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 c. 2019

The Lo-Def Film Factory is a participatory community art-making initiative created b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Based in South Africa, their work involves archival research, dramaturgy, and visual strategies associated with video art, collage, sculptural installation, virtual reality, and emerging media. Employing an experimental praxis which emphasizes co-creation and mistake-making, it aims to create space for video and new media storytelling. The initiative places value on the transmission of ideas and experience over high production value.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The Subterranean Imprint Archive, 2021-2023
VR Video Installation, wall painting. 15 min (VR video); Dimensions variable (wall painting)
Wall painting collaboration: Joe-Yves Salankang Sa-Ngol, Kaelo Molefe
Commissioned by Oulimata Gueye for Le Lieu Uniqu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MA Bunker B3
→ p.152

Mercedes Azpilicueta | b. 1981

Mercedes Azpilicueta studied in Buenos Aires, Arnhem, and Amsterdam. Since 2021 she has been head of TXT (Textile) Department of the Gerrit Rietveld Academie in Amsterdam. Azpilicueta has been nominated for the prestigious Prix de Rome (2021) and the Frieze Art Award (2018). She was awarded the VIII Marta García-Fajardo International Art Prize (2021) and the ARCO Prize for Young Artists (2019), among others. Her works have been shown internationally in solo exhibitions, including at Philara Collection, Dusseldorf (2022); Kunstmuseum Liechtenstein, Vaduz (2022);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21); CAC Brétigny, Brétigny-sur-Orge (2021); Gasworks, London (2021);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Bolzano (2020); Van Abbemuseum, Eindhoven (2019); CentroCentro, Madrid (2019); and Museo de Arte Moderno de Buenos Aires (2018).

Mercedes Azpilicueta, *Five Spells & A Song*, 2023
Performance. 30 mins
Performance in collaboration with Lee Seung-hee. Research and Assistance: Antonia Fratini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Mercedes Azpilicueta, *The Lieutenant-Nun Is Passing: An Autobiography of Katalina, Antonio, Alonso and More*, 2021
Jacquard Tapestry (merino wool, cotton, lurex). 160 × 400 cm
Tapestry Production: Textiel Lab, Tilburg. Wooden Plinth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Commissioned by Gasworks, London,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38
→ p.98

Mercedes Azpilicueta, *Five Spells & A Song I*, *Five Spells & A Song II*, *Five Spells & A Song III*, *Five Spells & A Song IV*, *Five Spells & A Song V*, 2023
Quilt & Patchwork made from recycled and special materials: Argentinean produced apparel from the Korean community in Buenos Aires, upcycled garments from the artist and from Amsterdam, scraps of fabrics from the artist's studio (cotton, velvet, lurex a.o.), layer of batting (100% bamboo) and cotton. 350 × 240 cm; 340 × 220 cm; 350 × 210 cm; 330 × 210 cm; 340 × 210 cm
Made in collaboration with Mika Perlmutter, Hsin-Yu Huang, and Darsha Golova. Research and assistance: Antonia Fratini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39
→ p.100

Mercedes Azpilicueta, *Una canción coreana [A Korean song]*, 2023
Soundscape. Approx. 7 min
Soundscape in collaboration with Toni Brell. Research and assistance: Antonia Fratini
Commission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0
→ p.100

Miko Revereza | b. 1988

Miko Revereza is a filmmaker living in Oaxaca. His upbringing as an undocumented immigrant and current exile from the United States informs a relationship towards moving images. Revereza's titles include *Nowhere Near* (2021); *El Lado Quieto* (2021); *Distancing* (2019); *No Data Plan* (2018); *Disintegration 93-96* (2017); and *DROGA!* (2014). Revereza is recipient of the 2021 Vilcek Prize in Filmmaking, 2019 Flaherty Seminar featured filmmaker, and is listed as Filmmaker Magazine's 2018 25 New Faces of Independent Cinema.

Miko Revereza, *FOLDS*, 2023
Single channel video, HD. 26 min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4
→ p.108

Miko Revereza, *Disintegration 93-96*, 2017
Single channel video, HD.
5 min 25 sec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5
→ p.110

Natasha Tontey | b. 1989

Natasha Tontey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based between Jakarta and Yogyakarta, Indonesia. Her artistic practice predominantly explores the fictional accounts of the history and myths surrounding "manufactured fear." She observes any possibilities of other futures that are projected from the struggles of outcasted entities and beings.

Her recent solo shows include *Garden Amidst the Flame*, Auto Italia, London (2022) and *Pest to Power*, K4 Galleri, Københavngata, Oslo (2020). Selected group shows include Singapore Biennale (2022); De Stroom Den Haag (2022); *GHOST;2565*, Bangkok, Thailand (2022); *Protozone8 Queer Trust*, Zürich, Switzerland (2022); Arko Art Council, Seoul, Korea (2022),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2021); transmediale, Berlin (2021); Performance Space 2021, Sydney; Other Futures, Amsterdam (2021);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1). In 2020, she received the HASH Award from the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and Akademie Schloss-Solitude. She is a fellow for Human Machine of the Junge Akademie at Akademie der Künste Berlin 2021-2023.

Natasha Tontey, *Children of the Stones Number Two*, 2023
Single channel video, sound. 4 min
Supporting team: DDDBandidos Animation Studio. Editor: Arief Budiman. Music Director: WAHONO/Divisi 62. Sound Mastering: Studio Oposisi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ransmediale, and Other Futures.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lo Media Canvas M2
→ p.168

Nolan Oswald Dennis | b. 1988

Nolan Oswald Dennis is a para-disciplinary artist. Their practice explores "a black consciousness of space" —the material and metaphysical conditions of decolonisation—questioning histories of space and time through system-specific, rather than site-specific interventions.

Their work has been featured in exhibitions at the Liverpool Biennial (2023); FRONT triennial, Cleveland (2022); CAN, Neuchatel (2022); Palais de Tokyo, Paris (2021); Goodman Gallery, Johannesburg, Cape Town, London (2021, 2019 etc.); the Young Congo Biennale, Kinshasa (2019); MACBA, Barcelona (2018); among others. They are a founding member of the artist group NTU, a research associate at the VIAD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Johannesburg, and a member of the Index Literacy Program.

Nolan Oswald Dennis, *Atopia Field*, 2021
Floor diagram. 500 × 750 cm
Carpet Production: Yann Carpet Seoul
Commissioned by Palais De Tokyo,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4
→ p.40

Nolan Oswald Dennis, *Isivivane*, 2023
3D printers, 3D printed rocks (from geology museums in South Africa).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INSITE, and Javett Art Centre-UP.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2F S29
→ p.76

Raya Martin | b. 1984

Raya Martin has directed several features and short films—fictions, documentaries,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His breakthrough feature *Independencia* (supported by the Berlinale World Cinema Fund) premiered at the Un Certain Regard Competition, he also co-directed the urban noir *Manila*, which screened Out of Competition in the same year. Martin's most recent films include the crime drama *Smaller and Smaller Circles*, based on the best-selling Filipino crime novel by F.H. Batacan.

His works have also been exhibited i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17); documenta 13, Kassel (2012); the Museum of Moving Image (2012); Korean Film Archive (2012); and the Asian Film Archive Centre Pompidou, Paris (2009).

He was a resident of the Cannes Cinéfondation and the Berlinale Residency programs. Raya Martin is a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Thirteen Artists Awards in the Philippines.

Raya Martin, *Ars Colonia*, 2011
Single channel video (Analog video & hand-painted 35mm). 1 min 12 sec
Commissioned by the Hubert Bals Fund of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lo Media Canvas M3
→ p.170

Sanou Oumar | b. 1986

Sanou Oumar lives in the Bronx and works in Harlem, New York. In 2015, Oumar moved to the United States to seek asylum. Oumar's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 of The Studio Museum in Harlem, New York; the RISD Museum, Providence, Rhode Island; and the Minneapolis Institute of Art, Minnesota.

Sanou Oumar, *6/15/20*, 2021
Wall covering.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Maharam Digital Projects
→ Seoul Museum of Art 2F S21
→ p.58

Sanou Oumar, *11/7/21, 11/20/21, 12/3/21, 12/14/21, 12/15/21, 12/21/21, 12/22/21, 12/25/21, 1/3/22, 3/3/22, 5/28/21, 6/30/21, 03/01/2022*, 2021-2022
Pen and marker on paper and paper board. 60.96 × 48.26 cm each (10 pieces); 101.60 × 81.28 cm each (2 pieces); 81.28 × 101.60 cm (1 piec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Gordon Robichaux, New York, and Herald St. London
→ Seoul Museum of Art 2F S28
→ p.74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 b. 1989 / b. 1985

Sasha Litvintseva and Beny Wagner are artists, filmmakers, and writers. They've been working collaboratively in moving image, installation, text, and lectures since 2018. Focusing on moving image as a tool for the active production of new worlds, their practice has been driven by questions about the thresholds between the body and its surroundings, knowledge regimes and power, modes of organizing and perceiving the natural world. Their collaborative work has been presented globally, including at the Berlinale; Rotterdam; CPH:DOX; Courtisane Film Festival; CAC Vilnius; Los Angeles Filmforum; Museum of the Moving Image, New York; transmediale; Sonic Acts; Berlin Atonal and Impakt Festivals; Wroclaw Media Art Biennale; and the Baltic Triennial.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Constant*, 2022
Video installation. 40 min
Produced by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and Guillaume Cailleau. Installation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Isabel Ogden and Matteo Mastrandrea (OBSCENE)
Supported by Medienboard Berlin Brandenburg and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20
→ p.54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 b. 1989 / b. 1991

Sasha Litvintseva is an artist, filmmaker, and writer, whose work is situated on the uncertain thresholds of the perceptible and the communicable, organism and environment, and knowledge regimes and power, at the intersection of media, ecology, and the history of science. Her work has been exhibited and screened worldwide including at the Berlinale (2020, 2017); Rotterdam (2022, 2017); CPH:DOX (2022); Courtisane (2022, 2017); Cinema Du Reel (2018, 2016); Punto de Vista film festivals (2021); the Baltic Triennial (2021);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20); Museum of the Moving Image New York (2020); ICA London (2018); LA Filmforum (2021); Berlinische Galerie (2018);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2019); transmediale (2022); Videobrasil (2017); Berlin Atonal (2019, 2018); and Criterion Channel, among many others. Her films have won numerous awards internationally, including the Sylvestre Award for Best Short Film at IndieLisboa (2022) and Best Short Documentary at Guanajuato Film Festival (2022).

Graeme Arnfield is an artist, filmmaker, and composer living in London, UK. Producing sensory essay films from networked imagery his films use methods of investigative storytelling to explore issues of technology, ecology, and history. Research topics have included: the politics of digital networks, the distribution of ecological matter such as peat and asbestos, and the adaptive circulation of global and local histories. His work has been presented worldwide including Berlinale (2020);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17); Courtisane Festival (2021, 2020); Open City Documentary Festival (2021); Berwick Film & Media Arts Festival (2023, 2016); Sonic Arts Festival (2017); European Media Arts Festival (2020, 2019); transmediale (2023, 2019); IMPAKT Festival (2018); Kasseler Dokfest (2021, 2018); Plastik Festival (2017); International Kurzfilmtage Winterthur (2016); LUX (2018);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2017, 2016); Berlinische Gallerie (2018); Signal Gallery (2016); Whitechapel Gallery (2018); and on e-flux (2020) and Vdrome (2015). His work is distributed by LUX, Arsenal, and Square Eyes.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Asbestos*, 2016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 min (video);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Courtesy of the artist
→ SeMA Bunker B4
→ p.154

Shen Xin | b. 1990

Shen Xin is an artist who practices empowering alternative histories, relations, and potentials between individuals and nation-states. Their interests lie in understanding culture on its own terms. Seeing it as an active commitment to the learning,

teaching, and engaging with places as land through moving image, video installation, public events, and collective processes. Shen Xin imagines and creates affirmative spaces of belonging that embrace polyphonic narratives and identities. Their selected solo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screenings include ས་གཞི་སྟོན་པ་འགྲུལ། (The Earth Turned Green), Swiss Institute, New York (2022); *Brine Lake (A New Body)*,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 (2021); *Double Feature*, Schirn Kunsthalle Frankfurt (2019), *Synthetic Types*,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19); *To Satiate*, MadeIn Gallery, Shanghai (2019); *Warm Spell*, ICA, London (2018); *Sliced Units*, Centre for Chinese Contemporary Art, Manchester (2018); *half-sung, half-spoken*, Serpentine Galleries, London (2017); and *At Home*, Surplus Space, Wuhan (2016).

Shen Xin, ས་གཞི་སྟོན་པ་འགྲུལ། *(The Earth Turned Green)*, 2022
3 channel video, sound. 38 min 39 sec
Tibetan Translator: སྐྱིད་དར་འཛོམས། [Skyi Trazomsa]. Voices: སྐྱིད་དར་འཛོམས། [Skyi Trazomsa], Shen Xin. Theatre Light Technician: Kyle Gavell. Colorist: Jason R. Moffat. Sound Mix: Jochen Jezussek. Korean Translator: Won Moon
Supported by Swiss Institute in New York, the Next Step Fund by the McKnight Foundation, the Sister Dennis Frandrup Artists in Residence Program in Minnesota, Times Museum in Guangdong, and MadeIn Gallery in Shanghai.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2F S26
→ p.68

Soyoung Chung | b. 1979

Soyoung Chung lives and works in Seoul. Her work pushes the boundaries of sculpture through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mediums, including installation, sculpture, video, and public art interventions. Rooted in a geological perspective, she explores the layers of temporality that encompass the various dimensions of time present in places and materials. Her works trace complex interplays and boundaries between histories, time, and spaces, connecting them to the concept of societal uncertainty. Chung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several institutions and galleries including ONE AND J. Gallery, Seoul (2021); Art Sonje Center, Seoul (2016); D Project Space, Seoul (2013); and OCI Museum, Seoul (2011). S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 institutions such as the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2020); Nottingham New Art Exchange, Nottingham (2017); SongEun Art Space, Seoul (2016); Amore Pacific Museum, Seoul (2016); Seoul Museum of Art (2015); and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2). She participated in residency programs including MMCA Changdong (2021), Delfina Foundation Residency Program (2017), Berlin ZK/U (2017), and SeMA Nanji Residency (2012). In 2016, she was awarded the SongEun Art Award Excellence Prize.

Soyoung Chung, *Drawing an Island*, 2020
Single channel video on plinth. 5 min 33 sec (video, loop); 50 × 122 × 79 cm (wooden box)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9
→ p.34

Soyoung Chung, *29.5 Days*, 2021
Glass, mud from the west coast, epoxy, aluminum.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0
→ p.36

Steffani Jemison | b. 1981

Steffani Jemison lives and works in New York. Solo exhibitions, screenings, and performances include Greene Naftali, New York (forthcoming 2024, 2021); JOAN, Los Angeles (2022); Annet Gelink Gallery, Amsterdam (2022, 2020); Galeria Madragoa, Lisbon (2021); Contemporary Art Center, Cincinnati (2021); Kai Matsumiya, New York (2019);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19); Lincoln Center, New York (2018); Jeu de Paume, Paris (2017); CAPC Bordeaux (2017); MASS MoCA, North Adams, Massachusetts (2017); Nottingham Contemporary (2017); RISD Museum, Providence, Rhode Island (2015);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15). Notable group exhibitions include *Counterpublic*, St. Louis (2023); *A Movement in Every Direction: Legacies of the Great Migration*, organized by the Mississippi Museum of Art and Baltimore Museum of Art (2022–24); *Greater New York*, MoMA PS1, Long Island City, New York (2021); *Black Refractions: Highlights from The Studio Museum in Harlem*, organized by The Studio Museum in Harlem and The American Federation for Arts (2019–21); Whitney Biennial,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2019). Jemison is Associate Professor of Art & Design at Rutgers University; her first novel, *A Rock, A River, A Street*, was published by Primary Information in 2022.

Her work is in the collections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Baltimore Museum of Art; Brooklyn Museum, New York; Buffalo AKG Art Museum, New York;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Stedelijk Museum, Amsterdam; The Studio Museum in Harlem, New York; and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among others.

Steffani Jemison, *Untitled (Rough Projection)*, 2023
Silvered glass, acrylic paint, lacquer. 37.5 × 26.4 × 0.6 cm each (5 pieces)
Courtesy of the artist and Greene Naftali, New York
→ Seoul Museum of Art 2F S25
→ p.66

Teayoon Choi | b. 1982

Taeyoon Choi is an artist, writer, and computer programmer, who explores the intersections of poetry, technology, society, and human relations. He is the organizer behind Distributed Web of Care, an initiative that focuses on building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one that is

more sensitive to marginalized people and the environment. He's currently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ism and climate change, focusing on resource extraction, waste management and decolonial futures. He also co-founded the 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in 2013, a unique New York-based hybrid of a school, residency, and research group that focuses on exploring the intersections of coding and art. He currently teaches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Taeyoon has presented his projects at esteemed institutions and biennals such as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the Smithsonian Asian Pacific American Center, Washington, DC; and Shanghai Biennale.

Taeyoon Choi, *Return to Sender*, 2023
Acrylic on wall. Dimensions variable
On-site assistants: Lee Cheaun, Jeon Hyesoo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7
→ p.114

Tenzin Phuntsog | b. 1982

Tenzin Phuntsog is a Tibetan-American artist working with the mediums of film, installation, multi-media, photography, and performance. His works have appeared at The Rubin Museum, New York; Anthology Film Archives, New York; Tang Teaching Museum and Art Gallery, Sarasota Springs, New York; The Eye Film Museum, Amsterdam; Galeria Vermelho, São Paulo; Video Brazil, São Paulo; Rotterdam Film Festival (IFFR), Rotterdam; and at silent green for the Berlinale, Berlin. Awards include an Edith-Russ-Haus for Media Art Fellowship & Residency (2023), Marble House residency (2022), NARS Residency (2021), and a Flaherty Fellowship (2019).

Tenzin Phuntsog, *Pure Land*, 2022
Single channel 4K video (35mm film transfer to digital), sound.
15 min 17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Microscope Gallery, New York
→ Seoul Museum of Art 2F S32
→ p.82

Theresa Hak Kyung Cha | 1951-1982

From the mid-1970s until her death at age 31 in 1982, Korean-born artist Theresa Hak Kyung Cha created a rich body of conceptual art that explored displacement and loss. Her works included artist books, mail art, performance, audio, video, film, and installation. Although grounded in French psychoanalytic film theory, her art is also informed by far-ranging cultural and symbolic references, from shamanism to Confucianism and Catholicism.

Her work has been shown at the Berkeley Art Museum, Berkeley, CA; Artists Space,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and the Bronx Museum of Art, New York, among other venues. A major retrospective exhibition of her work, entitled *The Dream of the Audience: Theresa Hak Kyung Cha (1951-1982)* was organized b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in 2001, and traveled to five cities, including Seoul, Korea.

Theresa Hak Kyung Cha, *Mouth to Mouth*, 1975
Single channel video, black and white, sound. 8 min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Gift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Memorial Foundation. Copyright: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ourtesy of the Electronic Arts Intermix (EAI), New York
→ Seoul Museum of Art 2F S24
→ p.64

Torkwase Dyson | b. 1973

Torkwase Dyson describes herself as a painter working across multiple mediums to explore the continuity between ecology, infrastructure, and architecture. Dyson's abstract works are visual and material systems used to construct fusions of surface tension, movement, scale, real and finite space. With an emphasis on the ways black and brown bodies perceive and negotiate space as information, Dyson looks to spatial liberation strategies from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seeking to uncover new understandings of the potential for more livable geographies.

Dyson builds the paintings slowly, accumulating washes, building surface, and configuring minimal geometric elements that lend a productive tension between image and object. The paint-handling producing various visual qualities using brushwork and other tools is made poetic by a juxtaposition of delicate marks and scored diagrammatic lines. This compositional rigor imbues the works with an architectural presence and optical gravity.

In addition to participating in group exhibitions at the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African Art, Washington, D.C.;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nd California African American Museum, Los Angeles, Dyson has had solo exhibitions and installations at Colby College Museum of Art, Waterville, Maine; Graham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in the Fine Arts, Chicago; Schuylkill Center for Environmental Education, Philadelphia; and Suzanne Lemberg Usdan Gallery, Bennington College, Vermont.

Torkwase Dyso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Plywood, metal, acrylic. Dimensions variable
Architectural Assistant: Anoushae Eirabie. On-site Production: Jo Jaehong, Yeom Chulho, Jung Jinwook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3
→ p.24

Kwon Lyoneun,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 2023
Performance. 20 min
Concept and Choreography: Kwon Lyoneun. Research assistant: Kwon Yejin. Performer: Jun Bo Ram, Jung Ji Hye, Lee Hye Sang, Lee Jae Rin, and Song Myung Gyu. Sound design: Sert Jimmy. Photograph and video: GLIMWORKER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4
→ p.24

Torkwase Dyson, *Kujichagulia (Planning Freedom)*, 2023
Wood, graphite on paper, plexi, ink on paper, acrylic. Dimensions Variable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1F S19
→ p.24

Ximena Garrido-Lecca | b. 1980

Ximena Garrido-Lecca examines the turbulent history of Peru, and specifically how neocolonial standards are transmitted through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The artist approaches her works by scrutinizing urban, rural, and vernacular architecture, concentrating on spaces where a mediatory materiality is visible between the specific and the universal. Equally important is the memory of artisanal tradition and the abandonment of rural spaces as an aftereffect of the processes of modernization. Her work insinuates a permanent tension between the inheritance of vernacular culture and the new demands of industrialization, signaling the violence contained in an accelerated transnational economic model in increasingly open confrontation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overeignty, and respect for different community lifestyles.

Ximena Garrido-Lecca's next solo exhibition will be presented at CAN Centre d'art Neuchâtel in 2023. Her most recent exhibitions were held at Portikus, Frankfurt and the 5th Kochi-Muziris Biennale, India, and Galerie Gisela Capitain, all 2022. In 2021, the artist took part in group presentations at Museo Madre, Naples; Museo Jumex, Mexico City; Staatsgalerie Stuttgart; and the 34th Bienal de São Paulo. Further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e Kunstmuseum Bonn (2020); Proyecto AMIL, Lima (2019);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Lima (2019); Orange County Museum of Art, Santa Ana (2019); Sala de Arte Público Siqueiros, Mexico City (2017); Museo de Arte Latinoamericano de Buenos Aires (2017);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troit (2015); among others.

Ximena Garrido-Lecca, *Protomorphisms: AGC Rope Driver Module*, 2022
Steel structure, copper plates, steel plates, terracotta, rubber, alpaca wool, sheep wool, cotton.
223 × 310 × 6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Gisela Capitain, Cologne
→ Seoul Museum of Art 3F S49
→ p.118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Cengiz Mengüç) | f. 2021

Clara Balaguer is a cultural worker interested in the decolonisation of cultural production most especially through the lens of the contemporary vernacular. She founded The Office of Culture and Design in 2010, a platform through which she articulates research, residencies, and social practice projects in the Philippines. She explores collaborative authorship through the clandestine publishing of Hardworking Goodlooking, a cottage-industry fuelled imprint she co-founded in 2013. She has lectured at Walker Art Center, Harvard GSD, MIT, Strelka Moscow, MoMA PS1, Triple Canopy, Hanyang University Seoul, and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Her work has been exhibited and performed at Asia Culture Center, Singapore Art Museum, Art Dubai, Hangar Barcelona, and La Capella.

Cengiz Mengüç is a graphic designer and visual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Rotterdam. His current practice moves between commissioned art and design work, self initiated projects, side jobs, and working with friends. Cengiz is mixing (un)professional research praxis with design, programme-making, organising and self-publishing. In his work and projects, Cengiz explores different working methods and approaches to design and cultural production infused by everyday life. His design and advertising work within Turkish-Dutch communities —which started while working at his dad's döner kebab shop and helping him with branding – developed into an ongoing research into different migrant design cultures that are presented in the streets of Rotterdam as well as other cities in Europe.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Cengiz Mengüç), *WORKING Title Title HERE*, 2023
Single channel video, sound.
4 min 35 sec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lo Media Canvas M1
→ p.166

Yun Choi | b. 1989

Yun Choi captures scenes that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n absurd social climate with a focus on the banal yet otherworldly images, words, and behaviors that emerge as by-products or "residues" of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her artistic practice, she explores the underlying collective beliefs and sentiments embedded within these elements. Ultimately, she aims to dissolve conventional perspectives and disorient the narratives surrounding our world by employing trance-like, visceral monologues, bodily movements, and shapeshifting media and materials.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LUX, London, (2022); Doosan Gallery, Seoul and New York (2020); and Project Space, Art Sonje Center, Seoul (2017).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Bundeskunsthalle, Bonn (2022); MMCA, Gwacheon (2021); Asia Culture Center, Gwangju (2020);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2019); Art Sonje Center,

Seoul (2019); ARKO Art Center, Seoul (2019); Busan Biennale (2018); Pavilion Project at Gwangju Biennale (2018);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and Hite Collection, Seoul (2014), among others.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 Poetry Collection*, 2022
Single channel video, sound. 17 min
Commissioned by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Doosan Art Center.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1
→ p.102

Yun Choi, *Where the Heart Goes_ Night Walk*, 2023
Single channel video. 5 mins
Commissioned by the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Doosan Art Center.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1
→ p.102

Yun Choi, *Glass Partition (Bends and Slopes), Glass Partition (a Stain), Glass Partition (a Map That is Not a Map), Glass Partition (Dokkaebi Road), Glass Partition (Starry Worlds)*, 2023
Oil paint on glass, aluminum.
180 × 100 cm each (5 pieces)
Supported by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2
→ p.104

Yun Choi, *Bulletin Board (Rice and Pond)*, 2018-2020
Cotton flannel, aluminum-framed bulletin board, acrylic sign, rice plant, pin, tracing paper, epoxy, key, key chain, twine, artificial rat, clay mixed with oil. 150 × 90 cm; 120 × 80 cm; 100 × 100 cm each (2 pieces)
Courtesy of the artist
→ Seoul Museum of Art 3F S43
→ p.104

About Contributors

Kwon Lyoneun

Choreographer Kwon Lyoneun seeks to discover the true meaning of movement and the subjective body in social phenomena and structure.

At the 2015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s choreography LAB program, Kwon presented *Mom-meom-mum-mam*. Since then, the work has been further developed into *Glory*, and was performed at Danse Élargie in France in 2016 and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 2017. Kwon was selected for the dance category for 2019 Arco Partner, and released *You Are So Fine Wherever You Go*.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Seoul Museum of Art's 2020 exhibition performance *This Event* and presented *Dance Demands Rhythm (DDR)*, which explored new possibilities of dance through the dance simulation game Dance Dance Revolution.

Kwon majored in contemporary dance and creation at Hanyang University and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 choreographer, dancer and performer based in Seoul.

Seoul Community Radio | c. 2016

Independent Underground Radio. Made in Seoul. Established in 2016, Seoul Community Radio (SCR) is an online music broadcasting platform at the centre of Asia's fast-growing electronic music community. Since formation, the South Korea-based station has helped to inspire and nurture new DJ and artistic talent from home and abroad. Our goal to incubate fresh sounds and new faces has seen SCR co-create a regional network of like-minded radio stations and collaborate with some of the most forward-thinking brands across music, fashion and technology.. After nearly four years in our inaugural home, SCR recently opened Studio Two—a unique radio + bar concept space in Itaewon. Studio Two will for the first time allow access to the public for certain events and will serve as a culture centre for Seoul's diverse music communities, hosting live shows, pop up events, workshops and other artistic endeavours.

Andeath | b. 1979

Andeath carried out artistic activities that interpret and activate everyday elements such as environments, clothing, play, objects, and sounds in new ways. She worked as an art director for Ssamzie (2006-2009) and organized children's song tribute band *Boochoolaamaa* (2006-2012) and various forms of participatory performances in connection with *Dailycodi* (2006-2013), an archive of her daily outfits. Recently, she presented *Geologic Bakery* (2019-2021), which used bread baking as a method of tracking the formation process of mountains, as well as *Bread-Mountain-Star Expedition* (2020), a workshop for exploring the mountains of Seoul and asking questions about her surroundings.

Annie Jael Kwan

Annie Jael Kwan is an independent curator and researcher based in London. Her practice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contemporary art, cultural and pedagogical activism with an interest in archives, feminist, queer and alternative knowledge, collective relations, solidarity and spirituality. She is the Director of Something Human, a curatorial initiative that launched the largest Southeast Asia Performance Collection in Europe at the Live Art Development Agency in 2017, and leads Asia-Art-Activism (AAA), an interdisciplinary and intergenerational network of artists, curators, and academics investigating "Asia," "art," and "activism" in the UK. She is the founding council member of Asia Forum for the contemporary arts of Global Asias, which was co-presented with the Bagri Foundation during the opening of the 59th Venice Biennale, and will reoccur again in Venice 2024. She was invited to curate *Channelling* the Outset Studiomakers Corridor Commission featuring 18 prize winners at Frieze London 2023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ies of Outset Contemporary Art Fund and Frieze London. She has been appointed Curator of the Brent Biennial 2025, in north London, when she will also begin her postgraduate research as a techne scholar at CREAM (Centre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Arts and Media), University of Westminster.

Ong Jo-Lene | b. 1981

Jo-Lene Ong is a curator based in Amsterdam of Malaysian-Hokkien heritage. Her practice engages with counter-colonial ways of sensing, remembering, and organizing. Jo-Lene is pursuing a constellation of research on recovering erased histories and knowledge systems, and re-connecting with ancestors and ancestral knowledge. She is a program advisor for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and teaches theory at the Gerrit Rietveld Academie where she is also part of the Urgent Ecologies: Towards A More Sustainable Curriculum working group.

Her long-term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fear of foreign bodies—the tangled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tactics of dehumanizing enemies to justify violent oppression and capitalist human-centric narratives that allow exploitation of the non-human. This research is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undertaken during her residency in Delfina Foundation (2023) and while preparing for the Elsewheres Within Here exhibition in Framer Framed (2019).

크레딧
Credits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 서울역사박물관,
스페이스mm, 소공 스페이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3년 9월 21일 – 11월 19일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총괄
김희진
정소라 학예연구부장

전시교육 총괄
고원석
양옥금 전시과장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팀

레이첼 레이크스 예술감독
소피아 듀론 협력 큐레이터
권진 프로젝트 디렉터
김미영, 유건웅 행정 주무관
박시내, 이문석, 이미지,
이혜원, 정재현, 조한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송지영, 오주영 코디네이터

작가
구이도 야니토, 나타샤 톤테이,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 라야 마틴,
로-데프 필름팩토리(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윌슨),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미코 레베레자,
사노우 우마르, 사샤 리트빈체바&
그레임 안필드, 사샤 리트빈체바&
베니 바그너, 쉔신, 스테파니
제미슨,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아나 벨라 가이거, 아니말리
도메스티치, 아르차나 한데,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 엘레나
다미아니, 왕보, 유어 컴파니 네임
(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이끼바위쿠르르, 이재이,
이케조에 아키라, 전현선, 정소영,
제시 천, 주마나 에밀 아부드,
차학경, 찬나 호르비츠, 최윤,
최찬숙, 최태윤, 켄트 찬,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텐진 푼초그,
토크와세 다이슨, 파이어룰 달마,
펨커 헤러흐라번, 프랑소와 노체,
히메나 가리도-레카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애니 자엘 콴, 옹조린

프로그램 참여자
권령은, 김민아, 나스리카, 매튜 츄,
무니 페리, 비아트리스 글로우,
서양숙, 서울커뮤니티라디오,
신현진, 아니다 여 알리, 안데스,
영선 굴락, 오쿠이 라라, 이승희,
인도네시아 이주 가사노동자회,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선자,
조영주, 최영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유수경, 이진 학예연구사
이주영 코디네이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이규식 학예연구사
강수빈 코디네이터
이제현 코디네이터

고객홍보 총괄
봉만권 교육홍보과장

고객홍보
김정아, 김채하, 유수경
학예연구사
강붕수, 김서영, 윤수광, 장영은
주무관
임재욱, 조희진 코디네이터

홈페이지, 도슨팅앱 운영
김은영, 이문희 주무관

수집 연구 총괄
전소록 수집연구과장

수집
구혜림, 김서현,
유민경 학예연구사

행정 총괄 이영순 총무과장
시설 총괄 박지영, 이승철
시설과장
건축 신현성 팀장
기계 김동범 주무관
소방 이현섭 주무관
전기 최연식 주무관
통신 허정민 주무관
방호 이국한, 이두복, 이희동,
정인철, 채윤석 주무관
권은지, 이대경, 우병덕
공공안전관

운영과 홍보 (주)시월이앤씨
그래픽 디자인 배소현,
로라 리샤르, 플로리앙 프로마제,
뤼실 토팽 뮈니에 도움
전시 공간 조성 디자인본
미디어 장비 솔로몬,
만리아트메이커스
작품 운송과 설치 다산TNL
사진 및 영상 기록 글림워커스
번역 곽재은, 김하연, 문경원,
서울리딩룸, 신해경,
예스모어트랜스레이션, 이수진,
조응주
영문 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자막 편집 글림워커스
조명 하이라움
티저 영상 57스튜디오
인쇄 세걸음
전시 그래픽 시공 남이디자인
통역 조응주, 조용경, 서울리딩룸
전시만족도 조사 서던포스트

홍보 지원 MAG
후원업무지원 세마인 현선영 실장

작품 대여처
갤러리 기셀라 카피테인 쾰른,
고든 로비쇼 뉴욕, 그린 나프탈리
뉴욕, 리손 갤러리 뉴욕, 미사 신
갤러리 도쿄, 멘데스 우드 DM
상파울루, EAI 뉴욕, 그리고 개인
소장가 안드레아, 호세 올림피오
페레이라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Seoul Museum of Art,
SeMA Bunker,
Seoul Museum of History,
space mm, Sogong Space,
Seoullo Media Canvas

September 21
– November 19, 2023

Organized by
Seoul Museum of Art

Overall Supervisor
Heejin Kim, So-La Jung,
Directors of Curatorial Bureau

Curatorial Supervisor
Wonseok Koh, Okkum Yang,
Heads of Exhibition Division

Seoul Mediacity
Biennale Team

Rachael Rakes, Artistic Director
Sofía Dourron, Associate Curator
Jin Kwon, Project Director
Kim Mi Young, Yu Keun-ung,
Administration Officers
Hanul Cho, Hyewon Lee,
Jaehyun Jung, Miji Lee,
Moon-seok Yi, Sinae Park,
Assistant Curators
Jie-young Song,
Jooyoung Oh, Coordinators

Artists
Agustina Woodgate,
Akira Ikezoe, Animali Domestici,
Anna Bella Geiger, Anna Maria
Maiolino, Archana Hande,
Bo Wang, Chan Sook Choi,
Channa Horwitz, Christine
Howard Sandoval, Elena Damiani,
Femke Herregraven, Francois
Knoetze, Fyerool Darma,
Guido Yannitto, Hyunsun Jeon,

ikkibawiKrrr, Jaye Rhee, Jesse Chun, Jumana Emil Abboud, Kent Chan,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Mercedes Azpilicueta, Miko Revereza, Natasha Tontey, Nolan Oswald Dennis, Raya Martin, Sanou Oumar, 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Shen Xin, Soyoung Chung, Steffani Jemison, Taeyoon Choi, Tenzin Phuntsog, Theresa Hak Kyung Cha, Torkwase Dyson, Ximena Garrido-Lecca,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and Cengiz Mengüç), and Yun Choi

Programe Advisors
Annie Jael Kwan, Ong Jo-Lene

Program Participants
Aletheia Shin, Andeath, Anida Yoeu Ali, Beatrice Glow,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WWA), Indonesian Migrant Domestic Workers Association (PERTIMIG), Kwon Lyoneun, Matthew Chew, Mina Kim, Mooni Perry, Nasrikah, National House Managers Cooperative (NHMC), Okui Lala, Sara Sejin Chang (Sara van der Heide), Seonja Jeon, Seoul Community Radio, Seunghee Lee, Working Women Academy, Yang Suk Seo, Yong Sun Gullach, Youngjoo Cho, and Youngsook Choi

Docent Program Management
Jin Lee, Yu Sukyung, Curators
Jooyoung Lee, Coordinator

Nanji Residency
Gyusik Lee, Curator
Subin Kang, Jehyun Lee, Coordinators

Public Affairs & Communications Supervisor
Bong Mankwon, Head of Public Affairs & Communications Division
Public Affairs & Communications
Kim ChaeHa, Yu Sukyung, Curators
Kang Boong Soo, Kim Seoyoung, Yun Sukwang, Rheem Jaewook, Cho Heejin
Coordinators
Homepage and Docent app Management
Kim Eunyoung, Lee Moonhee, Officers

Collection & Research Supervisor
Solok Jeon, Head of Collection & Research Division Collection
Koo Hye-rim, Minkyung Yoo, Seo Hyun Kim, Curators

Administration Supervisor
Young Soon Lee, Head of Administration Division
Facility Supervisor
Lee Seung Chul, Park Ji Yeong
Heads of Facility Division
Architecture
Shin Hyeon Seong, Officer
Machinery
Kim Dong Bum, Officer
Fire Prevention
Lee Hyeonseop, Officer
Electricity
Yeonsik Choi, Officer
Communication
Heo Jung Min, Officer
Security
Lee Kook Han, Lee Doo Bok, Lee Hee Dong, Jeong Incheol, Chae Yun Seok, Officers
Kwon Eunji, Lee Daegyung, Woo Byoungdeok, Securities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s SIWALL INC
Graphic Design
So-Hyun Bae, Laura Richard, Florian Fromager, Assistant Lucile Taupin Munier
Exhibition Design
design BORNE
Media Installation
Manri Art Makers, Solomon Art Transport & Installation
Dasan TNL
Photo & Video Documentation
GLIMWORKERS
Translation
Eungjoo Cho, Hayun Kim, Haekyong Shin, Jaeun Kwak, Seoul Reading Room, Sujin Lee, Won Moon, Yes More Translation
English Proofreading
Andy St. Louis
Video Subtitle Editing
GLIMWORKERS
Lighting
HiRAUM
Teaser
57STUDIO
Printing
Seguleum
Publicity Material
Namiad co., Ltd.
Interpretation
Eungjoo Cho, Helen Cho, Seoul Reading Room
Visitors Survey SOUTHERN POST

PR Support MAG
SeMA人[IN] Manager
Sun Young Hyun

Artworks
Galerie Gisela Capitain Köln, Gordon Robichaux New York, Greene Naftali New York, Lisson Gallery New York, Misa Shin Gallery Tokyo, Mendes Wood DM São Paulo, EAI New York, and private collectors Andréa and José Olympio Pereira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음성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lease download the SeMA Docenting application for smart devices from the App Store or Google Play Store for free and use the Audio Guide service.

구글 플레이스토어
Google Play Store

애플 앱스토어
Apple App Store

후원과 협력
Acknowledgements

서울시립미술관 기업 후원
하나금융그룹
에르메스 코리아
한화생명

서울시립미술관 협력
서울역사박물관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한국관광공사

후원
몬드리안재단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브라질 외교부 문화원
주한 브라질 대사관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

협찬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콜드스프링

문화 협력
2023 미술주간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제문화예술노동연합
텐트하우스
(재)현담문고

SeMA Cooperation Supports
Hana Financial Group
Hermès Korea
Hanwha Life

SeMA Collaboration
Frieze Seoul
Kiaf SEOUL
Korea Tourism Organization
Seoul Museum of History

Supports
British Council
Instituto Guimarães Rosa
Embassy of Brazil in Seoul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Mondriaan Fund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Sponsors
Cold Spring
LOTTE DEPARTMENT STORE
Embassy of Italy in Seoul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Samsung Electronics

Cultural Collaboration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Cultural Workers in Solidarity with Ukraine (AWC)
EXiS
Hyundammungo Foundation
2023 KOREA ART WEEK
Tenthaus

이것 THIS TOO, 역시 지도 IS A MAP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안내 책자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글,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로라 리샤르, 배소현
디자인 도움 뤼실 토팽 뮈니에
번역 김하연, 문경원, 이수진
영어 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인쇄 제책 세걸음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 서울시립미술관,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THIS TOO, IS A MAP: A GUIDEBOOK

Publication date September 2023
Publisher Eunju Choi
Published by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Korea
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Text and Editing Seoul Mediacity Biennale
Design So-Hyun Bae, Laura Richard
Design Assistant Lucile Taupin Munier
Translation Hayun Kim, Sujin Lee, Won Moon
English Proofreading Andy St. Louis
Printing and binded by Seguleum

Copyright of all texts and images printed
herein belongs to their respective copyright
holder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Seoul Museum of Art.

© 2023, Seoul Museum of Art,
copyright holders

ISBN
979-11-93372-01-2
979-11-93372-00-5 (세트)

Printed in Korea

지상 SMB12
GROUND LEVEL SMB12

1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2 더레퍼런스 SeMA The Reference SeMA
3 라운드앤드 Roundnd
4 정동길 Jeongdong-gil
5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6 돈의문역사관 Donuimun History Museum
7 서울로미디어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비매품/무료
0460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팀
TEL 02.2124.8800 WEB mediacityseoul.kr/2023

9 791193 372012
ISBN 979-11-93372-01-2
ISBN 979-11-93372-00-5 (세트)